

# 보인다! 5.0

## 면접지도 길라잡이

2024  
보인다 시리즈  
보인다.com

보인다!	1.0	고등학교 과목 안내서
보인다!	2.0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진학 설계
보인다!	3.0	한눈에 보는 수시전형
보인다!	4.0	학생부종합전형 사례집
보인다!	5.0	면접지도 길라잡이
보인다!	6.0	한눈에 보는 정시전형
보인다!	7.0	고등학교 과목·전공 안내 모바일
보인다!	8.0	학부모 진로·진학Q&A 100선
보인다!	9.0	전공·적성 개발 길라잡이
보인다!	10.0	진로상담 사례집



# 대학별 목차

ㄱ

가천대학교(메디컬)	1
가천대학교(성남)	5
가톨릭대학교(성심)	26
강원대학교(춘천)	27
건국대학교(글로벌)	28
건국대학교(서울)	34
경기대학교(서울)	45
경기대학교(수원)	47
경상국립대학교	50
경희대학교(국제)	52
경희대학교(서울)	60
고려대학교(서울)	67
고려대학교(세종)	73
공군사관학교	77
공주교육대학교	79
공주대학교(공주)	86
광운대학교	105
광주과학기술원	107
국군간호사관학교	109
국민대학교	110
극동대학교	113

ㄴ

단국대학교(죽전)	114
대전대학교	115
동국대학교(서울)	123
동국대학교(고양)	138
동덕여자대학교	139
동의대학교	140

ㄷ

명지대학교(서울)	141
목원대학교	143

ㄹ

배재대학교	144
-------	-----

ㅁ

삼육대학교	14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7
서울대학교	156
서울시립대학교	177
서울여자대학교	190
서원대학교	193
성신여자대학교	196
세종대학교	202
숙명여자대학교	203
순천향대학교	212
송실대학교	214



아주대학교	226
연세대학교(서울)	231
우송대학교	233
원광대학교	237
엘지대학교(성남)	244
이화여자대학교	247
인천대학교	258
인하대학교	259



전남대학교(광주)	267
전북대학교(전주)	270
중부대학교(금산)	275
중앙대학교(서울)	278
중앙대학교(안성)	283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85
청주교육대학교	286
청주대학교	291
충남대학교	294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30
침례신학대학교	331



포항공과대학교	332
---------	-----



한국교원대학교	334
한국교통대학교(의왕)	339
한국교통대학교(충주)	340
한국예술종합학교	342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344
한국항공대학교	348
한남대학교	349
한동대학교	350
한서대학교	351
호서대학교(아산)	352
호원대학교(군산)	353
홍익대학교(서울)	354
홍익대학교(세종)	359



# 학과별 목차

## 인문·어문·경상·예체능 계열

경영 관련 학과	6, 34, 60, 67, 68, 190, 248, 278, 279, 296
경제 관련 학과	35, 123, 203, 205, 270
경찰행정학과	8
공공안전학부	47
공공인재학부	281
공군사관학교	77
관광경영학과	86
광고홍보학과	124
국군간호사관학교	109
국어국문학과	126, 214
국제인문사회학부	271
국토안보학전공	300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346
글로벌어문학부	48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외식창업전공	233
글로벌한국학과	146
도시·자치융합학과	304
도시사회학과	177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90
동화·한국어문화학과	28
디자인컨버전스학부	361
문예창작과	283
문헌정보학과	258
문화예술경영학과	196
문화콘텐츠학과	36, 226
법학부	198
부동산학과	38
사학과	272
사회복지학과	93, 118, 218

## 인문·어문·경상·예체능 계열

사회학과	62, 128, 282
스클랜튼대학 국제학부	249
시각디자인학과	63
심리학과	16, 17, 314
아동교육상담학과	119
아태물류학과	262
언론, 영상, 미디어 관련 학과	45, 70, 105, 193, 227, 342, 344
영어영문학과	71, 137
예술학과	355
외국어계열	19, 21
융합콘텐츠창작전공	285
응용통계학과	25
의료경영학과	292, 293
의류, 패션 관련 학과	57, 97, 99, 194, 200
인문사회과학부	331
자율전공학부	64, 183
정치외교학부	171
조경학과	187
중어중문학과	139, 274, 321
지리학과	66
철학과	172, 174, 324, 326, 345
청소년지도학과	141
테슬(TESL)전공	207
판화과	357
평생교육학과	222
항공관광학과	351
행정학과	103, 189, 208, 232
홍보광고학과	210

# 학과별 목차

## 자연·공학계열

건축 관련 학과	114, 147, 247, 349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359
금속조형디자인과	354
금융수학과	9
기계, 메카트로닉스	231, 308
대기과학과	88
데이터정보물리학과	89
동물보건복지학과	352
동물자원과학부	306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259
물리학과	158, 215, 216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26
바이오헬스융합학과	191
보건행정학과	92
산림환경시스템학과	110
산업공학과	130, 132, 160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	5, 72, 152, 181, 213, 319
수리과학부	164
수학과	179, 251, 310
스마트ICT공학과	151
스마트팜과학과	52
시스템생명공학과	284
식품산업 관련 학과	135, 244
식품생명공학과	15

## 자연·공학계열

식품영양학과	260, 312
에너지공학과	37, 149, 166
우주항공드론공학부(우주항공공학전공)	202
원예생명공학과	269
유기재료공학과	316, 317
유전생명공학과	54
응용수학과	55
의료정보학과	96
의생명공학과	41, 138
이공계 기초교육학부	107, 108, 332
자율전공학부	340, 350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320
전기, 전자, 반도체 관련 학과	11, 13, 59, 112, 133, 169, 185, 219, 221, 228, 230, 348
전기정보공학과	154
천문우주과학과	323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339
토목공학과	327
통계학과	254
항공우주공학과	265
해양과학과	266
화학, 신소재공학과	43, 256, 313
화학과	192, 224, 329
화학생물공학부	176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257

# 학과별 목차

## 사범 계열

건설공학교육학과	295
교육학과	87, 298
국어교육과	156
기술교육과	301, 302
불어교육과	334
생물교육과	162, 335
수학교육과	27, 39, 94, 143
역사교육과	168, 250
영어교육과	263, 337
유아교육과	23, 30, 144, 145, 234, 252
윤리교육과	50, 95
지리교육과	100, 101
초등교육과	79, 80, 81, 82, 83, 84, 85, 286, 288, 289
초등특수교육전공	113
컴퓨터교육과	102
화학공학교육과	328
환경교육과	104



## 의학·보건 계열

간호학과	1, 3, 115, 116, 237, 238, 245, 275, 291, 294, 330, 353
물리치료학과	117, 276
방사선학과	140
약학과	73, 74, 76, 267
의예과	32, 33, 239, 241, 242
임상병리학과	120, 121, 212
작업치료학과	236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간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농어촌(종합)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초반 긴장을 풀 만한 가벼운 질문을 주심.</li> <li>▪ 압박 면접 분위기는 아님.</li> <li>▪ 면접 내내 미소 지으면서 지원자 눈을 계속 쳐다보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b></p> <p>A: 환자가 병원에서 홀로 지내야 해서 의지될 사람이 없을 때, 가천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애국, 봉사, 박애의 정신으로 환자에게 제 손길이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고자 합니다.</p>				
<p><b>Q2: 왜 다른 학교가 아닌 가천대학교에 지원했나요?</b></p> <p>A: 영어 활동 중에 국경없는 의사회를 탐구했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에서 종교, 인종 등에 관계없이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봉사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천대학교의 교육이념 중 봉사 정신을 가천길병원에서 실현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3: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당뇨병에 대해 탐구한 게 있는데 설명해주세요.</b></p> <p>A: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전혀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합니다.</p>				
<p><b>Q4: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b></p> <p>A: 우리 몸의 혈당이 증가하면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p>				
<p><b>Q5: 생기부에서 존엄한 죽음과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지원자가 생각하는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가요?</b></p> <p>A: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와 환자의 가족 모두 마지막 순간이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이 아니라 그동안 경험했던 행복한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p><b>Q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b></p> <p>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마지막에 본인이 표현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등록 기관에 가서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말기 암환자 등 임종기간에 놓인 환자가 본인의 의향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p>				
<p><b>Q7: 수학과제탐구에서 혈류 속도와 혈류량에 대한 탐구를 9회에 걸쳐 진행했다 했는데 설명해주세요.</b></p> <p>A: 푸아죄유는 혈액이 혈관을 따라 흐를 때, 저항은 혈관의 반지름이 클수록 작아진다는 점을 이용해 저항에 관한 식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반지름을 미분하면 반지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으므로 혈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혈류량은 혈관의 반지름의 네제곱에 비례하므로 혈관의 단면적을 구해 적분하면 알 수 있습니다.</p>				



**Q8: 과학과제연구에서 토양 속 균주에 대해 실험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했다 하였는데 어떤 실험이었나요?**

A: 토양 속에 존재하는 유익균인 아스펠리우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말토오스, 갈락토오스, 포도당을 이용해 배지를 만들고 그 위에 토양현탁액을 부려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원했던 아스펠리우스 균이 아닌 아스펠리우스 계열의 다른 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Q9: 나중에 어느 곳에서 일하고 싶나요?**

A: 아직 어느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첫째, 환자 중심 간호에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더하겠습니다. 둘째, 수동적인 자세는 빼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돌보겠습니다. 셋째, 열정을 곱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간호사는 무엇보다 환자와의 친밀감 형성과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가천대학교에 입학하여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실제'라는 과목을 수강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간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지역균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15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자분은 안내사항만 말씀하시고 질문 안하심</li> <li>▪ 면접분위기는 생각했던 것 만큼 딱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긴장됐음</li> <li>▪ 대기하는 곳에서 8명정도 같이 있다가 면접실로 한명씩 들어감.</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b>				
A: 저는 꿈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로를 확정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방황도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정하게 된 꿈은 자기가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말로 전할 수 없는 동물들을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 3학년 때 반장활동을 하며 친구들을 한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내가 치료하고 보살피고 싶은 대상이 사람이어도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고 간호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가천대여야 하는 이유?</b>				
A: 가천대학교의 교육이념이 밖에 봉사 애국으로 알고있음 그런데 나의 가치관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봉사하고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토대와 길을 잘 닦아주자였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과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천대학교에 지원하게 됨(미리 교육이념 외워감)				
<b>Q3: 캠프에서 했던 탐구들 간호사에 적용시킨다면?</b>				
A: 캠프에서 진행했던 활동이 강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ct를 찍어보면 정상과 다른 뇌구조를 갖게 된다고 함 그래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치매에 걸린 강아지의 여러가지 뇌사진을 학습시켜놓으면 인간이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치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하는 의료 ai를 계획했었는데 만약 인간도 치매에 걸렸을 때 정상과 다른 뇌모양이 형성된다면 여러가지 사례들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의사가 개입하지 않고 간호사의 판단만으로도 빠른 질병의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이 부분도 약간 준비했었음)				
<b>Q4: 생명과학실험선생님께서 생기부를 잘써줬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실험</b>				
A: 갈락토스 수용액과 효모액을 섞었을 때 알콜발효가 잘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었는데 처음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음. 그래서 빠르게 상황판단을 하고 했던 실험을 복기해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냄. 관이 넘칠까봐 정해진 효모액을 다 넣지 않았다는 점과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재실험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잘 나와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				
<b>Q5: 간호사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소아병동 간호사</b>				
A: 자신이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를 치료하고 돌보는 소아병동의 간호사가 되고 싶다.				
<b>Q5-1: 소아병동 간호사가 지녀야 할 자세</b>				
A: 최근 유튜브에서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 영상에서 간호사님께서 수술이 끝난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다정한 말로 인사해주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과 꼼꼼한 케어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소아병동 간호사는 영상 속의 간호사처럼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환자에게 사랑을				



쏟으며 꼼꼼한 케어까지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6: 생명과학과 수의사에 관련해 많은 탐구를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점(질문이 너무 어려웠나?라고 하심)**

A: 지금까지 했던 탐구들을 생각해보면 생명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기능하는지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윤리적인 가치까지 생명체 전반에 대해 탐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당황해서 얼렁뚱땅 답변함)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지금까지 제 말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천대 간호학과에 진학 후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지금 배운 경청의 자세와 전문적인 간호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잘 보살피고 치료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AI · 소프트웨어학부(인공지능전공)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가천AI·SW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입실 → 신분 확인 및 번호표 배부 → (안내자 인솔) 면접실 앞 대기석 이동 → 면접실 이동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기록부에서 전공 관련 탐구 내용에 대해 예상보다 많이 질문했음.</li> <li>전공 관련 탐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3학년 창체 진로) 퍼셉트론에 대해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과 느낀점은?**

A: 퍼셉트론은 뇌의 학습 기능을 모델화한 알고리즘입니다. 퍼셉트론은 여러 신호를 입력받아 하나의 신호로 출력하고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D, NAND, OR 세 가지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인공지능과 파이썬'과 관련된 책을 읽고 퍼셉트론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다중 퍼셉트론으로 XOR 값을 출력해내는 과정이 인상깊었습니다. 저는 AND, OR, NAND를 활용하여 파이썬으로 XOR 함수 직접 만들어보고 그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중 퍼셉트론으로 XOR 함수를 푸는 과정을 직접 설명해주며 지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Q2: (2학년)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배웠는데 순열과 조합의 의미는?**

A: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순서에 맞게 나열할 수 있는 가지 수를 의미합니다.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룹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그룹의 가지 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순열과 달리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뽑으면 끝인 반면에 순열은 같은 그룹 안에서도 어떤 순서로 나열하는가에 따라 가지 수가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를 때 메뉴판에서 3가지의 요리를 단순히 고를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면, 순열은 3가지 요리가 나오는 순서까지도 결정하는 방법의 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3: (3학년)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A: 블록체인은 블록을 연결했다는 의미로,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블록은 일정 시간 동안 거래 내역이고, 승인된 거래 내용이 담긴 블록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됩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입니다.

**Q4: 해시함수가 무엇인가?**

A: 임의의 길이를 갖는 데이터를 데이터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크기의 값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Q5. 3학년때 반장을 했었는데 자신의 어떤점 때문에 반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나요?**

A: 저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2학년 때 직접 친구들을 섭외해 밴드부를 만들었고, 밴드 부장을 맡아 학년 말 학교 축제에서도 공연 기회를 만들었으며, 여러 갈등 상황에서도 동아리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 화합하도록 이끌어서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저의 자질을 지켜본 친구들 덕분에 반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천대학교	학과	경영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가천바람개비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약 8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8명 한 조로 한 명당 8분가량 면접 봄 (8명이 한 명씩 나가는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꼬리 질문, 압박 질문 많음. 가운데 계신 분이 전공 관련 교수님으로 추정</li> <li>▪ 생기부를 외운다고 생각하지말고 생기부 내용이 아닌 학습내용 자체를 물을 수 있으니 공부하자.</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자기소개x 지원동기x)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유의미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A: '학생회 학교 밖 매점 제휴사업'입니다. 먼저 교내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상점을 조사하고 그 상점을 위주로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이 상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가능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학생 입장에서는 평소에 선호하는 상점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활동이 유의미했던 이유는 제가 학생 신분임에도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때문입니다. 당시 코로나로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학교와 상점의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학교들이 저의 사업을 벤치마킹했고, 사업은 다른 학교 상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저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시 전체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보고 사회적 기업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경영학이 문제 인식과 해결의 실질적 연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 Q2: 제휴사업을 힘-의존이론과 쌍무적억제이론으로 재분석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재분석했는지 설명해주세요.

A: 힘-의존이론은 ~ 이고 쌍무적억제이론은 ~입니다. 상호간 계약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다룬 이론이기 때문에 제휴계약을 맺는 과정을 힘-의존 이론을 사용해서는 ~~하도록 쌍무적억제이론을 통해서는 ~~~이러한 재분석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 Q3: 수학에 게임이론이 있는데 설명 가능할까요

A: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많이들 알고 계실거라 믿어 기업게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기업게임은 기업끼리 상호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기업이 어떤 고가전략과 저가 전략을 선택하냐에 따라 시장 전체의 보수가 올라가거나 줄어든다. 하지만 각 기업은 타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몰라 본인의 기업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이론입니다.

#### Q4: 경제 관련 활동이 많은데 경제 관련 키워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첫 번째 기준금리 누가 올리나요?

A: 중앙은행이라고 답함. 한국은행이었음. 그래서 혹시나 틀렸다면 이러한 지식을 보완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공부한다고 함.

#### Q4-1: 한국의 금리는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A: 미국 빅스텝 베이비스텝 단행하면서 한국이 이 경향을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 Q4-2: 미국이 빅스텝과 베이비스텝을 단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A: 미국의 높은 국가부채비율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야하고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어 금리가 계속 오른다.



**Q4-3: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따라야 하는가?**

A: 이러한 경향을 따르지 않은 대표적 예시가 있다. 옆 국가인 일본이다. 일본은 세계적 경향과 다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현재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를 보아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이 상당한 국가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변화 동향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5: 가천대학교 몇 지망인가? 솔직하게 말하셔도 된다.**

A: 1지망이다 다른 학교 어디 쓰는지 말할 수 있다. 진심이다. 작년도 11월 달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창업부인 가천대학교 코코네스쿨 시스템에 반했다. 이 지원제도 아래 가천대학교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

**Q6: 마지막으로 할 말(10초 내)**

A: 앞에 서 있는 동안 너무 심장이 빠르게 뛰어서 이게 그냥 떨림인지 설렘인지 모호했다. 이렇게 면접을 끝나치고 나서 보니 설렘이었던 것 같다. 지금도 설레고 가천대학교 입학할 하며 이 기분 다시 느껴보고 싶다 면접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천대학교		학과	경찰행정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가천바람개비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교실이 커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인사하는 타이밍이 애매함</li> <li>▪ 꼬리질문이 많았음.</li> <li>▪ 긴장하지 말라하며 매우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해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2학년 진로활동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회복적 경찰활동이 무엇인가요?</b>  A: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입니다. 단순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 간 대화로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 적합합니다.</p> <p><b>Q2: 진행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b>  A: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면담 후 같이 만나서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합니다. 그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 회복과 약속 이행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례이자 빈번히 이루어지는 예로는 층간 소음이 있습니다.</p> <p><b>Q3: 3학년 확률과 통계에서 강력 범죄 별 재범 시기를 비교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 그니까 범죄별 재범 시기에 차이가 있나?</b>  A: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정 시기 없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활동을 3학년 자율활동에서 진행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시설의 문제점과 방향 등에 대해 탐구했습니다.</p> <p><b>Q4: 1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자지 관리가 철저하여 지각, 조퇴, 결석이 단 한 번도 없이 개근하고”라고 쓰여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의 출결사항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해보세요.</b>  A: 두 입장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반대를 선택하겠습니다. 해당 학생의 상황을 모르고 단순히 지각과 결석에 적힌 숫자만을 보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각이나 결석 등이 있는 경우 한 번 정도는 그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서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서 질의 후 가산점 또는 불이익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금융수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가천바람개비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 자신의 차례 이전에 문앞에서 대기 후 면접실로 이동.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 들어가기 전에 건물 안에서 1층과 2층 줄을 서서 잠시 대기하는데 그때 화장실 가는 것이 좋음.</li> <li>▪ 일정 시간이 되어야 자신이 배정받은 시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li> <li>▪ 대기실에 들어가면 조용해서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이니까 물은 챙겨가는 것이 좋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가천대 면접보러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면접시작할게요.</b></p> <p><b>Q2: 지원동기</b> A: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분석에 관심~.</p> <p><b>Q2-1: 지원동기에서 데이터분석가를 희망하면 통계학과의 더 맞지 않음지.</b></p> <p><b>Q2-2: 컴퓨터랑 수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컴퓨터 공학은..</b> A: (대답하기전에 면접위원분이 수학에 대한 학습의지가 있는거죠? 하고 넘어가심)</p> <p><b>Q3: 가천대에 왜 오고싶은지</b></p> <p><b>Q3-1: 특히 어떤 과목을 배우고 싶은지</b> A: 1,2학년때에는 미적분학, 선형대수 등과 같은 수업을 듣고 3,4학년에는 금융공학, 금융IT프로그래밍과 같은 과목을 학습하고 싶습니다. (잘조사해왔네요)</p> <p><b>Q4: 데이터분석에 대해 구체화하여 생각해 본적 있는지</b> A: 기하시간에 탐구한 토폴로지분석을 은행에 접목하는 것 대답 (구체적으로 생각해본거 같네요 허허)</p> <p><b>Q4-1: 토폴로지 데이터분석이 뭘까요?</b> A: 데이터의 형태와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술로~</p> <p><b>Q4-2: 생기부에 적혀있는 토폴로지 데이터분석 사례에 대해 말해보세요.</b> A: 어떤 한 영화사에서 ~</p> <p><b>Q5: 수학2 시간에 적분에 대한 조사했던데 이상적분과 구분구적법의 차이</b> A: 당시 정적분을 탐구하면서 르베그적분을 발견하였다고 말함.(그럼 르베그적분이 뭐냐고 물어보심, 르베그 정의 말하자 충분하다 하고 넘어감.)</p> <p><b>Q6: 물리학 논문 탐구에서 논문을 3편 읽었던데..</b> A: 대답. (논문 어디서 보냐시길래 학교에서는 디비피아를 제공해주어서 그곳에서 논문을 봤다고 말함)</p>				



**Q7: 원○○○어디에서의 싸인 코싸인**

A: (대답을 못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나 보네요 라고 하셔서 네..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Q7-1: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싸인코사인을 설명해보세요**

A. (빗변이 생각이 안나고 어렵게 생각하다가 "직각을 기준으로.."하고 대답못함)

**Q8: 마지막으로 '수학으로 생각하기'라는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A: 대답

**Q9: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말 있으면 해주세요.**

A: 대답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반도체설계학과
<b>전형유형</b>		실기/실적위주	<b>전 형 명</b>	조기취업형계약학과
<b>면접</b>	<b>면접 시간</b>	8분	<b>면접위원 수</b>	3명(1인 해당 회사 임원)
<b>면접</b>	<b>면접 절차</b>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앞사람 면접때 고사장앞에서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대기실에서 다른 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li> <li>▪ 대기 시간 동안 자소서나 생기부, 책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사용 못 함.</li> <li>▪ 자기 서류에 전공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꼭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가면 좋을 거 같음.</li> <li>▪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고 고사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김</li> <li>▪ (추측)분위기로 보아 회사에 다니는 해당 학과 학생 한 명이 오신 것 같음</li> <li>▪ (추측)교수님이 가운데 인사담당자가 양옆에 계심</li> <li>▪ 밖에서 노크하면 마무리 하려하고 교수님께서 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해주세요</b>				
<p>A: 안녕하세요,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이름)입니다.</p> <p>저는 1학년 때 반장을 했었습니다. 그 때 갑작스럽게 자율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때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생기부에 기재될 내용이 있도록 활동을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토론을 추천 드렸고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세계 시장동향에 발빠르게 대처하는데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중 4차 산업 혁명 이야기에서 반도체가 유망하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게임을 하며 설계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후 우연히 이 학과를 알게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중에 원거리 무선 충전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b>Q2: 반도체 설계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b>				
<p>A: 아까 말씀 드렸드시피 토론을 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계산기를 설계해보며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p>				
<b>Q3: 그러면 토론을 하지 않았다면 반도체를 좋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었겠네요?</b>				
<p>A: 제가 게임을 통해 접하면서 흥미를 느끼기도 하였고 물리수업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라서 토론을 하지 않았어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p>				
<b>Q4: 000를 가지고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리가 뭐예요?)</b>				
<p>A: (얼버무림)000가 뭔지 모르는데 혹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pnp반도체를 000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가지고 어떻게 계산기를 만들었죠?) 곱하기와 나누기는 안 되는 간단한 계산기 였습니다. 우선 10진법에서 2진법으로 숫자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전원이 켜진 것을 1, 꺼진 것을 0이라고 할 때 2 더하기 2를 예시로든다면 10과 10을 더합니다, 1과1이 더해지면 다음칸에 1을 표시하고 1과 0이면 해당 칸에 1을 0과 0을 더하면 해당칸에 0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p>				
<b>Q5: 자신의 성격에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세요,</b>				
<p>A: 제가 생각하는 제장점은 친화력입니다, 리더활동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친화력이 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점은 쉽게 기가 빨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활동적인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기가 빨리곤 합니다, (웃으시며 친화력이 좋는데 쉽게 기가 빨리면 안 되는데)</p>				
<b>Q6: 굳이 조기취업형계약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b>				
<p>A: 첫 번째는 학업과 일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며 학비를 충당할</p>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Q7: 뭐 하나에 몰두해 본 적 있나요?**

A : 아직까지 무언가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몰두해 본 적은 없습니다.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초정도 해보세요.**

A: 이학과가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힘들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허락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반도체 · 전자공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가천바람개비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체감 9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대기, 면접실 앞 대기,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 고사장 건물 들어가서 안내 따라 빈 강의실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종이보다보면 복도에서 같은 타임 사람들끼리 막 모으셔서 밑층으로 내려감 내려가다가 같은 학과끼리 분류하셔서 같은 방으로 넣으심(본인은 8명이었음) 여기서부터 폰 전원끄고 주의,안내 사항 듣고 번호표를 붙이라고 나누어주시는데 번호 순서대로 면접보게 됨
- 대기하면서 설명해주시는데 면접관님들이 답변 들으시다가 이해되시면 미리 끊을 수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심
- 면접대기실에서 설명들은건데 면접후기 면접끝나고 바로 인터넷같은 곳에 올리면 다른 경쟁자들이 그거 보고 본인들만 손해볼 수 있으니 면접 다 끝나고 후배들을 위해 나중에 면접후기 올리는게 좋겠다고 설명해주심 그러니 자기 면접 바로 전까지 인터넷(ex. 스코렐)에 면접후기가 왜 안올라오지.. 하면서 긴장하지 말것
- 면접관분들께서 3명이라 그런지 질문들어오는 속도와 그에 따른 압박감이 장난 아님 긴장하고 가는게 좋을듯
- 작년이나 재작년 면접 후기를 보면 긴장 풀어주시는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요? ㅎㅎ' 질문같은거 꼭 하시고 면접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없어서 좀 당황함
- 왼쪽에 계시는 분은 엄청 인자하셨고 중간분은 인상쓰시고(본인이 느끼기에) 압박질문도 거의 하셨음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무표정 평범한 분이라 느꼈음
- 뭐가됐든 면접은 자신감이니 눈 똑바로 뜨고 무서운 분이라도 잘 눈 마주치면서 답하는게 좋을듯 차피 면접관님들 다음 질문 생각하시느라 반쯤은 책상보고 생기부 보고 계시니 그냥 냅다 쳐다보면서(주로 질문해주신 분 위로 답변할때 쳐다보기) 자신감있게 답변하기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20초 내로 설명해보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물리학, 미적분 같은 전공은 물론, 국어나 사회 같은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의 모든 배움을 헛되지 날리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을 전공인 전자관련 분야에서도 활용하여 특정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오픈월드 탐험형 고사양 게임을 즐겨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을 위해 컴퓨터나 핸드폰의 성능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RTX시리즈 같은 GPU, 즉 시스템 반도체를 알아보며 접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반도체에 대해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심화된 연구를 하여 반도체중에서도 특히 AP부분을 더 발전시켜보고싶다는 생각에 반도체.전자공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20초 내로 하라고 하셨지만 최대한 어필하겠다고

생각하여 시간 생각안하고 그냥 답변함.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각각 따로 준비했지만 그냥 즉석에서 중요해보이는 부분 뽑아서 잘 버무리서 답변드림)

**Q2: 졸업후에 최종진로가 뭐예요?**

A: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핸드폰이나 패드에 쓰이는 AP개발입니다.

**Q3: GPU와 CPU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이때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로 잘못이해하고 설명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GPU는 간단한 일은 한번에 여러번 처리할 수 있으나 CPU는 복잡한 연산을 한번에 한가지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캠프으로 고급물리학 들었네요..? 전기용량이 뭔지 설명해보세요**

A: 전기용량은 축전기에서 얼마나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Q5: 동아리 HCL..?HCL..? 염산 동아리? (동아리 이름 뜻을 궁금해하신듯 하셨음)**

A: (2학년때 한 화학동아리 이름에 학교이름이 일부 포함되어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려 했는데 당황해서 바보같이 말끝을 흐려버림)아 그건 학교이름..(교수님이 아 그럼 말하면 안되지 하고 바로 끊으심)

**Q6: 그럼 HCL동아리에서 학생이 한 역할은 뭐예요?**

A: 저는 화학 동아리 내에서도 생명과학 조의 조장을 맡아 여러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여 조를 이끌었습니다.

**Q7: 어려운점은 없었어요?**

A: 기존에 있던 실험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새롭게 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8: 조원하고 어려운 점 같은건?**

A: 아 실험을 재구성하다보니 이해하지 못하고 실험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장으로서는 조원의 참여를 독려해주기 위해 동아리 시간외 반으로 찾아가 실험 설명을 해주고 참여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면접관님들이 드디어 원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듯이 으음 하심)

**Q9: 벡터가 왜 자연의 힘의 균형을 설명하는 훌륭한 도구죠? (생기부에 적힌 그대로 질문하심)**

A: 당황하다가 생기부에 적혀있는 대로 물방울의 표면장력 이야기함

**Q10: 알짜힘을 벡터로 설명할 수 있어요?**

A: 나무토막 생각하면서 힘과 반대방향, 상쇄 이야기를 횡설수설 하니깐 중간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심

**Q11: 미적분 에세이에서 면저항 탐구했는데 여기서 적분을 어떻게 사용했죠?**

A: 반도체 도핑과정을 거치면서 도핑은 모든 부분에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 도핑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적분을 통해 확인한 다음 평균내어 면저항을 확인합니다.

**Q12: 터널링현상을 제너항복과 연결지어 설명해보세요**

A: 제너항복은 고동도로 도핑된 반도체에 역바이어스 전압을 걸게되면 에너지 밴드가 급격히 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가 느끼는 공핍층의 두께가 줄어들어 전자가 일정한 확률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넘어갑니다.

**Q13: 왜 역전압을 걸면 에너지 밴드가 휘어지는지 알아요?**

A: (도핑을 고농도로 한 상태에서 역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P타입쪽에는 - 전압이 인가되어 에너지 밴드가 위쪽으로 올라라게 되고 N타입쪽에는 +전압이 인가되어 에너지 밴드가 내려가게 되어 에너지 밴드가 휘어지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는데 헛갈려서 그냥 답변 안하는게 낫다고 판단함) 잘 모르겠습니다!

**Q14: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어요?**

A: 저는 AP개발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표와 꿈을 가진 이상 그것을 성취하려 계속 노력할것이고 발전해나갈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보일 수 있으나 졸업할때는 AP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구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되어있을거라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면접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입학 전까지 확실히 공부하고 복습해오겠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오늘 면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식품생명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가천바람개비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7~8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입실 → 주의사항 공지 →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사람당 10분씩 진행된다고 공지했는데, 실제로는 7~8분 한 거 같음.</li> <li>▪ 시청각실같은 곳에서 다른 학과애들까지 다 같이 대기함. 면접은 방음 잘 되는? 방에서 따로 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b>				
A: 건강에 관련된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 1학년때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해 탐구하다가 자연스럽게 GMO식품에 접하게 되었다. 유전공학이 식품에 적용된 것에 대해 탐구하며, 유전공학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과학적인 개념들이 모두 식품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게되었고, 식품의 높은 활용도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대답함.				
<b>Q2: 가천대를 선택한 이유 / (+학과 사이트 읽어보고 관심분야 연구하는 교수님 계셨는지, 무슨분야인지)</b>				
A: 여러 식생공 학과 사이트 읽어보고, 가천이 유일하게 식품의 가공~유통 과정 뿐만 아니고 의약품이나 공정기술등 식품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거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대답함. / 학과 사이트 읽어봤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함				
<b>Q3: 1학년 세특 '경우의 수를 통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발표 내용 설명</b>				
A: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있고, 아미노산이 코돈으로 이루어져있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답변함 (말 끊고 뭐 또 물어보시길래 이어서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냐고 여쭙봄.) 염기 4개를 이용하면 코돈이 64개가 나오는데 다양한 코돈이 중복되는 염기를 지정하기 때문에 20개로 경우의 수를 따짐. 펩타이드결합이 아미노산 5개로 이루어져있다고 가정했을 때만해도 20의 5승이라는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통해 단백질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잘 알고있는 거 같다고 대답 끊으심)				
<b>Q4: DNA추출실험에서 세제,에탄올 역할 설명</b>				
A: 세제는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해서 세포막을 용해시켜줌. 에탄올은 DNA가 에탄올보다 용해도가 낮아서 위로 떠오를수 있게해주고, 에탄올이 물과 결합했을 때 나오는 나트륨이온이 DNA에 붙어서 응축을 도와준다고 다고 답변함.				
<b>Q5: DNA전기영동실험 설명과 stacking gel 과 running gel 차이 설명 / (+running gel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물어보심)</b>				
A: 농도가 높은 stacking gel에 시료를 일직선으로 세워 고정하고,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running gel에서 시료가 이동하면 이동거리를 통해 분자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함. DNA가 음전하기 때문에 +극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사용한다고 답변함./ (stacking gel보다 농도가 낮아서 시료가 잘 이동할 수 있다고 답변함.)				
<b>Q6: 루미놀 반응 실험에서 인광과 발광 구분하는 법? 차이점?</b>				
A: (물어보실지 모르고 한 번 정리만 해놨었던 내용이라 제대로 답변 못하고,인광이랑 발광 특징 바꿔서 답변함.)				
<b>Q7: GMO 약자가 뭔지?</b>				
A: 대답못함.				
<b>Q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b>				
A: 뽑아주세요!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인사 후 퇴장)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천대학교	학과	심리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가천바람개비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시작 시 자기소개(지원동기)를 물어보았으며, 면접 종료 시간을 알리는 노크 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봄.</li> <li>▪ 대기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되나 생기부를 비롯한 자료는 볼 수 있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동기 답변 후 꼬리 질문) 현재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관련 생기부 활동을 확인하고) 최저시급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b></p> <p>A: 노무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와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관련 진로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지원동기를 이야기함. 따로 입학 후 학업계획을 묻는 질문은 없었음. 최저시급 9,620원이라고 답함. 선정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측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노무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힘. 이때 노동자 측의 입장과 사측의 입장 및 그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객관적인 인상을 결정 체계가 없어서라는 점을 지적함. 따라서 이러한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힘.</p>				
<p><b>Q2: '감정노동자'를 주제로 탐구활동을 했는데, '교사'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가?</b></p> <p>A: 3학년 진로 관련 탐구활동에서 '감정노동자'의 정의, 사람들의 잘못 알고 있는 점, 감정노동자가 업무상 겪는 어려움, 감정노동자로 여겨질 수 있는 직업의 범위 등을 설명함. 이를 토대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교사도 감정노동자에 속한다는 생각을 밝힘. 법에서 서비스직이라고 여겨지는 직종만 감정노동자로 본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함.</p>				
<p><b>Q3: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b></p> <p>A: 순간적으로 '괴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억이 나지 않았음.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라고 말하자 교수님들이 흔쾌히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셔서 잠시 후에 답함. 법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규범과 틀이므로, 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함. 다만 현실에 법을 대입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개정해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함.</p>				
<p><b>Q4: 노무사가 되고자 하는데, 노무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설명하시오.</b></p> <p>A: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답함. 그리고 1단계 필기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에는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이 있으며 영어는 시험을 보거나 다른 시험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함. 2단계 시험에서는 노동법을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서술형 시험과 행정학, 경영학 등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골라 서술형 시험을 봐야 한다고 답함. 또 마지막 단계로 면접에 응시해야 한다고 덧붙임.</p>				
<p><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b></p> <p>A: 관심 분야를 진정으로 즐길 줄 알고,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임을 어필함. 또 가천대에 진학하여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노무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는 점을 이야기함. 이러한 역량을 꼭 가천대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멘트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음.</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천대학교	학과	심리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가천바람개비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로 진행하였는데 많은 면접 후기를 참고했지만 개인적으로 압박 면접이었음.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신감이 합격요인 중의 하나였음.</li> <li>생기부에 적혀있는 활동은 최대한 꼼꼼하게 다 답변할 수 있어야 함.</li> <li>자소서 관련 질문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 번 읽고 들어가기</li> <li>꼬리 질문이 매우 많았음.</li> <li>중간에 답변이 끊기거나 준비한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핵심만 두괄식으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신의 장점이 드러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b> A: 준비한 자기소개에다가 소통능력을 어필함. (본인의 과와 어울리는 장점 한 가지 이상 꼭 생각해두기.)</p> <p><b>Q1-1: 장점이 뭐라고 했죠?</b> A: 맞춤형 소통을 잘합니다!</p> <p><b>Q1-2: 어떻게 할수 있나요?</b> A: 청소년 아이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성격을 가진 아이에게는 제가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경청의 자세로 들어주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상담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장점을 보충설명함.)</p> <p><b>Q2: 자율동아리 이름의 뜻은?</b> A: 심량은 깊이 헤아리다 라는 뜻으로 내담자의 상황과 감정을 잘 헤아리자는 취지에서 동아리 이름을 정하였습니다.</p> <p><b>Q2-1: 생기부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데 무슨 활동을 했죠?</b> A: 상담사와 내담자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경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p> <p><b>Q2-2: 전문 지식이 없어서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진행했나요?</b> A: 물론 상담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심리 용어도 찾아보고 책도 참고하면서 모의 상담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언급하면서 어려움을 인정,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중요)</p> <p><b>Q3: 심리공부를 할 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b> A: 분석력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3-1: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b> A: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통계와 분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b>Q4: 심리학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b> A: 주로 책과 기사를 활용했습니다.</p>				



**Q4-1: 어떤 책?**

A: 청소년 상담 사례의 이해와 실제라는 책을 읽고 반항심리를 가진 아이들을 상담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외국어계열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가천바람개비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오후 2시 5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면접 안내 → 대기 → 면접 진행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감 !! (면접 대기하면서 물 마시기, 머리 식히기)</li> <li>▪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진행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동기 또는 자기소개 해보세요</b> A: (준비했던 거 말함)</p> <p><b>Q2: (한국사 생기부) 한비아 중국견문록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점이나 흥미있던 점</b> A: 작가님이 중국 여행을 하며 한자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작가님은 원래 한자 사용에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며 한자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자신의 실속을 챙길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p> <p><b>Q3: (3학년 동아리) '장자 인문학' 책을 읽었는데 많은 사상가 중 장자를 선택한 이유</b> A: 도가를 주장한 장자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각한 경쟁주의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합니다. 장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탐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보다 외양만 가꾸는 현대인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장자는 이러한 현상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 본질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가꾸라는 교훈을 줍니다.</p> <p><b>Q4: (3학년 동아리)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주의 깊게 탐구한 것</b> A: 반중정서와 반일정서를 비교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반일정서가 가장 고조되었던 2019년에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무역 분쟁이 발생하여 한일 관계가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중정서는 한 사건만으로 고조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문화공정, 동북공정, 중국인들의 에티켓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반일정서가 심할 때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현재 반중정서가 심한 상황에서는 불매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p> <p><b>Q5: 중국의 정치 경제에도 흥미가 있어 보이는데 최근의 중국 관련 뉴스를 본 것 있나요</b> A: 중국 시진핑 주석 3연임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시진핑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빚나가 3연임을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중국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새로운 정책이 아닌 같은 정책이 고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방역 실패, 실업률 문제 등으로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은 중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p> <p><b>Q6: (3학년 진로) 다문화사회에 대해 탐구한 거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b> A: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일민족의식과 동질성이 강한 국가이기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접하는데 소극적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의식도</p>				



부족하여 다문화사회로서 아직 한계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김치없는 김치전' 다문화 전력을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가 타문화에 비해 높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타문화와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도광양회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도광양회의 의미를 인생에 적용하여 남들이 재능과 노력을 알아봐주지 못하여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린다면 언젠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8:(꼬리질문) 도광양회를 사용한 중국 정치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A: 덩샤오핑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외국어계열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지역균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조교 설명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대기실에서 같은 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 (한 타임당 8명이었기에 대기실에도 8명이 같이 있었음)</li> <li>▪ 대기시간동안 자소서나 생기부, 책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사용 못함. (휴대폰은 끈 상태로 본인 소지)</li> <li>▪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고 나와있으나, 세세한 세특 내용까지 물어보지 않았고, 내가 한 답변에 대한 꼬리질문 형식으로 이어졌다.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생기부 내용이 맞지 않더라도 왜 이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지만 잘 엮어 말하면 될 거 같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안녕하세요, 가천대 외국어 계열 지원하신 거 맞죠?</b>				
A: 네 맞습니다!				
<b>Q2: 답변이 길어지다보면 중간에 말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 점 감안하고 바로 면접 시작할게요</b>				
A: 네				
<b>Q3: 본인 자기소개, 지원동기, 그리고 학업 계획 말씀해주세요</b>				
A: 네, 저는 평소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에게까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성격입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사교성이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의 꿈은 시나리오 작가인데,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저의 글을 알리기 위해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계의 문화권을 파악하고 (생각하다가 버벅거림) 궁극적으로는 영문으로 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b>Q4: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작가라면 글을 제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글은 좀 쓴다고 생각하나요? (왜 굳이 여기 학과를 지원했나는 뉘앙스였음)</b>				
A: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작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글을 쓰는 경험은 많이 해보기도 했고, 자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와서는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b>Q5: 좋아하는 작가에 좋아하는 작품은 뭐예요?</b>				
A: 저는 봉준호 작가에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인상깊게 봤습니다.				
<b>Q6: 해외적으로도 성공한 작품이죠. 그 영화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해요?</b>				
A: 시나리오 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자면, 보통 이전의 다른 많은 작품들은 부를 악으로, 가난을 선으로 표현했었지만 기생충의 경우 그와 반대로 부를 선으로 가난을 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소에는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부에 대한..(말하고 싶은 단어 생각 안 나서 계속 버벅거림)				
<b>Q7: 부자들에 대한 열망? 이나 긍정적인 시각을 말하나요?</b>				
A: 어.. 네! 맞습니다				
<b>Q8: 부를 선으로 표현하고 가난을 악으로 표현했다고 말한 부분이 재밌네요. 그럼, 다른 학교에도 이런 외국어 학과는</b>				



**많은데, 왜 가천대를 굳이 지원했어요?**

A: 지원하기 전 가천대의 커리큘럼을 보았습니다. 가천대의 경우 미디어와 문화번역, 영화로 읽는 영미문학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미권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더 흥미롭고 능동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할 거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9: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영미과라는 거죠?**

A: 네 맞습니다.

**Q10: 2학년 진로활동에서 “하기 싫어도 해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는다” 라는 말을 찾아 활동했다고 하는데, 무슨 활동이었던지 말해주세요?**

A: 자신의 좌우명을 찾고 발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의 단점은 끈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초심보다 뒷심이 부족하여 일이 흐지부지 됐던 경험이 많은데, 이는 제가 그 일을 왜 해야만 하는지 명확한 동기를 찾지 못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명확한 동기를 찾아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기 위해 저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Q11: 아까 동아리에서 작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말해주세요?**

A: 중학생 때 연극부 동아리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아이들을 직접 뽐는 프로그램의 비리 사건을 각색하여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Q12: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해요?**

(대답 못 하고 생각하고 있었음) 뭐.. 끈기라든가 그런 역량있잖아요

A: 아무래도 작가라는 직업은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혼자서 일을 찾아 해야하는 프리랜서 이다보니 쉽게 나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을 끝까지 하고자 하는 끈기와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13: (조교가 밖에서 문 두드림)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A: 글로벌한 가천대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는, 단순히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뿐만 아니라 미디어, 인문학, 출판 등 다양한 시선으로까지 저의 시선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가천대 교수님들께 수업을 들으며 글로벌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1순위 대학인만큼, 뽑아주신다면 가천대에 저의 청춘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천대학교	학과	유아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지역균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 신분 확인 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대기실에서 다른 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li> <li>대기시간 동안 종이나 서류는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끄도록 안내함.</li> <li>떨지 않고, 암기하지 않고, 질문에 유연하게 답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게 중요할 것 같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가천대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b>				
A: 가천대 홈페이지에서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해 찾아봤을 때 학교현장실습이 잘 구성되어있고 가천대학교의 비전과 제 가치관과도 비슷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대학교 졸업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b>				
A: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어 충분히 경력을 쌓은 후에 유치원 원장이 되고 저만의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인생 최종 목표입니다.				
<b>Q3: 생기부를 보면 1학년 때 사립, 국공립 교사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b>				
A: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b>Q4: 사립, 국공립 교사가 되는 과정에 대한 차이점을 조사한 건가요?</b>				
A: 네, 차이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b>Q5: 그럼 아까 자신의 유치원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립 유치원 교사가 된다는 건가요?</b>				
A: 아뇨, 국공립 유치원에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유치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b>Q6: 생기부를 읽어봤는데, 이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3학년 때 영유아기 미디어 관련 전문 학술지를 탐구했다고 쓰여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b>				
A: 먼저 제가 그 주제를 선정한 계기는 요즘 식당에 가면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조사해보고 싶어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는 아이들의 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소근육 발달 또한 지체되게 합니다. 유아는 많은 교구 놀이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유아는 함께 놀이하는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도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상호작용하며 말과 감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b>Q7: 3학년 때 동아리 3인조티칭 수업시연에서 본인이 한 역할과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던지 말해보세요.</b>				
A: 저희 모둠은 3명에서 팀을 이뤄 진행했는데 처음엔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조원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분리수거 관련 환경 수업을 준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수업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모둠 활동을 하거나 동요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둠원 내에서 PPT 제작을 맡았는데 '지구에서 온 편지'를 소개하고 지구가				



아파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면접시간 10분 경과 노크 )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답변 못 했던 질문 보충할 거**

A: 오늘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관분들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미래에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유치원 교사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 가천대에서 교육을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가천대학교	<b>학 과</b>	응용통계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가천바람개비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10분 내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종료 1분 전에 알려줌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에서 학과에 대한 강한 열망과 열정이 강하게 드러났던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음.</li> <li>▪ 꼬리 질문이 많으므로 예상 질문 답변 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해야 함.</li> <li>▪ 생활기록부 활동에 대한 꼬리 질문이 많았는데, 생활기록부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준비한다면 답변이 어렵지 않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우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b>				
A: 저는 외국의 통계를 이용한 마케팅 사례를 보고 통계에 마케팅으로 접목시켜 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학과에 진학한다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가천대 응용통계학과의 인재상 중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통찰력을 위한 전문 통계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통계학자의 모습이고 저는 항상 제가 배운 지식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천대의 전공지식을 이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캠페인이 제가 원하던 바로 그러한 프로젝트였기에 가천대에 진학하면 저의 통계에 대한 가치관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통계에서 검증과 반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b>				
A: 통계학은 정확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상관관계가 명확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자료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조사 자료들 간의 상관관계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칫하면 조사 자료 전체의 신뢰성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자료의 검증과 반증 과정을 통해 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증과 반증의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b>Q3: 최저점을 미지수로 놓고 조건으로 주어진 수상인원수를 활용해 식을 구성하고 표준화를 통해 점수를 구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주세요</b>				
A: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 당황하며)수상인원을 바탕으로 전체인원 수에서의 확률을 구해서 식을 구성하고 표준화를 통해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b>Q3-1: 그러면 그 과정에서 표준화는 어떻게 하나요?</b>				
A: 대답을 하지 못함.				
<b>Q3-2: 그러면 정규 분포와 표준 분포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b>				
A: 정규분포는 각각의 확률과 편차가 제멋대로지만 표준 정규분포는 이것들을 일반화시켜 비교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Q4: 알고리즘 편향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리즘 편향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b>				
A: 알고리즘 편향이란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만을 제공해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자신의 관심사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의견이 다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b>Q4-1: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있을까요?</b>				
A: 저는 알고리즘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작성했습니다. 정부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기업의 알고리즘이 투명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기업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기업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알고리즘을 소비자의 의견이나 외부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편향된 정보만을 보지 않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b>Q5: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으신가요?</b>				
A: 가천대에서 가천대의 가치관을 배우며 성장한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인이 되고 싶습니다. 가천대에 진학하여 제 꿈을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톨릭대학교	학과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질문 외에 생기부 기반 문제를 물어봄.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물어보진 않았고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함.</li> <li>생기부 기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하면 도움이 됨.</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학교 생활 중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학교 축제 부스 활동이 무엇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A: 1학년 축제 활동에서 붕어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학급 친구들로 구성되어 학급 부스를 처음 준비하는 것이 처음이라 낯설었고 붕어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 안 익어버리거나 금방 타버려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 축제 전 일주일동안 붕어빵을 익히는데 필요한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찾기 위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2: 학교 축제 중 분쟁 상황이 있었습니까?**

A: 제 기억상으로는 없었습니다.

**Q3: 만약 분쟁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일 것 같으며 본인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할 것 같습니까?**

A: 아마 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질서 관리하는 방법이나 빠르게 붕어빵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레시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때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거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쪽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다른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하나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부스를 준비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Q4: 생기부에 있는 나노입자해동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A: 나노입자해동법은 장기에 조그만 철 입자를 장기의 혈액에 이식 후 급속 냉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신체 조직의 해동은 세포수가 많아 통제가 어렵고 동결 보호제가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균일하게 해동하지 않거나 해동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조직이 찢어져 세포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노입자해동법을 이용하면 전자기장에 냉동한 장기를 넣어 해동을 실행하는데 이러면 장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보존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5: 생기부에 성적이 과목이 과편향되어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지원하면 영어가 중요하게 되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 상적이 낮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A: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영어성적은 낮지만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여 영어공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강원대학교	<b>학 과</b>	수학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미래인재전형 II
<b>면접</b>	<b>면접 시간</b>	약 10~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형식</b>	<b>면접 절차</b>	안내 및 대기 → 앞 사람 면접 끝나기 약 2~3분 전부터 문 앞에서 대기 →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한 활동 1~2줄 요약 정리하기</li> <li>▪ 대기하는 곳에서 볼 내용들 준비하고 대기 시간에 생각정리하기</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선생님이 누구신가요?</b></p> <p><b>Q2: 오일러 수를 증명하는 활동을 했는데,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나요?</b>          A: 오일러 수를 정의, 테일러급수, 뉴턴의 이항정리, 그래프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증명하는 과정에서 테일러급수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드리는게 어려움이 있었고 오류 없이 정확한 증명을 위해 한 학기를 걸쳐 결론을 도출했습니다.</p> <p><b>Q2-1: 그래프로 증명한 것이 어떤 것인지</b>          A: 0부터 a까지 <math>1/x</math>를 적분했을 때 10이 나오는 값에서 a가 e라는 것을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0</p> <p><b>Q3: 1학기에서는 수학이 1등급을 유지하다가 2학기마다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제 장점이자 단점은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학기마다 학급 임원으로 축제 준비 및 행사를 구상하였으며 자율봉사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부스 활동 및 행사 등 모든 활동을 참여하다보니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3학년 때에는 성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학년 2학기보다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p> <p><b>Q4: 칸아카데미와 ebsi의 수업 방식을 탐구했다고 하였는데, 칸아카데미가 무엇인가요?</b>          A: 칸아카데미는 미국의 비영리 교육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칸아카데미의 자료를 미국 학교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칸아카데미와, ebs에서 제공하는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설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p> <p><b>Q4-1: 왜 이 주제를 탐구하였나요? 탐구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b>  <b>Q4-2: 그렇다면 수학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b>  <b>Q4-3: 수학 이외에 칸아카데미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b></p> <p><b>Q5: 수강한 과목 중에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무엇을 배웠나요?</b>          A: 코딩하거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b>Q5-1: 코딩에서 배운 것을 통해 실제로 한 활동이 있나요?</b>          A: 2학년 때 학급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라벨 제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티처블머신, 엔트리, 스크래치의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버릴 시에 “라벨을 제거하고 버려주세요” 음성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적이 있습니다.</p> <p><b>Q6: 탐구과목(물,화,생)을 다 수강했는데 물리학II를 고른 이유가 무엇인가요?</b>  <b>Q7: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나요?</b>  <b>Q8: 수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요?</b>  <b>Q9: 심리 동아리 활동을 해왔는데, 교사에게 심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b>  <b>Q10: 마지막을 준비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b></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건국대학교(글로벌)	<b>학 과</b>	동화, 한국어문화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Cogito자기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약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에서 유의사항 듣기 및 신분증 확인, 대기 → 고사실 옆 의자에서 대기 → 면접 고사실에서 면접 진행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에 관한 세세한 내용 질문보다는 전체적으로 활동의 흐름이나 대학와서 하고싶은 것 등을 크게 크게 질문하셨습니다.</li> <li>▪ 조별활동과 관련해서 인성 측면에서 많은 질문(답변에 대한 꼬리질문 포함)을 하셨으니, 조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으로는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협력활동 등에 있어서 가치관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먼저 본인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말뭉치'라는 거 한 거 맞나요?</b>				
A: 네 동아리활동 이었습니다.				
<b>Q2: 본인확인 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학에 지원한거 잿아요~ 하고 많은 학과 중에 동화·한국어문화학과를 지원했구요. 이곳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 싶고 어떤 경험을 쌓고 싶은지 말해보세요.</b>				
A: 저는 동화·한국어문화학과에서 동화와 인문학을 배우고 싶고, 특히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 마음 치유와 관련해서 3학년 때 배우는 '동화치료연구'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극 동아리 '한울'에서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음악이나 무대장치를 이해하고 같이 예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글, 그림을 통해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b>Q3: 연극 동아리에 관심있다고 했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 연극 관련해서 해본 활동이 있나요?</b>				
A: 1학년 영미문학읽기 수업시간에 'Things Fall Apart'라는 소설을 읽고 조원들과 함께 연극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b>Q4: 거기서 실제 배역을 맡았던 건가요?</b>				
A: 네, 'Nwoye'라는 역할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b>Q5: 고등학교 동안 읽은 책 중 자신이 소개해 주고 싶은 책, 지금 그 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면접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시간은 1분 정도 드릴게요.</b>				
A: 아동소설인 '나는 진짜 나일까'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6학년 건주와 시우가 가족관계, 친구관계에서의 갈등을 극복하며 성장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با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건주가 상담 선생님과 함께 작품들을 그리고 만들며 치유해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엄마에게 끌려다니는 시우도 같이 극복해나갑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해내는 과정, 예를 들면 건주 아바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주에게 사과하는 모습 등을 통해, 저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혹은 나에게 스스로 두려운 것이 있을 때 용기를 내서 극복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b>Q6: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조별활동처럼 협력하는 거 많이 해봤나요?</b>				
A: 네 1학년 때부터 조별 발표나 토의 등을 많이 했습니다.				
<b>Q7: 그럼 본인은 보통 조원 역할이었나요 조장 역할이었나요?</b>				
A: 저는 보통 조원 역할을 했습니다. 조원이었지만 영어 기사를 읽고 토의할 때 제가 먼저 주제를 제안하거나, 조원으로서				

맡은 일에 책임감을 다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Q8: 그렇다면 조원으로서, 조장이 이상한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할지?**

A: 만약 조장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조장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해볼 것입니다. 만약 조장이 제 말을 받아들이고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계속 협동을 이어가고, 제 말을 경청해 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든 이야기를 들어보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Q9: 말을 해봐도 끝까지 조장이 계속 비합리적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A: 그때에는 조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생각이나 상황을 들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Q10: 계속 인간적인 소통으로, 대화로 해결해나가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본인이 조장입니다. 그런데 무임승차 같은 게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 활동을 하는데 무임승차 같은 게 발생했어요. 그때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A: 만약 제가 조장이라고 했을 때 무임승차가 일어난다면, 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력할 수 있게 설득할 것입니다.

**Q11: 얘기를 계속 해도 안 따라주는 경우에는요?**

A: 음, 계속 그런다면 그 조별 과제를 해내지 못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이야기하고, 강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을 해서 어떻게든 이끌어가려 할 것 같습니다.

**Q12: 이것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럼 이런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끔 차단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A: 음 그런 방법으로는, 과제를 할당할 때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조건 서로 교류해야만 하는,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13: 음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판을 깔아놓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제 다른 면접관님이 질문하시기 시작함) (노트북으로 뭔가 보시다가 질문하기 시작하심) 동아리나 진로나 계속 이 동화·한국어문화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활동하면서 약간 본인의 생각같은 게 바뀔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 학년별로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바뀌거나 그런 거 말해줄 수 있나요?**

A: 네. 저는 1학년 때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서, 욕구를 이해하고 삶을 더 편리한 방식으로 이끌 수 있게 디자인하는 예술 분야를 많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관심이 더 생겨 심리학 쪽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사람들을 예술적인 힘으로 치유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국문학, 아동문학 등의 분야를 탐구했습니다.

**Q14: 시간이 조금 남네요. 면접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혹시 준비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못한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A: 네. (준비한 지원동기를 말함)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그리기와 글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동화·한국어문화학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담고 치유할 수 있는 아동문학을 배우고 창작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서, 저의 이야기를 더욱 다채롭게 전하고 싶어 이곳에 지원하였습니다.

**Q15: (저 말 하는 중에 연신 꼬덕거리 주셨음) 네, 점심도 못 먹고 배고플 텐데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A : 감사합니다!

## 2023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글로벌)		학과	유아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Cogito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학교 관련 얘기 → 관련 시사 질문 → 관련 활동 질문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관들 모두 인자하시고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면접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대답을 할 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만 워낙 조용하게 말씀하시니 질문을 잘 들어야 할 듯 싶습니다.</li> <li>▪ 학업계획, 건국대 유아교육만의 특색, 학교 경치 등 학교 관련 질문이 많으니 학교 구조나 홈페이지 등을 잘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점심 식사 여부나 학교에 와본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 후에 바로 면접이 시작됨)</p> <p><b>Q1: 초등교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탐구를 한 것 같은데 초등교사와 유아교사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나요?</b></p> <p>A: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초등학생과 달리 유아들은 화장실 지도나 식사 지도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 지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p> <p><b>Q2: 초등교사에서 유아교사로 진로를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b></p> <p>A: 저는 저는 교육을 함에 있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인성이나 정서적 측면의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심리학과 상담심리라는 고등교육과정 수업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이론들을 배웠고 이를 통하여 인성교육 등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인성이나 가치관 그리고 정서적으로 크게 발달하는 시기인 유아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교직관과 맞다고 생각하여 초등교사에서 유아교사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p> <p><b>Q3: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남) 우리 학교만의 유아교육과 특성?</b></p> <p>A: 건국대 유아교육과의 경우 인근 유아교육 시설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길러내기 좋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소모임 활동으로 유아교육이라는 같은 꿈을 가진 학우들과 함께 교구 제작이나 동화, 연극 등의 활동을 준비하며 유아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p> <p><b>Q3-1: 이런 내용은 어떻게 아나요?</b></p> <p>A: 본교에 오고 싶은 마음에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p> <p><b>Q4: 유보통합에 대한 탐구 활동을 진행했어요. 탐구 보고서를 쓰기도 했네요?</b></p> <p>A: 유보통합에 관하여 논문 탐구와 함께 현직 유치원 교사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p> <p><b>Q4-1: 그래서 거기서 느낀점은? 본인은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b></p> <p>A: 저는 실질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의 취지는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므로 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아들과 교사,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수정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을 통해 유아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b>Q5: 만약에 이 학교에 붙는다면 어떤 학교 생활을 할 것인지</b></p> <p>A: 저는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 건국대 유아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유아사회정서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물론 본교의 도서관이나 논문 사이트를 이용하여 최근 논문 탐구 및 독서활동을 통해 유아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형성할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유아교육 시설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실무 능력을 길러 유아들을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배울 것입니다. 또, 동아리 활동이나</p>				



소모임 활동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학우들과 함께 활발하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고 싶습니다.

**Q6: 평소에 어떤 어떤 취미활동을 가져왔나요? (생기부를 보니) 꾸미는 걸 좋아한다고요.**

A: 네, 저는 공간을 꾸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 작은 소품같은 것들을 만드는 취미생활을 해왔습니다. 제 머리속에 있는 것들을 직접 꼬집어냄으로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고 제 꿈인 유아교사가 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학업 외 시간에 틈틈히 취미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유아교사가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업공간을 꾸미거나 소품 등을 이용해 수업에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글로벌)	학과	의예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Cogito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씩 3번	면접위원 수	2명씩 3개의 방
	면접 절차	들어가서 가번호(대학교측에서 줌) 말하고 면접보다가 종치면 끝 X3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기부의 각 탐구과정을 짧고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것 준비하기(가끔 자세한 것도 물을 수 있으니 공부해 해둘 것)</li> <li>탐구 동기, 느낀 점을 다른 탐구보고서와 연결해서 말할 것.(내가 면접을 유도할 수 있고, 질문 개수를 줄일 수 있음)</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후성유전학과 암' 관련 생기부활동을 읽어주며)이 탐구내용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저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로서, 유전자에 의해 지배된다는 관점을 알게 되었는데,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알게 되어 '후성유전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후성유전학적 현상인 DNA메틸화가 종양표지자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DNA메틸화는 사이토신의 5번째 탄소에 메틸기가 추가되는 현상입니다. 정상세포에서는 국소부위의 CpG섬에서 저메틸화가 되고, 전반적인 유전체에서는 과메틸화가 되지만, 암세포에서는 국소부위의 CpG섬에서 과메틸화가 되고, 전반적인 유전체에서는 저메틸화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메틸화가 종양표지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Q2: 동아리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식용곤충 홍보같은 행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신건가요?**

A: 저는 곤충을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생명과학을 좋아하고 생명과학을 업으로 갖고 살아갈 사람이라면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을 한번이라도 접해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밀웬(가능한 구체적으로 말하기!)을 종이컵에 담아 교실, 교무실, 교장실 등 학교를 홍보하면서 맛보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저보고 먼저 먹으라고 해서(면접관들 웃음)그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곤충을 먹었습니다. 곤충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신념, 생각을 주장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술선수범해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3: 학급에서 '학급가상화폐제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활동인가요?**

A: 2학년때 저는 학급반장으로서, 친구들이 다양한 관심사, 성향 등으로 무리가 나누어지는 것을 막고 소외되는 친구들 없이 모두 화목하게 대화하는 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무리가 나누어졌고,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의 관심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급가상화폐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공부, 운동 등 자유롭게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급과 임금을 받고, 학용품, 자리선정권 등을 구매하는 시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소외되는 친구가 없이 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과제중이었던 친구가 운동을 하며 헬스트레이너를 꿈꾸는 등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4: 마약백신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하는데, 마약백신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A: 마약백신은 마약이 대한 인체에 형성하고 항원항체반응을 통해 뇌로 마약성분이 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이 투입되어도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를 근절하는 데에 있어서 치료효과가 클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은 대부분이 임상 1상도 거치지 못했으며, 이러한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신종 마약이 개발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약 백신은 범용성이 떨어지고 개별 약물에 대해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건국대학교(글로벌)	<b>학 과</b>	의예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지역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3개 방 (방당 10분)	<b>면접위원 수</b>	방당 2명
	<b>면접 절차</b>	면접실 입실 → 덮여 있는 제시문 확인 → 질문에 답변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하게 긴장하여 답변에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li> <li>▪ 꼬리 질문이 많을 수 있음.</li> <li>▪ 답변 시 교실 내 타이머 확인 (시간 초과 시 즉시 답변 중단 후 퇴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친구와 과학실 청소를 하다가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됨. 경비원은 한시간 후에 오고 과학실에는 값비싼 실험기구가 많음. 내신에 도움이 되는 과학 특강을 지금 가지 않으면 늦고 친구는 나와 내신 경쟁자임.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b></p> <p>A: 문을 잠그지 않고 과학 특강을 들으러 갔을 때 과학실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걱정과 불안이 내신 공부에 더 악영향을 끼칠 거 같다. 친구에게 경비원이 올 때까지 함께 남아있자고 설득해보겠지만 내신 경쟁자인 친구가 과학특강을 들으러 가겠다고 하면 보내고 특강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p>				
<p><b>Q2: 내가 코로나19 검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b> 다음 세 가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를 기다리는 줄에서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남.</li> <li>2. 어제 와서 검사를 받은 할아버지가 오늘 다시 와서 보건소를 서성거림.</li> <li>3. 주변 회사에서 50명 정도 되는 단체 검사 요청이 음.</li> </ol> <p>A: 3번 상황에서 인근 다른 지역 의료팀이나 보건소 봉사자들한테 지원 요청. (3번 상황 예시와 같이 각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 중임에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임할 것임을 답변함.)</p>				
<p><b>Q3: 지역의사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가?</b></p> <p>A: 지역의사에 지원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의료 부족이나 필수 의료 미달을 해결할 방안은?</p> <p>A: 지역의료에 대한 국가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학과	경영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K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학별 기출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관분들의 연령대가 낮고 굉장히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음.</li> <li>▪ 생기부와 관련한 시사상식을 물어볼 수 있다. 그에대한 주관적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연습할 종이를 갖고 가는게 좋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동아리 활동으로 선편선사업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얘기해주세요.</b> A: 자신의 활동 계기,목적,사업의 고객, 목적에 따른 사업의 특징들을 상세히 얘기함.</p> <p><b>Q1-1: 구체적인 수익모델은 어땠는지 말해주세요, 비용같은 측면을 어떻게 준비했는지?</b> A: 실제팬션을 찾아보며 애썼으나 실제 비용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얼렁뚱땅 넘어갔던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p> <p><b>Q2: 일본,미국의 환율에 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현재 엔저상황인데 두 국가의 관계를 통해서 일본 경제상황이 어떻게 말해주세요.</b> A: 엔저는 엔화가 약세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수출에선 일본이 유리하겠으나 수입에서는 미국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수출로 인해 일본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위험이 존재하기에 외교적으로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p><b>Q3: 커피 기업에 대한 활동을 했는데 스타벅스인가요? BCG매트릭스로 평가하면 어떤가요?</b> AL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성장가능성이 낮기에 캐시카우라고 생각합니다.</p> <p><b>Q4: 반장생활 어려움은 없었나요?</b> A: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했는지 의사소통, 배려 같은 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와 연관해서 대답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건국대학교	<b>학 과</b>	경제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KU자기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2:30~12:40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과 상관없이 해당 시간 면접 응시생은 큰 강의실에 모아두고, 과별로 앉혀놓고 대기(가번호 부착) → 면접 대상 학생을 진행자가 데리러 옴 → 면접실 앞 의자에 대기 → 면접 참여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하는 강의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자기기 사용 불가, 생기부 및 관련 자료도 볼 수 없음. 자료 숙지가 덜 된 경우에는 대기실에 일찍 들어가기 보다는 입실 완료 시간 직전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함.</li> <li>▪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질문하지 않고 곧장 생기부 활동 질문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1학년 자율활동의 부반장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데,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b></p> <p>A: 포용력이라고 답함. 학교는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이 모인 곳이므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의견 충돌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함. 따라서 공동체를 잘 이끌기 위해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힘. 이를 위해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포용력이 중요하다고 답함.</p>				
<p><b>Q2: ① 진로와 직업 세특에서 탐구 기록이 있는 ‘공유경제’가 무엇인가? ② 최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고물품거래 어플(실제 많이 사용되는 어플 명칭을 예로 언급하여 질문)도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는가?</b></p> <p>A: ① 공유경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언급하며 낭비되거나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공유경제 시스템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함. ② 초기 중고물품거래 어플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집중하였음. 이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공유경제라고 보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2인 이상 음식을 시켜야 하는 식당을 함께 이용할 사람을 찾는 등 공유경제의 플랫폼 역할도 하는 등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이야기함.</p>				
<p><b>Q3: 동아리 활동에서 ‘후생경제학’을 탐구했는데 어떤 활동이였는가?</b></p> <p>A: 후생경제학 정의, 파레토 효율, 후생경제학의 1정리, 2정리를 설명함. 또 1,2정리를 현실에 실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야기함.(현실에선 모든 소비자들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가지지 않으며, 경제에 매우 많은 외부성이 존재함. 후생경제학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파레토 최적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효용 증가에 있어서 다른 이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않는다는 점에서 후생경제학 논리는 현대사회에서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밝힘.</p>				
<p><b>Q4: 동아리 활동에서 ‘이성 마케팅 VS 감성 마케팅’에 대한 토론 활동에 본인은 이성마케팅 패널로 참여했는데, 그렇다면 ‘감성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b></p> <p>A: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는데는 이성마케팅이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단순히 제품의 성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보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감성 마케팅이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밝힘. 또 감성마케팅을 사용하는 기업의 사례를 덧붙여 이야기함. 초기 고객 유치에는 감성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갈수록 제품 자체의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p>				
<p><b>Q5: 인간의 소비 성향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 있는데 ‘베블런 효과’가 무엇인가?</b></p> <p>A: 베블런 효과의 정의를 설명하고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가 나타남을 이야기함. 이와 유사한 효과 몇 가지를 이야기하던 중 면접 시간이 다 되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건국대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면접 끝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K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지원동기, 소개 x -> 생기부 질문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학년보다 3학년 생기부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자.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알 수 없으니 주요 활동 외에도 교과 비교과 세부 내용까지 준비하자.</li> <li>▪ 질문을 듣고 질문에 맞는 답변을 먼저 두괄식으로 제시한 후 이야기를 진행해나가자.</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3학년 여행지리에서 ‘국제문화와 여행’ 이라는 책을 읽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b></p> <p>A: 각 나라별 문화와 지리, 기후적 특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문화 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시대적,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담은 문학책인 ‘양치기 소년’ 이라는 책도 알프스 산맥이라는 고산 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홀로 먼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심심하고 외로운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여 문학 작품이 완성 된 것입니다. 문화콘텐츠는 시대,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 내용이 아니지만 기억이 잘 안나서..)</p> <p><b>Q2: 문화콘텐츠학과는 자신만의 개성들이 뚜렷한 기획력을 갖춘 친구들이 모일텐데 의견 충돌이나 생각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요?</b></p> <p>A: 개성이 뚜렷하고 생각이 다양해도 같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로 통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기준으로 세워두고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 같습니다.</p> <p><b>Q3: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으신가요?</b></p> <p>A: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영상 매체 뿐만 아니라 현재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AI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였는데 생성형 시나 버추얼 휴먼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도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습니다.</p> <p><b>Q4: 3학년 화법과 작문 시간에 팬덤현상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보고서로 작성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b></p> <p>A: 제가 조사한 팬덤 마케팅 전략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닝아웃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로 음반을 제작한다면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와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충성도 전략입니다. 현재 팬덤 문화의 브랜드 충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에 대해 말을 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세 번째 하기 전에 면접관이 자연스럽게 넘어감.)</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건국대학교	<b>학 과</b>	미래에너지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KU자기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질의 후 응답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개념, 원리를 물어보기도 함</li> <li>▪ 화1, 화2 복습</li> <li>▪ 잘 생각하지 못했던 소소한 활동의 내용들도 물어볼 가능성이 높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유효핵전하에 대해 아시나요?</b>          A: 네, 화학1 시간에 배웠습니다. 유효핵전하는 원자핵이 전자에 실제로 미치는 전기력을 의미합니다.</p> <p><b>Q2: 1학년 동아리 시간에 탄소전지 만들기 실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탄소전지 원리가 무엇입니까?</b>          A: 알루미늄이 (-)극이고 활성탄이 (+)극의 역할을 하여 알루미늄이 소금물과 만나 산화되어 전자를 내놓으며 전류가 흐르는 원리입니다.</p> <p><b>Q3: 1학년 때 과학문제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했는데 만든 문제중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까?</b>          A: 옛날에 활동을 한 것이라 정확히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만든 문제중 산화, 환원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문제를 모든 친구들이 풀 수 있도록 하여 난이도 있게 만들지는 않았고 개념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만든 산화 환원에 관한 문제는 어떠한 화학반응식을 주고 무엇이 산화되고 환원되는지 산화수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 물어본 문제였습니다.</p> <p><b>Q4: 2학년 때에 비해서 3학년때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b>          A: 2학년 때에 비해 3학년 때 성적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저는 문제 풀이식 공부에 집중하여 여러 개념의 충분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조금더 개념에 집중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화학실험을 하면서 화학선생님께 집착력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험이 잘 되지 않으면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에 남으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꾸준함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학과	부동산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K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실 앞 복도에서 대기 → 면접 → 설문조사(필수 아님)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에서 모든 과가 함께 대기</li> <li>▪ 가방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은 지퍼백을 받아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넣고 다시 제출. 빈 가방이라도 하나 가져가는 것을 추천</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사람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택인데, 이러한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정권)별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나요?**

A: 정부별로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끄덕하면서 웃어주심) 하지만 최근 총정리에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슈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후화된 주택 재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 한국 부동산 산업에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거래 가격 관련 이야기)

**Q2: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한 경우 부동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2학년 수학 시간에 최저임금의 상승에 관해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탐구를 통해 최저임금이 매년 약 2.8%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가계의 처분 가능한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물가가 상승하였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의 처분 가능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사람들이 주택 매매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정확한 문장이 기억나진 않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률이 줄어들어 가계에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질문이었음**

A: 저는 2학년 때 탐구를 진행하며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탐구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포함한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기에 이 사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기업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생산비, 교통비 등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고용률에 큰 변화가 없다고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저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전교 학생회 학예부 부장으로 활동했어요? (넵!)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저는 전교 학생회 학예부 부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체육대회, 전야제 학교 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며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으며 ~ 책임감과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건국대학교	<b>학 과</b>	수학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KU자기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입실 → 유의사항 공지 → 대기 → 면접실 입실 → 귀가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번호를 뽑지 않고 미리 번호가 정해져 있었음. 대기시간이 타 대학에 비해 짧은 편이라 좋은 듯함.</li> <li>▪ 대기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자료 열람을 못 하게 함.</li> <li>▪ 질문을 전부 전공 관련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함. 그런데 굉장히 초라하게 적힌 내용도 꼭 집어서 물어보심. 전공 관련 내용을 전부 다 준비해서 가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면접일 것 같음.</li> <li>▪ 본인은 사실 목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아예 갈라졌음. 마스크는 달라고 하면 주시니 건강 조심 또 조심.</li> <li>▪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온화하다고 해서 전혀 떨지 않고 들어갔으나 한 분만 온화하고 한 분은 날 뚫어버릴 만큼 매섭게 쳐다보심. 주의할 것.</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어이구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또 대기하느라 힘들었겠네~ (대충 아이스브레이킹 해주심)</b>  A: 네 힘들었습니다. 하하. (대충 인상 좋아 보이는 웃음으로 넘김)</p> <p><b>Q2: 그럼 면접 시작할게요~ 반장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b>  A: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반장으로 활동했고, 2학년 2학기부터 1년간 전교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p> <p><b>Q3: 그럼 반장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b>  A: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식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뜻이 맞는 학생들과 함께 주식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p> <p><b>Q4: 주식 프로젝트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b>  A: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수업이 끝난 후 수업을 열심히 들은 아이들을 체크해 그에 따라 가상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제가 직접 여러 기업들을 만들어 주가를 정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에는 모은 돈을 이용해 경매를 진행하여 상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b>Q5: 1학년 동아리 때 수학 미술 활동을 했는데 무슨 미술이었어요?</b>  A: 당시 카드 미술을 진행했는데,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 카드가 무슨 카드가 나올지 예측하는 미술이었습니다.</p> <p><b>Q6: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에 대해 탐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b>  A: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은 1학년 때 탐구한 내용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나뉘 각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이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b>Q7: 미적분 시간에 답러닝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b>  A: 당시에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인 답러닝이 경사하강법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경사하강법이란 예측값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미분을 활용해 오차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예측값이 <math>y=ax+b</math>의</p>				



1차 함수 꼴일 때, 실제 값이  $y'$ 이라 하면 오차의 크기는  $y-y'$ 에 절댓값을 취한 꼴로 나타납니다. 이때 오차의 크기를 수치화해주는 손실함수를 구하기 위해 각  $x$ 지점에서의 오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구해주면 손실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꼴로 나타나고, 미분을 이용해 극솟값에서 오차의 크기가 가장 작다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이후 본 과에 진학하여 최적화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워 다양한 함수로 나타나는 손실함수를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Q8: 2학년 기하 시간에 택시 기하학을 이용해 이차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유클리드 기하학의 제5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기하학인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에서 택시 기하학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택시 기하학이란 거리의 정의가 마치 맨해튼 거리에서 택시가 이동하는 경로와 유사한데, 택시 기하학에서의 거리는  $x$ 좌표의 차이와  $y$ 좌표의 차이에 각각 절댓값을 씌워 더한 값입니다. 이후 거리의 정의를 이용해 택시 기하학에서의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원은 정사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본 과에 진학하여 이 외에도 다양한 도형이 택시 기하학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싶습니다.

**Q9: 그럼 이차곡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탐구하지 않은 건가요?**

A: 당시에 택시 기하학을 이용해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했으나 좀 더 쉽게 탐구한 원과 정삼각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Q10: 그럼 타원은 택시 기하학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나요?**

A: 타원은 택시 기하학에서 옆으로 눌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전달드리고 싶은 바가 잘 전해지지 않았을까봐 많이 아쉽지만 안 좋게 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섭게 쳐다보던 면접관님께서 잘했다고 해주심)

**Q12: (위에 말 하자마자) 그럼 평소엔 목소리가 엄청 큰가요? 허허**

A: 저 평소엔 목소리가 엄청 큰 편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꼭 본 대학에 진학하여 미래에 좋은 수학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건국대학교	<b>학 과</b>	의생명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KU자기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교수1, 입학사정관1)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국대학교는 생기부에서 했던 실험, 탐구 활동과 관련한 내용 숙지 및 개념 알아둬야 함.</li> <li>▪ 자기가 한 탐구 내용만 말하면 안되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항상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아침밥 먹고 왔어요?**

A: 네. 긴장되지만 든든히 먹고왔습니다. 든든히 먹은 것 바탕으로 끝까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2: 아세트아미노펜 합성 실험을 하면서 발생한 오차와 실패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가요?**

A: 저희 모둠은 아세트아미노펜 실험을 2~3번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실험에서는 삼각플라스크를 얼음수조에 넣었지만 결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정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여 추가로 조사하여 핵형성과 결정성장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실험의 실패 요인을 추가적 이론 공부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훗날 대학교에 진학하여 연구를 할 때 이런 탐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Q3: 그럼 아세트아미노펜 합성 실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A: 아세트아미노펜은 아세틸화 반응이 관여합니다. 아세틸화 반응이란 하이드록시기의 수소원자 또는 아미노기가 아세틸기로 치환되는 반응입니다. 저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합성을 할 때 p아미노페놀, 아세트산 무수물, 인산 등의 화학용액을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용액들이 아세틸화 반응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이부분은 의생명공학과에 개설된 유기화학을 수강하며 배워가고 싶습니다.

**Q4: 혹시 핵형성, 결정성장성의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뉘앙스로)**

A: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핵이라는 것은 결정을 생성하는 시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핵이 성장하며 특정한 임계크기..?를 넘기면 결정이 되고 외부의 특정 자극이 주어진다면 결정이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 개념들에 대해서도 대학에 진학하여 배워보고 싶습니다!

**Q5: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서 구강상피 추출 유전자형 확인 실험을 했는데 과정이 무엇인가요?**

A: 우선 저의 구강상피를 추출한 후 제한효소를 통해 ABO혈액형 유전자만 잘라냈습니다. 그후 PCR반응을 통해 유전자를 증폭시키고 그것을 전기영동을 통해 유전자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전기영동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A,AO,BO의 유전자형에 따라 밴드의 차이가 있었는데, 밴드의 차이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맞춤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기에, 유전과 관련된 실험을 할때 전기영동이 쓰일 것 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여 전기영동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법을 더 배워 저의 연구에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Q6: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가요?**

A: 주변 친구들의 유전자형이 AA BO 등으로 다양했는데 그 친구들의 전기영동 밴드는 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7: (제가 어려움을 느낀 부분을 다시 되물어 주셨는데 기억은 안납니다. )**

A: (교수님이 제 답변에 대해 이해하신 내용하고 제가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달라, 이에 대해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반박하는

뉘앙스로 들릴까봐 최대한 친절하게..)

**Q8: 허젠쿠이 박사의 배아 유전체 편집 사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이 사건은 허젠쿠이 박사가 배아에 대한 유전체 편집을 했던 사건입니다. 사회적으로 배아에 대한 유전체 편집은 금기시되었기에 이 사건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허젠쿠이 박사의 사건과 관련하여 유전 공학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전체 편집은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항암치료는 암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문제가 있었기에 환자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체 편집 기술을 통해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게 되어 환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전체 편집은 윤리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정보 침해의 관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체 편집은 개인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 신체 조건에 대한 개인 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배아에 대한 유전체 편집의 경우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유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맞춤 의약품 개발도 유전체 편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전체 편집만을 하여 개인정보 누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9: 허젠쿠이 사건에 대해 배아의 유전체를 편집하는 생물학적 기술? 생물학적 측면에서 조사해본 바도 있나요?**

A: 저는 허젠쿠이 박사 배아 유전체 편집 사건에 대해 생물학적 측면이 아닌 윤리적 측면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당황해서 냅다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대학에 진학하여 허젠쿠이 박사 사건을 생명과학적으로도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Q10: 약의 반감기와 했던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저는 2학년..1학년? 1학년 때 저는 ..(동기를 말하고 싶었는데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생각할 시간 잠시 갖고 답변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황설수설 합니다)  
 평소 약을 먹고 있었고, 약을 하루에 두 번, 세 번 섭취하는 이유가 궁금했기에 약의 반감기를 주제로 탐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탐구 활동에선 약물의 혈중농도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약을 하루에 여러 번 먹는 이유에 대해 더 궁금해져 2학년 때 심화 시켜 탐구를 하여 약물의 반감기 그래프에 최소 유효농도와 최저 독성농도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의 반감기가 8시간.. 아니 6시간인 약물은 최소 유효농도 이상으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세 번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탐구를 심화 시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탐구하려는 연구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이 자세를 바탕으로 추후 대학에서 제가 진행할 연구에 임하고 싶습니다.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저는 뇌 및 감정 질환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라는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제 진로 목표가 뇌과학과 맞춤 치료제 분야를 접목한 비교적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인재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이곳에서 저의 꿈인 뇌 및 감정질환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생각을 입학사정관님과 교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학과	화학공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K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오전 9시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강당에서 면접절차 설명 → 대기 →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말 생기부 기반 면접이고 생기부 열심히 공부해야 함. 자기 전공 분야 부분을 위주로 보되 사소한 것 하나하나 1학년 2학년 빠짐없이 봐야 함.</li> <li>자신의 성적이 유난히 낮았던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의 생기부 내용을 공부 해야 함. (생명과학 성적이 낮아 관련 질문 정말 많이 받았다.)</li> <li>모두 생기부 질의응답과 꼬리 질문이며 겁먹거나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면 안되고 내가 정말 이 전공에 진심이란 모습을 보여줘야 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나고 먹고 싶은 것이 있나요???(긴장 풀어주는 질문), 정말 동아리 내용이 좋아요. 목숨 거셨나 봐요??</b>  A: 돈가스 먹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p> <p><b>Q2: 고분자 내용이 많네요. 고분자에 대해 설명해 줄래요?</b>  A: 고분자란 반응 메커니즘으로 단계성장중합과 사슬성장중합으로 나뉘며 단계성장중합은--이며 예로-입니다 반면 사슬성장중합이란--입니다.</p> <p><b>Q3:그럼 나일론 합성(3학년 화학 실험 )은 어떤 메커니즘이죠?</b>  A: 축합 중합이기에 단계성장중합입니다.</p> <p><b>Q4: 나일론 합성에서 반응하는 물질과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 설명하세요.</b>  A: 염화 아디포일과 헥사메틸렌디아민이 반응하고 HCL이 부산물로 나옵니다.</p> <p><b>Q5: PMMA 구조식 그릴 수 있나요? PMMA중합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b>  A: (구조식 그림). 라디칼 중합으로 사슬 성장 중합입니다!</p> <p><b>Q6: 아스피린 합성 과정에서 수득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하죠?</b>  A: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정반응을 높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반응을 높이기 위해 반응물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p> <p><b>Q7: 아스피린 과정에서 반응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b>  A: 무수 아세트산의 카복실기와 살리실산의 하이드록시기입니다.</p> <p><b>Q8: 카복실기 구조 설명해 보세요</b>  A: (그리며 설명함.)</p> <p><b>Q9:1학년 동아리에서 전기영동 실험을 했는데요, TAE버퍼와 TBE버퍼 차이 설명해주세요</b>  A: tae에서 t는 tris로 양이온을 공급하여, -를 띠는 dna를 끌어 당깁니다. 그러나 Tris의 pH가 거의 11에 가깝기 때문에 이 pH를 낮추기 위하여 acetate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TBE버퍼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Q10: 1학년 과탐실 시간에 재밌는 연구를 했네요. 그래핀에 뇌세포 결합해서 암세포를 진단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그래핀의 구조는 넓은 표면적을 가지기에 쉽게 결합하고 뇌세포 결합하여 암세포를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부분은 준비가 미흡하여 최대한 아는 만큼만 답변함.)

**Q11: 2학년 생명 과학 T세포와 NK세포는 어떤 차이로 어떻게 암세포를 제거 할 수 있죠?**

A: 생명과학 부분이 기억이 않아 잘 대답 못함. 최대한 답변하고 모르겠다고 했다.

**Q1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해보세요**

A: 네 저에게 면접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저는 화학과 물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고분자공학을 더욱 공부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속가능형 소재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의 열정과탐구력을 바탕으로 건국대에서 복합소재, 공정 화공유체역학등을 공부하며 저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경기대학교	<b>학 과</b>	미디어영상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KGU학생부종합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실 이동 후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실 마감 시간 후 30분 동안 준비 시간 있으니 준비한 자료 볼 수 있음.</li> <li>▪ 대기시간동안 준비한 자료 볼 수 있지만,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li> <li>▪ 긴장하지 않고 웃는 표정으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음.</li> <li>▪ 아이스브레이킹 질문 없이 바로 시작하므로 마음의 준비 필요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준비되면 입장하고, 의자 옆에서 큰 목소리로 공손히 인사하고 착석함.				
<b>Q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b>				
A: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콘텐츠 기획자가 꿈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미디어영상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독서와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미디어 매체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따라서 제가 경기대학교에 입학해서 보다 전문적인 공부와 활동을 통해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필터버블과 에코체임버 현상이 뭔가요?</b>				
A: 필터버블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필터링 된 정보만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에코체임버 현상은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얻기 위해 닫힌 커뮤니티에서 같은 입장을 지닌 이들과 활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리 개념 외워감)				
<b>Q3: 최근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b>				
A: ('공공팔팔'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함.)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유는 농사와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진 연예인들이 한곳에 모여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다소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처럼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b>Q4: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관련 탐구활동을 진행했는데, 설명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b>				
A: 저는 방송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남녀 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성차별 문제에 관해 탐구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면, 여성 앵커의 경우 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남성 앵커의 경우 군사나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성적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해당 방송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시청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나서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Q5 : 방송국이 이 문제를 모른다고 생각하나요?</b>				
A : 아뇨,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 이유는 방송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순간 성차별의 주체가 방송국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Q6 : 미디어에서의 폭력성에 관한 탐구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b>				
A : 저는 이에 관해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징어게임은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하는 SNS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해당 드라마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오징어게임이 가진 폭력성이 청소년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미디어 속 폭력성이 청소년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심화 활동을 통해 국가와 부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Q7 :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 저는 지난 3년간 오직 미디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미디어영상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교내 탐구활동 중 경기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가짜뉴스 해결책에 대한 논문 덕분인데요. 이렇게 제 진로의 길잡이가 되어준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경기대학교	<b>학 과</b>	공공안전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KGU학생부종합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 면접 준비위원이 면접실에 노크 → 면접실 입실(책상과 의자가 준비됨) → 7분30초 쯤 노크 소리 알림 → 9분30초 쯤 노크 소리 알림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기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위원들이 편안하게 면접 분위기를 풀어주려 노력하심.</li> <li>▪ 마지막 질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의 면접 때 예상하고 준비했던 질문들이라서 미리 면접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됨.</li> <li>▪ 전반적으로 생기부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 생기부를 꼼꼼하게 공부하되, 자기 자신이 공동체적 역량을 발휘한 적이 있다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함.</li> <li>▪ 지원 동기를 처음으로 물어보셨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물어보심.</li> <li>▪ 면접 중 웃으면서 말하고, 나갈 때도 인사를 잊지 않고 나가도록 할 것.</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b>				
A: 독서 경험을 토대로 범죄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함.				
<b>Q2: 자율활동에서 신문 사설 읽기를 3년 동안 꾸준히 했네요. 어떤 활동인지 소개해주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설은 무엇인지 그 사설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주세요.</b>				
A: 모의 면접 때 준비했던 답변이었음. 학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설을 읽고 활동지를 작성하여 기준 횟수를 모두 채웠을 때 이수 처리가 되며 생기부에 반영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3학년 때 읽었던 사설에서 과외 업과 관련된 강력 범죄를 주제로 중개 업의 신원 관리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사설이 기억에 남는다고 답변함.				
<b>Q3: 생기부를 보면 선생님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b>				
A: 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b>Q4: 심리학 수업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과 방관자 효과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두 이론과 효과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각의 정의와 함께 설명해 보세요.</b>				
A: 모의 면접 때 준비했던 답변이라 어렵지 않게 답함. 깨진 유리창 이론과 방관자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난 후 두 이론의 연관성은 학교 폭력을 예시로 들어 설명함.				
<b>Q5: 본인이 학급 내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한 활동으로 인정받은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b>				
A: 마지막 질문이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림.				
<b>Q6: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b>				
A: 경기대학교를 빛내는 인물이 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경기대학교	학 과	글로벌 어문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7분 30초-8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및 대기(13:00) → 신분확인 및 설명(13:30 입실 마감) → 각 분단(3분단)에 3명씩 복도에 있는 대기의자에 옴 → 또 한번 신분확인 순서대로 한 명씩 각 면접방에 들어감(14:00) → 면접 실시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시간동안 자소서나 생기 책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사용 못함</li> <li>(폰은 건지만 패드나 이어폰은 건지 않음. 대신 전원 꺼야함)</li> <li>정말 생기부기반 면접으로, 무슨 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고 물어보니 자신이 한 활동을 정확히 기억하고 갈 것</li> <li>면접관 분들과 꽤 떨어진 거리에 앉게 되어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반갑습니다(웃음. 여면접관)</b> A: 네 반갑습니다(웃음)</p> <p><b>Q2: 여기 지원한 이유를 말해주세요(여면접관)</b> A: 어릴 적 음악을 전공하며 접하게 된 독일어와 영어로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고등학교 에 올라와 진로시간에 재미있는 영문학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며 어문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학 과 문학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역사까지 담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느껴 언어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 흥미에서만 멈추지 않고 스페인어를 수강하는 등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다른 언어들을 배우보고자 글로벌 어문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3: 메타비스와 관련된 강의를 들으며 통번역을 겪었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메타비스 상에서 통번 역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남면접관)</b> A: 메타비스 강의를 들으면서도 통번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였습니 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번역은 인간 대 인간에서만 이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메타비스 안에서도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도 통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많이 발달한 지금 시점에서 통역사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치있는 말로 통역한다든지 상황에 맞게 말을 유하게 통역하는 등의 통역사가 가진 능력을 AI에게 가르치는 직업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4: 진로활동으로 세계의 지속가능한 도시주거 책을 읽었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여면접관)</b> A: 이 책에서는 다양한 나라들의 지속가능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예를 몇 개 들자면, 어떤 나라에서는 입주자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매매, 전세, 월세 등(손짓을 사용)소유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입주자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식의 주거 형태를 갖춰다고 나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앞에 강이 있으면 마주보는 식으로 (손짓 사용)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일광욕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주거 형태를 소개하였습니다.</p> <p><b>Q5: 글로벌 어문학부에 있는 언어들 배워본 적 있는지(말을 굉장히 더듬으심)(남면접관)</b> A : 글로벌 어문학부에 있는 언어들 중 배워본 언어가 있냐고 말씀하신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글로벌 어문학부에 있는 언어들은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글로벌어문학부 에 지원한 동기가</p>				

됩니다. 고등학교 내내 영어를 배워왔고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이 학부에서 또다른 언어를 배워 저의 기본 언어능력에 플러스가 되는 언어 능력을 갖춘다면 남들보다 진출할 수 있는 국가와 분야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언어를 접해볼 수 있는 글로벌 어문학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6: 동아리에서 필리핀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했다고 써있는데 느낀점을 말해달라(남면접관)**

A: 동아리에서 필리핀 친구들에게 보내줄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기사 를 작성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 전통 부채춤을 추는 모습 등의 기사를 작성해 보내주었고 ....

(7분30초를 알리는 노크소리)

**Q7: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미소- 여면접관)**

A: 이렇게 면접같이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저의 답변이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치만 좋게..기회를 주신다면! 미래의 경기대를 빛낼 학생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늘 노력하는 학생임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짧게 고개 숙여 인사) (대괄호 부분은 잘 기억이 나 지 않지만 저런 비슷한 느낌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Q8: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돼요^^**

A : 네 감사합니다(의자 옆에 서서 인사 후 퇴장)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상국립대학교	학과	윤리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면접 해당 학과 학생들이 1층에서 대기, 전부 모이면 엘리베이터 타고 대기실(4층)으로 이동, 대기실에서 면접 번호 배정 받고 무한 대기, 자기 순서 호령 받으면 면접실로 이동, 면접, 면접 이후엔 곧바로 귀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m 쯤 되어보이는 책상이 가슴 아래를 막아주고 있어서 부담(ex: 손 움직이기, 다리 떨기 등)을 덜 수 있었다.</li> <li>가급적 외투는 입고 가지 않는 걸 추천, 가면 외투 벗고 면접 보라고 한다.</li> <li>면접 번호 배정 받을 때 스티커를 부착한다. 옷에 붙이는 용도이다(외투 맡겨둘 때 붙이는 건 줄 알았는데 면접 직전에 알고 허둥지둥 붙였다. 후배님들은 그런 실수 하지 말도록 하자).</li> <li>윤리에 관련된 것만 준비해서 갔는데 의외로 다른 탐구활동도 물어본다.</li> <li>3명 다 질문하시는데 눈 초점을 말하는 분에게 두는게 좋을거 같다</li> <li>의외로 지원동기 빼고 눈을 마주칠 일이 없다(생기부 보느라 바쁘신 것 같다.)</li> <li>지원동기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뒤에 추가 질문이 거의 없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교수)</b>				
A: 저는 초등학교 때 3년간 서당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갓과 한복을 입은 훈장님의 모습이 낯설어 다니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훈장님의 모습을 동경하여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 서당을 다니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자소학, 추구, 명심보감, 소학집주. 총 4권을 학습하면서 도덕윤리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과목을 수강할 때, 서당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기하며 재밌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철학에 큰 흥미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던 저는 철학이 세상 모든 분야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큰 매력을 느꼈고 다양한 사상가들의 관점을 통해 제 생각의 틀을 깨는 넓은 시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제가 배우고 느꼈던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윤리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1-1: (서당이란 스토리 자체를 좋아하셨음) 서당에서 배운 것 중 가장 흥미로운 거</b>				
A : 순자 日/ 무적규보면 무이지천리요, 부적소류면 무이성강하니라. “반걸음도 꾸준히 내딛지 않으면 천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적은 물이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루지 못한다.” 악한 본성을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와 닿았습니다.(내용 떠올리면서 유도리 있게 말한 거 같음)				
<b>Q1-2: 학교에서 서당과 연관된 활동 여부</b>				
A: 아무래도 학교가 다른 친구들의 진로 활동도 같이 해야 하다 보니 제가 주가 되어 활동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경상대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b>Q2: 교사가 꿈인데 봉사활동이 좀 평범해보이네요. 이유가 있나요?(교육봉사 0시간)</b>				
A: 제작년부터 신청해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학교 선배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순서가 밀리고 밀렸습니다. 3학년 때는 기회조차.. (주저리주저리..)				

**Q3: 사회 탐구 방법이라는 과목에서 유튜브, SNS 등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연구 방법을 만들었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방법인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A: (주저리주저리...) 서론 본문 결론에 따라서 양식을 작성하고...

**Q3-1 : 무슨 탐구 활동을 한 것인지?**

A: 노키즈존에 대해서 탐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Q4: 윤리 과목을 공부한 방법, 극복한 사례**

A: (윤사, 생윤 3등급인 거 언급 후) 주먹구구식으로 암기해서 공부를 한 탓에 낮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생님 혹은 친구를 통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물어 해결하고 특히 어려웠던 시험에서 나오는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사상가를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 반복하여 정독했습니다.

**Q5: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

A: 3학년 때 활동한 동아리에서 부원들의 탐구 활동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동아리는 사회적 이슈를 탐색한 후 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비판해보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원 중 몇몇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두 과목 모두 수강하지 않아 탐구 활동을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동아리 회장과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철학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별도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부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제출할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부원을 보면서 부듯함을 느꼈습니다.

**Q6: 학교에서 모둠 활동 중 어려움을 겪은 사례**

A : 2학년 때 6C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얼추 생각나는 대로 말함)

**Q7: 자기 어필**

A: (머뭇거리다가 시간 달라고 하고) 저는 타인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자질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윤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대...(...)를, 아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실 : 학과 형누나들이 간식이랑 볼펜 무료 나눔, 하산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국제)	학과	스마트팜과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 시간	8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대기실 확인 후 고사 당일 대기실 입실 및 대기, 면접실로 이동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가치관 및 태도, 의사소통능력) 50%, 전공적합성(전공 기초소양, 논리적 사고력) 50% 로 타 대학에 비해 '인성'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희대학교의 대학 인재상과 핵심역량, 교양 과목인 후마니타스칼리지를 꼭 알아야하며 자신의 사례를 들어 연관지어 질문에 답변해야합니다.</li> <li>압박면접 스타일의 면접은 아니며, 해당 학과에대한 정보와 학생의 진로 방향성에 대해 많이 물어봅니다.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을 살려, 학과 졸업 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경희대학교는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리더를 중시하므로 나의 전공을 살려 공동체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는 식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li> <li>인성 영역 필수 질문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원동기'를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li> <li>사전에 준비한 질문만 질문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생각나지 않아도 순발력있게 떨지 않고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합니다.</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스마트팜과학과에 지원하게된 동기가 무엇이었죠?

A: 저는 경희대학교 스마트팜과학과에서의 배움이 저와 세상을 이롭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팜과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자율적 교육과정' 시간에 스마트팜을 통한 미래농업 체험'을 주제로 탐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에서 학생들의 눈 건강이 악화됨과 함께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낮추고 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찾다가 '도시농업'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식물과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어서 2학년때 교내 정보 동아리와 함께 스마트팜을 제작해 상추를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시도를 발판삼아 새로운 스마트팜 제작하고 눈에 좋은 시금치를 길러 쿠키로 만들어 먹는 체험활동을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저는 직접 시금치를 기르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공부하며 틈틈이 시금치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았고, 씨앗을 받아서 키우고, 장치에 옮겨 심은 후 스마트팜 장치에서 시금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빛과 온도, 영양을 조절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체는 결코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이런 정성스러운 과정들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니 저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스마트팜과학과에서의 식물호르몬, 식물생화학, 식물유전학, 식물분자생물학 등의 교과목을 통해 식물이라는 매력적인 생명체에 대해 배움으로서 제 삶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스마트팜과학과에서는 식물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위해 관련 융합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융합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뒤 스마트 농업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설계 등을 배워 식물체와 식물체를 둘러싼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을 두루 갖춘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제가 갖춘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세계를 펼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스마트팜과학과에서의 배움을 통해 제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3학년 진로시간에 조사한 ‘유전자표시이용여교배’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여교배는 F1과 모부계 중 한쪽 친과 다시 교잡하는 방법으로 특정 타겟 형질을 고정하여 새로운 계통육성에 많이 적용되는 육종기술입니다. 전통육종기술을 통한 식물 개발은 몇 대에 걸쳐 이루어지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사전에 어떤 형질의 식물이 탄생할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신육종방식 중 하나가 유전자표시이용여교배입니다. 유전자표시이용여교배란 식물체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특정 몇 개의 형질을 얻어내기 위해 사전에 유전자를 조합하여 이상적인 식물을 길러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여교배방식에 비해 드는 시간이 짧고, 식물에 나타날 형질을 예측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Q3: 스마트팜과학과에 지원했다면 식물과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다는 것 같은데, 자신이 현재 생각하는 스마트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A: 스마트팜의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며 스마트팜 시장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시설을 짓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접근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스마트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농가에서 스마트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개조하여 스마트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면 적은 돈을 들이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스마트팜의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4: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큰 재능은 무엇입니까?**

A: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것이 제 가장 큰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능 덕분에 학교 공부를 할 때에도 어렵더라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해가 될 때까지,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 학업 성적을 올리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팀원들과 실험을 할 때 첫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팀원들의 사기가 꺾였을 때 할 수 있다고 팀원들을 격려하며 재실험하여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성격 덕분인 것 같습니다.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제 가장 큰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국제)	학과	유전생명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 면접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 관련 질문 준비 필수</li> <li>편안한 분위기의 면접이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캠퍼스를 둘러봤을텐데 우리 학교 어떤가</b> A: 천천히 둘러봤는데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이뻐다.</p> <p><b>Q2: 롤모델</b> A: 저의 롤모델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초를 매우 중요시한 선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매일 반복되는 기초 훈련을 꼭 참고 해나가는 모습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p> <p><b>Q3: 주위에서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b> A: 처음에는 조용해서 다가가기 어렵지만 친해지면 누구보다 편하고 재미있다고 하였습니다.</p> <p><b>Q4: 유전자 가위의 문제점</b> A: 우선 기술적인 문제로는 오프 타겟 이펙트가 있습니다. 오프 타겟 이펙트는 교정을 원하는 표적 유전자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활성이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로는 임상 실험, 동물 실험 문제나 슈퍼 배아 문제가 있습니다.</p> <p><b>Q5: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b> A: 저의 진로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기술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p> <p><b>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경희대학교(국제)	<b>학 과</b>	응용수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네오르네상스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8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보다 생기부에 관련된 질문보다 대학 오면 뭐하고 싶은지, 대학 졸업하면 뭐하고 싶은지 비전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시간이 꽤나 길었음</li> <li>▪ 초반엔 교수님들이 아이스브레이킹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시니 편하게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것에 대한 답변만 성실히 하는 것이 최선임</li> <li>▪ 경희대 면접은 느끼기에 초반에 당락을 결정짓는 것 같다. 초반에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아는데까지 이야기해야한다.</li> <li>▪ 수학과 면접은 다른과보다 특수하게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한다. 자신의 생기부 내용 중 대학교 수학수업에 나오는 내용이 있다면 120%알고 들어가자.</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교수님: 만나서 반가워요. 질문 몇 개 할테니까 편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오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b>  A: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p> <p><b>Q1-1: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b>  A: 사람들은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응용수학과에 지원하기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p> <p><b>Q1-2: 수학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어요?</b>  A: 주어진 논리를 따라가거나, 혹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에서 뒤로 역추적해서 역으로 논리를 끌고 나가는 과정들이 재밌었습니다.</p> <p><b>Q2-1: 생기부에 보니까 맥글로린 급수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 혹시 맥글로린 급수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나요?</b>  A: 맥글로린 급수는 일반화된 테일러 급수 중에서도, a가 0으로 가는 특수한 형태를 뜻합니다. 고등학교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맥글로린 다항식으로 보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p> <p><b>Q2-2: 어떤 문제에서 맥글로린 다항식을 쓸 수 있는거죠?</b>  A: <math>\sin x</math>, <math>\tan x</math>를 보통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math>x</math>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th>1 - \cos x</math>를 <math>x^2/2</math>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이유로는 보통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math>\lim</math>는 0으로 가고, 분모에 1차항이 있기 때문에 맥글로린 다항식을 전개 해보면, 1차 이후에 전개되는 항들은 모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례로는 <math>\sin x - \tan x</math>와 같은 식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 3차항이 있는 경우에는 3차까지 맥글로린 급수를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례를 빼고는 맥글로린 급수로 문제를 풀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맥글로린 급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p> <p><b>Q3-1: 수학 잘하는 친구들 보면 멘토 멘티 많이 하던데, 학생도 그런거 좀 했나요?(내 생기부는 3년 내내 멘토멘티로 채워져 있음)</b>  A: 네 저는 3년 내내 멘토 멘티 활동을 했습니다.</p> <p><b>Q3-2: 구체적으로 어떻게 멘토 멘티 활동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b>  A: 네 저는 멘토 멘티 활동을 3년 내내 하면서,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을 수준별로 다르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p>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었고, 수학을 꽤나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수학의 재미를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라도 여러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줬습니다. 실제로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더 이해가 잘 가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육학 수업도 수강했고, 오슈벨의 유의미 학습이론 등을 비롯한 여러 교수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내신 서술형 문제를 3학년 때 한문제 적중시키기도 했습니다.

**Q3-3: 멘토 멘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재능을 남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Q4-1: 수학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혹시 대학교 오면 뭐하고 싶어요? 수학 말고요.**

A: 수학에 대해 공부를 하려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방법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느라 못 읽었던 책들을 좀 읽고 싶습니다.

**Q4-2: 학생은 뭔가 하고 싶은게 굉장히 많네요 대학 와서 좀 놀고싶다거나 이런건 없나요?(웃으며)**

A: 사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이 끝나고 입시가 끝나면 꾸준히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Q4-3: 혹시 어떤 운동을 중학교때까지 했어요?**

A: 헬스하고 격투기를 주로 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고등학교 1, 2학년에는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학교선생님께서 수학의 본질인 이론, 증명과 관련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학의 본질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상위 레벨의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경희대학교(국제)	<b>학 과</b>		의류디자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네오르네상스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옆 대기실에서 과별로 대기 후 시간이 되면 3명씩 이동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위기도 매우 좋고 따뜻함. 한 분은 되게 친절하신데 한 분은 날카롭게 꼬리질문 하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오는데 안추웠어요?</b>					
A: 경희대에 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져 괜찮았습니다.					
<b>Q2: 우리학교 예쁘죠?</b>					
A: 네 제가 어제 사전 답사를 왔었는데 미술사 시간에 봤었던 도리아식 기둥을 실제로 보다니.. 너무 아름다워서 꼭 다니고 싶어졌습니다.					
<b>Q3: 오래 안기다렸어요?</b>					
A: 조금 일찍 도착하긴 했지만 설레고 떨려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b>Q4: 의류디자인이라는 과를 선택한 이유는?</b>					
A: 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재료들을 활용하는 브랜드를 만들 예비 디자이너입니다. 시즌이 지나서 버려진 옷들과 같이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재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재가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브랜드를 만들 것입니다. 오랜기간 패션을 사랑해왔고, 그 과정에서 옷뿐만이 아니라 패션쇼에서 쓰이는 세트장과 컨셉 아트 , 소품 등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패션 그 자체의 가치가 오랫동안 사랑받고 유지되게 하고 싶다는 디자인 철학을 가꾸어왔습니다. 여기 경희대학교에서 소재의 무궁무진한 다양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는 융합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최대한 지나간 자리에 남는 섬유가 없는 브랜드를 고안해 세상에 지속가능한 방법을 제안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여기 경희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5: 패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b>					
A: 제게 있어 패션은 삶의 일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패션을 자주 접해왔고 알록달록 디저트같은 패션의 매력에 빠져 일학년 때부터 소재개발 등 패션에 관한 많은 활동을 했고 패션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활동까지 해왔습니다. 패션에 대해 알아갈수록 깊이 있는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은 인류를 보호하고 개개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자 실제 관념과 제도까지 바꾸었습니다. 패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패션의 영향력을 빌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b>Q6: 생기부 보니까 전교 부회장 등 리더십을 많이 발휘한 거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나요?</b>					
A: 제가 반장, 전교 부회장등을 할 때 항상 제 관심분야인 패션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학교에 체육복이 없다는 불편함을 캐치하고 1학년 때 반장 공약으로 과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옷이라는게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취향이 다 달라 디자인을 고르는데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당일날 세 가지 디자인을 친구들에게 제시하며 제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준점이 되는 디자인을 제시해 큰 충돌없이 잘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Q7: 가장 중요한 자질은?**

A: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디자인이 판치는 세상에 차별화된 관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초 같은 사람입니다. 진로시간 이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론을 설명할 때 전 Cmf라는 이론에 대해 발표하고 거기에서 멈추지않고 Clo로 만든 바지를 입힌 가상 런웨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차별화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Q8: 가장 인상 깊은 책**

A: 색채 심리와 패션 연출 워크북이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책엔 패턴, 색이 주는 이미지 등 많은 이론이 담겨있었고 전 그 중 색채 심리가 가장 흥미로워 동아리 축제 때 한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에서 빨강, 노랑, 파랑 조명을 비춘 세가지 포토존을 설치해 그 중 자신의 옷을 고려해 포토존을 선택하면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빨강은 어두운 색의 옷이 강렬한 대비로 시선을 끌었고, 파란색 조명은 프릴처럼 얇고 찰랑거리는 소재, 노란색 조명은 퍼, 크로세 소재와 같이 따뜻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색채 심리가 패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에게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을 나눠줘 모두의 추억에 남은 활동이라 제겐 가장 인상 깊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Q9: 그림 분류한 기준은?**

A: 옷의 재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보니 옷 종류에 한계가 있었고 그 덕분에 공통점을 잘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10: 이걸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사진은 원하는 공간 하나에서만 찍어준 건가요?**

A: 네 아무래도 폴라로이드 사진의 한계가 있어서..

**Q11: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A: 여기 경희대학교는 제겐 프로펠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힘들고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경희대학교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못 보여드린 저만의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여기 경희대학교에서 이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교수님들 웃으심)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경희대학교(국제)	<b>학 과</b>	전자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네오르네상스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8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문하시는 두 분은 생기부를 다 읽으실 생각이 없다. 한 번 쪽 훑어보시고 눈에 띄는 것만 몇 개 기억하시는 정도. 따라서 두 분은 생기부의 내용을 꼭 집어서 질문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잘하고 자신있는 것을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신다.</li> <li>너무 긴장하지 말자. 우리가 뭘 했는지 궁금해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있는 활동을 고를 선택권을 주시니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학과 지원 동기는?</b>				
A: 물리 시간에 전자기학 부분을 배우면서 전기력, 자기력에 대해 흥미를 느낌. 전자기력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릴 때 본 파워레인저, 슈퍼히어로를 연상하게 함. 마치 초능력에 대해 배우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너무 진부하게 어릴 때 얘기만 꺼내지 말고 특정 순간에 매료되었던 순수한 호기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두 분의 이목을 집중시키자. 유치해도 창피해 할 것 없음. 순수한 호기심이 중요함.)				
<b>Q2: 했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활동은? (네가 자신 있고 보여주고 싶은거 말해봐라.)</b>				
A: 3학년 동아리 시간에 했던 발전기 제작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b>Q2-1: 어떻게 만들었는지?</b>				
A: 이래이래 만들었고 다.이.오.드.를 이용해 정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도록 유도함)				
<b>Q2-2: 다이오드를 어떻게 활용해 정류 역할을 하게 만들었는지?</b>				
A: 4개의 다이오드를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 후 각 꼭짓점에 전선을 연결함. 각각의 대변이 같은 방향의 다이오드가 되도록 연결하면 완성.				
<b>Q3: 코딩 관련 활동이 꽤 있는데 기억 남는 것과 이유? (눈에 띄는 것 기억하셨다가 질문)</b>				
A: 2학년 바자회때 로또 코드를 만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 뭐 힘들었고 여러 방법 모색했고 끝내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들어서 기억에 남고~ (너무 진부하게 대답해서 아쉬움이 있다. 열심히 했지만 결국 실패함 이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됨. 하루종일 붙들고 찾아보고 요래저래해보고 밥거르면서까지 하다가 학교가서 바자회 하기전까지 하다가 바자회 시작 직전에 완료함. 이렇게 하면 임팩트 있게 전달되지 않을까. 굳이 어떤 활동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도 그 이후에 성공을 위한 발걸음이 되었다면 매우 값진 경험이라 할 수 있음. 성공으로 활동을 끝마치고 싶으면 네가 진짜 젓먹던 힘까지 끌어냈다는 걸 보여주면 좋을 듯.)				
<b>Q4: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				
A: 전자기학을 제대로 공부한 지 1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자기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했던 광범위한 경험들이 나의 삶이되고 뼈가되었다. 따라서 전자공학과에 들어가서 수학하는 데 문제없고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뽑아주세요를 시전하자.)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학과	경영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 시간	8분 이내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 → 문 열고 인사 → 자리 착석 →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기반 내용은 1문제 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공통질문이었음. 꼬리 질문은 없었음.</li> <li>▪ 면접 분위기는 좋았음. 교수님들이 계속 고개 끄덕이시면서 말을 들으시고 말을 약간 절고 있을때 괜찮다는 듯이 웃어주심</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지원동기

A: 저는 평소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후 우연히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던 도중 백종원이 자영업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며 망해가는 식당을 살리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영컨설턴트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갖기 위해 알아보던 도중 4차 산업의 발달로 경영컨설턴트가 정보/통신의 분야까지 확장될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술을 기업의 전략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고민하는 MIS 수업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MIS 전공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으로 세분화 되어있다는 점과 MIS CEO 초청 특강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온다면 MIS 수업을 비롯한 여러 경영수업을 듣고 더 깊은 전문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 Q2: 진로와 관련한 창의적 체험활동

A: 저는 전자 산업계의 대기업 국내 A 기업과 해외 B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A 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매출, 영업 이익, 주가가 감소하였으나 주식이 1주당 이익의 몇 배인가를 뜻하는 PER은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의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B 기업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감소하였으나 주가는 전 분기와 비슷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사주매입, 배당금 인상, 공급망의 다각화 때문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A 기업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재무제표에서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 PBR의 수치로 판단하였습니다. PBR은~ (면접관: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Q3: 협업했던 경험과 자신의 기여도

A: 집행위원회 환경생태부에서 부원들과 정크아트 공모전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업사이클링의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재미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더 많은 홍보를 위해 부원들과 협업해 숏선수범하여 업사이클링 작품인 에코 트리를 제작하였습니다.

#### Q4: 아트마케팅을 탐구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A: 저는 라면 봉지에 그려진 호안 미로의 그림을 보고 이런 아트마케팅의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탐구하였습니다. 아트마케팅은 예술작품과 제품을 콜라보한 것으로,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탐구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사후 50년 이상에는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화를 이용한 아트 마케팅은 많은 비용 없이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 마케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왜곡하거나, 제품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비판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5: 동아리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

A: 저는 동아리에서 이성 마케팅과 감성 마케팅 중 어느 것이 더 효과 있는지를 주제로 하는 토론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이성 마케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감성 마케팅도 초기 사용자 구축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성 마케팅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첫째, 식품 관리 인증 등 인증 마크가 까다로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한 빵 회사가 물 대신에 국내 유기농 우유로 빵을 반죽했다고 강조했을 때 더 판매량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Q6: 국·영·수 중에서 좋아하는 과목**

A: 저는 국어에서 특히 비문학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긴 지문을 다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추론하며 문제를 풀 때 재미있었고 (그 뒤는 기억 안 남)

**Q7: 성적이 낮은 과목**

A: 과학 과목이 특히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항상 개념 문제집에서만 머물러서 개념을 응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 문제집과 더불어 수능 특강을 푸는 방식으로 노력하여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저의 면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 경영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희대학교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학과	사회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대기실에서 전원 대기 → 1그룹 당 3명씩 호명하여 이동 → 면접실 앞에 앉아 대기하고 한 명씩 차례대로 면접실 입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보다 생기부나 전공에 대한 심층 질문이 적고 인성 질문이 많음.</li> <li>▪ 온화한 미소와 편안한 분위기, 비교적 압박되지 않는 면접.</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사회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가요?</b> A: 1학년 때 심리,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분야들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학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후 2학년부턴 사회학 관련 탐구활동을 진행했고,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제 적성과 흥미에 맞다고 판단하여 사회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사회학은 독서가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독서 좋아해요? 있으면 인상 깊게 읽은 책 있나요?</b> A: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lt;공정하다는 착각&gt;이라는 책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는 철학자가 쓴 책 아닌가? 그거 말고, 사회학자가 쓴 책은 없어요?” 라고 물으셔서 잘 모르겠다고 답함.)</p> <p><b>Q3: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 중 즐거웠던 경험이 있나요?</b> A: ~~</p> <p><b>Q4: 가족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이나 그런 것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b> A: ~~</p> <p><b>Q5: 동아리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우~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허허.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b> A: 2학년 때 동아리 만들고 운영했고, 동아리 프로그램 계획과 동아리원 면접 등등 진행했다고 답함. 이때, 동아리 활동 중에 겪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극복한 사례를 추가로 얘기함.</p> <p><b>Q6: 자신 있는 과목이랑 자신 없는 과목이 무엇인가요?</b> A: ~~</p> <p><b>Q7: 주변인에게 측은지심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b> A: 친구가 수행평가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서 속상해하는 걸 보고 측은지심을 느껴 위로와 공감, 조언을 해준 경험에 대해 말함. 친구가 극복하고 고맙다고 할 때 보람되었다고 말함.</p> <p><b>Q8: 경희대에 오면 듣고 싶은 수업이나 하고 싶은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b> A: 글로벌봉사팀(GVT프로그램)에서 사회로 들어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싶음, 경희대학교 동아리 ~~, ~~ 등에도 관심이 있음. 등등 솔직하게 말함.</p> <p><b>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b> A: 경희대학교 사회학과는 제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경희대학교	<b>학 과</b>	시각디자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네오르네상스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이내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에서 면접 절차 안내 → 순서되면 안내받고 면접실 앞 잠시 대기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함.</li> <li>▪ 생기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기억이 잘 안 나는 활동들을 다시 정리해야 함. 자기가 한 활동을 잘 알아두는 것은 필수. 면접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준비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쌓이면서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풍부하게 하는 다양한 예시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됨.</li> <li>▪ 실전에서는 예상 답안에 따라 연습했던 대로 말이 잘 안 나옴. 대본을 써서 외우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말할지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됨.</li> <li>▪ 전체적으로 면접이 스피디하게 진행됨.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분위기를 풀어주는 질문으로 시작) 우리 대학에 직접 와보니까 어때요?</b>				
A: 가벼운 질문이라 기숙사가 좋아 보여서 기대된다는 식으로 편하게 답함				
<b>Q2: 시각디자인과에 오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한 활동 중 자신이 가장 자신있게 소개할 만한 활동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b>				
A: 3학년 확률과 통계 시간에 무작위라는 개념을 트랜스포존, 리히터, 난수와 함께 디자인에 이용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를 디자인에 접목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변함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 코딩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어필함.				
<b>Q3: 시각디자인과가 많은데 우리 대학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b>				
A: 경희대학교의 창학이념인 흥익인간을 인간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바람과 연결하여 답변함. 아프리카 봉사나 KDI 같은 디자인 비영리 단체 활동이 소망이라고 언급하며 인성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어필함.				
<b>Q4: 미술과 디자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				
A: 공통점은 메시지 전달. 차이점은 디자인의 경우 미술과 달리 문제 해결 과정이 있다는 것, 사용자가 있다는 것으로 답함. 예상했던 질문은 아니었지만, 면접 준비 과정에 자연스럽게 고민했던 질문이라 평소의 생각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답변함.				
<b>Q5: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떤 과목을 배우고 싶은가요?</b>				
A: 글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라 느껴서 타이포그래피를 배우고 싶고,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많아 인터랙션디자인을 배우고 싶다고 답변함. 앞으로의 진로도 인터랙션 분야라고 답함.				
<b>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해주세요.</b>				
A: 고교생활을 돌아보며 성적만 잘 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며,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음. 대학에 진학하면 그렇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답변함.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학과	자율전공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 시간	8시 30분 입장, 9시 50분경 면접	면접위원 수	2명(입사관1, 교수1)
	면접 절차	입장 → 대기 → 면접 시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 질문만 나왔음, 전공 질문 일체 없었음.</li> <li>인성 질문도 진부한 질문만 많이 나옴</li> <li>추측인데 서류+내신 점수 높으면 인성 질문 아니면 전공 질문 위주인 듯</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 입장하고 인사 후 착석 교수와 입사관이 1명씩 앉아 있고 서로 파트 나눠서 질문, 교수 → 입사관 순서로 질문함.</p> <p><b>[교수]</b>  <b>Q1: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말해주세요.</b>  A: (하나만 말할 예정인데 당황)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법, 행정 등과 같은 사회과학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학문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 이바지하고픈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전교회장, 반장 등 여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탐구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1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학년 간, 과목 간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p> <b>Q2: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요? 쉽지 않았을텐데...</b> A: 어렸을 때 집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초등학교 때부터 뉴스를 같이 시청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교수님 웃으심) <b>Q3: 자기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b> A: 활발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b>Q4: 학업 계획을 말해보세요.</b> A: 1학년 때 행정학과 법학 개론 수업을 수강하고 어떤 학문이 나에게 더욱 잘 맞는지 고민할 예정. 그 후 그 2개의 과목만이 아닌 경제학, 정치학 등의 과목도 수강할 예정입니다 <b>Q4-1: 만약 그렇게 수강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b> A: (당황하면서) 행정학과 법학 중 1개는 깊이 탐구할 것 계획입니다. <b>Q5: 우리 학교에서 와서 공부 말고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b> A: 학회에 참여하여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을 키우고 싶습니다.(교수님 만족하심) <b>Q5-1: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말해보세요.</b> A: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으므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p><b>[입사관]</b>  <b>Q6: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b>  A: 학생회장을 하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 이를 커뮤니티매핑으로 해결하였습니다.</p>				

**Q6-1: 커뮤니티매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였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A: 커뮤니티매핑이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여 만드는 참여형 지도제작 기법입니다. 한국지리 시간에 커뮤니티매핑에 대해 배우고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을 이용하여 함께 지도를 기획, 제작, 홍보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Q7: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진짜 당황함)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선정한 이유는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Q8: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슬펐던 일 딱히 없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성적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고, 2학년 때 수학 교과에 매진하여 성적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Q8-1: 그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일인가요?**

A: (망했다고 생각함) 넵. 충격이 컸습니다

**Q9: 자신의 단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 남들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함, 학생회에서 생긴 일 예시 들면서 나중에 대화로 해결하였다고 함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학과	지리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형태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복은 착용 불가(블라인드), 단정하게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음.</li> <li>원서 지원 순번에 따라 면접 순서가 정해지기에 전략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함.</li> <li>대기실에서 자료 열람 가능</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 해주세요.</b> A: 인사 후 고등학교때 했던 GIS 활동에 감명을 받아 자연을 보호하는 GIS 제작자가 되고싶다는 소감을 밝힘.</p> <p><b>Q2: 생기부관련) 석탄화재 진압 GIS에 관해 조사했었는데, 석탄화재를 어떻게 끄는지 설명해 보세요.</b> A: 석탄화재는 물로 끌 수 있으나, GIS를 이용해서 그 진압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힘.</p> <p><b>Q3: 생기부관련) 항공기상 동아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b> A: 기상분야에 관심있는 친구들끼리 모여 이상기후에 대해 탐구했음을 밝히고 관련해서 조사하고 탐구했던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함.</p> <p><b>Q4: 생기부관련) 교학상장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b> A: 수학기시험 관련 문제풀이와 관련한 과정을 정리하여 친구들에게 배포했음을 밝힘. 이로인해 본인과 친구들 모두 긍정적인 영향력이 확산되었음을 느낌.</p> <p><b>Q5: 학교생활 가운데 보람찼던 기억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b> A: 자신의 발전가능성을 느꼈을 때라고 밝히며 관련한 예시 (학습 과정에서 느꼈던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그 극복과정)를 구체적으로 밝힘.</p> <p><b>Q6: 생기부 관련)인공위성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는데,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에 대해 알고 있나요?</b> A: 뉴스에서 봤던 북한의 인공위성 발전과 양상을 알고 있는대로 설명함.</p> <p><b>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b> A: 자신이 가진 뛰어난 역량을 간단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경희대 관련 프로그램을 동시에 언급함. 그리고 대학 진학 후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여 열심히 학습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며 면접을 마무리 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고려대학교	<b>학 과</b>	경영대학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업우수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6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강당같은 곳에 오후 면접인원 약 200명정도 다 들어감.</li> <li>▪ 전자기기는 1시 20분까지 지퍼백에 담아 걷어감.</li> <li>▪ 8분 간격으로 발표순서에 맞는 각조의 사람 1명씩 끌려감.</li> <li>▪ 면접자료 볼 수 있음. 시간 볼 수 있는 것 일체 금지됨. 물 많이 갖고 가야하고 화장실 애매하면 바로바로 가야 발표순서 신경 덜 쓰임. 문제 풀때 작성한 메모지는 면접끝나고 수거하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제시문 가: 복지제도 얘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됨</p> <p>제시문 나: 노자 무위자연 사상</p> <p>제시문 다: 어떤 시 이야기인데, 숲속을 지나가는 화자가 꽃을 보고 예쁘다고 자기집 마당으로 옮겨심었다.</p> <p>제시문 라: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설명하면서 지방 사무의 문제점 제시함</p>			
<b>Q1: 제시문 가의 복지사회와 제시문 나의 이상사회를 비교하시오.</b>			
<p>A : 제시문 가에선 복지제도를 정부가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에서는 모든 도의 윤리는 무위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이는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회의 공통점은 국민과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 행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문 가에선 복지제도를 제시문 나에선 도를 추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p> <p>차이점은 제시문 가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복지를 실현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큰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나에선 소국국민의 사회를 추구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말아야한다는 것을 보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b>Q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나'를 평가하시오</b>			
<p>A: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시문 나는 노자의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 화자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를 옮겨심는 행위를 했습니다. 숲 속에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꽃을 외부인인 필자가 옮겨 심은 것을 제시문 나의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제시문 다 마지막 단락에서 옮겨심은 꽃은 다시 아름답게 핀다고 나와있는데, 이 아름다움은 자연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졌던 꽃의 아름다움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꽃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킨 화자의 행동은 바람직하지않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p>			
<b>Q3: 가,나,다를 읽고 라의 지방사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말하시오.</b>			
<p>A: 제시문 라에선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방 사무의 여러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사무가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가 사무는 중앙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때문에 영향력이 큼니다. 게다가 저희 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지방보단 중앙의 힘이 강할 수 밖에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번째 요건은 저는 지방 균형 개발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의 체급을 중앙정부와 비슷하게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사람들을 지방으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갈 수 있게끔 지방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레 지방의 의사결정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말과 이어 두 번째 요건은 정책 참여 또는 국가 사무, 지방 사무 결정에 지방 자치 단체의 비율과 중앙 정부 참여자의 비율을 최소 몇 대 몇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도 있기때문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내용입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학과	경영대학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형명	학업우수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구상 12분, 답변 6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 면접(구상 → 답변)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p><b>[면접 준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면접을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마주한 제시문을 12분 만에 파악하고 답변을 조리 있게 구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번 한 번의 연습을 모두 실전처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습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눈으로만 쓱 보고 넘기지 말고, 12분의 시간을 재서 개요를 종이에 작성하고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li> <li>또한 제시문 기반 면접은 다른 면접과 달리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은 비교적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지만, 제시문 면접은 지문 분석과 답변 구상의 틀을 체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원서접수 이후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li> <li>답변을 입 밖으로 내는 연습 또한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힘들다면 부모님, 친구들에게라도 부탁하여 실제로 소리 내어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드백 또한 필수적입니다.</li> </ul> <p><b>[면접 당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는 오후 면접이었기 때문에 13시쯤 학교에 도착하여 신분 확인을 거친 후 대기실로 입실하였습니다. 대기실은 대강의실 같은 공간이었으며, 수백 명의 수험생이 한 공간에서 면접 순번을 기다립니다. 전자기기와 시계를 제출하고 나면, 자신의 면접 순번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수험생이 면접실로 이동하고 나면 약 10분 간격으로 다음 수험생이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꽤 지루할 수 있으나, 책이나 프린트를 볼 수 있으니 필요할 경우 지참해가시기 바랍니다.</li> <li>자신의 순번이 되면 각 조의 해당 순번 수험생들이 복도에 모여서 같은 시험실로 이동합니다. 모든 조의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서 12분 동안의 구상 시간을 가집니다. 시험실의 책상에는 제시문 두 장과 구상지 한 장이 제공되는데, 제시문은 파일에 넣은 채 제공되기 때문에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할 수 없습니다.</li> <li>12분의 구상이 끝나면 면접관 두 분이 계신 면접실로 이동하며, 입장과 함께 바로 답변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작성한 구상지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데, 면접실에도 제시문이 있으니 구상지에 너무 세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li> <li>답변을 마치고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으면, 면접관께서 더 하고 싶은 말이나 보충 설명이 없냐고 물으십니다. 미처 못다 한 말이 있으면 이때 하면 됩니다.</li> </ul>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제시문 내용]**

- (가): 복지와 복지 사회에 대한 내용
- (나): 도가의 이상 사회(소국과민)
- (다): 꽃을 뿌리째 파서 자신의 정원에 옮겨심은 내용의 시
- (라):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에 대한 내용

**Q1: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A: (가)는 정부의 개입에 동의하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으로 답변했습니다.

**Q2: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다)를 평가하세요.**

A: 자연에 대한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으나,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히려 꽃을 뿌리째 뽑음으로써 꽃을 보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Q3: (가)~(라)를 바탕으로 실질적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A: 지방 자치를 소국과민의 사회로 보고 중앙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되, 기초적인 복지는 필요하다는 요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학과	미디어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계열적합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구상실 이동 후 구상 → 면접실 이동 후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번호=면접 순서가 아님, 부모님께서는 문자로 예상 종료시간이 발송</li> <li>구상실에서는 32명이(한 조에 한 명씩) 함께 문제를 풀며, 시간은 충분히 확인 가능</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 Q1: 앉으세요 ^^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A: 네, 제시문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답변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산유국 국민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유국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고,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강압적인 정부 ~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나)의 표는 비산유국 국가의 80%(120/150)가 민주주의 정부이고, 나머지 20%가 권위주의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유국 국가의 경우, 약 50%(16/30?)가 민주주의 정부로 구성되고, 나머지 50% 가량이 권위주의 정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가 (가)의 주장이라 할 수 있는, '산유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부는 곧 (가)에서 언급한 단점들이 나타나는 국가일 것이라 생각했고, 이러한 단점은 국민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산유국 국민의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민주주의 정부에 사는 것으로 연결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민은 국가에 반항하지 않는 대가로 세금을 내지 않고 각종 지원금을 받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번 답변하겠습니다. 제시문 (다)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판단하는 일화? 정확히 어떤 말을 썼는지는 기억 안 남)를 바탕으로 일부만으로 전체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는 기업의 성공이 일에 극단적으로 몰두하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의 관점에서 (라)의 주장은,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이 그저 일에 몰두하는 리더만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일에 몰두하는 시간, 즉 양적인 부분이 늘어난다고해서 성공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원 복지, 새로운 기술 도입 등 질적 노력도 성공에 기여했을 것입니다(지금 생각하니 마음에 안 듭. 황설수철한 듯 ㅠ) 하지만 (라)의 화자는 이러한 노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에 단순한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답변하겠습니다. 제시문 (마)는 절차적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와는 별개로, 정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정의로웠다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시문 (바)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분배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 등뿐만 아니라 개인적 부분인 재능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의 그래프는 국민들이 느낀 사회적 정의의 발현? 수준과 삶의 만족도?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마)의 주장은 (사)에서 나타난, 분배적 정의가 잘 나타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가 잘 나타나면 국민의 행복도가 큰 차이 없이 높은 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바)의 주장은 (사)에 나타난, 절차적 정의의 실현 유무와 큰 관계없이 분배적 정의의 실현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문제에 맞게 문장을 구성해서 말했는진 모르겠네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다면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고려대학교	<b>학 과</b>	영어영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업우수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제시문 분석 12분, 면접 6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제시문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가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li> <li>▪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기</li> <li>▪ 두팔식으로 말하기</li> <li>▪ 키워드 중심으로 제시문 분석하기</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제시문 (가)의 '태형'과 제시문 (나)의 '매품'을 비교</b>  A: 제시문 (가)의 태형과 제시문 (나)의 매품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둘 다 일종의 형벌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의 태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나)의 매품은 흥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태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반면, 흥부전의 매품은 흥부 같은 내국인에게 많이 사용됩니다.</p> <p><b>Q2: -</b>  A: -</p> <p><b>Q3: (다)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b>  A: (다)의 윤리적 상대주의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매품을 본다면 매품 파는 행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품을 팔으로써 흥부는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고 관리는 매를 맞지 않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매품을 파는 행위가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므로 어느 관점에서 보면 부패한 관리가 처벌을 받지 않고 가난한 백성에게 대신 벌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b>Q4: (가), (나)를 참고하여 (라)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설명</b>  A: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목숨을 수단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의 태형은 사람을 처벌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을 도구화하고 (나)의 매품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새로운 처벌 방식이 필요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학과	컴퓨터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업우수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준비시간 12분 / 면접 6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12분간 답변준비 (답변준비실) → 6분간 자유롭게 답변 발표(면접고사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안내사항에 생기부 내용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 생기부 질문을 하는 사례는 없었음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li> <li>▪ 본인의 답변만 충분히 했다면 면접 시간 6분을 딱 채우지 않아도 큰 감점은 되지 않는 듯 함. (면접 시간 6분 중 4분 안에 발표가 끝나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라고 하고 고사실을 나왔습니다.)</li> <li>▪ 고려대학교는 과탐 개념을 세세하게 묻는다고 보다는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 고등학교 내신 때 공부한 기본 과탐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지만 물리나 화학 개념은 간단하게 훑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 참고사항 : 제시문 기반 면접이기에 기출문제가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음.</p> <p><b>Q1: 제시문 3개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묻는 질문이었음</b> A: 제시문 3개의 공통 개념으로 '종속'을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음</p> <p><b>Q2: 제시문 3개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묻는 질문이었음</b> A: 제시문 3개의 공통 개념으로 '개성'을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음. 답변은 '개성'으로 했으나 나와서 생각해보니 정답은 '독립'인 것 같음.</p> <p><b>Q3: 문제 1, 2에서 답한 개념 중 하나를 골라 제시문을 설명하는 문제였음.</b> A: 제시문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이 있었음. 그래서 공통 개념으로 '종속'을 이용하여 설명함. 서로 다른 전자들이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설명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세종)	학과	약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교수1, 입학사정관1)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까지는 면접에서 생기부 질문을 많이했었는데 올해는 공통질문만 나오고 생기부를 아예 안물어봤었음</li> <li>▪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봄</li> <li>▪ 꼬리질문은 많이 안나왔음</li> <li>▪ 공통질문 열심히 준비하세요!! 예상외의 공통질문이 좀 나왔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 동기가 뭔가요?</b>				
A: 생명과학 1수업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약학과를 지원한 이유,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려대학교 약학과 특징을 이유로 들어서 대답함.				
<b>Q2: 학교에서 수행평가를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해결과정을 말해주세요.</b>				
A: 통합사회 시간에 모둠과제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대답함				
<b>Q3: 수학과목의 단위수가 다른 사람보다 적은 이유, 수학과목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b>				
A: 수학과목 대신 화학,생명과학을 듣느라 단위수가 부족한것으로 보인다, 수학 과목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부담감이 컸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얘기함				
<b>Q4: 기억에 남았던 수행평가 소개해주세요.</b>				
A. 고급생명 과학시간에 항체에 대해 탐구했던 경험을 얘기함.				
<b>Q5: 탄산음료가 차가울때 특 쓰는 맛이 더 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온도가 낮을때 기체의 용해도가 더 높기 때문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탄산이 증가합니다.				
<b>Q6: DNA와 RN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b>				
A.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Q7: DNA와 RNA중 정보저장에 활용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가요?</b>				
A: DNA입니다. 이중나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개의 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특성상 안정성이 높아 DNA가 유전정보저장에 활용됩니다.				
<b>Q8: RNA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은 없나요?</b>				
A: 일부 바이러스는 RNA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바이러스였습니다.				
<b>Q9: 바이러스가 RNA로 구성되어서 얻는 이익같은게 있을까요?</b>				
A: 이때 질문을 잘못이해해서 이중가닥 RNA ... 라고 잘못 얘기함..				
<b>Q10: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난 후의 학업계획을 말해주세요</b>				
A: 교수님들과 소통하면서 저의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고 고려대학교 내부에 있는 학술동아리인 피악에 들어가서 선배들과 제약에 관한 경험을 많이 하고 싶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세종)		학과	약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대기 → 순서가 되면 방 앞에서 대기 → 입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화한 분위기로 진행됨.</li> <li>▪ 생기부 내용이 아닌 개념 질문이 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고려대학교 약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주세요.</b>  A: 약물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건강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저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에 도움이 되고자 약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고려대학교’ 약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따로 있을까요?</b>  A: 세종에 위치해 있다보니 청사가 있고 오송의 과학 연구 단지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려대학교 약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b>Q3: 탄산음료는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특쓰는 맛이 더 강한데 왜 그런지 아나요?</b>  A: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높아집니다. 미지근한 음료보다 찬 음료에 기체가 더 많이 용해될 수 있다 보니 차가운 음료에서 더 특쓰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p> <p><b>Q4: 압력과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b>  A: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음료에서 더 특쓰는 맛이 납니다.</p> <p><b>Q5: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DNA와 RN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b>  A: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있으며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RNA는 한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RNA는 이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p> <p><b>Q6: 인간은 그럼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설명해볼 수 있을까요?</b>  A: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돌연변이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의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인간이 D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7: 그럼 유전물질로 RNA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도 있을까요?</b>  A: 네. 바이러스 같은 경우 돌연변이의 발생 확률이 높아야 항생제로부터 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기도 합니다.</p> <p><b>Q8: 학교 생활 중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원자분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b>  A: 저는 1학년 때 실험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실험 동아리에서 이론적인 탐구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실험에 초점을 맞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의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며 합의를 거쳐 실험을 진행하고 후에 이론적 탐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p>				

**Q9: 대화를 주로 하셨다는 거군요? 지원자분의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낮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 수학에 약했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잘 보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시험에서 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변별력이 다른 과목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실수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문제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Q10: 공동교육과정에서 파이썬과 빅데이터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A: 보통은 약학과 빅데이터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신약의 효과를 알기 위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빅데이터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약학과 빅데이터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Q11: 마지막으로 약학과에 입학하면 어떤 약대생이 되고 싶은지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A: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탐구, 독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약학과에 입학한다면 이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역량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약대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세종)	학과	약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랜덤하게 면접번호 부여) → 면접실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기반 면접이나 생기부 관련 질문보다는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음.</li> <li>▪ 교수님 두 분이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스몰 토킹 후 면접 시작</li> <li>▪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답변이 끝나지 않으면 끝까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학과에 지원한 동기?</b> A: 약학지식을 배워 치료의 격차를 줄이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생명관련 지식을 배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치료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약이라는 것이 작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아 다양한 사람의 병을 고칠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 제 목표를 이뤄나가고자 지원하였습니다.</p> <p><b>Q2: 탄산음료를 마시면, 음료속의 탄산 때문에 특 쓰는 맛이 느껴지는데. 시원할수록 그 맛이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b> A: 탄산음료의 탄산은 이산화탄소를 액체에 녹여서 탄산이온이 되어 특쓰는 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용매의 용해도가 높아져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특 쓰는 맛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p> <p><b>Q2-1: 압력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줄 수 있나요??</b> A: 외부 압력에 따라서도 용해도가 달라지는데 외부 압력이 높아질수록 용매의 용해도가 높아져 탄산의 특 쓰는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p> <p><b>Q3: DNA와 RNA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b> A: DNA는 ATGC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반면 RNA는 AUGC의 염기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DNA는 주로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며, 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리보솜까지 운반하고 리보솜 단백질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p> <p><b>Q3-1: RNA가 아닌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이유가 뭔가요?</b> A: DNA는 이중나선구조를 가지고 있고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DNA에 좀더 안정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3-2: RNA로 정보를 저장하는 개체는 없을까요?</b> A: RNA에 유전정보가 저장되는 개체로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몸의 면역체계에 의해 쉽게 죽는데 RNA구조는 단일가닥으로 지속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해 유전정보를 자손에게 전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p> <p><b>Q4: 전교 학생회장을 한 것 같은데, 왜 학생회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나요?</b> A: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지나가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학생회장도 그런 이유에서 출마, 당선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때가 아니면 다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군사관학교	<b>학 과</b>	여자/인문
<b>전형유형</b>	여(인문계열)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b>	<b>면접 시간</b>	한 분과 당 10~15분	<b>면접위원 수</b>
<b>면접</b>	<b>면접 절차</b>	한 분과 당 5명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각실 같은 곳에서 대기하며 영화 탐견 틀어줌.</li> <li>▪ 대기하면서 자기소개서나 생기부 볼 수 있으며 전자기기 사용 불가</li> <li>▪ 1분과와 2분과 순서는 랜덤</li> <li>▪ 1분과: 인성, 시사 / 2분과: 생기부, 지원동기서, 자기소개서</li> <li>▪ 1분과가 2분과보다 조금 딱딱한 분위기지만 생각보다 압박질문은 없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1분과</b>			
<b>Q1: 왜 공사 오고싶다고 생각했어요?</b>			
A: 아버지께서 가족여행때마다 항상 항공이나 우주 관련 랜드마크를 빠짐없이 데려가주셨고, 미국에서 2년 살면서는 미국 국립 항공우주박물관이나 라이트 형제가 처음 글라이더 비행을 시행했던 언덕에 가보며 자연스럽게 비행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한국전쟁 때 쓰였던 전투기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국가에 헌신하는 공군장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Q2: 아버지 직업이 원데 항공 우주에 관심이 많으세요?</b>			
A: 비행기 관련 일 하십니다. (약간 머뭇)			
<b>Q3: (약간 웃으면서) 2학년 때 체육교육과 희망했다고 써있는데 왜 쌤이 써주셨을까요?</b>			
A: 제가 체육 시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체육대회때도 열심히 참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b>Q4: 운동 잘해요?</b>			
A: 네 어렸을 때부터 배구, 태권도, 농구 등 다양하게 했습니다. 지금 3학년 반에도 여학생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체육시간에 남학생들과 같이 운동하면서도 뒤쳐지지 않고 재밌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b>Q5: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해요?</b>			
A: 저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러회담을 보면 북한은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인공위성 기술을 제공해주었는데 이 기술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Q6: 그렇죠. 근데 북러회담 말고도 예전부터 북한은 꾸준히 우리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건 있어요?</b>			
A: 저는 천안함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뉴스영상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희생자도 많았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평소에도 끊임없이 훈련과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Q7: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희생했던 경험이나 타인을 위해 봉사했던 경험이 있나요?</b>			
A: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 실험 동아리 부기장을 했습니다. 매 주 다른 실험을 하려면 동아리원들이 시약장에서 다양한 약품들을 그때그때 꺼내야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실의 시약장에는 이름없는 약품들도 많고, 약품들이 있어야할 곳에 없고, 다 쓴 약품들도 방치되어있어서 동아리원들이 약품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날을 잡고 시약장들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 정리하고 나니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도 좋아하셨고, 동아리원들도 깔끔해진 시약장에서 쉽게 약품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봉사정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b>Q12: 공사 오면 제일 힘들 것 같은 건 뭐예요?</b>			
A: 저는 가입교 기간에 하는 성무기초훈련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민간인에서 군인 신분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므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기 위해 꼭 겪어야하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탄탄한 기초체력과 정신력으로 극복해나가겠습니다.

**2분과**

**Q1: 자기소개서에 남학생들과 운동해도 뒤통지 아니라고 써있는데 체력은 어떻게 봤어요? 몇 개 했어요?**

A: 윗몸일으키기 47개, 팔굽혀펴기 27개, 오래달리기 5분 50초 나왔습니다.

**Q2: 1학년 때 미인정 지각 2개가 있는데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A: 네, 제가 학교에서 조금 멀리 살아서 아버지가 차로 데려다주는데 이것도 핑계라고 볼 순 있지만 차가 밀리거나 해서 늦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는 아침일찍 제가 먼저 준비해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해서 학교 야자실에서 국어 지문으로 아침을 깨우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3: 근데 OO에서 OO이면 별로 안멀지 않나?**

A: 아 저희 동생도 같이 차로 데려다주셔서 동생 학교에 갔다가 등교하느라 가끔 늦었습니다.

**Q4: 그래요. 근데 생기부에 국제관련 희망한 것 같은데 왜 공사 지원했어요?**

A: 아버지께서 가족여행때마다 항상 항공이나 우주 관련 랜드마크를 빠짐없이 데려가주셨고, 자연스럽게 비행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알게되고 공군사관학교 입학의 꿈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때는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일단 막연하게나마 관심이 있었던 국제 분야로 생활기록부를 채워왔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왔던 불평등과 사회문제들이 결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며 우크라이나와 같이 안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는 말로써 상대를 설득하는 외교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대해 관심이 커졌고, 국민을 수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직업인 군인이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Q5: 여기 미국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라고 써있는데 설명해볼래요?**

A: 중학교 2학년 마치고 미국에 가서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미국에서 한 것이고 한국에 다시 와서는 반 년 올려서 고등학교 2학년을 들어갔어야 하는데 6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미국과 학제 차이로 인해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Q6: 아 그럼 중학교 3학년 마쳤다는 의미로 써있는 거네?**

A: 네 그렇습니다.

**Q7: 그럼 1년 늦게 들어가는거에 본인은 괜찮았나?**

A: 네, 제가 먼저 부모님께 제안드린 거여서 만족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Q8: 군인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A: 먼저 군인의 장점은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느끼는 만족감은 아무나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단점으로는 약간의 행동의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인과는 다른 체계와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지켜야하는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음~ 네~ 수고했어요~

나: 혹시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면접관: 네 해보세요.

나: 제가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과감히 미국 국적을 버려버리고 공군에 뼈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크게 말함)

면접관: (지금까지 계속 다 웃고 계셨지만 이때 쯤 크게 웃음) 오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건가? 언제왔어요?

나: 네. 아기 때 와서 많은 기억은 없습니다.

면접관: 그럼 미 공사가가지? (농담조로 웃으면서 다른 면접관들 보며)

나: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한 몸 바치고 싶습니다!

면접관: 네~ 수고했어요.

나: 감사합니다. (인사)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교육대학교	<b>학 과</b>	초등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지역인재선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7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에 순번대로 대기, 순서가 오면 3~4분동안 면접위원들이 생기부 확인하는 동안 대기, 들어오라고 하면 3~4분동안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위기 좋은 편이라 압박면접 없었음</li> <li>▪ 세특 만나왔고 개방형 질문처럼 포괄적인 질문만 받음. 굳이 분류하자면 자율, 진로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교사를 꿈꾸게된 동기와 공주교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b>  A: 어릴 때부터 교사를 꿈꿔왔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쌤 영향으로 초등교육과 지망 희망.. 공주교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 설립목표, 공주교대에 진학해서 ~~한(공주교대 홈페이지에 나오는 인재상) 교사가 되고싶다...</p> <p><b>Q2: 지원자가 생각하는 교사에게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b>  A: 사명감이라고 생각.. 교사는 사명감 없이 일하면 안됨. 자라나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길잡이 해줘야하므로 단순히 직업으로만 여기면 안됨...</p> <p><b>Q3: 본인이 교사로써 어떤 자질을 갖추고있나요?</b>  A: 낮을 안 가리며 사교적이고 남을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알아서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때 어려움 없이 다가와 말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친근감이 들게 할 수 있음...</p> <p><b>Q4: 1학년 학급 학습부장, 2학년과 3학년 학급 반장을 맡았는데 특별히 리더십을 발휘한 활동은 무엇인가요?</b>  A: 1학년때는 각 과목 학습부장(멘토)들과 회의를 거쳐 어려웠던 문제 선발, 오답 설명 후 변형문제 출제함, 2학년 반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체육대회같은. 주변이 산만해서 선생님이 아이들 통제를 어려워하셨는데 아이들 통제를 돕고 질서유지에 힘쓰며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담임선생님께서 고마워하심...</p> <p><b>Q5: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며, 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은 무엇인가요?</b>  A: 멘토멘티 활동에서 멘토로 활동했는데 영어모의고사 문법 문제를 멘티친구가 어려워해서 오답인 이유를 설명해주고 문법문제에 주로 나오는 문법을 알려줬음. 나는 이미 아는 내용을 설명하는거지만 설명을 듣는 친구는 모르는 내용이기에 내 관점에서 설명하니 친구가 이해하기 힘들어함. 다시 설명을 바꿔서 모른다는 전제 하에 친구의 관점에서 설명하니 친구가 잘 이해함. 다음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를 맞춤. 이 활동을 통해 굉장히 부듯했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 아닌 배우는 입장을 고려하여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교육대학교	학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선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기록부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준비하면 좋음.</li> <li>교수님들이 친절하고 분위기가 좋은 편임.</li> <li>자기소개나 지원동기 없이 바로 전공적합성 관련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특징.</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교과 성적을 보면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비법이 있나요?</b></p> <p>A: 성적을 올리게 된 계기는 1학년 때 수업을 받으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이 넓어진 것이 체감된 것과 2학년 때 세계사나 윤리와 사상 과목 등 적성에 맞고 흥미로운 선택과목을 접하며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 강의 플랫폼을 통해 보충하였습니다.</p> <p><b>Q2: 고등학교 생활 중 힘든 일이나 발전한 일이 있나요?</b></p> <p>A: 1학년 때 학급 1인 1역할로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담당하시는 주사님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주사님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학급의 분리수거를 맡고 있는 저조차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주사님을 본받기로 다짐하며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2학년과 3학년 때까지 분리수거 도우미를 지속하였습니다.</p> <p><b>Q3: 교사로서 자신이 갖추고 있는 자질은 무엇인가요?</b></p> <p>A: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초등교사의 경우 어린 아이들이 힘들거나 지칠 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학교생활을 하면서 정직과 책임감을 목표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4: 질문할 것이 없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b></p> <p>A: 올해 교육 이슈가 있었는데, 저 역시 피해 교사가 느꼈을 참담함을 공감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정직하고 배려심이 많아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1학년 때 공동교육과정에서 상담 심리학반 수업을 들어 래포 형성 기법을 배웠고, 이처럼 언제나 다른 사람의 고민을 경청하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초등교사가 된다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의 고민까지 함께 떠안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교육대학교	<b>학 과</b>	초등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지역인재선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내외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면접 대기실 입장 → 본인 확인 → 가번호 수험표 배분 → 면접 대기 → 입장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대기실 입실 마감 시간 후부터 면접 준비 자료를 볼 수 없음.</li> <li>▪ 면접실 내 면접관과 지원자 간 거리가 매우 짧은 편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1학년 통합 사회 시간에 교육불평등에 대해 탐구했는데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말해주세요.</b></p> <p>A: 교육불평등의 원인으로는 지역 간 격차, 경제적 소득 차이 등이 있고, 이와 같은 교육불평등이 지속된다면, 지역 간 격차가 지방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지역사회연계교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화를 통해서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결할 수 있고, 소득 차이의 문제 역시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p>				
<p><b>Q2: 학교 생활에 기여한 부분이 있나요?</b></p> <p>A: 2학년 때 부반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약으로 채팅방을 통해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학습 문제 질문을 해결해주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학급 내 해당 과목을 잘하는 친구와 고민하면서 답변을 완료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갖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만족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p>				
<p><b>Q3: 2학년 때 교육학 수업을 들었는데 인상 깊었던 개념에 대해 말해주세요.</b></p> <p>A: 저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가장 인상깊습니다. 먼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어떤 현상의 개념, 이론적 배경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가치있는 경험을 주고자하는 수업으로 예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의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 실연을 한 경험까지 이어지게 되어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p>				
<p><b>Q3-1: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말해주세요.</b></p> <p>A: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이론적 배경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보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p>				
<p><b>Q4: 보충하고 싶은 답변이 있다면 더 말해주세요.</b></p> <p>A: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동아리 때 도서부 차장으로서 문해력 감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 학생들의 독서율을 증진하기 위해 독서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신문기사 전시, 책 추천 등의 행사를 실시하면서 실제로 학교 도서관의 대출 현황이 증가하기도 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저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실천해나갔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교육대학교	학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선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입실 → 대기(약 2시간 반) → 면접 대기 → 면접(약 10분)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전날에 잠 많이 자지 않기(종이나 들고 온 거 못 보게 해서 허공 보고 있어야 함. 차라리 그 시간에 자는 게 더 효율적임)</li> <li>▪ 또래 대답 수준 다 거기서 거기니까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또박또박 당당하게 말하는 것 명심</li> <li>▪ 타 교대 분위기에 비해 공주교대는 분위기가 풀어져 있고 말투가 다정하다는 느낌을 줌.</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가벼운 질문(ex. 집에 가고 싶지는 않나요? 긴장 안 되나요? 기다리는 데 힘들지는 않았나요?등..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음)**

A: 사실 조금 힘들었다고 대답함. 긴장은 안 되니까 빨리 집 가고 싶다고 함.

**Q2: 임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임원으로서 노력했던 점과 그 결과는?**

A: 먼저 언제언제 무슨 임원직을 맡았는지 대답.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약 얘기함. 1학년 때 각자 관심사를 지닌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스터디그룹 프로젝트 진행했다고 함. 진로/관심사별로 그룹을 나눠서 번갈아가며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 예를 들어 환경 분야-관련 책 읽고 지구를 위한 실천방법 공유, 이를 토대로 브이로그 찍어서 발표/법 관련-밸런스게임 주제 등으로 모의재판 해보기 등.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부쩍 친해질 수 있었고, 부가적으로 책임감/발표 능력 등을 기를 수 있었다고 대답함.

**Q2-1: 환경 관련 브이로그 추가 서술 요구**

A: 먼저 책 제목과 저자 대답(신뢰성 확보), 책 속에 나온 내용 서술함. 해당 책에는 이리이러한 방법이 지구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보완하여 지구 지키기를 주제로 브이로그를 찍었다고 함.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콘센트 뽑기, 전등끄기, 대중교통 타기 등의 모습을 브이로그 속에 담아 친구들과 공유 및 발표했다고 대답.

**Q3: 성적 그래프가 낮아졌다가 오르는 형식을 띄는데, 낮아졌던 이유와 이를 극복한 자신만의 방법?**

A: 성적이 낮아졌던 시기 서술. 본인은 2학년 2학기에 낮아지고 3학년 1학기 때 올라갔음. 2학년 2학기에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관련 개념이 많았고 배우는 내용도 훨씬 늘어 1학기에 비해 전반적인 학습량의 증가가 필요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1학과 동일한 시간으로 공부시간을 편성한 것을 문제점으로 설정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3학년 1학기에는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과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배워본 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단원별 학습량을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 또한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전인 7시-8시경과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학습시간을 늘림.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식으로 대답.

**Q4: 교사의 꿈을 꾸게 된 계기?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A: 개인적인 동기..「정의와 교육의 힘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를 중점으로 얘기함. 후자 질문은 두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대답함. 주변에서 걱정 반응 없이 응원 반이었다 걱정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교권 등 여러 문제들로 걱정하셨으나 본인의 단단한 성정을 알기에 나중에 다들 납득하셨다고 대답.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교육대학교	<b>학 과</b>	초등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위주	<b>전 형 명</b>	지역인재선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내외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 시간 동안 자료를 볼 수 없어서 미리 생기부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함</li> <li>• 본인 면접이 끝나면 바로 개별 퇴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고등학교 과목 중 가장 학습이 어려웠던 과목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나요?</b>          A: 수학 과목 학습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수학은 기초 개념에 덧붙여가며 학습하는 과목인데 기초를 탄탄하게 쌓기 위해 개념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를 보고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었고 성적도 향상된 거 같습니다.</p> <p><b>Q2: 가지고 있는 인성 능력 중에 가장 강점인 것과 약점인 것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얘기해주세요.</b>          A: 제 장점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 상담박스라고 불릴 만큼 친구들이 고민이 있을 때 제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믿고 의지해서 상담을 해 그 친구의 입장에서 먼저 공감해서 위로와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 후 객관적 위치에서 이 상황이 다른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학생은 담임교사를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하기 때문에 훗날 제가 교사가 됐을 때, 제 장점을 발휘해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 단점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은 지나친 걱정과 생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생각의 중요도 순위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점검 습관이 맡은 일을 빠짐없이 할 수 있게 해 책임감을 더욱 기를 수 있었습니다.</p> <p><b>Q3: 왜 초등교육과 지원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초등교사 하면 좋을 거 같다'라고 추천받은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얘기해 주세요.</b>          A: 저는 교사가 되고자하는 열정이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과목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던 도중 선생님께서 제게 굳이 한 과목을 정해도 되지 않다고 초등교육은 어떠냐고 제게 권해주셨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고루 좋은 성적을 얻는 제게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추천해주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4: 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서 초등교육으로 바꿨나요?</b>          A: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이 중등교육에서보다는 초등교육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초등교육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교육대학교	학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선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 시간에 생기부나 면접 관련 자료 볼 수 없음. 입실 마감 시간이 되면 감독관이 모든 자료 및 전자기기 모두 가방에 넣으라고 안내함.</li> <li>선배들이 입구부터 반겨주시고 면접관분들도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가족들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b> A: 네.</p> <p><b>Q2: 성적이 꾸준히 잘 나왔는데, 본인이 썼던 공부법과 그 효과를 봤던 과목이 뭔가요?</b> A: 저는 주로 반복학습을 통해 공부했고, 사회계열 과목에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맞힌 문제도 바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다른 선지들의 오답 이유를 생각해봤고, 틀린 문제도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틀린 이유를 계속 탐구하고 반복적으로 복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한 문제의 다양한 선지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특히 한국지리 과목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p><b>Q3: 학교에서 솔선수범했던 경험이 있나요?</b> A: 1,2학년때 학생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내의 다양한 일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축제를 기획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교생에게 잊지 못할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축제의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고, 늦게까지 부원들과 남아 학생들에게 나눠줄 상품을 포장하는 등의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또한 축제 내내 온라인 실시간 송출 댓글을 관리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연하는 친구들도, 관람하는 친구들도 모두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노력했기에 이런 활동들이 기억에 잘 남아있습니다.</p> <p><b>Q4: 교육관련 동아리를 꾸준히 했는데, 이런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했고 그로부터 본인이 확립하게 된 교육관이 있다면 말해보세요.</b> A: 저는 교육동아리를 하면서 교육게임 만들기, 교육관련 영상 보기,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모의수업을 진행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모의수업을 진행할 때, 그런 자리가 낯설고 떨려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고, 수업이라기 보다는 저의 개인 발표와 같은 모의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수용하여 두 번째 모의수업때에는 짝 활동이나 학생들의 발표를 유도하며 좀 더 소통하고 교사와 학생이 주고받고 함께 해나가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학급 내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업 뿐만 아니라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문제들도 소통의 부족 및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교육을 실천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관점을 넓히며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소통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교육대학교	<b>학 과</b>	초등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지역인재선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7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면접관 2명 번갈아 질문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에 적혀있는 교내 활동 및 독서 활동 관련하여 최대한 꼼꼼하게 다 답변할 수 있어야 함.</li> <li>▪ 생기부 기재 금지 항목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을 금지해야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교사가 되려는 구체적인 동기와 교육관은 무엇인가?</b>				
A: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주 시인과 관련한 발표에서 의도치 않은 박수와 칭찬을 받음. 이를 계기로 발표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남들 앞에 나서는 행위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됨.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학생들이 발전하는 모습이 부딪혔고 단순히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발표가 좋아 참여형 수업을 실행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음 .				
<b>Q2: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인가?</b>				
A: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동아리 수업 실연이 가장 기억에 남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화상채팅 기능이 탑재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하여 수업 실연을 진행함. 비대면 수업의 최대 단점인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을 극복한 수업이었고, 문제해결 중심의 탈출형 스토리텔링 수업이었기에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까지 이끌었던 활동으로 가장 인상 깊었음 .				
<b>Q3: 리더로서 공동체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가?</b>				
A: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기 말 대청소 시간, 학기 말 청소라 매우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 학급이 맡은 구역을 청소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부반장으로서 어수선한 학급을 바로잡고 청소를 끝내도록 이끌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낌. 그래서 학생들을 한 대 모아 각자 청소해야 할 구역을 정하고 학생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재 시간에 청소를 끝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음. 이를 계기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을 잘 통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상황을 명확히 설명한 뒤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 .				
<b>Q4: 도움이 필요한 학급 친구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가?</b>				
A: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 성적의 저하와 교사라는 진로 목표 설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었음.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부딪치면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친구였음. 이런 친구를 위하여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도서를 추천함. 책의 내용 중 자신의 본래 정체성이었던 공예를 수업에 잘 적용해 교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한 교사 에릭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교육자로서의 모습과 교육관인 포용교육을 실현하는 모습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며 친구의 힘듦을 덜어주었던 경험이 있음 .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학과	관광경영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9시까지 면접대기실 도착 → 면접 대기실 대기(20분동안 면접준비 시간이 있음, 9시 20분부터 순차적으로 면접) → 면접실 앞 대기 → 면접실 입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박면접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갈 것</li> <li>▪ 꼬리질문이 많은편은 아니었음, 꼬리질문 어렵지 않았음</li> <li>▪ 자기소개 없이 바로 서류질문으로 넘어 갈 수 있으니 당황하지말 것</li> <li>▪ 생기부 앞쪽에서 대부분 질문이 나오니 생기부 앞 부분을 더 자세히 볼 것</li> <li>▪ 면접대기 중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있음</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왜 우리학교에 지원했고 경영학과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주대에 지원한 이유는 트랙제도 때문입니다. 트랙제도는 심화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전문성을 길러주고, 전공분야를 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융합능력키울수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소비자심리때문인데요. 제가 한참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독서 활동을 하던 중 소비자심리학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마케팅이 사람들의 무의식과 관련이 있기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영과 관련한 진로선택과목을 택하여 창의경영 수업을 듣게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창업에 대한 모의계획을 짜며 마케팅외에도 경영에 흥미를 가지게되었고 경영학과를 지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Q2: 마케팅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미래에 구체적으로 되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저의 꿈은 CRM 마케터가 되는 것입니다. CRM마케터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고객 타겟별 광고를 기획하는 마케터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위해서는 카피라이팅 작성 능력과 공감능력을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생활 중 영어 노래 가사를 작사하는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음악시간에는 환경캠페인송 가사를 쓴 후 친구들과 선생님께 호평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과 신뢰감을 얻을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 분석 및 추출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주대를 재학하며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심화전공을 배워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 Q3: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광기반의 마케팅전략을 짰다고 했는데 빅데이터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그리고 빅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빅데이터는 경영에서 꼭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현상 해석을 할때 주관적인 해석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보 시간에 성적이 우수했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 통계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검색어를 목표 원도심과 관광객, 방문객, 근대역사문화, 도시재생 등으로 설정하고, 6년간의 기사를 크롤러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데이터의 적절성을 감안해 검색 범위는 뉴스 기사의 제목에 한정했습니다.

#### Q4: 숏폼콘텐츠가 합리적인가에 대해 찬성입장으로 토론에 임했다고 적혀있는데 숏폼콘텐츠가 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나?

A: 숏폼콘텐츠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고 제품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킬수있다고 생각하여 숏폼콘텐츠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Q5: 교내 행사에서 자신감있는 모습으로 춤을 춰다고 적혀있네요 (웃음)

A: 아 네! 저는 남들 앞에서 제 자신의 장점을 망설임 없이 보여주곤 합니다. 사실 공주대에 오고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유 중에는 댄스부도 있습니다. 공주대의 댄스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동아리의 일원이 되어 저의 끼와 열정을 동기들에게 보여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대학교	<b>학 과</b>	교육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 → 안내요원 지시(5분전) → 문 앞에서 대기(5분정도) → 면접 → 바로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장하지 말고 면접 보기</li> <li>▪ 예상 질문 연습한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li> <li>▪ 그날 날씨에 따라 문앞에서 대기할 때 많이 추울 수 있어서 핫팩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li> <li>▪ 대기실에서 읽을 자료 챙겨가기</li> <li>▪ 이 학교(학과)에 희망한 이유와 마지막 말은 만나오더라도 생각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에 희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올 때, 초등교육에 희망하면서 들어왔지만, 고등학교에서 교육학에 대해 배우고, 교육적 문제들에 대해 접해보면서 교육학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었고, 공주대학교에 희망한 이유는 공주라는 도시가 교육도시로 유명하고 공주대학교가 종합대이면서 다양한 사범학과들이 몰려있기에 교육적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원하였습니다.				
<b>Q2: 공주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무엇을 하고싶나요?</b>				
A: 저는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학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기 때문에 대학원에 들어가는 등의 것을 할 것입니다.				
<b>Q2-1: 그럼 고등학교에서 교육학에 대해 연구해본적이 있나요?</b>				
A: 음... 고등학교에서 교육학에 대해 연구해본적은 없었습니다.				
<b>Q3: 가장 관심있는 교육적 분야가 무엇인가요?</b>				
A: 저는 3학년 때 탐구해보았던 교육사회학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사회는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탐구를 통해 더욱 알게되었고, 또 교육사회학의 방향 등을 알게 되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b>Q3-1. 그럼 교육사회학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되었나요?</b>				
A: IMF이후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관련되어 연구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Q4: 본인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				
A: 저는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를 너무 공부만으로 생각해서 영어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고 그렇기에 점수가 낮게 나와 점점 더 흥미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영어를 많이 접해보고 외국인 친구와 사귀는 등을 통해 접점을 늘리고 극복할 것입니다.				
<b>Q5: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b>				
A: 비록 제가 초등교육에 희망을 하며 고등학교를 들어왔지만 교육에 대해 배워본 후 교육학과에 들어와서 교육에 대해 더욱 더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교육에 관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학과	대기과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 면접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기다릴 때 핸드폰 수거, 종이는 봐도 됨.</li> <li>▪ 면접 마지막 차례라서 20분 정도 면접 진행하였고 감독관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질문하지 않고 한분에 10분 정도씩 진행함.</li> <li>▪ 잘 웃고 차분히 하는게 중요했음.</li> <li>▪ 답을 잘 못할 것 같아도 자신있게 말해보기</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이 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b> A: 지구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대기과학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지원</p> <p><b>Q2: 기후변화 예측모델에 대해 생기부를 썼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꼬리 질문 많았음)</b> A: 회전 원통 실험을 실시 - 실패한 과학적 사유에 대한 질문 - 인원 부족 및 물온도 설정 오류로 답변 - 다시 과학적인 이유 질문 - 회전원통 3단구조 재현 실패로 극과 적도의 경계가 모호해져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동으로 회전운동을 실시해서 관찰의 어려움이 있었다.</p> <p><b>Q3: 이 학과에 들어와서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구체적으로 요청)</b> A: 실제로 여러 시스템을 다루고 계신 교수님께 실제 물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적성에 맞는다면 대학원 진학까지도 생각 중입니다.</p> <p><b>Q4: 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은?(동아리 등)</b> A: 실험 동아리 등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p> <p><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b> A: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대학교	<b>학 과</b>	데이터정보물리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인사 후 생기부 관련 질문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생기부를 확실히 숙지하고 갈 것</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C언어에 대해 아는대로 말해 보세요</b></p> <p>A: C언어는 모든 컴퓨터 언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컴퓨터 언어들도 C언어로부터 파생되어서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C언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입할 수 있는 C++언어나 파이썬 등을 보더라도 C언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언어들이 있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말한 것 같음 구체적인 답변을 원한 것 같은데 언어에 대해서 말해버림.)</p> <p><b>Q2: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b></p> <p>A: 3학년 자율 시간에 미래도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스마트 기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주제에 대해 탐구 하던 중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 실행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아두이노 키트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전구의 뒤쪽을 뚫어 아두이노 우드와 블루투스를 연결해주는 HC-06 그리고 브레드 보드를 사용하여 블루투스를 송신할 수 있게 전구에 연결했습니다. 다음 아두이노 우드를 컴퓨터 파일로 송신시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 파일을 휴대폰으로 옮겨 THURMUX라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앱으로 코딩을 진행해 휴대폰에서 블루투스를 송신하면 전구에있는 HC-06이 전구에 자극을 주어 전구가 켜지는 스마트 전구 만들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p> <p><b>Q3: 단진자 운동을 하면 추가 위쪽에 있을 때 가 아래쪽에 있을 때 어떤 때가 운동량이 더 높을까요?</b></p> <p>A: 단진자 운동이란 매달린 물체가 양방향으로 왕복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해지는 힘은 물체가 아래쪽에 있을 때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물체가 아래에 있을 때 물체의 운동량이 더 높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대학교	<b>학 과</b>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7분~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들어가서 30분정도 대기후 장소 이동, 그 다음 면접 장소로 이동 면접장에 들어간 후 2분정도 설명 후 시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히터를 안틀어줘서 매우 추움. 핫팩 들고 가는 것을 추천</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 동기는요?</b>				
A:저는 존재감 있는 조형물 있는 만드는 작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친구들과 다같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때 눈과 귀를 만들었습니다. '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귀랑 눈은 닿는다라고 가끔 표현하는데 이에 영감을 받아 제작을 했습니다. 요즘 짧은 영상을 다들 자주 보는데 기억도 못하는 동영상을 30개씩 이상 보는 게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중에는 가짜뉴스도 있는데 다들 받아들이는 현상에 대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닿는다라는 언어유희로 표현해보았습니다.				
<b>Q2: 활동내용을 보니 아띠 활동에서 도자를 탐구하고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컵을 실제로 디자인 하고 만든건가요?</b>				
A:아띠 활동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컵을 제작하고 펀딩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아동학대에 대해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시선은 똑같은 것 같아 이에 대해 재조명 하고싶었습니다. 제비꽃의 꽃말은 나를 사랑해주오 라는 뜻인데요. 컵에 그림을 그려 펀딩사이트에 올려 활동을 했습니다.				
<b>Q3: 그러니까 컵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활동은 한거죠?</b>				
A: 네. 직접 핸드페인팅으로 그림을 그려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아쉽게도 펀딩은 실패했으나 디자인부터 직접 제작까지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져서 인상 깊었습니다.				
<b>Q4: 그 학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죠?</b>				
A: 제가 2학년 때 친구들과 다같이 전시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만든 작품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문학시간에 구운몽을 읽었는데 제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처음 듣는 단어여서 찾아보니 불교용어였습니다. 제도란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작중 성진이 스승님에게서 깨달음을 얻어 다시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는 장면이 인상 깊어 작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테라코타로 제작하였고 가로 세로 14x14 높이 24로 제작하였습니다. 합장을 하며 깨달음을 얻은 모습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원래는 코일링 기법으로 제작한 뒤 유약을 바르고 굽고 싶었지만 너무 세속적인 느낌이 들어 1차 소성만 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작품의 아름다운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담은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b>Q5: 생기부를 보니 조소도 했더라고요, 학생이 생각하는 조소와 도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b>				
A: 제 생각에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예술성에 초점을 두었는지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굽는다, 유약을 바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소도 구울 수 있고 유약을 발라 또 구울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실용성과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도자는 예술성과 실용성 추구하지만 좀 더 실용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나 조소는 실용성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예술품으로서 제작됩니다.				

**Q6: 아까 테라코타도 얘기하는거 보니까 이론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기형은?**

A: 저는 청자 중에서 참외매병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참외매병은 좀 기상천외한 모양입니다. 굽다리위에 갑자기 참외 모양이 있고 그 위에 주둥이가 있는 모양이 굉장히 신박하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형의 실루엣이 고려청자 특유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더욱 재미있는 기형이라 생각합니다.

**Q7: 생기부를 또 보니깐 가구디자인, 패션디자인 그리고 3D활동을 한 게 보이네요.3D는 독학한 걸까요?**

A: 네, 여러 영상들을 보며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3D프린터기를 이용해 활동을 하였고 이후 친구들에게 3D프로그램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지브러쉬를 사용했는데 통상적으로 다들 블렌더를 많이 사용하던데, 블렌더는 프린팅이 안 되어서 지브러쉬를 선택하였습니다.

**Q8: 되게 활동을 여러 개 했는데 그건 독학 어떻게 한 거죠?**

A: 유튜브를 보며 혼자 배웠습니다. 대부분 외국 영상이 주류하고 있어서 혼자 배우기엔 힘들었지만 작품을 완성하니 뿌듯했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A: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재감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항상 뜻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작품이 집에 있게 된다면 그 생각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그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에서 꼭 도예라는 매체를 더더욱 탐구하며 좀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저는 사실 도예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패션디자인과,가구디자인,시각디자인,판화,조소를 했었는데 그것들 또한 엄청 재미있었고 실제로 흥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예라는 한 과정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예가 더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공주대학교	학 과	보건행정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 가번호 부여받고 대기하다가 차례가 되면 수험표, 신분증 확인하고 면접응시함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에 긴장풀기용 질문하시고 가번호 말하라고 하심</li> <li>인재상에 관련된 답변하니가 무엇을 적으심</li> <li>생기부 기반 질문이 의외로 적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신의 장래희망이 무엇이고, 공주대 보건행정학과에 지원한 동기?</b></p> <p>A: 저의 장래희망은 보건직공무원이고, 어렸을때 교통사고 온 가족 입원하면서 새벽에도 친절히 치료해주시던 간호사 보고 사람 돕는일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또 심폐소생술 실습한 기억 보람됐고 뿌듯했습니다. 그로인해 간호 보건 분야 더 관심 많아지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전염병, 질병 출현 2026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시대에 맞춰 꾸준히 재정비된 공주대 보건행정과의 교육과정, 실무실습과 여러가지 비교과 활동을 통해 보건행정의 이론을 쉽게 파악하고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하여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보건인이 될 수 있을거라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보건행정학과에서 배우고싶은 커리큘럼or 관심있는 과목?</b></p> <p>A: 세 가지 과목에 관심있습니다. 첫번째로 기초의학영어 왜냐하면 전문적인 보건지식을 다루기 전에 의학적인 기초지식이 발판이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교육학 보건교사의 꿈을 가졌던 학생으로서 보건교육이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질병,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있기에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p>				
<p><b>Q3: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b></p> <p>A: 체육시간에 빅발리볼 이꿈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성격상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부족하다 생각들지만, 리더의 역할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움이 있었습니다. 공주대 보건행정학과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적극적인 태도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습니다.</p>				
<p><b>Q4: 더 하고싶은 말</b></p> <p>A: 저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는데 자신 있습니다.홍성에 교수님과 함께 런투유 동아리에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아이들 학습에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대학교	<b>학 과</b>	사회복지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 신분 확인 → 면접실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복과 개인정보를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됨)</li> <li>▪ 선배님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해주심</li> <li>▪ 학생부 내용을 활용하기보단 학과와 관련된 복지 제도 등 실제 사례들을 물어보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첫번째 질문 기억이 안 남-복지제도관련 질문이었음)</b> A:</p> <p><b>Q2: 2학년 진로활동에서 '문화복지'라는 도서를 읽으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b> A: 네 '문화복지'라는 도서의 저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었지만 주인이 스스로 참여하여 문화를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지 사회를 위해 문화기획자가 되어 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p> <p><b>Q3: 3학년 진로활동에서 '10대 미혼모로 살아가기 사례 분석'에 대해 읽으셨는데, 무슨 내용이었나요?</b> A: '10대 미혼모로 살아가기 사례 분석'에서 10대 미혼모들이 가족과 기존의 사회적 지지로부터 단절되거나 사회로 나와서 많은 비난을 받고 여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이나 미성숙한 정신적 상태로 생활하며 결국 아이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고 이를 위해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들과 양육프로그램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p> <p><b>Q4: 그럼, 앞에서 질문했던 10대 미혼모 분석집에서의 문제와 청년실업률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b> A: 혹시 생각할 시각을 잠시 주실 수 있을까요?(끄덕)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p> <p><b>Q5: '네, 빈곤이 오고 있다'라는 도서에서 본 여러 사회복지제도들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b> A: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보장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p> <p><b>Q6: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수강하셨는데,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 배우셨겠네요? 그럼, 이를 '실업'과 같은 문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b> A: 네 먼저 기능론은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 사회 전체의 유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회에 실업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시적인 병리현상으로 여기고 이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갈등론의 경우에는 실업 같은 사회의 갈등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이는 지배층의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실업 같은 사회문제를 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학과	수학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 → 문 앞에서 대기 →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기하가 안 나올 줄 알고 수2, 미적분 위주로 준비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모든 수학 개념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li> <li>▪ 판서 쓰는 연습 미리 해보고 가세요.</li> <li>▪ 개념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들은 면접관님이 힌트 주시니깐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Q1: 자기소개 해주세요.</p> <p>Q2: 수학교사를 목표로 했다면 멘토링 활동을 많이 했나요?</p> <p>Q3: 포물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p> <p>Q4: 멘토링 활동을 많이 했다면 직접 보고싶은데, 포물선에 대하여 뒤 칠판에다가 직접 설명해주세요. A: 정의를 통해 포물선의 방정식 증명함</p> <p>Q5: <math>y=-x</math>를 준선으로 하고 (1,1)를 초점을 했을 때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gt; 이 부분에서 정확히 설명 못하다가 시간 관계상 끝내심</p> <p>Q6: 마지막으로 공주대학교에 대하여 포부나,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대학교	<b>학 과</b>	윤리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이 느껴졌음</li> <li>▪ 독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며, 생기부 내용을 상세히 물어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b>          A: 중학교 때 직소수업을 통해 교육 분야에 흥미를 느꼈고 고등학교에 와서 윤리를 배우며 윤리가 삶의 거름이 되는 의미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이 윤리 과목에 대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고, 답변을 하는 과정을 통해 윤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돕는 윤리교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우리나라는 난민수용을 해야 할까요?</b>          A: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소수의 국가만 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은 세계의 일원으로 난민 문제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 자체보다는 난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b>Q3: 통일촉진을 시키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b>          A: 학생들에게 통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통일촉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4: 책 “왜 칸트인가”를 읽고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b>          A: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종족은 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가능한 인간의 고유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차원적으로 사고가 가능한 동물이 있지만, 인간만이 자신, 타인, 자신 주변의 환경 및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며 고등적인 사고가 가능하기에, ‘생각’이 인간의 고유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학과	의료정보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장하지 말고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며 면접 이어나가기</li> <li>▪ 학과에 관심 많음 어필하기</li> <li>▪ 당하게 하고 싶은 말 긍정적으로 하기</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 좀 알 수 있을까요?**

A: 네 저는 어릴 적부터 보건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서 고등학교 진학 후 3년동안 다양한 학과를 찾아보던 중 의료정보학과라는 학과가 의료와 정보 둘 다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학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멋있게 느껴졌고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어릴 적부터 보건 분야에 관심이 많았군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딜 지원하셨나요?**

A: 공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에 꼭 들어오고 싶어서 일반전형과 지역 교과로 지원을 했고 다른 학교는 식물위학과 원예쪽으로 지원했습니다.

**Q3: 우리 학과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어떠한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료와 기술이 결합된 이 분야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고 가치있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우선 처음에 긴장을 했었는데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졌지만 방금 면접관님께서 이 학과에 더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셨는데 들으면서 이 학과에 꼭!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대학교	<b>학 과</b>	의류상품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8시 30분 대기실 입실 → 9시 20분 면접 시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대 캠퍼스가 굉장히 커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야함</li> <li>▪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li> <li>▪ 대기하면서 긴장도 풀고 물도 많이 마셔서 목도 풀기</li> <li>▪ 제스처 많이 사용하고 긴장한 티 별로 내지 않기</li> <li>▪ 인사 꼬박꼬박하고 압박 면접 당해도 마지막까지 예의있게 하기</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학생부 내용 중에 진로와 직업 시간에 자신의 강점을 리더십, 사교성, 경청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b></p> <p>A: 네, 저는 1학년 1학기에 반장 활동을 바탕으로 반장이 아닌 시기에도 체육 교구를 술선수범하여 정리하거나 음악 교구를 정리하는 등 먼저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이 저의 말을 믿고 따라와줬고, 평소 토론을 진행하며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하여 그 의견을 실행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장점, 실현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주었습니다.</p>				
<p><b>Q2: 학생부 안에 패션 산업에서 친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b></p> <p>A: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사회에서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고, 특히 최근 많은 SPA브랜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패션 소비자들 또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정도로 패션 산업 안에서의 패스트 패션은 큰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은 값이 싼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하고, 의류의 특성상 섬유들의 복합적인 혼용 등의 문제로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만 보고 소비하기보단 제품의 퀄리티나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태도와 기업 또한 ESG경영에 기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패브리칸과 같이 스프레이 공병 안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피부 조직에 닿으면 섬유 상태로 변화하는 혁신적인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의류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b>Q3: 이수한 캠퍼스 공동 교육 과정 중에 '패션 트렌드와 스타일링'이라는 교육을 이수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다면?</b></p> <p>A: 네, 그 교육은 전반적인 패션 산업에 관한 이해와 현재 패션 트렌드, 스타일링과 디자인 등 패션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패션의 아방가르드라는 스타일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기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 저는 원단들을 직접 만져보고 또 직접 그 원단들을 사용하여 디자인해보는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강사님께서 직접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공수해오신 원단들을 직접 만져보고 원단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구상하고, 또 디자인까지 해보면서 그 전까지 부족하던 소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학생 생활 중에 소재에 관한 공부는 이 경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위 학교에 입학하여 소재에 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p>				
<p><b>Q4: 진로와 관련된 이슈 선정 및 탐구 시간에 '패브리칸'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b></p> <p>A: 네, 앞서 조금 설명 드렸지만 다른 방향으로 설명 드리자면, 패브리칸은 친환경적인 혁신 기술로써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에서의 이점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점이</p>				



있는데, 실제로 현재 의료 업계에서는 심한 골절로 현장에서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페브리칸 기술을 응용하여 스프레이 공병 안에 섬유가 아닌 석고와 비슷한 물질을 넣어놔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고, 소방 현장에서도 방화복의 일부가 타버리거나 찢어지면 페브리칸을 사용하여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메꾸는 등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Q5: 오우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10분정도 면접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A: 저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만 해도 괜찮을까요?

**Q6: 네, 괜찮아요**

A: 네, 감사합니다. 저는 패션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이 자리까지 왔고, 패션업을 생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막연히 달려오기만 하다 드디어 준비를 끝마치고 그 출발점에 서있는 것 같아 지금 너무 떨리고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대학교	<b>학 과</b>	의류상품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8시30분 대기실 입실 → 9시20분 면접 시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개 물어보지 않고 바로 본 질문으로 들어감.</li> <li>▪ 진로가 바뀌게 되었다면 바뀌게 된 동기를 잘 설명 할 수 있어야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2학년 세계지리 시간에 기후에 따른 의복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b>				
A: 열대우림 지역에선 그 지역에서 잘 자라나는 나뭇잎을 이용하여, 툰드라나 한 대 기후와 같은 추운지역에서는 보온성을 위하여 동물들의 털이나 가죽 등을 이용하여 옷을 만드는 등 각 기후에서 잘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 옷을 만듭니다.				
<b>Q2: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이번으로 자연환경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나요</b>				
A: 현재 여러 국가가 수출과 수입 등 상품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만약에 자신의 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다면 수입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b>Q3: 자신의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b>				
A: 저의 장점은 관찰력과 분석력입니다. 평소 사람들의 옷을 살펴보고 잘 기억하는 편이고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분석하는 것도 잘하여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체형에 따른 옷의 워스트와 베스트 코디법을 다루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단점으로는 고집이 조금 있다는 것인데, 고집이 조금 있는 만큼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남의 말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만큼 유행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유행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b>Q4: 2학년 때 항공에서 패션으로 진로가 바뀌었던데 이유가 있나요?</b>				
A: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패션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가 꿈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스스로가 패션디자이너가 되기에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꿈을 접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보며 패션계의 직업에는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 말고도 에디터나 md같은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패션마케팅 캠프를 하며 다시 한 번 패션 쪽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학과	지리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시간(유의사항 및 신원확인) 30분 → 면접 10분 → 귀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뱀뱀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서 가자</li> <li>▪ 자신감 있게 하자</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성적이 1학년때는 낮다가 2, 3학년 때 성적이 높아져서 이상향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b></p> <p>A: 1학년때는 '교사'라는 직업에만 오로지 관심이 쏠려있었고 제가 초등교사를 할지, 중고등교사를 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상담중 지금의 성적으로 교사가 되기 힘들다고 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성적을 이상향으로 그려내서 너의 노력을 대학에 보여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저는 이 말을 계기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던 중 한국지리 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지리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p>				
<p><b>Q2: 3학년 세계지리 과목을 보면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2학년 후배들이 지리 교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b></p> <p>A: 지리과목이 암기만 필요한 어려운과목이 아니고 이해만 이해만 한다면 가장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자연지리, 인문지리 모두 우리 지역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지리과목이 따로 떨어져있는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의 기본이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리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p>				
<p><b>Q3: 2학년 한국지리 과목에서 '아이스브레이킹'이라는 지리게임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혼자 만든건가요?</b></p> <p>A: 아니요, 조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지리와 친해질 수 있을지, 한국지리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지 서로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p>				
<p><b>Q4: '아이스브레이킹'이라는 지리게임에 대해 더 설명해주세요</b></p> <p>A: 말 그대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지리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서로 앞장엔 지역이름, 뒷면엔 지역의 특징이 쓰여있는 카드를 3장씩 뽑아 자신이 뒷면을 바라보게 들고 돌아가면서 특징을 보고 지역이름을 맞추고 맞으면 카드를 갖고, 맞추지 못하면 카드를 버리는 게임입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대학교	<b>학 과</b>	지리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하다 호명 후 입실 및 면접 진행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됨.</li> <li>▪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li> <li>▪ 면접 문항 수가 3~4개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학급임원, 학생회와 같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를 통해 얻거나 잃거나 깨달은 것은?</b>				
A: 1학년 때 학급임원을 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급에 조화롭게 녹아들 수 있도록 선생님과 그 친구를 돕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그 친구를 대하면서 공감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b>Q2: 에프엠처럼 행동할 것 같은데 방향한 경험이 있다고 적혀있다. 설명해줄 수 있나?</b>				
A: 그때 당시의 저는 수행평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며 부담이 되었고 번아웃이라 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꿈 껴 왔던 교사의 꿈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GIS 전문가 쪽으로 진로를 틀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서 지리와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 힘을 내어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Q3: GIS에 왜 관심이 생겼나?</b>				
A: 세계지리의 첫 단원에 본 GIS 내용에서 GIS가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다 느꼈고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도 앱을 활용하면서 여행 계획과 여행 경로를 짜면서 GIS기술의 활용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b>Q4: GIS는 공학적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과를 지원한 이유는?</b>				
A: 3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지리선생님이셨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교사를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세계지리를 배우면서, 특히 기후단원을 배우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리에 흥미를 느낀 것처럼 나중에 지리교사가 되어 학생들이 지리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지리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5: 하고싶은 말?</b>				
A: 이 10분의 시간을 위해 많이 준비했습니다. 긴장을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말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수님들과 다시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후 교수님들 성함 이야기 하면서 이정도로 관심 많다고 하고 인사하고 퇴장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학과	컴퓨터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이내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어가면 지원해주어 고맙다 오는데 춤지 않았냐와 같이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이런저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 편안한 분위기였음</li> <li>▪ 내용이 여러 가지 겹쳐진 질문이 있을 땐 대답이 길어져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니 질문에 대해 본인이 하고싶은 답변을 최대한 다 하도록!</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생기부를 보면 정보과학,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되게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일반고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 과목을 들을 수 있나요?</b>				
A: 제가 재학중인 고등학교는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있습니다. 저는 정보 교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관련 과목을 이수하며 진로 진학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b>Q2: 공주대의 많은 학과 중에서 컴퓨터교육과를 선택하게된 동기, 그리고 우리 학과를 오기까지 본인이 해온 노력과 그 결과를 같은게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소개해주세요.</b>				
A: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c언어의 기초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스스로 프로그래밍 온라인 문제 저지 사이트에 들어가 문제를 풀어보며 프로그래밍 실력을 높여갔습니다. 3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시기가 오면서 선생님과 많은 진로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정보 관련 교과과목이 잘 개설되어있어 정보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보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있는 학교가 전국에 정말 극소수로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정보계 진로를 희망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함이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 교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3학년 동아리시간에 친구와 함께 진행했던 협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자습실에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확인하기 불편함을 문제점으로 정하여 독서실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이썬의 Tkinter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윈도우 창을 만들어 자습실 도면을 따 도면을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배치하였고, command=lambda 함수를 활용해 버튼을 클릭하였을 시의 효과를 줬는데 버튼의 색이 하얀색일 때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바뀌서 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초록색일 때 클릭하면 하얀색으로 바뀌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html과 css를 활용해 독서실 키오스크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웹을 제작하였고, 깃허브를 통해 웹호스팅을 하였습니다.				
<b>Q3: 그 프로그램은 실제로 학교 자습실에 활용이 된건가요? 지금도 활용하는건지?</b>				
A: 네. 실제로 학교 자습실 앞에 노트북을 설치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수능이 끝나서 자습실을 쓰는 일이 없지만 완성도가 높아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b>Q4: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미래의 초중고에서는 시융합 교육을 중요시하게 될거예요. 본인이 미래의 정보교사가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나는 시대에 맞춰 이런식으로 교육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b>				
A: 시융합교육이 중요해진다면 그만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는 것이므로 윤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 미래의 인재들이 인공지능 악용의 위험성에 대해 조심하도록 강조하고자 할 것입니다.				
<b>Q5: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못했던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b>				
A: 저는 모두가 동등한 환경에서 평등하게 정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의 정보계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정보 교사가 되기 위해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들어와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통해 제가 키워나갈 인재들에게 지식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공주대학교	<b>학 과</b>	행정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12시40분 입실 후 대기 → 대기실에서 10분 안내 → 면접(1명씩)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내용과 전공이 약간 불일치하는 경우 사전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할 것.</li> <li>▪ 생기부에 없는 내용이지만 답변과 관련한 기본 상식을 물음.(젠트리피케이션)</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b>				
A: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문화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수업 시간 활동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정책을 생각해 보고, 신문에고 이를 제안하는 등 정책제안 활동을 많이 해 왔고, 이를 통해 행정에 관심이 생겨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문화와 행정학과의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b>				
A: 문화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 기획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저는 사회의 모든 제반 시설, 규정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기반이 되어 문화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여러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정부의 의도나 정책을 집행하는 데 관련된 학문으로 사회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 문화와 행정은 떼어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b>Q3: 문화행사를 통한 도시재생에 관련한 구체적 활동 설명해주세요.</b>				
A: 2학년 세계지리 시간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단원에 대해 공부하며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도시 재생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지 조사하였습니다. 1990년대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았던 부산 변두리인 부산의 중구 남포동에서 시작되어 해운대의 발전을 불러온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 용산기지 근처의 경리단길이 개발된 사례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b>Q4: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계획에서 중요한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b>				
A: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개발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리단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못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학과	환경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각했던 것과 다른 분위기에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 동기 말해주세요.</b>				
A: 저는 아이들을 환경과 상호작용시켜 환경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경교육은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오토만들기, EM흙공 만들기, 라돈 측정 실험과 같이 환경관련 실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b>Q2: 가장 관심 있는 환경오염? 문제 무엇이 있나요?</b>				
A: 수질오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b>Q3: 수질오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				
A: 저는 제일 먼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외에는 샤워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나오는 오염된 물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폐수와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폐수를 처리할 때 복합 미생물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폐수 처리 후 나오는 슬러지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소수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효소수로 토양의 염분을 줄여 경작가능한 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미생물이 폐수의 처리를 도우며 2차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물질들의 발견으로 수질오염을 처리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b>Q4: 가장 어려웠던 커리큘럼은 무엇인가요?</b>				
A: 커리큘럼에는 환경생태학, 환경 교육학, 환경 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환경화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화학 과목이 실제 즉각적으로 변화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관련 분자식이 복잡하여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b>Q5: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b>				
A: 저는 아이들에게 시청자료를 많이 보여주어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교육을 합친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또한 변화하는 화학반응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공부에 있어서 큰 동기를 일컫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사용하는 대신 중간중간 아이들의 학습이해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Q6: 3학년 동아리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관련되어 있다고 쓰여있는데 설명해 주세요.</b>				
A: 싱가포르의 쓰레기 청소방식에 대해 발표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날씨가 매우 더워 쓰레기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심하고 처리 과정에서 더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처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분리가 안 되어도 즉각적으로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정부가 책임지며 이 쓰레기를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의 부담을 더 주는데요. 정부가 개입하여 더 많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인력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광운대학교	<b>학 과</b>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광운참빛인재전형 I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이내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원확인 후 수험번호 부착/대기/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긴장한 탓에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다. 별거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기본적인 질문들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계획 그리고 광운대에 지원하게 된 이유</b>				
A: 제 입학계획은 학교수업에 여러 과목이 있지만 그 중 실감미디어 콘텐츠 개발이라는 과목에서 3d제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시각특수효과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졸업 후 계획은 여러 가지 디자인과 영상편집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교 시절 정보시간에 배웠던 코딩을 실감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하기 위해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운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광운대에서 제가 탐구해보고 싶은 실감미디어 관련 수업이 잘 마련되어있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동아리 활동 자랑</b>				
A: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한 매체를 활용한 평화통일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한 통일 프로젝트였습니다. 드라마, 실시간방송,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통일 교실을 구상해 기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메타버스앱을 활용해 메타버스 통일 교실을 만들어 저희학교 학생들에게 QR코드를 배포해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Q3: 본인이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된 활동</b>				
A: 앞서 말씀드렸듯 동아리 활동에서 메타버스 통일교실을 만들어 남북간의 언어이질화를 극복하고 전통놀이를 하며 학생들이 다른 매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b>Q4: 본인의 롤모델</b>				
A: 실감미디어와 관련된 분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저는 나영석PD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넘어서 꿈과 희망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인데 나영석pd님이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PD를 꿈꾸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도 저런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와 같은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b>Q5: 가장 기억에 남는 책</b>				
A: 저는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해한 바로는 대중매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볼지를 결정하며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까지 바꾸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처음 읽을 때 너무 어렵고 한줄 한줄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읽으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책을 읽어보신 선생님,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책에 대해 설명해주는 여러 영상을 보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평상시 책을 읽기만 할 뿐 스스로 더 나아가서 조사하고 탐구한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앞서 말씀드렸듯 책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뜻깊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6: 본인이 만들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지**

A. 저는 평상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즐깁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경기를 vr기술을 활용해 구현하고 사람들이 직접 그 경기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상해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스포츠 팬들은 경기장의 현장감과 경기내용을 선수들의 입장에서 체험해볼 수 있고 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언젠가 이 곳에서 경기를 뛰겠다는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포츠 선수가 어려운 길을 갈 때 두려워 하지말고 도전해야 하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그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vr과 같은 실감미디어 기술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가는 길에 여러 장애물이 많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않고 제가 해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제가 걸어온 길을 걷게 될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의 자료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광주과학기술원(GIST)	<b>학 과</b>	기초교육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면접 대기실 → 복도에서 앉아서 대기 → 면접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에 있는 수학, 과학 원리 숙지해야 함.</li> <li>▪ 생기부에 없더라도 자신의 관심 영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으면 좋음.</li> <li>▪ (사회적 영향력, 가치, 미래 전망, 관련 수학·과학 내용 등)</li> <li>▪ 수학 및 과학(특히 지원한 분야와 관련 있는 과학 교과 내용) 확실히 숙지하기</li> <li>▪ 형식적으로 대답을 준비하기보다는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의 체계 갖추기</li> <li>▪ GIST에 가고 싶은 명확한 동기를 잘 준비하면 좋음.(해외교류, 연구 기회 등)</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암호학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암호에 쓰이는 수학적 내용 아는 것 있나요?</b>  A: 암호학 분야에서 암호의 종류를 구분할 때 쓰이는 동시발생지수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통해 에니그마의 암호 해독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p> <p><b>Q2: 블록체인의 사회적 장단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b>  A: 비트코인을 예로 들자면, 비트코인을 통해 안전한 전자 상 거래 체계가 갖추어 졌지만, 그것의 작업 증명 방식으로 인해 몇 년 전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매우 올라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p> <p><b>Q3: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것 일 수도 있는데, Gaussian distribution 배운 적 있나요?</b>  A: 아니요, 없습니다.</p> <p><b>Q4: 물리량 보존 법칙에 대해 배웠나요? 보존되는 물리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b>  A: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됩니다.</p> <p><b>Q5: 운동량 보존과 뉴턴 제2법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b>  A: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 되면 두 물체의 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p> <p><b>Q6: 지스트에서 해외 교류를 많이 하는데, 관심있는 것 있어요?</b>  A. (잘 대답하지 못함)</p> <p><b>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b>  A. (준비해 둔 내용 말했음)</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학과	기초교육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교장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3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본인확인 → 면접 대기실 이동 후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사정관의 면접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생기부에 기반한 내용만 질문하여 큰 어려움이 없었음.</li> <li>교수님의 면접은 생기부에 있는 작은 내용이라도 깊게 파고들어 꼬리질문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므로, 수학은 물론 과학 I 과목들 정도는 기초적인 개념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동기가 무엇인가요?</b> A: 좌우명이 'Make success with scent' 이며 GIST가 우수한 장비와 훌륭한 교수진들이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화학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원했으며 이후 석박사 과정까지 진행하고 싶다고 답변함.</p> <p><b>Q1-1: 좌우명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b> A: 결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향기처럼 그 과정 또한 보이지 않아도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답변함.</p> <p><b>Q2: 컴퓨터로 이성질체 개수 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관련내용 존재)</b> A: 배운 것보다 이성질체 개수 구하는 것이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일일이 세어야 했는데 확률을 이용해 컴퓨터로 구할 수 있었고, 이를 친구와 프로그래밍하면서 협력하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답변함.</p> <p><b>Q3: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데 수학을 화학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얘기해보세요.(생기부 속 수학 칭찬)</b> A: 보어의 원자모형이 발표된 이후 양자역학이란 학문이 연구되면서 현대의 원자모형이 정립되었는데,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와 확률을 이용하여 원자모형이 적립되었기 때문에 수학을 화학에 접목할 수 있다고 답변함.</p> <p><b>Q4: '빛의 물리학'을 읽었다고 했는데 빛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파장을 영역대에 맞춰 설명해 보세요.(생기부에 '빛의 물리학' 읽었다는 내용 두줄 정도 존재)</b> A: 빛은 파장의 영역대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x선, y선 등으로 구성되며 가시광선은 대략 300~ 800 정도의 영역대의 파장으로 구성된다고 답변함.</p> <p><b>Q4-1: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 A: 바닷물이 나머지 파장의 빛은 흡수하고 파란색의 영역대의 파장만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을 보인다고 답변함.</p> <p><b>Q4-2: 투과도는 어떻게 되나요?</b> A: 투과도는 빛의 양을 P라 하고 물질을 투과했을 때 빛의 양을 P0라 하면 P0/P를 투과도라고 하며, 투과도가 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체에 기준해서 에너지가 큰 빛일 수록 사람의 몸을 뚫고 지나가므로 에너지가 높으면 투과도가 높다고 답변함.</p> <p><b>Q4-3: 파란색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 영역대가 어떤지 알고있나요?</b> A: 파란색은 450에서 500 정도 nm 라고 답변함.</p> <p><b>Q5: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b> A: GIST 학부 화학과 4학년 학생이 SCI급 논문을 작성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도 GIST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하여 그러한 수준의 논문을 작성하고 싶은 포부가 생겼다는 내용을 발언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국군간호사관학교	<b>학 과</b>	X
<b>전형유형</b>		일반전형	<b>전 형 명</b>	고교학교장 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한 분과 당 약 5분	<b>면접위원 수</b>	분과마다 다름
	<b>면접 절차</b>	대기실 대기 → 1분과 입실, 면접 → 퇴실 → 2분과 입실, 면접 → 퇴실 → 3분과 입실,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검사와 체력검정도 면접과 동일한 날 진행(매년 다름)</li> <li>▪ 2개 분과는 온화한 분위기였지만 1개 분과는 아니었음</li> <li>▪ 면접때 자신이 사관학교에서 입학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함</li> <li>▪ 면접도 중요하지만 사관학교라 체력검정도 반드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1분과]</b>				
<b>Q1: 오늘 국간사에 와보니 어떤가?</b>				
A: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와보니 학교가 굉장히 넓고 좋은것 같다,또 대기하면서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있는 선배님들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져보였고 내년에 저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b>Q2: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일반 대학교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b>				
A: 일반 대학교는 학과 공부만 하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는 학과 공부도 하고 군사훈련도 받아서 간호지식과 군사적 지식 모두 갖춘 간호장교가 될 준비를 하게 된다.				
<b>Q3: 생기부에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적혀있고 학생을 봤을 때 간호사가 잘 어울릴 거 같은데 내가 학생을 왜 뽑아야하는가?</b>				
A: 간호사로서의 희생과 군인으로서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국간사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한 후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간호장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분과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도 있었음				
<b>[2분과]</b>				
<b>Q1: 지각이 꽤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b>				
A: 지각을 했던건 사실이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지각을 하면서 생활패턴이 중요함을 깨닫고 이후 올바른 생활패턴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다.(이런식으로 말을 함.사관학교는 출결을 꽤 보는것 같음				
<b>Q2: 방학동안 기숙학원에 갔다왔다고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이 있나?</b>				
A: 처음보는 친구와 기숙사를 함께 쓰다보니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친구와 수면,기상시간이 잘 맞지않아 처음엔 어려웠지만 서로 조율을 해서 금방 잘 지낼 수 있었다.				
<b>Q3: 20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해 말해봐라.</b>				
A: 간호장교로 임관해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임무를 열심히하며 살고 있을것 같다.				
<b>[3분과]</b>				
<b>Q1: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있었나?</b>				
A: 이때 딱히 힘든 것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같음. 그랬더니 어떻게 그랬냐고 하시면서 웃으면서 넘어감.				
<b>Q2: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b>				
A: 참을성이 있다고 들어왔고 이것이 저의 장점이 되어 국간사에 입학해서 어려움을 겪었을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국민대학교	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국민프런티어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1:00 입실 (오전2반)	면접위원 수	3명(전원 학과 교수)
	면접 절차	가번호 부여 후 순서따라 대기실 착석, 면접 고사장 이동. (조교가 안내함) 면접 전 번호는 고사장 앞 복도서 잠시 대기. 고사장 입실 후 가벼운 인사 후 면접 시작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연,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험생들을 위해 지하주차장 개방해 줌. 엘베타고 올라가면 예비선배들이 길안내 해준다.</li> <li>자신의 시험장이 몇층인지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탄다.(각 엘리베이터마다 몇 층으로 가는지 정해져 있음. 잘못타면 계단으로 1~2층 이동해야함)</li> <li>스마트폰 걷고 신분확인 할때까지 대기실에서 면접자료 볼 수 있다.</li> <li>오전 1반(10명) 2반(11명)으로 나뉜다. 내가 포함된 오전2반은 전원 다왔다.</li> <li>전체적으로 시험진행이 빠른편이다. 뒷번호를 배정받았지만 오래 기다리진 않았다.</li> <li>공장이 친절, 편안한 분위기.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이곳에 지원해주셔서 고마워요' 였다. 질문방식에서 학생들 긴장 안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짐.</li> <li>면접관 전원 교수, 모두 대학 홈페이지 교수진에서 확인가능함.</li> <li>이X배 교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심. 다른 두 교수님(박X현, 고X욱 교수님)들은 1개 ~ 2개 질문을 하심.</li> <li>규정 적용하는데 유도리가 있다. 실수 한두개 책잡혀 탈락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을듯.</li> <li>면접 1분 남기고 '마지막 할말' 시켰다. 뭘 말할지 준비해가자.</li> <li>성적 관련 질문은 없었다. 내가 한 활동 관련 질문이 많았다.</li> <li>학과에 야외활동하는 과목이 있기에 출결은 보는 편이다. 자신의 출결이 안 좋다면 답변준비 필요할 듯.</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우선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1분정도로 해보세요. (이X배)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의 생태학연구원이 되기위해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에 지원한 가번호 N번 입니다. 저는 생태탐조 동아리활동, 생물다양성에 대한 탐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의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저는 논리력과 창의력, 성실성에 강점을 둔 인재입니다.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 학과에서 산림생태계의 변화와 상호작용에 대해 배우고 연구방법을 익힘으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국민대 교육이념인 실용주의, 공동체주의 어필함, 내 강점에 대한 추가질문을 예상했지만 나오지 않음.)

#### Q2: 자신이 했던 활동 중 인상깊은 건? (박X현)

A: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탐구활동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저의 논리력과 창의성이 가장 잘 발휘된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웃으면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해달라고 하심)

치타의 유전적다양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던 것을 알고 그 원인인 개체군 병목현상과 개체군 병목현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전적부동에 대해 탐구활동을 하였습니다. 개체수의 크기와 유전적 부동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 3학년때 배운 확률과통계 개념을 활용하였습니다. 개체군에서 번식을통해 유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모집단에서 포본집단을 추출하는 것으로 보았고, 유전적부동으로 대립형질의 발현빈도가 변하는것을 표본오차의 누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큰수의 법칙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클 수록 유전적부동의 영향이 적은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간단하지 않음. 실제로는 이것보다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이X배 교수님 관심연구분야가 생물다양성 이였기 때문에 전문성 어필하려고 했고,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 보이셨음. 여러 정보서 주제 맞는 정보를 뽑아 엮어내는것이 내 창의성임을 어필하고자 했으나 잘 전달하지 못함.)



**Q3: 저희 학과특성상 야외활동도 많은데 결석이 많네요. 혹시 왜 그런지 말해줄 수 있나요? 말할수 없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X육)**

A: 팔 분쇄골절과 탈구로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느라 1,3학년 출결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뼈는 물론 근육도 회복해서 지금은 양손 악력도 똑같습니다 :) (생기부에 교통사고 언급이 있어서 의심하진 않으셨을듯)

**Q4: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봉사활동 중 인상깊은 활동이 있나요? (이X배)**

A: 가장 인상깊었던 봉사활동은 3학년때 했던 학생주도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짜여진 계획에서가 아니라 봉사 주제의 선정, 지원자 모집, 일정 조율 등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갈등을 조절하고, 중재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지 못했다. 리더십 어필한게 맞는지 모르겠다.)

**Q5: 생기부를 보면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한다고 많이 칭찬해줬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요? (이X배)**

A: 작년 발생했던 강원지역 산불을 보고 강원지역 산불의 복합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탐구, 발표했습니다. (사실확인 질문 같아서 짧게 답변했다. 다른 탐구활동 (X염색체 불활성화)을 의도하신 것 같은데 다른 답변을 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국민대학교	학과	전자공학부 (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국민프런티어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이내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부르면 면접 보러감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대기실에 감독관 한분 계심. 간단한 잡담으로 긴장 풀어주심</li> <li>▪ 대기실 입장하면 면접자로 일절 못봄. 주의</li> <li>▪ 잘 웃어주심, 너무 긴장하고 가지 않아도 됨</li> <li>▪ 지원동기, 자기소개를 일절 안물어봐서 살짝 당황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RLC실험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RLC회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생기부 질문)</b>  A: RLC회로란 저항, 리액터,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직류 회로로, 제가 했던 실험에서는 이 직류회로에 교류 전류를 흘려 위 3개 소자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p> <p><b>Q2: 커패시터에 대해 설명해볼수 있을까요?</b>  A: 커패시터란 전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소자로 본 실험에서는 교류회로에서 쓰인 것이기에 저항처럼 작용하는 성질을 이용하였습니다.</p> <p><b>Q3: 커패시터 정전용량 식을 말해보세요</b>  A: (정전용량 식 간단하게 말함)</p> <p><b>Q4: 임피던스 구하기 실험을 했다고 하였는데, 임피던스가 무엇인가요?</b>  A: 직류회로에서의 저항과 같은 개념을 교류회로에서의 임피던스 라고 표현합니다.</p> <p><b>Q5: RLC교류회로에서 임피던스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b>  A: 저항값을 유도리액턴스에서 용량리액턴스를 뺀 값에 복소수를 곱한 것이 임피던스입니다.</p> <p><b>Q6: 왜 국민대를 지원했을까요?</b>  A: 국민대학교의 본 과가 제가 지원한 이유이자 전자공학에 흥미를 느끼게 한 반도체에 대한심화공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국민대학교에서 공부하여, 전자공학 기술자가 되어 반도체 연구를 하고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극동대학교	학과	초등특수교육전공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일반학생
면접 형식	면접 시간	8~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면접장에서 제시문에 랜덤으로 제공됨(컴퓨터 프로그램), 발표 시간을 충분히 주고 발표함.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동대는 면접 2주전 사전 면접질문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관련 면접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li> <li>면접장 분위기는 딱딱한 편이나, 교수님 한 분이 따뜻하게 응대해주셨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직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b>  A: 저는 제 경험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고, 그로 인해 세상을 알아가는 기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잘 하게 되었고 그것이 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구분 없이 하고싶은 일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p> <p><b>Q2: 가짜 뉴스와 익명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설명해주세요.</b>  A: 가짜 뉴스의 치명적인 단점은 소문의 근거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짜 뉴스의 주인공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금융실명제가 없을 때는 투명하지 않는 회계처리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고 범죄에 이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금융실명제로 투명한 나라 살림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자신의 말과 글에 신중해지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p> <p><b>Q3: 인공지능 또는 디지털 사회에 발전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심있는 주제나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b>  A: 인공 지능 디자인에서 직접 장애인이 그 설계나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수교육자로서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p> <p><b>Q4: 학교 학업계획은?</b>  A: 교육 안에서 특수교육이 차지하는 역량이나 발전 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단국대학교	학과	건축학전공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DKU인재(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학과 지원자와 함께 대기실에서 대기</li> <li>▪ 대기 시간 동안 생기부, 책은 열람 가능하지만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li> <li>▪ 서류에 전공 관련 특이점을 꼭 숙지!</li> <li>▪ 가번호 언급 가능하며, 교수님은 친절</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입학사정관)</b>  A: 저는 평소에 전통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도 다다오의 책을 읽으며 물의 절이라는 건축물을 접하게 되었는데,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융합하여 설계했던 물의 절처럼 한국의 전통 건축을 현대건축과 융합한 건축물을 설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건축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p> <p><b>Q2: 건축 관련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건축 이외에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나요?(교수님)</b>  A: 저는 건축 이외에는 지리라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라는 학문을 통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기후, 지형 등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가 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p> <p><b>Q3: 아 그래서 석재와 건축에 대해 조사했군요?(교수님)</b>  A: 석재와 건축은 지리 시간이 아니라 2학년 지구과학 시간에 활동했었습니다.</p> <p><b>Q4: 기억나는 석재의 특징과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세요?(교수님)</b>  A: 석재의 종류가 많아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선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석재로는 화강암이 있습니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속에서 굳어서 생기는 암석으로, 우리나라 전통 건축 중 탑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석재의 불변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탑을 화강암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p> <p><b>Q5: 다른 석재들은 또 없나요?(교수님)</b>  A: 대리석과 사암 등이 인테리어에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b>Q6: 배움 노트를 작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활동했고 얻게 된 것이 있나요?(입학사정관)</b>  A: 제가 배움 노트를 작성한 과목이 많아서 혹시 어느 과목의 배움 노트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p> <p><b>Q7: 아 배움노트를 여럿 작성했네요. 기억나는 과목으로 답해주세요.(입학사정관)</b>  A: 네, 저는 수학 시간에 작성했던 배움 노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과서의 중요한 개념들을 노트에 따라 적고 그 밑에 수업 시간에 풀면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p> <p><b>Q8: 그렇게 해서 얻은 점은 무엇인가요?(입학사정관)</b>  A: 오답 노트를 작성하며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 수 있게 되고, 평소에 어렵게 느꼈던 수학이라는 과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b>Q9: 수업 시간에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고 나와있네요?(교수)</b>  A: 네 그렇습니다!</p> <p><b>Q10: 1분 남았는데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교수)</b>  A: 우선 열심히 준비해주신 면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건축학부에 입학하여 저의 역량과 재능을 모두 드러내는 건축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입학식날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대전대학교	<b>학 과</b>	간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교과면접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3명이 한 조가 되어 5개의 제시문 중 1개를 면접관이 선택하면 답하는 형식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감을 갖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li> <li>▪ 제시문 외에 추가질문(학교생활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준비 필요.</li> <li>▪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 긴장을 풀고 차분해지도록 노력.</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b>				
A: 제가 대전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환자분들의 질병 치료뿐 아니라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과과정을 보니 지역사회와 의사소통으로 된 강의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대전대학교만의 장점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b>Q2: 교권을 위해 아동 인권을 제약해도 되는지 자신의 견해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b>				
A: 교권을 위해 아동인권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사는 성인인데 반해 아동을 미성년자인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교권을 위해 아동인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교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이 발생할 때 교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뿐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 권리침해가 아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교권을 위해 아동인권을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b>Q3: 진로 및 동아리 활동을 제외하고 고교생활 중 인상깊었던 활동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b>				
A: 저는 생명과학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했던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이 수업 내용 덕분에 왜 2차 성장이 여성과 남성에게서는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또 2차 성장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서술한 보고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의의에 만약에 내가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한다면 호르몬 발생을 통해 성적 성숙과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b>Q4: 마지막으로 준비하였지만 못한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b>				
A: 저는 대전대학교 간호학과에 꼭 입학하고 싶습니다. 대전대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전대학교	학과	간호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교과면접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 주의사항 및 안내 사항 전달 → 소지품 제출 → 신분 확인 및 가번호 배부 → 면접실 앞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소양 문항</li> <li>교수님 한 분은 인자하시고 한 분은 표정이 없으셨다. 3명이 함께 면접을 본다. 가기 전 복장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발은 무의식 중에 신고 나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악세사리도 확인해야 한다. 산 속에 있어서 추울 수도 있다.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지원동기와 향후 학업계획 및 진로 계획에 대해 말하십시오.

A: 대전대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한 간호사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임종이 다가오는 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이지만, 간호사님을 기억할테니 간호사님도 저를 기억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 간호사는 삶에 끝자락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뻗어 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대 간호학과는 다양한 실습지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은 한방 분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폭 넓은 경험으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여 대전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저의 진로 목표는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저는 대전대 간호학 수업 중 하나인 응급간호를 수강해 응급실 용어와 이론을 배우고 싶고, 특히 심전도 해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 이용되는 매뉴얼과 간호술을 반복 학습하여 간호 실무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응급한 상황 속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지를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 Q2: 심전도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A: 응급실 간호사에 관심이 많아 찾아보던 중 응급실 간호사에게는 심전도를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Q3: 기본 소양 문제 2번 원격 의료 찬반 그 이유.

A: 저는 원격의료에 대해 일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치료를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원격의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극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파견나간 군인들의 경우 원격医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원격 의료 보다는 직접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정확성이나 안전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또 원격의료는 환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를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도입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대전대학교	<b>학 과</b>	물리치료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교과면접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3명의 학생이 들어가 순서대로 답하는 방식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님들께서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질문해주시</li> <li>▪ 답변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계획에 대해서 말해보세요.</b></p> <p>A: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한 수험번호000입니다. 저는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저의 장점을 활용하여 학급 반장과 부반장 역할을 맡아 학급을 책임지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물리치료사가 되어서도 환자를 책임지고 도움을 주는 것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물리치료학개론과 인체해부학및실습 과목을 중심으로 학업 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의 기본인 물리치료학개론을 정확하게 학습한다면 그 이외의 모든 응용분야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로서 인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진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게 된다면 대전한방병원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경험을 통해 환자를 대하는 방법과 정확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전문적인 물리치료사가 되고싶기 때문입니다.</p> <p><b>Q2: 교권의 강화가 아동인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찬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제시문 질문 중 랜덤으로 한 가지를 물어봄)</b></p> <p>A: 저는 교권과 아동인권이 상관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이 강화한다고 해서 아동인권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아동인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교권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권과 아동인권을 모두 강화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권리를 인정받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전대학교	학과	사회복지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교과면접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은 한 번에 3명씩 들어갑니다.</li> <li>▪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출신학교 등을 면접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li> <li>▪ 자신이 주장한 의견에 대한 밑받침이 부족하더라도 면접관의 눈을 보고 자신감있게 말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 면접위원께서 자신이 한 주장에 대한 질문을 꼭하니 어떤 질문을 하실지 생각하는게 좋습니다.</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대전대 오시느라 힘들지는 안으셨나요? 어떻게 학교 시설은 마음에 드세요?**

A: 네 대전대 오는데 힘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학교가 넓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Q2: 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지원 동기와 학업, 진로계획에 대해 말해주세요.**

A: 네 안녕하세요 면접번호 30번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도우며 봉사활동 등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전대학교의 교육 목표가 사회복지의 가치, 기술, 지식을 익히고 사회적 책임감과 직업역량을 겸비한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자원봉사를 수강하며 대전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실습장소에서 자원봉사 실습으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가 더 나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모임동아리인 따사랑에 가입하여 여러 봉사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2학년 때는 노인교육론을 배워 배움을 원하시는 노인분들께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배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부족한 영어 공부를 해서 해외의 사회복지사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와 배움점 등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학년 때는 사회복지 현장실습과 사회복지 리빙랩 캡스톤디자인 과목에서 하는 자원봉사 실습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 전보다 사회복지사라는 꿈에 더욱 다가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4학년 때는 심리측정 및 평가 과목과 노인, 장애인 사례론을 배워 제가 도움을 주게 될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전에 있던 사례들을 참고하여 더욱 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에는 제가 대전대학교와 봉사활동을 하며 배웠던 것들로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며 저의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Q3: 최근 교권과 아동인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의 확장은 아동의 인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권을 위해 아동인권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교권의 과도한 확장은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자아 개발과 자기표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가 권력을 부당하게 또는 과도하게 행사할 경우 아동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인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권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교권과 아동인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네 그러면 요즘 계속해서 교권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나요?**

A: 교권이 교사의 권력이 아닌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권과 아동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대전대학교	<b>학 과</b>	아동교육상담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교과면접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제시문 2개, 대기시간 1시간, 면접 대상자 3명이 들어가서 2명의 면접관 질문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딱딱한 분위기.</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통일의 장단점은?</b>				
A: 저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분단 비용이 더 큽니다. 군비용이나 DMZ비용 등 전쟁에 대비한 많은 비용이 듭니다. 통일은 한다면 북의 자원과 남의 기술력으로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Q2: (추가질문) 통일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b>				
A: 단점은 남과 북의 이념이 너무 다르고 분단 세월이 길었다는 점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성장을 빨리 이뤄낸 남한과 낙후된 경제의 북이 합쳐지면 북을 도와주기 위한 경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독일도 통일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통일보다는 서로 왕래, 교류 등을 통해 서서히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Q3: 챗GPT의 신뢰성과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b>				
A: 챗GPT는 참고용으로 써야 합니다. 이유는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위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활용도는 좋지만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프로그램은 참고용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전대학교	학과	임상병리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지역인재 I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2
	면접 절차	대기실 입장 → 유의사항 설명 및 수험표, 인적사항 확인 → 대기 → 면접실 밖에서 대기 → 면접 → 귀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관들이 편안한 분위기 조성함.</li> <li>▪ 2:3 면접이라 다른 지원자들과 같이 들어감.</li> <li>▪ 지원자 3명 합쳐서 15분~20분 정도 걸림.</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사전 공개 질문, 5개 중 1개 선택]</p> <p><b>Q1: 교권의 확장이 아동 인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교권을 위해 아동 인권을 제약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b></p> <p>A: 저는 교권을 위해 아동인권을 제약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교권과 아동 인권은 상호보완의 개념이 아닌 상호조화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교사와 아동의 관계 및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과 아동 인권 두 측면 모두 어느 정도의 제약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이후는 꼬리 질문</p> <p><b>Q1: 왜 학생과 교사 양측에 제약 조치가 필요한가?</b></p> <p>A: 학교 내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사제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적합한 인권 존중이 필요합니다. 교권과 아동인권의 충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있는 현 시점에서 둘 중 한 쪽에 편향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이러한 이슈를 심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p> <p><b>Q2: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가?</b></p> <p>A: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지도와 교육의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보장 및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은 이러한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동으로써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가 제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상호 존중 및 협력적 형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3: 그럼 교사보다 학생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b></p> <p>A: 경우에 따라 아동인권의 보호를 위해 교권이 존중받아야 할 수 있고, 적절한 선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동인권이 보장되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권과 아동인권 중 어느 한 쪽이 배척되는 것이 아닌 모두 바람직하게 존중되는 타협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대전대학교	<b>학 과</b>	임상병리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해화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 확인 → 동기, 진로 계획 묻기 → 학생부에 적힌 것들 기반 질문 → 퇴실</li> <li>▪ 병결이 많은 이유 같은 것도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ex) 공부 방법을 바꾸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지장이 자주 가서 병결을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등).</li> <li>▪ 최대한 본인의 생기부에서 적힌 개념, 특정 실험, 책의 내용 등 가능하다면 전부 원리나 개념을 제대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함. 추가적으로, 동기에 자신의 장점을 어필한다면 그 장점에 대한 부분을 학교생활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li> <li>▪ 질문을 받자마자 급하게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답변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하면서 말을 지어내기보단 확실하게 말을 끝맺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답변 진행하기.</li> <li>▪ 최대한 가능하다면 사소한 부분까지도 준비해가기. (이것까지 준비해야되나? 싶을 정도로 준비할수록 확실하게 모든 질문에도 답변이 가능하고 돌발 질문에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음)</li> <li>▪ 학과를 졸업하면 어떠한 직업이나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고, 진로 계획과 학교 생활 계획을 구분시킬 것. (진로 계획은 직업에 가깝게, 학교 생활 계획은 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적는 것이 좋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임상병리학자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왜 대전대를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b></p> <p>A: 고1때부터 생명과 화학, 의약품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분석하는 게 주특기였습니다. 고2 때부터는 관심이 계속 가는 분야인 화학과 생물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그걸 적용시키면서 분석할 수 있는 학과인 임상병리학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이후, 대전대의 건학이념 중 사회봉사나 국가 발전이라는 부분이 제가 추구하는 이념인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와 가장 맞았기 때문에 대전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진로계획은 대전대의 커리큘럼 중 하나인 '병리학 및 약리학' 이라는 수업처럼 발병하는 질병의 원인이나 그 결과를 분석해서 질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들을 열심히 배워 분석이 뛰어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p> <p><b>Q2: 의료 봉사 동아리에서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알고 그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부분이 적혀있는데 아나필락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b></p> <p>A: 아나필락시스란 우선 전신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몸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오고, 이 물질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 몸이 이 물질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이 물질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 알레르겐. 혹은 항원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에 대한 무기인 항체를 만들고 이 물질과 항체에 대한 것들을 기억 세포를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항원이 우리의 몸에 다시 들어온다면 우리 몸은 이 항원에 대한 항체를 곧바로 생성하여 항원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항원이 실은 우리 몸에 특정한 해를 끼치지 않는 물질이었다면, 이러한 면역 체계에 의해 일어난 반응들을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이 중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전신에 걸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알러지 반응과 달리 쇼크나 호흡곤란 등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p> <p><b>Q3: 1학년 2학기 때 급격하게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b></p> <p>A: 2학기로 넘어가면서 진로에 대해서 방향이 존재하였습니다. 화학과를 희망하면서 쪽 적어내려갔으나, 화학을 좋아하는</p>				



것인지 단순히 그 검사를 진행하며 실험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리하여 진로에 관한 고민으로 인하여 좀 더 공부에 집중하기 보단 진로의 방향성을 새로 수정하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레 성적이 하락하게 되었던 점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학원에만 의존하는 공부법이 점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추후의 제 학습법을 바꾸게 된 원인이 이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학습에 관해서 낮은 점수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Q4: 본인의 주특기가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무언가 증명할 수 있는 일화가 있나요?**

A: 과학과제탐구 실험에서 액체의 점성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나 위노그라드스키 칼럼 실험을 직접 설계하거나 동아리 시간에 아보가드로 수 측정 하는 실험, 아스피린 합성 실험과 같은 것들을 조원과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위노그라드스키 칼럼은 다른 일반적인 실험들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실험이기도 하고, 실제로 한국어로 된 자료보단 영어로 된 자료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직접 해석한 것과 번역기를 사용해서 해석한 것들을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께 부탁하여 추가적인 해석을 보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스피린 합성 실험의 경우, 조원들이 실험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로 실패하지 않도록 곁에서 같이 지켜보며 감독의 역할을 맡았으며, 모든 친구들에게 각자 하나씩의 역할은 말도록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 중에서 진로가 의료나 화학과 거리가 있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엔 직접 추가적으로 실험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위험한 작업의 경우엔 직접 진행하기도 하는 등 최대한 친구들과 소통과 안전을 중요시 여기며 진행을 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동국대학교	<b>학 과</b>	경제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Do Dream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여 구성함.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로 진행함.</li> <li>▪ 생기부에 적혀있는 활동 및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설명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이 나옴.</li> <li>▪ 충분히 답변 시간을 부여받았으며 면접관들의 리액션이 좋은 편이었음.</li> <li>▪ 기본적인 경제 관련 지식들이 무척 중요하다고 느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수학적 관련 노력</b>				
A: 멘토링 활동, 개념정리 노력, 설명해보는 시간 가짐(구체적으로 어떤 개념 설명) 중복조합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관련 지어서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용한 공식 이해				
<b>Q2: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에 반대를 했던데 그 이유는?</b>				
A: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듦(악성루머 퍼트릴 동기 충분) 숏 커버링 등의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국내 주식시장은 제한된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시장이 더 커지려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금지해야함.				
<b>Q3: 동아리시간에 한 활동을 요약해보시오.</b>				
A: 지역 아동보호시설에 기부를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해봄. 여러해동안 걸쳐서 한 활동이다보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한 수요조사 분석 및 매출 기대치를 구해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해봄. 상품의 개당 이윤과 판매량을 곱한 수치를 이용해 상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을 사용해보기도 함.				
<b>Q4: 학교에 입학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b>				
A: 경제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학교 공부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연구원도 생각하고 있어서 이와 특히 관련성이 깊은 거시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을 심도있게 학습하고 싶음.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동국대학교	학 과	광고홍보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Do Dream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진행	면접위원 수	2명(여교수 1명, 남교수1명)
	면접 절차	1차 합격 후 진행 (1차 4배수 선발)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기부를 정독하고 모든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회독하세요</li> <li>단순히 생기부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시사나 자신 진로를 명확하게 생각해서 가는게 좋아요. 예상질문은 외우지만 그 이상으로 준비해서 외운 티 안나게 하세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우리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b>  A: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좋아해서 광고와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됨. 그 이유가 내가 1학년 때 참시나마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하지만 나는 좀 더 심장이 뛰는 일에 일하고 싶었고 변화시키는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광고홍보학과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됨.</p> <p><b>Q2: 간접광고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어떤 방향으로?</b>  A: 생활과 유희 시간에 롤스의 절차적 정의를 이용해서 간접광고, 즉 PPL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함. 간접광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광고사가 광고비문제에 의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음. 그것을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과가 정의롭다라는 절차적 정의를 이용하고 시청자들도 간접광고가 시청에 방해되지 않으면 간접광고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라는 결과를 뒷받침하여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주장함</p> <p><b>Q3: (꼬리질문) 그러면 간접광고 규제에서 현재는 문제가 없단 말인가요?</b>  A: 아니요, 오히려 강하게 적용되어 있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p> <p><b>Q4: (꼬리) 아 그러면 현재는 문제 없고?</b>  A: 네, 그렇지만 규제를 완화해야합니다</p> <p><b>Q5: 면접복장을 그 옷으로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곰돌이가 그려진 니트였음)</b>  A: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고 친근하고 귀엽게 보이고 싶었기에 골랐습니다.</p> <p><b>Q6: 하필 동국대 광고홍보학과인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다양한 소모임과 학회 활동이 있고, 광고홍보인의 밤</p> <p><b>Q7: 방송부에서 인터랙티브 광고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b>  A: 인터랙티브 광고는 방송제에서 송출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방송제는 전교생이 모이는 자리였기에 광고 자체가 재밌고 창의적이고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창의적인 광고 중 하나가 인터랙티브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랙티브 광고를 초콜릿 상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저희 방송제 컨셉이 연말 크리스마스였고 크리스마스니까 연말, 썸,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었고 크리스마스에 썸남 썸녀가 느끼는 감정을 초콜릿을 교환하는 것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초콜릿 상품을 선택하고 나서 실제로 방송제 전반에서 퀴즈를 맞추거나 게임에 성공한 학생들에게는 해당 초콜릿 상품을 전달해주면서 방송제 전반에 유기성있는 흐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p>				

**Q8: 3학년 때에도 공익광고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요?**

A: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상업광고를 제작했지만 3학년 활동기획을 하던 중에 우리가 그 동안 상업광고는 많이 만들었지만 우리는 사실 학교 방송부이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전달 했을 때 도움이 될 내용을 포함한 영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기사를 찾아보던 중 학생이 선생님께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을 하고 이를 선생님들께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향해 익명성을 이용해서 성희롱을 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기사의 댓글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교사에 대한 욕설과 '교사면 이러한 학생도 교화시키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사의 도리이다' 라는 식의 댓글이 난무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 문제가 우리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에 국한되어서 바라봐서 생기는 문제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사실 학생-교사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담사-고객, 연예인-대중 사이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지위라는 것에 국한되어 색안경을 쓰고 그들의 관계를 보고 그러한 지위로 인해 자잘못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혹여나 이러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할 말 해주세요**

A: 우선 저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시고 저의 생각과 가치관을 면접관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껴서 당시 제가 세운 목표나 성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해내지 못했다는게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서 학교 생활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적응할뿐더러 교과 성적을 위한 공부도 빼 놓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3학년 때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100등에서 시작한 저의 국어 점수를 2등까지 올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줄 아는 사람이며 결국에는 성과까지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졸업생 특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학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Do Dream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실 입실 → 대기 → 면접 → 귀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확인 질문</li> <li>▪ 첫 질문부터 압박 질문</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 해주세요.</b></p> <p>A: 저는 국어를 좋아하게 계기와 지원 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국어에 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설화 개작, 공방전 연극 시나리오 제작 등 여러 창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창작활동을 통해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에 들어와서 저만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동아리 활동 중에서 하나에 집중해서 한게 없는 것 같은데 기억나는 활동이 있나요?</b></p> <p>A: 저는 고등학교 3학년때 한 이종피동에 관한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이종피동 사용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개념을 자주 접하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잘못된 이종피동을 올바르게 고쳐 포스터로 제작하여 학급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p>				
<p><b>Q3: 따로 혼자서 읽은 소설이 있나요?</b></p> <p>A: 저는 구병모 작가님의 단편 소설 중 하나인 '타자의 탄생'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인 '구멍은 누구에게나 있어요'라는 걸 보고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p>				
<p><b>Q4: 가전체 소설과 교술갈래를 비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교했나요?</b></p> <p>A: 먼저 가전체 소설과 교술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가전체 소설은 주인공이 사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내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전개됩니다. 그와 반대로 교술갈래는 작가가 직접 겪은 일을 서술하기에 등장인물은 사물이 아닌 인간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으로는 독자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입니다.</p>				
<p><b>Q5: 비 오는 날과 너와 나만의 시간을 비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교했나요?</b></p> <p>A: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두 작품 모두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피난민을 이야기로 허망과 좌절을 이야기 하지만 너와 나만의 시간은 군인의 이야기로 극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p>				
<p><b>Q6: 반장을 하신 것 같은데 리더십을 많이 배우게 되셨나요?</b></p> <p>A: 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반장과 부반장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학급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의견으로 갈등이 생길 때 저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아 완만하게 해결하여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p>				



**Q7: 반장으로서 단합행사를 많이 주최한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게 있나요?**

A: 저는 현장체험학습이 끝나고 다같이 단합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학기 초라 아직 덜 친한 친구들이 있기에 저는 이 행사로 학급 친구들이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며 주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행사로 많이 친해져 다음날 서먹하던 친구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Q7-1: 단합행사를 주최할 때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가끔씩 시간이 안되거나 단합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한번에 다 모일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 힘들었지만 최대한 가능한 시간을 정하였고 단합을 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하나하나 설득시켰습니다.

**Q8: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신가요?**

A: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에 들어와 고전문학 관련 수업을 듣고 고전문학에 사용된 중세국어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과목과 국어국문문예창작을 연결하여 탐구하는 창의성과 탐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창의성과 탐구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학과	사회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Do Dream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면접실 당 2명
	면접 절차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면접실 이동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 세부특기사항에서 질문이 하나도 안나오고 모두 동아리, 자율, 진로에서 나눔</li> <li>1학년 활동도 상세히 물어본다는 특징이 있었음</li> <li>접수 순서가 면접 순서였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편하게 하고, 앞에서 유의사항 들었죠? 지원동기 먼저 말해주세요</b>				
A : 네, 저는 도시 내 불평등 문제를 조명하는 사회연구원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하면서 도시인류학이라는 책을 접하고 도시라는 공간적 스케일 안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담론들이 형성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이후 소셜믹스나 쪽방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 등 도시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탐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사회학분야의 연구원이 되어 포용도시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사회학도로서의 자질을 더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동국대 사회학전공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론과 사회학 이론의 훈련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가 진정한 사회학도로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포용도시 진로활동에도 쓰여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포용도시 관련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썼다고 되어있거든요, 논문은 어떤 내용이었어요?</b>				
A : 저는 포용도시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논문을 읽었습니다. 논문을 통해 포용도시의 중요 요소로 참여, 상호의존, 공간적 포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도시민들이 모두 살만한 주거 공간을 가진다는 의미의 공간적 포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런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 국제경제 시간에도 관련해 쪽방 문제에 대해서도 탐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b>Q3: 포용도시가 뭐죠?</b>				
A : 도시 차원에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도시입니다.				
<b>Q4: 이제 동아리에서 좀 물어볼게요. 소셜믹스에 대해 탐구하면서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 사례를 참고한건가요? 분석 과정을 좀 설명해주세요.</b>				
A : 저는 우리나라의 소셜믹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해 소셜믹스 정책을 보완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해외의 소셜믹스 사례를 참고해 시사점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홍콩의 소셜믹스 정책을 참고했는데, 홍콩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건물 전체를 공공임대주택 아니면 일반분양주택으로 나누어 섞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 내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섞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거주민들 간 비식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Q5: 거주민들을 한 층에도 막 섞어놓으면 사람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b>				
A : 저는 그런 반발 자체가 거주민들 간에 비식별성이 약하고 누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지, 누가 일반분양 주택에 사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콩의 사례처럼 계층 간 건물 구분 없이 분양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비식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Q6: 아 완전히 구분할 수 없게요?**

A : 네

**Q7: (다른 면접관)아까 대답한 것 중에서, 소셜믹스처럼 사회적 계층들을 믹스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믹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 : 저는 다양한 경제적 지위의 사회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믹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셜믹스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분화되면서 사회적 자본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자본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자본이므로 사회적 자본이 차단될 경우 사회 참여에 대한 권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믹스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Q8: 도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A : 소셜믹스와 같은 주거 관련 문제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같은 교통 문제나, 참여와 관련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9: 인류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A : 저는 처음에는 다양한 문화권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들을 실제로 연구하는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류학적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의 한 가지로 수량화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에 제가 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도시사회학 분야도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 내 사회문제들을 인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10: 인류학 방법 중 민속지 연구방법론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되어있는데, 민속지 연구방법이 뭔가요?**

A : 민속지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한 가지로, 특히 참여관찰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해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를 연구하고 기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입니다.

**Q11: 인류학에 관심이 꾸준히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사회문화 수업은 안 들었어요?**

A : 저는 인류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도시를 배경으로 한 사회현상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세계지리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현상을 지리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을 먼저 익혔습니다. 하지만 인류학이나 사회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현대사회학이나 도시인류학과 같은 관련 분야들에 대한 책들을 따로 찾아 읽으며 인류학이나 사회학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Q12: 네 시간 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 :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Do Dream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님 한분, 입학사정관 한 분 들어오심</li> <li>질문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b>			
A: 저는 산업시스템공학에서 경영과 데이터분석 등을 배운 뒤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ott산업, 스마트폰 보급률, 인구, 날씨 등 다양한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배송기업의 esg경영에 관해 공부하며 경영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고, 이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입학하여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고 싶습니다.			
<b>Q2: 수학 성적이 좋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야가 무엇인가요?</b>			
A: 미분과 적분 파트인것 같습니다.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며 수학이 왜 필요한지 비로소 깨닫고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b>Q2-1: 미분과 적분을 활용한 사례를 말해주실 수 있나요?</b>			
A: 답러닝 과정을 최적화할 때 사용하는 경사하강법이 기억납니다.			
<b>Q2-2: 더 자세히..</b>			
A: 경사하강법은 그래프의 기울기와 학습률을 곱하여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최적점을 찾는 인공지능 최적화 수단입니다. 경사하강법에 단점론 전역 최적해가 아닌 지역 최적해를 최적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는 보통 많은 량의 데이터를 학습 시키고 각 데이터의 출발점이 랜덤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과정에서는 지역 최적해의 빠질 확률은 낮습니다.			
<b>Q2-3: 그럼 지역 최적해를 미적분에 나오는 수학적 용어로 뭐라할까요?</b>			
A: (한 15초 고민하다가...)(전역 최적해가 최솟값이라고 힌트를 주심..)아! 극솟값이라 합니다 πππ			
<b>Q3: 생기부에 다양한 활동이 많은데요, 선형회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b>			
A: (선형회귀를 알게 된 동기 말한 뒤) 만약 어떤 실험에서 회귀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런 실험값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형회귀 같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했더니 ~ 이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선형계획법은 (예측값-실제값) <sup>2</sup> 이 가장 낮은 곡선을 찾는 방식으로 회귀를 진행합니다.			
<b>Q4: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꿈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고 쓰여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b>			
A: (살짝 긴장, 의도대로 대답도 안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시 등급을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계산기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Q5: 생기부에 수위 높은 장난,,? 이건 뭔가요?**

A: (선생님이 오해하신거라고 얘기함.)

**Q6: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기억나는 활동을 말해주세요.**

A: 저는 2학년 때 6시그마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6시그마 정의 설명 후) 따라서 불량품과 비불량품을 구분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더 나은 공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7: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저는 분석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고등학교 3년동안 수학, 과학, 정보 성적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활동에 대해서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저의 꿈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Do Dream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대기실 확인 → 고사 당일 대기실 입실 →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직전에 면접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는 복도가 매우 좁기에 핫팩가져가면 좋고 따뜻하게 입어야 함.</li> <li>▪ 오전, 오후팀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팀 당 약 24명 정도가 대기함. 뒷번호가 배정되면 3시간 이상 장시간 대기해야 하기에 간식 준비하면 좋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동기 말씀해주세요.</b> A: 스마트팜의 최적화 연구를 하기위해 지원하였습니다.</p> <p><b>Q2: 스마트팜 연구를 하고자하는데 왜 산업공학에 지원했나요?</b> A: 산업공학에서는 주로 다루는 최적화가 스마트팜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언급함.</p> <p><b>Q3: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고안한 센서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b> A: 스마트팜 프로젝트에서 고안한 센서종류 3가지에 대해 언급함.</p> <p><b>Q4: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최적화를 도모하였던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b> A: 스마트팜의 센서의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최적화경험에 대해 언급함.</p> <p><b>Q5: 2학년 동아리활동으로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탐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b> A: 스마트팩토리 구성센서, 작동원리와 느낀 점에 대해 언급함.</p> <p><b>Q7: 행동특기사항에 수용력있는 모습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였다고 쓰여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b> A: 1학년 학급회의를 주도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함.</p> <p><b>Q8: 다른 과목에 비해 과학성적이 낮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요?</b> A: 과학성적이 낮았던 이유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함.</p> <p><b>Q9: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b> A: 하고싶은 말에 대해 언급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동국대학교	<b>학 과</b>	시스템반도체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Do Dream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신분 확인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대기실에서 같은 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li> <li>▪ 대기 시간동안 자소서나 생기부, 책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사용 못함.</li> <li>▪ 질문을 미리 정해두고 하시는 느낌</li> <li>▪ 전부 다 준비하되 과 관련 활동은 사소한 용어 하나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듯</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왜 시스템반도체에 지원했어요?</b>				
A: 저는 회로를 접하면서 그 속에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이 작은 반도체 부품들이 회로 전체를 제어한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후 주체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이론들을 공부했으나 고등학생의 지식으로 반도체를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열역학 제2 법칙에 대해 자세히 탐구했다고 했는데 설명해주세요. (2물1 세특)</b>				
A: 해당 탐구는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해서 열기관의 열효율이 10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한 것으로 p-v그래프를 생각해보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p-v그래프를 생각해보았을 때 열기관이 의미있는 순환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그리는 운동을 해야하고 때문에 등적 냉각, 등압 수축과 같이 열을 방출하는 운동이 필수이고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방출된 열을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b>Q3: 전기용량 식이 뭐예요? (3물2 세특)</b>				
A : $C = \epsilon_0 \epsilon_r \frac{S}{d}$ 입니다.				
<b>Q3-1: 그럼 엡실론이 곱해지는 이유는 뭐예요?</b>				
A: 엡실론은 유전체의 유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전체가 들어가면 유전체의 유전분극이 외부자기장을 상쇄시켜 그로인해 전압이 낮아져 전하가 추가로 모이게 됩니다.				
<b>Q3-2: 그럼 유전율이 클수록 전기용량이 커지는 건가?</b>				
A: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유전율을 가진 유전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Q4: euv에 대해 탐구했는데, euv가 뭔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해주세요 (3동아리)</b>				
A: euv는 반도체에서 회로를 그릴 때 사용되는 빛입니다. euv는 주석의 플라즈마에서 생기는데, 플라즈마는 고체가 이온화된 것으로 이온화되며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어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들뜬 상태의 전자는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돌아가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때 전자기파가 euv입니다.				
<b>Q5: 무어의 법칙이 뭔가요 (2여행지리)</b>				
A: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2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어 가는 것으로 과거에는 잘 맞았지만 2010년부터는 정확히 맞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b>Q5-1: 2010년이면 꽤 됐는데... 그럼 2010년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요?</b>				
A: 2개월마다 2배씩 정확히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Q6: 단결정, 다결정, 비결정이 뭐예요? (3화2)**

A: 해당 탐구는 단결정, 다결정, 비결정을 응용하여 진행한 것이라 정확한 개념은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Q7: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해 탐구했는데, 이게 뭔가요 (3진로)**

A: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 광물의 구조를 칭하는 말로 용액 상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필름에 바르기만 하면 태양전지가 되어 제조공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일반 태양전지보다 높은 효율을 가지는데 이는 높은 열안정성, 충전율과 단락전류의 최적화 가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Q8: cmos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개특)**

A: cmos는 셀마다 반도체 회로가 있는 이미지 센서로 값을 병렬적으로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cd에 비해 제조가 쉽고 소비전력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는 ccd보다 cmos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Q8-1: 자세한 동작 원리는?**

A: 잘 모르겠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동아리 활동에서 협력했던 활동이 있다면?**

A: 축제때 동아리 부스를 운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스를 준비하면서 미니게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혼자 준비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 부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게임을 완성하여 축제때 많은 방문객이 있었고 선생님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Q10: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A: 면접볼 수 있게 기회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꼭 합격해서 반도체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동국대학교	<b>학 과</b>	식품산업관리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Do Dream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
	<b>면접 절차</b>	입실 → 신분 확인(수험표와 신분증) → 가번호 스티커 부여 → 대기 → 앞번호 면접 시 면접 대기실로 이동 → 면접 → 귀가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실 시간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음. 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암묵적으로 만드니 미리 와서 그 줄에 끼어서 들어가는 걸 추천함.</li> <li>▪ 학관 입실 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1차 합격 페이지에 다시 수험번호 및 성명 입력 후 대기실 층수와 번호 확인하기(모르겠는 경우 입시 관리 위원에게 질문하면 대신 확인해줌)</li> <li>▪ 대기실 입실 시 칠판에 책상 자리가 나와 있음. 자리에 맞춰 앉아야 함.</li> <li>▪ 대기실 밖에 책상 두 대가 면접 대기 공간임, 대기실 반대편 강의실이 면접고사실임. 타 학생의 면접 내용은 아니더라도 소리가 들릴 수 있음. 면접 시 옆 면접 고사실의 소리가 들릴 수 있음. 입시 관리 위원이 대기실 밖에서 떠들 수 있음. (소음에 민감하게 굴면 힘들 수 있음)</li> <li>▪ 외투에 미리 사탕이나 간단한 초콜릿 정도 넣어두고 화장실 다녀오면서 먹어두면 허기에 대비할 수 있음.</li> <li>▪ 앞 순번인 경우엔 10분씩 다 채워 면접을 봤지만, 뒤로 갈수록 짧아질 수 있음.</li> <li>▪ 입실 시간이 지나면 책상에는 면접에 필요한 종이와 생수와 펜 정도만 올려둘 수 있음. 가번호 스티커 부여가 끝나고 고사 안내 사항을 다 말하고 나면 기념품 나눠줌. 펜을 못 챙겼을 경우 사용 가능함.</li> <li>▪ 입시 관리 위원이 대신 노크 및 문 열어줌. 문 열리면 인사하고 00학과에 지원한 가번호 00-00입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은 뒤 면접 시작함.</li> <li>▪ 작년 선배의 후기에서는 답변 도중에 끊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경우에는 없었습니다.</li> <li>▪ 시작은 입사관님 질문으로 끝은 교수님 질문으로 끝남. 대답 후 교수님이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남.</li> <li>▪ 지난해의 경우 교수님이 봉사를 자주 물으시던 교수님이셨던 것 같지만 이번에는 봉사를 안 물어보심. (지난해의 교수님과 다르게 나왔거나 안 물어보신 걸 수도 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입사관) 지원동기 말해주세요.</b></p> <p>A: 안녕하세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투명한 이윤 추구 전략을 모색하는 식품 기업의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어 식품 관리 학과에 지원한 가번호 00-00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 (준비한 대로 이야기함)</p> <p><b>Q2: (입사관) 아까 지원동기에서 말한 생수 기업이 원래는 어떤 전략이었는데, 어떻게 새로 전략을 재구성했는지 말해주세요.</b></p> <p>A: 제가 탐구했던 생수 기업은 해외의 FIJI워터였습니다. FIJI 워터는 친환경을 이미지로 내세워 마케팅했던 기업이었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니 물이 나오는 수원지보다 더 많은 나라로 생수를 수출하다보니 드는 운송비와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생수 기업의 이미지와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csr 활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csv의 sce 모델을 바탕으로 전략을 재설정했습니다. 먼저 수출의 문제는 수원지인 유럽 근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생수 기업에서 소비자가 생수를 구매할 때 추가로 돈을 내서 기부할 수 있게 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물을 구매하면 기업이 수원지 근처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p>				



**Q3: (입사관) 1학년 때 부반장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활동 중 어떤 활동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A: 저는 반장을 도우면서 친구들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의 마련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에 익명 채팅방을 개설해 반에 부족한 시설의 보충과 친구들 간의 다툼의 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개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친구들과의 소통을 도운 활동이 가장 잘했던 활동이라 생각했었습니다.

**Q4: (입사관) 3학년 동아리 활동 중 미국 전기차 기업을 SWOT 분석했다고 되어있는데 분석한 내용 짧고 깔끔하게 말해볼래요?**

A: 저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대해 SWOT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테슬라사의 강점은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함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가 친환경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파악했고 약점의 경우 일론 머스크가 마케팅부를 없앤 것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가 일론 머스크 개인에 의해 흔들리는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회로는 ---위협으로는 ---이 있습니다. (정리했던 내용 대답함)

**Q5: (교수) 아까 SWOT 분석에서 오너리스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너리스크가 뭐죠?(생기부 내 내용)**

A: 오너리스크란 ---입니다.

**Q6: (교수) 오너 리스크에 반대되는 건 무엇인지 알아요? (인지 말해볼래요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오너 리스크 반대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음)(생기부 외 관련 지식)**

A: 오너 리스크에 반대되는 이론의 정확한 명명은 잘 모르지만 빌 게이츠의 자선 사업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미지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이 예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7: (교수) 그러면 주주가 경영하는 게 아닌 전문 경영인이 경영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생기부 내에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이 있었음. 생기부 내인지 밖의 질문인지 잘 모르겠음)**

A: (잘 모르겠어서 잠시 생각해 보고 대답해도 되냐고 여쭙본 뒤 생각 후 답변 진행함) 저는 주주가 경영하는 것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경영할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의 보장이 덜 보장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가 경영할 경우 경영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주로서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영을 진행하겠지만 전문 경영인의 경우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와 가치등 통괄적으로 경영해야하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 보장이 덜 보장된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동국대학교	<b>학 과</b>	영어영문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기회균형통합(농어촌)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내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질문		
<b>면접 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기반 질문을 많이 함</li> <li>▪ 교수님들이 친절하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 말해주세요.</b>				
A: 우선 저에게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왔습니다. 처음에는 학업 목적으로 공부하였지만 하다 보니 흥미가 생겼고 영어라는 학문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불교의 화쟁사상을 기반으로 한 화쟁형 인재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인재에 걸맞게 창의 융합적으로 사고하며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Q2: 생기부에 보니까 '거꾸로 교실, 거꾸로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네요. 그런가요?</b>				
A: (사실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셔서 처음에 '꼬투로 교실, 꼬투로 수업'이라고 알아들어서 어떤 책인지 모르고 대답함) 네.				
<b>Q3: 어떤 내용인지 말해주세요.</b>				
A: 그 책은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룬 책으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b>Q4: 그렇다면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고대영어를 배우며 베오울프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그 작품에 대해 말해주세요.</b>				
A: 베오울프는 한 영웅에 관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그렌델이라는 악당과 싸우며 나라를 지켰고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한 용이 쳐들어와 나라를 망치려고 하여 그 용을 물리치며 영웅이 되는 내용입니다.				
<b>Q5: '오늘 처음 교단을 밟을 당신에게'라는 책을 읽었네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b>				
A: 그 책은 교실에서 교사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적은 책입니다. 안준철이라는 교사분이 쓴 책이고 그 분이 겪으신 일화를 작성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제가 만약 저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야할까 고민하며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꿈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b>Q6: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b>				
A: 네. 지금까지 저의 면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이 학교에 오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불교의 화쟁 사상을 기반으로 한 화쟁형 인재에 걸맞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학과	의생명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Do Dream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11:00~11:30)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 면접실 이동 대기 → 면접(약 10분)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실에서 면접 자료 열람 가능(전자기기는 불가)</li> <li>꼬리질문이 많고, 교과지식(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많이 물어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긴장 풀라고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으로 지원동기에 대해 물어보고 시작함.</p> <p><b>Q1: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b> A: 준비한 지원동기 말함(굳이 동국대학교여야하는 이유가 들어가면 좋음)</p> <p><b>Q2: 항암제에 대해 3학년때 조사했다고 하는데 2세대 항암제와 3세대 항암제가 뭔가요?</b> A: (긴장되서 2세대 항암제에서 조금 버벅거렸으나 3세대 항암제는 잘 대답함)</p> <p><b>Q3: 동아리 시간에 바나나 DNA 추출 실험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b></p> <p><b>Q4 의생명공학과에 와서 뭘 배우고싶나요?</b> A: 의생명공학과 커리큘럼 중 생체물질 및 생명 기전 연구 분야 중 단백질공학과 면역공학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p> <p><b>Q5: 자세하게 말해주세요.</b> A: 4세대 항암제에 대해 언급하며 4세대 항암제의 작용원리 중 단백질 관련된 내용을 말하며 이러한 단백질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고 대답함</p> <p><b>Q6: 유전자 편집이 뭔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당황함)</b> A: dna를 편집하거나 합성해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p> <p><b>Q6-1: 꼬리질문 - 유전자 편집을 그림 어떻게 하나요?</b> A: 유전자 가위를 통해 dna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거나 붙입니다.</p> <p><b>Q6-2: 꼬리 질문 - 유전자 가위가 뭔가요?</b> A: 대표적으로 cas9이 있고, dna를 조작할 때 씁니다.</p> <p><b>Q6-3: 꼬리 질문 - 그림 유전자 가위는 cas9 밖에 없나요?</b> A: 상용화된 유전자 가위는 cas9인걸로 알고있습니다.</p> <p><b>Q7: 봉사활동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b> A: 동아리 시간에 자원봉사자를 구해 했던 실험을 후배한테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발표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함.</p> <p><b>Q7-1: 꼬리 질문 - 왜 제일 기억에 남나요?</b> A: 아무래도 실험을 하고 결과를 정리하는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설명해주다보니 실험 내용도 더 기억에 잘남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p> <p><b>Q8: 마지막으로 할 말은?</b> A: (동국대학교의 인재상과 동국대만의 연구과제지원제도 같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대학원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여 동국대 진학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마무리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동덕여자대학교	<b>학 과</b>	중어중국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동덕창의리더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수험생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실로 이동 후 면접 진행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생활기록부 위주로 질문하니 예상 답변을 준비하여 꾸준히 연습하세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동기부터 간단하게 말해주세요.</b></p> <p>A: 안녕하세요! 저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동아리 차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중국어를 활용해 보고 싶어 중국어 선생님께 대만 학교와 국제 교류를 제안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과거 대만 학교와 교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저의 의견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무엇이든지 도전해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중국 시사 부분과 중국어 독해 부분을 동덕여자대학교의 인터넷시사중국어과 중국어독해작문을 통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더하여 동덕여자대학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일반교환과 교직이수 과정에도 참가하여 동덕여자 대학교의 교육 목적처럼 지성과 덕성을 갖춘 전문인이 되어 미래의 중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p>				
<p><b>Q2: 대만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어떤 활동이었나요?</b></p> <p>A: 대만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동아리 시간에 약 1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대만 드라마에서 본 장면 중 하나인 아침 시간에 체육복을 입고 체조하는 장면을 실제로도 하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고 친구가 이에 대해 대답해주고 또 친구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물어보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더하여 교류 활동 전달 미리 질문할 것을 따로 정리하여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p>				
<p><b>Q3: 중국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b></p> <p>A: 중국어를 중학교 1학년 때 교과목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중국어를 봤을 때 중국어의 성조와 발음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p>				
<p><b>Q4: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좋지 않고, 나중에 성적이 올랐는데 어떻게 공부했나요?</b></p> <p>A: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영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단순 암기 방법만으로는 성적을 올릴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어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하여 저는 틀린 문제들을 복기하면서 독해하는 연습 또한 열심히 연습하여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의대학교	학과	방사선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교생활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장 → 유의사항 설명 및 수험표, 인적사항 확인 → 대기 → 면접실 밖에서 대기 → 면접 → 귀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분의 면접관 중 공격자에게 분위기를 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li> <li>한 분은 진행, 한 분은 날카롭고 공격적인 꼬리질문을 함.</li> <li>말의 끝마무리를 잘 마무리하는게 중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b>				
A: 어렸을때부터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의료보건 분야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오고나서 진로를 선택하던 도중 나의 장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발전하고있는 의료기술과 기기들과 관련된 방사선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었습니다				
<b>Q2: 입학 후 학업계획</b>				
A: (학교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년 별로 과목들을 말하면서 꿈을 향해 노력하겠다는 말을함.)				
<b>Q3: 학업역량(고교생활 중 어려움과 해결하기 위한 내용)</b>				
A: 성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학년때까지 사교육을하지않았던 영어과목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는데 친구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공부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밤늦게까지 친구와 공부하는거라 방해가 되지않을까 걱정했지만 서로에게 도움이되며 등급도 올랐습니다. 이로써 노력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수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b>Q4: 학과와 관련된 교과 비교과활동</b>				
A: 메디컬동아리에서 활동을 한것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메디컬 동아리에서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응급처치 실습과 정보들을 배웠고 3학년때에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인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동아리 부원들에게 이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 동아리 부원들의 발표내용들을 들으면서 의료분야의 정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과활동에서는 생명1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생명과학 수업에서 유전, 인체의 구조, 생명활동 등의 내용을 배우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ABO혈액형 실습 등을 하면서 직접 보고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b>Q5: 반장활동</b>				
A: 1학년 2학기 때 반장활동을 하며 반을 이끌고 반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학교에서 축제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하면서 의견을 통제하며 리더십을 형성했습니다.				
<b>Q6: 마지막으로 하고싶었던말</b>				
A: '인생은 하나의 영화고 그 영화에는 하이라이트가 있다'라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을 치르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 와서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시기를 하이라이트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명지대학교	<b>학 과</b>	청소년지도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명지인재면접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내외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시 후 대기 → 면접실 앞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과 면접실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대기 번호가 뒷번호이면 대기시간이 길기에 참고할 종이 자료와 물을 가져갈 것.</li> <li>▪ 생각보다 생활기록부나 전공 관련 질문이 없고, 인,적성을 확인하는 듯한 질문들이 위주였음. 면접 분위기는 대체로 편안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학교 교과/비교과 활동과 엮어서 말해주세요.</b>				
<p>A: 저는 원래 체육 교사를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며 지도하는 일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목과 무릎이 약해 고난도의 운동을 해야 하는 체대 입시의 특성상 체육 교사라는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비록 체육을 가르치는 일은 포기하더라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관련 직종을 알아보던 도중 학교 동아리에서 계획한 한 외부 봉사로 인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육 교사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와주듯,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의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발달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에 입학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b>Q1-1: 동아리에서 진행한 외부 봉사는 무엇이었나요?</b>				
<p>A: 네, 동아리 부기장으로서 직접 계획한 교육봉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을 못 한 것이 아쉽고, 직접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부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근 청소년기관의 청소년 지도사와 연락하여 4주간 주기적으로 교육봉사를 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천연 손수건 염색하기, 탕탕볼 만들기 등의 활동도 진행하였고, 하나의 책을 갖고 4주 동안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며 책과 관련된 작은 연극을 올리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봉사를 진행하며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학생들이 마지막 날에 와서는 '아 선생님 가지 마요!'라며 저를 붙잡고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이 일이 정말 보람찬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차후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p>				
<b>Q1-2: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무슨 운동을 했었나요?</b>				
<p>A: 다양한 운동을 즐겨했고 그중에서도 복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p>				
<b>Q2: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2학년 때는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신학대학교가 더 적합하지 않나요? 왜 하필 우리 학교에 지원한 거죠?</b>				
<p>A: 네 처음에는 청소년 사역 활동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라는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보다 더 큰 범주인 청소년 자체를 지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가 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p>				
<b>Q3: 그럼 우리 학교에 와서 가장 배워보고 싶은 과목이 무엇인가요?</b>				
<p>A: 저는 청소년심리라는 과목을 가장 배워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레크레이션활동 같은 수업도 들어보고 싶습니다.</p>				



**Q4: 학창 시절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봉사활동이 무엇인가요?**

A: 앞서 말씀드린 교육봉사활동이 가장 인상 깊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은 노숙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서울역에 가서 노숙인들에게 작은 먹거리들과 생필품을 제공해 드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제가 학생의 신분엔 있다가 보니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과정이 저에게는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노숙인 분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확장되는 경험이었기에 저에게 인상 깊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Q5: 성적을 보니까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그 비결이 있을까요?**

A: 뚜렷한 목표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표가 명확해질수록 이를 이루기 위해 더 큰 노력과 집중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제 진로도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른 성적 상승 또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했던 노력 중 하나는 멘토링 활동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에게 취약한 과목이었던 생명과학의 문제와 개념을 멘토 친구와 선생님께 적극 질문하면서 결과적으로 30점가량의 점수 상승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성적 상승의 비결은 뚜렷한 목표로 인한 스스로 노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조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예로부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나 가정에서만 청소년들을 지도할 것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청소년 지도사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데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지도학과인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에 입학해서 한 아이를 키워내는 데 관여하는 따뜻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목원대학교	<b>학 과</b>	수학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교과면접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대기시간이 길며 면접을 본 사람은 순차적으로 보내주었다.		<b>면접위원 수</b>
	<b>면접 절차</b>	입실 후 전자기기 사용 가능, 순차적으로 3명씩 입실 후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공간에서는 자료를 볼 수 있다.</li> <li>▪ 지각생이어도 면접을 볼 기회를 주었다.</li> <li>▪ 2번째 질문을 중점적으로 보는 듯 하였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해 보세요.</b></p> <p>A: 제가 수학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적분의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적분법이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배우면서 구한 도형의 넓이는 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었으나 적분은 선으로 둘러 싸인 부분이 아닌 정의된 함수의 임의로 정한 구간을 구하는 것이기에 낯설어서 어려움을 느끼게되었습니다.거듭된 복습과 학교 선생님과 개별 질문으로 차츰 이해했습니다. 정적분의 활용 부분, 즉 구분구적분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각형을 통해 도형을 세분하여 각 부분의 넓이나 부피를 구한 후, 이들의 합의 극한값으로 본래의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적분의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그리고 그에 대한 심화 과정인 이중적분법에 대해 알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p> <p><b>Q2: 학교에서 배운 수학 내용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해 칠판을 이용해 서술하고 설명해 보세요.</b></p> <p>A: 수열에 대해 설명하였다.등차수열과 등차중앙의 내용을 서술하였다.</p> <p><b>Q3: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자신은 어떤 수학 교사가 되어야 하겠다고 느끼는지 말해보세요.</b></p> <p>A: 저는 다양한 풀이를 설명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 수학시간 도중에 반 학급에게 문제를 풀라고 제시하시고 여러 학생들이 서로 다른 풀이법을 가지고도 하나의 답이 나왔습니다.이렇듯 수학에서는 여러개의 길을 통하여 하나의 답으로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풀이들을 알다보니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학생들은 이번에 처음 배우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하리라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배재대학교	학과	유아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배양영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장 → 유의사항 안내 → 수험생 신분 확인 → 고사실 이동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보다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긴장할 필요 없어요. 대기실에서도 긴장 풀어주시니 편하게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li> <li>■ 배재대 홈페이지에 있는 공통 질문 15개는 꼭 준비하고 가세요. 적어도 1문제 이상은 공통 질문에서 나와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를 실천한 경험이 있으면 말해주세요.</b></p> <p>A: 저는 2학년때 옆 반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가벼운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초중고 교사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한 팀이 되어서 대주제를 정해야하는 상황에 중고등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대주제를 성적 및 평가와 관련된 차별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여서 모두의 진로와도 엮을 수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대주제로 주장하여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하며 협력을 통해 50분 동안 진행하는 수업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p>				
<p><b>Q2: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서 수학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업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b></p> <p>A: 창의력과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들과는 다른 수업을 기획해보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수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d프린터를 활용한 유아 디자인 수업을 기획하는 것이 있습니다.</p>				
<p><b>Q3: (개별질문) 생기부를 보니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동아리에 대해 5초 안에 한 단어로 대답하고 동아리 활동이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b></p> <p>A: 리더쉽입니다. 학교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동아리가 없어서 1학년 때 직접 개설했습니다. 또한 2학년 때는 유치원 교사보다는 초중고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더 많아 동아리를 교육 관련으로 확장시키고 동아리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초중고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까지 수용해 이끌었습니다.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리더쉽을 발휘해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보거나 활동에서 친구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p>				
<p><b>Q4: 마지막으로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자신의 강점과 함께 어필해주세요.</b></p> <p>A: 제 강점은 열정입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유아교육과를 희망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직접 개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탐구를 했습니다. 열정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와서 제 열정을 마음껏 뽐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배재대학교	<b>학 과</b>	유아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배양영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공통 질문 → 생활기록부 질문 → 마지막 하고 싶은 말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실 내의 면접관분들과의 자리가 꽤 머니 목소리 크기를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li> <li>▪ 면접을 보기 전 운영위원분들이 긴장을 풀어주시고, 면접 시간동안 면접관분들 모두 미소를 지어주셔서 긴장을 덜할 수 있었습니다.</li> <li>▪ 2 대 2 면접이라 답변을 길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너무 짧지 않은 선에서 조리있는 답변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배재대학교 선교사님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본인이 생각하는 유아교사로서의 자질을 말해보세요.</b></p> <p>A: 제가 생각하는 유아교사로서의 자질은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순간이 한 번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아기의 아이들은 정서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의 앞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교사님의 희생정신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온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2: 학교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과 힘들었던 기억을 말해보세요.</b></p> <p>A: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2학년 때 인근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아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아이들의 놀이를 돕는 역할을 했는데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놀이를 관찰하면서 아이들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 시간만큼은 저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힘들었던 기억은 1학년 때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했던 경험입니다. 교구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했었는데, 예산 안에서 준비하려다 보니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진행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비를 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당시에 많이 힘들어했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움을 활동을 준비할 때 더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b>Q3: 봉사활동 시간이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b></p> <p>A: 교내 봉사활동이 다양하지 않은 편이어서 봉사활동 시간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 주도형 봉사활동에 매년 참여했습니다.</p>				
<p><b>Q4: (꼬리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b></p> <p>A: 저는 2학년 때 했던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봉사활동이었고 인근 중학교 학생들을 학교로 초청해 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친환경 물병 오호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 실수를 할까 봐 많이 긴장했었는데 아이들의 호응 덕분에 발표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점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 고민을 통해 뒤로 있던 모든 발표를 준비할 때마다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p>				
<p><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면접 마무리하겠습니다.</b></p> <p>A: 유아교사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직업인 만큼 유아교사에 대한 간절함이 큼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큰 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열정과 배우고 싶은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유아교사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삼육대학교	학 과	글로벌한국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세움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로 진행하였는데 많은 면접 후기를 참고했지만 개인적으로 압박 면접이었음.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말하는 자신감이 합격요인 중의 하나였음.</li> <li>생기부에 적혀있는 활동은 최대한 꼼꼼하게 다 답변할 수 있어야 함.</li> <li>출결도 살핌.</li> <li>한가지 활동에 대해 꼬리를 무는 질문을 많이 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글로벌 동아리 회장으로서 한 일을 말해보세요.</b> A: 동아리 관련 공지와 주제 선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p> <p><b>Q2: 블로그 쓰는 내용은 무엇을 했나요?</b> A: 또래 학생들이 할만한 생각들을 위주로 적음.</p> <p><b>Q2-1: 블로그 독자수는 몇명인가요?</b> A: 000명 입니다.</p> <p><b>Q2-2: 블로그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b> A: 평소에 생각났던것을 개요를 적어놓았다가 씀</p> <p><b>Q2-3: 블로그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p> <p><b>Q2-4: 블로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b> A: 두달에 3번 정도.</p> <p><b>Q3: 학과 관련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b> A: 공감능력, 소통능력이 있기에 이 학과 외국인과 만났을 때 강점이라 생각합니다.</p> <p><b>Q3-1: 영어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b> A: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p> <p><b>Q4: 출결이 별로인데 왜 그렇습니까?</b> A: 병결로 지각, 조퇴, 결과 처리되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학 과</b>	건설시스템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교생활우수자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면접 시작하는 시간 이후에 대기실에서 30분정도 대기 후 면접시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관 두 분 모두 비교적 젊고 부드러운 인상이셨다. 생활기록부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고 그에 따른 후속 질문도 많았다.(생기부 숙지 필수)</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말해볼까요?</b>				
A: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사람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공학에 매력을 느꼈고,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람에게 이로운 공학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공학 기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공학분야를 융합하여 확장이 가능한 건설시스템공학과에 진학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b>Q2: 3학년 때 라이더 센서, 그중에서 TOF 기술을 탐구했네요. 설명좀 해볼래요?</b>				
A: 네. 3학년 때 전공 체험을 하면서 라이더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장애물을 인식해 맵으로 나타내는 자율주행 미니카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라이더 센서에 대한 흥미가 생겨 조사를 했고. 높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기를 갖는 펄스 신호의 왕복시간을 측정하여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술인 TOF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b>Q2-1: 그 라이더 센서 기술을 건설시스템공학과에 적용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b>				
A: 교량을 건설할 때 도로쪽 상부를 조립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와 도로 사이에 센서 설치를 통해 교량 건설 시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Q3: 동아리 시간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직접 게임을 만들어 봤네요? 어떤 게임이죠?</b>				
A: 파이썬 기초 강의를 듣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turtle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turtle은 보통 그래픽을 구현할 때 사용하지만, 저는 거북이 오브젝트를 형성해서 거북이를 직접 조종하여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b>Q3-1: 그 때 사용한 파이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b>				
A: 잘 모르겠습니다.				
<b>Q4: IoT? 사물인터넷에 관한 내용도 있네요. 사물인터넷을 건설시스템공학과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생각나는대로 편하게 얘기하세요.</b>				
A: 음.. 우리 주변의 사회 기반 시설들끼리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Q4-1: 어떤 데이터요?</b>				
A: 만약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한다면 지반이 약해질 것이고 이 지반에 대한 데이터를 주변 건물에 전송하여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건물이나 교량에 노화가 발생한다면 이와 같은 데이터도 수집하여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Q4-2: 노화요? 예를 들면?**

A: 지반 침식에 따른 구조물 파괴 위험이나 철근이 녹슬어서 발생하는 노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Q5: 혹시 살면서 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을까요?**

A: 저는 중학교 때 적정기술에 관한 책을 읽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적정기술에 대해 알게된 후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고, 자연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아 졌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공학분야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가장 인상적인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Q6: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A: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반이 한팀을 이뤄 진행하는 합창대회를 진행했는데 저희 반이 단합이 이뤄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반 친구 몇몇과 주축을 이뤄 다른 친구들을 독려하며 이끌었고, 성공적인 무대를 이뤄내어 부듯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학 과</b>	미래에너지융합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창의융합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7시30분~8시30분 입실, 8시30분~9시 주의사항 안내, 9시부터 면접 시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 입학사정관 1명과 학과장님 한명으로 면접관 구성됨</li> <li>▪ 면접 1번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공질문을 심화적으로 하시기보다는 포괄적인 질문이나 인성면접 위주로 진행됨</li> <li>▪ 교수님이 긴장하지 말라고 다독여주셔서 분위기는 좋았음</li> <li>▪ 내가 모르는 질문에서는 솔직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다른 활동을 어필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음</li> <li>▪ 자기소개나 지원동기는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가번호1번 맞으신가요?</b>				
A: 네, 맞습니다.				
<b>Q2: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말해주세요.</b>				
A: 저는 지구 온난화 해결에 기여하는 에너지 공학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 스키이트 태양전지를 3년동안 탐구하며 미래 에너지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RE100캠페인에 대해 조사하거나, 인공지능 교과에서 기후 조건에 따라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에너지 공학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 과기대의 미래에너지 융합학과에서 에너지에 대한 공학적 지식은 물론 경제학적, 사회문화적 시각까지 겸비한 에너지 공학도로 성장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3: 우리학교에 대해서 교육과정 찾아봤을 텐데 기억에 남는 교육과정이 있나요?</b>				
A: 4학년 때 전공 선택과목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에너지 저장 장치 과목을 배우고 싶습니다.				
<b>Q4: 아스피린 합성실험에서 다른 효능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추후에 탐구했었나요? 탐구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탐구했는지 말해주세요.</b>				
A: 다른 효능에 대해 탐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스피린 합성의 화학 반응에 대해 더 탐구해보고 싶어 탐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b>Q5: 다른학교와 비교해서 특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b>				
A: 다른 학교의 에너지공학과와 달리 에너지 공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 정책등 에너지공학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입니다.				
<b>Q6: 지원동기에 보니까 페로브스카이트 뭐 다양하게 탐구활동 한 것 같은데 물리학이나 화학과목에서 가장 흥미롭게 배운 단원 얘기해보세요.</b>				
A: 화학 투에서 화학전지 단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b>Q7: 화학전지 단원에서는 뮌배우나 어떤어떤 전지(들어본적이 없는 전지 이름이 나옴) 이런거 배우나?</b>				
A: 아니요, 볼타전지나 다니엘 전지같은 기본적인 전지의 원리에 대해 배웁니다.				



**Q8: 그러면 불타전지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에 대해 말해보세요.**

A: 구리전극과 아연전극 묶은 황산을 이용한 전지입니다. 아연은 수소보다 이온화경향이 커서 산화되어 전자를 내주고 구리는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아 구리전극에서 전자를 받아들여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Q9: 미적분 어렵지 않아요? 미적분에서 어려웠던점 말해보세요.**

A: 미분은 수2때도 해서 어렵지 않았는데 적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넓이와도 연결시켜야 해서 어려웠습니다.

**Q10: 미적분을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A: 미적분 시간에 경사하강법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이란 함수의 기울기의 부호를 고려해 이동방향을 정해 보폭을 움직이며 최솟값이나 최댓값을 찾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1: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해보세요**

A: 저는 유치원때부터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단 한번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실함을 바탕으로 서울과학기술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실함이 제가 배움의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뽑아주세요.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학 과</b>	스마트ICT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교생활우수자
<b>면접</b>	<b>면접 시간</b>	<b>면접위원 수</b>	2명
<b>형식</b>	<b>면접 절차</b> 면접실 앞에서 대기 후 들어가서 면접보고 귀가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목소리로 대답하고 면접관분들과 눈을 마주쳐야 함.</li> <li>▪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기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리해야 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b>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기계공학 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정보통신공학과에 진학한 선배와의 만남시간을 가지거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을 읽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스마트ICT공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ICT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일반물리에서 정보통신공학개론까지 다양한 공학요소로 학문을 넘나들며 세부적인 분야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저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3학년 때 배운 미적분 내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나요?</b>			
A: 저는 구분구적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어려운 도형을 무한히 쪼개어 근삿값을 구하고, 이 값의 극한값을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것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b>Q3: 3학년 수학 세특 내용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무엇이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사용되는 예시가 있나요?</b>			
A: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란, 직선 위로 원을 굴렸을 때, 원 위에 한 정점이 그리는 자취를 말합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전통 한옥에 있는 기와의 모양이나 매가 먹이를 잡을 때 하강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와는 비가 올 때 물을 가장 빨리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이클로이드 곡선 모양을 하고 있고 매가 먹이를 잡을 때 가장 빨리 내려오기 위해 사이클로이드 곡선 모양으로 내려옵니다.			
<b>Q4: 3학년 '수학과제 탐구' 시간에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베이지 정리가 무엇인가요?</b>			
A: '베이지 정리'란 두 확률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b>Q5: 그럼 혹시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b>			
A: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b>Q6: 3학년 '공학 일반' 시간에 팀 프로젝트 활동으로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나요?</b>			
A: 저희는 스마트시티를 만들 때 조도센서, 초음파센서, 압전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조도센서는 주변의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이고, 초음파센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압전센서는 진동을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조도센서는 도시의 신호등에 활용하여 차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차가 없는 밤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초음파센서는 주차장에 활용하여 차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알려줄 수 있게 만들었고 압전센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의 바닥에 설치해서 전기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b>Q7: 이 프로젝트에서 조장 역할을 맡았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b>			
A: 압전센서를 활용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압전센서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의 바닥에 설치하면 진동이 커서 전기가 잘 생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진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기가 잘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 보다는 학교 운동장 같은 뛰어다니는 곳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조장을 맡았습니다. 조장으로서 다른 친구들과는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모두들 저를 잘 따라주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b>Q8: 시간이 1분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b>			
A: 제가 3년 동안 노력했던 활동들을 면접관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ICT공학과에 꼭 진학해서 저의 꿈을 확고히 하고 창의적, 윤리적, 실천적 인재가 되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학 과</b>	인공지능응용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창의융합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면접 대기실 → 복도에서 앉아서 대기 → 면접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심.</li> <li>▪ 맞는 답변일 때 호응을 잘해주심.</li> <li>▪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게 좋을 것 같음.</li> <li>▪ 생기부 위주의 세부적인 개념 관련 질문이 많음.</li> <li>▪ 다른 학생들도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 멘트 질문은 공통적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우리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한번 말해보래요?</b>				
A: 인사 →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인사 → 1, 2, 3학년의 관심사와 장점 → 학교와 학과의 지원동기				
<b>Q2: 수학에서 함수의 정의가 무엇인가요?</b>				
A: 어떤 $x$ 를 입력했을 때 $y$ 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b>Q2-1: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요?</b>				
A: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서 $x$ 에서 $y$ 로 아닌 $y$ 에서 $x$ 로의 함수입니다.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함수가 일대일대응이어야 합니다.				
<b>Q2-2: 일대일대응이 뭐죠?</b>				
A: 일대일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인데요. $x$ 에서 대응되는 수가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b>Q2-3: 함수에서 <math>x</math>값을 알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말해보세요.</b>				
A: 함수의 식을 구한 다음에 그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합니다. 그 도함수에 $x$ 를 대입해서 $x$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b>Q3: 2학년 기하에서 벡터를 활용한 활동이 많은데 벡터의 내적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무엇일까요?</b>				
A: 두 벡터의 기울기, 각도가 90도이어야 합니다.				
<b>Q4: 가우스 소거법 활동이 많이 보이는데 가우스 소거법이 뭔지 알려줄래요?</b>				
A: 가우스 소거법은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일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각 계수들을 순서대로 계수행렬에 정의하고, 기본행연산을 통해 역삼각행렬의 형태로 정리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후진대입법을 이용해 해를 구합니다.				
<b>Q5: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이 무엇일까요?</b>				
A: 이 방법은 역삼각행렬의 형태에서 후진대입법을 이용해 해를 구하는게 아니라 단위행렬처럼, 약간 대각선의 형태로 만들어서 해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b>Q6: RSA 암호화를 이해했다고 적혀있는데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이 뭔지 설명해줄래요?</b>				
A: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은 공개키와 개인키가 있습니다. 공개키를 이용해 암호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지만 오직 복호화는 개인키를 이용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Q7: 컴퓨터에서 이진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잘 설명했다고 하는데 혹시 말해주세요?**

A: 가장 작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전류의 정도를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1, 안 흐르는 0으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가능합니다.

**Q8: 동아리 시간에 알고리즘을 많이 공부했는데 동적 계획법을 설명해주세요?**

A: 큰 문제를 작은 하위 문제들로 나누어 푸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계산 결과를 저장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중복 계산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9: (동적 계획법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A: 장점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으로 최적화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적화된 결과값을 얻기 힘들고,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메모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Q8: 벌써 10분이 다 되었는데 못한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일단 저에게 귀중한 면접 기회를 주시고,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바꾸어나가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뛰어난 교수님이 계시고, 최고의 환경이 구축되어있는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융합학과에서 저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학 과</b>	전자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교생활우수자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5분 내외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면접 시간 30분 전까지 입실(교문으로 차량 출입 금지이며 학교가 매우 넓으니 일찍 갈 것) → 강의실에서 대기(같은 과 면접 학생만 있음) → 전자기기 제출 → 면접실 앞 의자에서 대기 → 면접 시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소개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자기소개나 지원동기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유연한 답변이 중요하다.</li> <li>전공 관련 질문 보다는 기초적인 수학 교과 내용과 생기부 내용 확인 위주의 질문이 많고, 꼬리 질문 또한 많다.</li> <li>겁먹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li> <li>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모의면접 여러 번 해보는게 많은 도움이 된다. (절대 예상 질문으로만 준비하지 말 것)</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장점이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b>				
A: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낮은 성적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선 공부를 잘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물어보며 공통점을 파악하려 하였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인지 하며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부 방법을 저의 공부 방식에 적용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다음 학기부터 보다 나아진 학업 성취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문제를 분석한 후 끈기를 갖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이것이 저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단점은 컨디션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학업, 선생님 상태 표시등, 동아리 활동 등 여러 활동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밤을 새는 일이 많았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활동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저만의 컨디션 관리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도 학업을 더 잘 이어갈 수 있는, 다른 학생과 저의 차이점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b>Q2: 공부법 이야기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b>				
A: 제가 분석을 통해 알게 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어떤 공식이나 개념을 적용할 때 왜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었으며 저 또한 공부를 하며,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할 때 왜 이런 공식을 사용하며 사용 방법이 이게 맞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b>Q3: 근데 애들이 그런, 공부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나요? 협조를 어떻게 얻었나요?</b>				
A: 친분이 있던 친구들은 저에게 쉽게 노하우를 설명해 주었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음료수 등 작은 호의를 먼저 보이며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대부분 저에게 노하우를 설명해주었습니다!				
<b>Q4: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뭐죠?</b>				
A: 미분 가능이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특정 점에서 함수가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조건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b>Q5: 동아리에서 여러 활동을 했던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죠?</b>				
A: (답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 잠깐만 달라고 요청하니 “아니 활동한거 없어요?”라고 하심. 당황하지 않고 “여러 활동을				

하였지만 그중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고 답변함.)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3학년 인공지능 수학 동아리 시간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sst 증강현실 장치를 고안해보고 기초적인 기능을 구현해 본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청각 장애인이 화재 상황에서 외침이나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정상인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말소리 뿐만 아니라 사물의 소리 또한 인간의 말소리와 구분하여 인식하고 자막의 형태로 증강현실로 띄어주는 장치를 고안하고 기초적인 기능을 구현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창업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하는 저의 가치관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 또한 차세대 기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Q6: 기초적인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죠?**

A: 저는 티쳐블 머신을 활용해 입모양을 통해 단어를 유추하는 모델과 사물의 소리와 말소리를 구분하는 모델을 구현해보았습니다. 제가 구현한 모델은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 충분한 정확도를 얻지 못했으나 추후 데이터 수를 늘려 보다 정확한 모델을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Q7: 싸이클로이드 곡선이 왜 최단 강하 곡선이죠?**

A: 싸이클로이드 곡선이 최단 강하 곡선인 이유는 싸이클로이드 곡선 위를 이동하는 물체가 가장 적게 마찰력을 받으며 낙하 초반 큰 가속도를 얻고 후반에는 관성을 통해 빠른 속도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설명이 다소 직관적이지 못하고 느껴 다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저는 조사를 통해 싸이클로이드 곡선의 최단 강하 원리를 빛의 최단 시간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자주 나와 제스처를 사용해 버림.. 후배들은 제스처 사용하지 말고 손은 언제나 무릎 위에 둘 것)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굴절률이 작아지는 매질에 빛이 입사할 경우 빛은 굴절하며 이동하고 이때 빛의 자취를 관찰하면 해당 자취가 그리는 곡선이 싸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것을 통해 싸이클로이드 곡선이 최단 강하 곡선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8: 2학년 때 수학 반장을 맡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A: (이 질문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이기에 당시 했던 활동과 잘 연결해서 대답을 함) 2학년 당시 수학 반장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반 친구들과 함께 반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구해본 활동입니다. 수업 시간에 삼각 측량법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 배운 후 이를 활용해 반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활동을 반 친구들에게 제안하였고 자전축의 각도, 공전 궤도의 기울기 등을 고려해 반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며 기존에 삼각측량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에게도 원리를 설명해주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부분의 친구들이 삼각측량을 이해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할 당시에는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을 고려하여 거리를 구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물리학 2 수업시간에 원 운동을 주기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반항 또한 도출해볼 수 있었습니다.

**Q9: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어필 한번 해보세요.**

A: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성적 올린 것 다시 한번 어필하고 꿈에 대해 이야기함.)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는 기업을 창업하는 꿈을 이루는 출발점이 서울과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서울대학교	학 과	국어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기회균형특별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 복도 대기(5분) → 면접장(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박 면접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와 완전히 반대로 너무 부드럽게 “음~”, “어~” 해주시면서 계속 들어주셔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면접장도 학과장실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으니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풀어가면서 지나치게 길게 이야기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 들어주신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적당히 끊어서 1분 내외로 답변하는 연습하세요!</li> <li>▪ 8시 30분 정도에 모든 짐(자료, 외투, 가방 등 : 신분증, 수험표 빼고 전부)을 제출하고 대기했습니다.(물론 요청하면 한 병 주심) 면접 순번을 미리 알 수 없고, 자기 순번 5분 전에 관리원분께서 부르시면 복도로 나가서 대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7번째로 3시간 대기했는데 그 시간 동안 속으로 헛갈렸던 답변 연습을 하며 긴장을 풀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앞 순번은 일찍 끝나니 좋은 거고, 뒷 순번은 여유있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 좋으니 순서에 연연하지 말고 답변 내용에만 집중해 준비하세요!</li> <li>▪ 활동의 기승전결을 묻는 것과 더불어 정말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묻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활동 과정을 다시 복기하고 외우는 것은 당연하고, 생기부에서 두드러지는 활동 및 적어도 관련 계열의 활동은 정말 진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경지식을 쌓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길 권유드립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1학년 때 영어로 글쓰기한 게 되게 재밌었어요~ 재능과 운의 요소가 둘 다 중요하다는 글을 썼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b></p> <p>A: 1학년 때 친구를 보고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계속 잠이 온다고 이야기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동기부여를 자주 해주었는데 (이 부분도 지나치게 풀어서 이야기해 아쉬움이 남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력을 하는 데 타고나는 기질적인 특성과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등의 요소도 중요하다고 깨달아 쓴 글이었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p>				
<p><b>Q2: 교육학 시간에 인쇄 기반 문화에서 디지털 기반 문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뇌의 읽기 회로가 변한다는 내용으로 수업 시연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읽기 회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b></p> <p>A: 기본적으로 인쇄문화는 상호 소통이 아니라 독자가 주체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일 수밖에 없고, 디지털 기반 문화는 영상 매체인데 영상 매체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답변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이셔서 예를 들어 덧붙여 설명함) 깊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뇌가 깊이 읽기에 익숙하지 않게 되고 이런 뇌를 가지고 인쇄 매체로 글을 읽을 때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인 글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해력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p>				
<p><b>Q3: 요즘 문해력이 글을 읽는 개념에서 영상을 보는 능력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b></p> <p>A: 문해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읽고, 말하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보고, 듣는 것까지 포함해 리터러시의 개념으로 확장해 문해력을 바라보아야 하고, 문해력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세상을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데 적절한 매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Q4: 학생 생기부를 읽어보니.. 뒤에 관심이 있는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나 문해력 같은.. 3학년 때 시험능력주의와 관련한 활동을 했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능력주의도 있잖아요? 사회의 능력주의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학교 측면(교육측면이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남 )이 아니라 사회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A: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네~ -> 체감 상 10초 ~ 20초 정도 생각한 것 같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심한 원인은 학력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력주의가 나타난 데엔 수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수능은 단일한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결과가 중요시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 시기 학생들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한다고 인식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 갈 때 너무 중요하게 각인 돼서 사회에 능력주의가 만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를 보완하기 위해선 문화적 차원의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과 아닌 집안에서 문화적 지원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뒤로 계속 설명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남) -> 이 답변하면서 밖에서 노트 소리가 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걸 알게 됨.)

**Q5: 그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혐오 문제는 생각해 봤나요? 빨리, 짧게!**

A: 어.. (노크 소리 들리고 빨리, 짧게 말하라고 하셔서 당황함, 한 5초 ~ 10초 정도 당황해서 면접관분들 번갈아가면서 바라봤던 것 같음 )

**Q6: 됐어요! 이만 나가봐도 돼요~**

A: (시간이 다 돼서 나가라고 하신 것 같음 -> 인사하고 나옴 )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학과	물리 천문학부(물리학전공)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 신분확인 → 문제풀이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과끼리 대기했음, 시험장 앞에서 선배들이 응원함</li> <li>▪ 들어가서 공부 불가라고 할때부터 아무 것도 볼 수 없음.</li> <li>▪ 핸드폰은 자신이 소지하나 가져온 가방에 꺼서 넣어놔야함.</li> <li>▪ 일단 답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함</li> <li>▪ 밖에서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데 면접장 안에서 필기도구를 쓸 수 없고 오직 말로만 설명해야하며 그러므로 추가 질문이 나올 때 필기도구가 없는 것에 당황하지 말 것.</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문제는 두 개, 각각 소문제 4개씩 있었음.          1번 문항 앞에 탄성 충돌에 대한 제시문이 있고 1-1~1-4번 문항이 있음.          특히 1-3에는 소문제가 다시 3개가 더 있었음.          2번 문항도 2-1~2-4번 문항이 있고, 문항 중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제시문이 있음.</p> <p>안녕하십니까 면접번호 00입니다.</p> <p><b>Q1: 푼 문제부터 답을 부르고 풀이과정을 설명해봐라</b>          A: 1-1은 1번 문제는 포물선 운동을 빗면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저는 빗면을 기울여 제가 볼 때 수평으로 만들고 중력가속도를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으로 분해하여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각 방향에 적용했습니다. (적용한 식을 설명하고) 탄성충돌을 고려하니 답이 ~이 나왔습니다.(답이 상수로 숫자였음)          1-2은 공을 여기서 굴리면 떨어질 때 속도가 ~가 되는데 그대로 탄성충돌하여 충돌 전, 후 속력이 같고 이를 이용하면 탄성충돌이 원래 가던 방향대로 진행을 시켜보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포물선 운동으로 계산하면 ~이 됩니다.          (1-3(1),(2)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쉬운 문제였음. (3)이 어려웠음) 포텐셜이 최소인 지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더 운동합니다.          1-4은 답만 말함.</p> <p><b>Q1-1: 조건을 ~로 바꿔서 풀어보세요.</b>          A: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이었음) 답함. (맞은 문제에 대한 추가질문이었던 것 같음.)</p> <p><b>Q2: 2-1번 말해보세요.</b>          A: 전기력, 중력과 전자의 운동량 변화를 구하면 전자의 기울어진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과정 식 설명하고 답 말함.          (1번은 제시문 관련 없었음)</p> <p><b>Q3: 2-2번 말해보세요.</b>          A. 속도는 커지는데 가속도는 작아질 것입니다.</p>				



**Q4: 2-3번 말해보세요.**

A: 제시문을 사용하여 평형식을 세운 과정을 설명하고 계산 과정을 통해 구한 답을 설명함.(2-4번도 마찬가지로)

**Q5: 1-4번 답을 다시 보시겠어요? 답 틀렸죠?**

A: 네

**Q6: 풀이를 어떻게 했어요?**

A: 풀이과정 설명함.

**Q7: 풀이 과정은 맞았는데 왜 틀렸지?**

A: (연필이 없어서 계산을 다시 할 수가 없었음, 많이 당황했음)풀이 과정을 다시 검토함.

**Q8: 시간이 남았는데(3분정도 남았던 것 같음) 더 할말 없나요?**

A: 문제지 뒤적거림.

**Q9: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학과	산업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균형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대기실에서 항공우주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li> <li>대기시간동안 자료 모두 못 보고 전자기기 사용 못함.</li> <li>제 생기부는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어필해서인지 인문학적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공과라는 과 자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교수님들이 분위기를 편하게 이끌어주시고 압박 질문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산업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 주세요.</b>			
A: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해진 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이 인간과 환경을 위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국가와 기업이 인간과 환경을 위하는 방법을 택하려면, 결국 그 방법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의 최적화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산업공학자가 되고자 산업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활동 중에서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까'라는 책을 읽고 활동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책을 설명해보세요.</b>			
A: 이 책은 실리콘 밸리의 업무 방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뚜렷하고, 많이 일한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리콘 밸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짧게 일해도 효율적으로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성과금 제도, 해커톤 문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노동생산성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킬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b>Q3: 본인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표가 무엇인가요? (삶의 목표를 묻는 질문이었음)</b>			
A: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저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아서 타인이 없으면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결국 그 인간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산업 공학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b>Q4: 생기부를 보면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가 뭐라고 생각하나요?</b>			
A: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저는 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스마트 시티의 비전은 효율적인 도시, 약자를 위한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였습니다.			
<b>Q5: 전반적으로 '효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산업공학자의 기본적인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나요?</b>			
A: 자신이 설계하고 있는 기술 자체에 대한 수리과학적 이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효율적인 해를 찾으려는 노력,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소비할지 인간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Q6: 인간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b>			
A: 저는 철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였고, 다양한 철학 책을 읽었습니다.			
<b>Q7: 그러면 읽었던 철학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 있나요?</b>			
A: 장자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까 설명한 실리콘밸리 이야기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장자가 따르는 도가 사상에서는 상선약수, 물과 같이 흐르는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여,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성과금을 주어 노동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Q8: 리더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나요?**

A: 네, 저는 반장과 동아리장 활동을 했습니다. 스마트 시티 플래너라는 동아리에서 동아리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동아리는 다양한 공학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 스마트시티에서 어떻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 고민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각 공학 분야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배웠고, 리더로서 어떻게 구성원들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협력하도록 이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열쇼크 방지 시스템 고안, 친환경 단열재 실험 등을 진행하며 산업공학자로서 추구해야할 가치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Q9: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실험 설계적인 측면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Q10: 네,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A: 친환경 단열재의 효율을 측정할 때, 열 전도가 잘 되는 그릇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릇 안에 뜨거운 물을 넣고 온도가 하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단열재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온도가 빠르게 하강하여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열이 반대로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하였고 얼음을 녹이는 방식으로 단열재의 성능을 측정하여 효율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서울대학교	학 과	생물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기회균형특별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여 구성함.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로 진행하였으며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았음.</li> <li>생기부에 적혀있는 활동 및 내용보다는 교직에 필요한 역량을 자세하게 듣고싶어 하는 분위기였음.</li> <li>충분하게 답변 시간을 부여받았으며 면접관들의 리액션이 좋은 편이었음.</li> <li>자신의 내용과 활동을 교직원과 연결하여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사범대를 언제부터 희망했나요?</b>				
A: 중학교 3학년 때 가정사로 방향하던 시기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그러한 저를 보고 다양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하셨고 이에 저는 방향성과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선생님을 존경하였고 평소 친구들과 지식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하기를 좋아해 교사라는 직업을 희망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사범대를 희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b>Q2: 생물교육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가 있나요?</b>				
A: 일반적으로는 중등학교 교사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생물 교과다 보니 생명과학 연구원이나 의약계열도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현장이 아닌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육청의 일도 존재합니다.				
<b>Q3: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b>				
A: 교사는 크게 기본적으로 인성적 부분과 학문적 부분에 대한 역량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인성적으로는 학생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연결하여 지식 기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의 세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며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 snu in the world와 교환학생, 교육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b>Q4: 생물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b>				
A: 지식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학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생물교사에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육과정이 대입목적에 맞게 유전학에 비중이 많이 가해지고 면역학이나 생태학에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 학생에게 미시적 시각을 기를 기회만 제공하고 거시적인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도 생물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b>Q5: 스테로이드의 항상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무엇을 학습하였나요?</b>				
A: 지식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학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생물교사에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육과정이 대입목적에 맞게 유전학에 비중이 많이 가해지고 면역학이나 생태학에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 학생에게 미시적 시각을 기를 기회만 제공하고 거시적인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도 생물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6: 평가지를 만들어 학우분들과 나눴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학생들과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상호발전하기를 좋아하여 다양한 평가지를 만들었습니다. 1학년 때는 접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지필고사와 모의고사 밖에 없었기에 현 대입 양식의 평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식이 현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오류 발전 유전 프로그램 평가양식을 만들었고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 대입 시스템의 내부에서 진행된다고 생각이 되어 3학년 때는 기존에 질적으로 아쉽다고 느껴진 생태학 부분에 대해 독서 논술식 문항을 개발하여 적용해보고 평가 기준까지 세워보았으며 학생들과 오류를 발견하고 토의하며 평가에 대한 이해와 상호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학과	수리과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균형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대기 → 순서가 되면 방앞에서 대기→입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절한 교수님들이 진행하는 편안한 분위기</li> <li>학문관련된 학과는 교수님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질문이 편향될 수 있음 (어디에서 물어보실 지 모르니 철저히 준비 예) 난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해석학이나 선형대수학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음.)</li> <li>지원동기, 리더십, 책 등은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내용만 물어보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1학년에 고급수학을 들었네요? 고급수학을 수강한 동기와 들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한 것은 무엇인가요?</b>  A: 고급 수학 지식들을 접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한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되어 고급수학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약간 더듬음). 제가 고급수학을 들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배운것은 '고유벡터'였는데요, 고유벡터에서 특히 회전행렬의 고유벡터에 대해 연구하면서 복소고유벡터를 알게 되었고, 복소고유벡터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p>				
<p><b>Q2: 고유벡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b>  A: 고유벡터는 회전변환..아니, 선형변환만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벡터인것 같습니다. 고유벡터란 선형변환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인데, 다른 벡터들은 선형변환에 의해 크기나 방향이 바뀌는 반면 고유벡터는 방향이 유지되기 때문에 선형변환만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벡터라 생각합니다.</p>				
<p><b>Q3: 고유벡터는 항상 구할 수 있나요?</b>  A: (당황, 약 10초간 생각함)...제 생각에는 항상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형변환에 대해서는 구할 수 있을 것..</p>				
<p><b>Q4: (공으면서)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세요.</b>  A: 고유벡터는 선형변환에 람다를 곱한 항등행렬을 뺀 다음 이 행렬의 행렬식이 0이 되어야함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아니 이차방정식과 연립방정식을 계산하여 구합니다.</p>				
<p><b>Q5: 테일러 급수에 대해 공부한거 같은데 테일러 급수에 대해 말해주세요.</b>  A: 테일러 급수는 해석함수를 도함수들의 한점에서의 값으로 구성된 항의 무한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테일러 급수에서 항은 n팩토리얼 분배 (x-a)의 n제곱에 f의 a에서의 n번째 도함수를 곱한 꼴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구한 테일러 급수는 초월함수나 다항함수로 표현하기 힘든 함수를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p>				
<p><b>Q6: 푸리에 급수에 대해서도 공부한거 같은데 푸리에 급수가 뭔가요?</b>  A: 푸리에 급수는 주기함수를 사인과 코사인에 가중치를 곱한 것으로 구성된 무한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푸리에 급수에서 가중치는 삼각함수의 직교성을 이용하여 적분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p>				
<p><b>Q7: 푸리에 급수와 테일러 급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b>  A: 먼저 푸리에 급수는 주기함수를 무한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서 항을 표현한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잘 생각이 안나 말한것 반복)</p>				

**Q8: 테일러 급수는 항상 원래함수와 같나요?**

A: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테일러 급수는 매끄러운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테일러 급수와 원래함수가 일치하는 함수를 해석함수라고 합니다.

**Q9: 미적분 시간에 감마함수에 대해 연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ln t$ 의  $n$ 제곱의 부정적분에 대해 탐구하면서  $\ln t$ 의  $n$ 제곱의 부정적분과  $n-1$ 제곱의 부정적분이 팩토리얼의 점화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팩토리얼의 점화식과 일치시키기 위해 적분구간을  $0 \sim 1$ 로 설정하여 상수항을 없앴고,  $-$ 가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없애기 위해  $-\ln t$ 를 적중하는 것으로 바꿔 팩토리얼의 점화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마함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Q10: 1학년때 원뿔곡선에 대해 심층탐구하고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했는데 예시를 말해주세요.**

A10답변 : 원뿔곡선 중 포물선은 평행한 직선이 입사했을 때 초점으로 모인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의료계에서는 빛을 한 곳으로 모아 결석을 제거하는 기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Q11: 그거 말곤 없나요?**

A: 네..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Q12: 볼츠만 분포와 정규분포와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볼츠만 분포를 탐구하면서 볼츠만 분포식이 지수함수의  $-$ 제곱 꼴로 표현된다는 점과 볼츠만 분포의 그래프가 정규분포와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Q13: 아까 테일러 급수가 항상 원래함수와 같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테일러 급수가 일치하는 구간을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A: 테일러 급수와 원래함수가 일치하는 구간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비판정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비판정법은  $a$ 의  $n$ 번째 항분에  $a$ 의  $n+1$ 번째 항이  $n$ 이 무한대로 갈 때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해야 함을 이용하여 급수의 수렴성을 따지는 방법입니다.

**Q14: 만약 급수의 항들이 비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A : 어..급수의 항들이 지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여기서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셔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어..

**Q15: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균형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관 분들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가까웠음</li> <li>▪ 면접 대기실에서 전자기기 걷은 후에는 가져온 모든 자료 볼 수 없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화학, 생명 등 다른 과가 많은데 하필 우리 학과를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지 이유좀 말해줄수 있을까요?</b>  A: 저는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에 기여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고갈 문제가 있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그래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그러면 연구원이 되고 싶은 건가요? 우리 학과에 와서 배우고 싶은거나 해보고 싶은게 있나요?</b>  A: 네. 제가 여러가지를 배우다 보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중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p> <p><b>Q3: 에너지의 개발에 어쩌다 관심을 가졌는지, 동기가 있나요?</b>  A: 시작은 유튜브나 뉴스에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두려움에서였던것 같습니다.</p> <p><b>Q4: 평소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일과, 학업적으로 행복했던 경험 각각 하나씩 말해주시겠어요?</b>  A: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캐릭터 인형을 좋아해서, 이런것들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구경할 때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ㅎㅎ 학업적으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으로는 1학년 때의 동아리에서 진행한 연구에 있었습니다. 유난히 녹이 슬어있는 시약장 경험의 성분을 확인하는 연구였는데 처음 설정한 가설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가설을 수정하고, 다시 탐구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것이 과학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p> <p><b>Q5: 수학 문제 풀이를 즐긴다고 나와있었는데, 수학 문제 푸는걸 좋아하시나요?</b>  A: 중고등 학교 때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과학 분야에 사용되는 다양한 수학적 개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교내 여러 탐구활동을 통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수학 개념과 문제를 접하였습니다. 재미도 있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한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에서 제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강하고 싶습니다.</p> <p><b>Q6: 심화수학은 과목이 따로 있는거예요?</b>  A: 네.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이었습니다.</p> <p><b>Q7: 앞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개발해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수 있나요?</b>  A: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방법에서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핵융합 같은 에너지 생산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시간을</p>				



벌어둔 후 핵융합 발전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Q8: 핵융합에 대해서 말했는데, 핵융합은 언제쯤 사용이 가능할지..**

A: 사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연구의 목표가 2040~50년 까지이므로, 그때쯤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Q9: 다시 돌아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일,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ভাল일 하나씩 말해주세요**

A: 우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코딩, 컴퓨터 이쪽 분야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화학 동아리에 가입한 것 입니다.

**Q10: 화학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A: 아까 말씀드린 연구인데, 자세히 설명해도 될까요? (대답 듣고 세부 과정 이야기 함)

**Q11: 그럼 물리학을 배울때,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과 힘들었던 부분 있나요?**

A: 네. 저는 물리학 1을 배울때 역학 부분이 그림상으로 무언가 표현되어있고, 이를 통해 값을 구하는 부분에서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파동 부분을 배울때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Q12: 이제 곧 시간이 다 될것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대답하려는 찰나 시간 다 됐다고 문 열려서 인사 후 나눔.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학과	역사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기회균형특별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 대기실 → 면접 실 옆 자리에서 대기 → 면접실		
면접 특징 [후배조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실 마감 후에 수험표, 신분증, 물 제외 모든 물건을 가방에 넣으라고 하시고 그 가방을 다른 교실로 옮기기 때문에 대기하는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3학년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 '인문학 위기에 맞선 인문학 교육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배운 점 또는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b></p> <p>A: 우선 활동을 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뉴스 기사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기사를 보던 도중 이과 편중 현상과 의대 쏠림 현상이라는 사회적 현상,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라고 생각하여 인문학 교육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문학, 인문학 위기의 원인, 인문학 교육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인문학을 인간과 관련된 학문, 인간의 문화나 역사 등 삶의 모습을 담은 학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경제적인 가치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문학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기술 같은 분야는 그 발전이 사회에도 잘 드러나지만 인문학은 그렇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인문학의 내용이 평소 많이 접해보고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인문학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문학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인문학 교육은 인문학 캠프와 같이 인문학을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학생 중심의 협동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p>				
<p><b>Q2: 학생 중심의 협동 수업이 프로젝트형 수업을 말하는 건가요?</b></p> <p>A: 네</p>				
<p><b>Q3: 그러면 프로젝트형 수업이 인문학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b></p> <p>A: 당장은 해결되긴 힘들지만 프로젝트형 수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인문학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인문학 위기의 원인을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낮은 관심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협동 수업, 프로젝트형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 흥미를 끌 수 있어 인문학 위기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대학교	<b>학 과</b>	전기정보공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지역균형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희망등의 일반적인 질문들, 생기부 세세한 내용들을 위주로 준비함. 그런데 실제 면접에선 열심히 탐구했던 주제 몇가지만 질문하셔서 크게 긴장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었음. 특히 프로그램을 만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과정 하나하나 다 프로그래밍했던 내용이라 세세한 내용까지 잘 답변할 수 있었음.</li> <li>▪ 면접 분위기는 편하게 답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면접을 한다는 느낌보단 지원자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곡률에 대해서 왜 조사했나요?</b>				
A: 교과서에 곡률 식만 소개됨. 자세한 수학적 증명과정 궁금해서 탐구했습니다.				
<b>Q1-1: 외적개념을 활용했다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b>				
A: 곡률의 기본 정의에서부터 식까지 유도과정중 벡터미적분학 사용. 이 과정을 간편하게 가기위해 외적 사용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b>Q1-2: 그럼 3차원 상황에서 증명한것인가요?</b>				
A: 딱히 한정짓진 않았지만 외적사용했으면 3차원에 적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b>Q-3: 조사는 어떤식으로 했나요?</b>				
A: 주로 인터넷을 찾아보고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드렸습니다.				
<b>Q2: 3학년 물리학2 시간에 이중진자 프로그래밍 활동을 왜 했나요?</b>				
A: 과학과제연구 시간에 물리엔진을 구현했습니다. 더 다양한 상황을 프로그래밍해보고 싶어서 이중진자에 대해서도 탐구했습니다.				
<b>Q2-1: 어디까지 구현했나요?(계산식 or 시각화)</b>				
A: 시각화까지 했습니다.				
<b>Q2-2: 어떻게 탐구했나요?</b>				
A: 이것도 비슷하게 혼자 인터넷으로 조사하다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께 여쭙 보았습니다.				
<b>Q2-3: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b>				
A: 장력을 구현할때 처음엔 용수철 상수를 높게 잡으면 실처럼 작동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은 프레임 단위로 했기 때문에 (Q: 중간질문 - 프레임 단위면 시간? A: 네) 물체의 이동에 약간씩 오차가 있어 떨림현상이 나타났습니다.				
<b>Q2-4: 재밌었겠네요?</b>				
A: 네, 재밌었습니다.				



**Q2-5: 이렇게 수업 프로그램에 있었나요?**

A: 딱히 없었지만 그냥 관심이 생기면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은 있었습니다.

**Q2-6: 주제는 선생님이 잡아주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찾은 건가요?**

A: 처음 제가 관심이 생겨 찾아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고,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더 보라 하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Q2-7: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을 텐데 이런 건 왜 했나요?**

A: 그냥 코딩으로 구현하는 과정이 재밌어서 고등학교 생활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Q3: 3학년 진로 레이트레이싱 구현 활동(이 활동 질문하시기 시작할 즈음 노크소리가 들렸음)도 시각화까지 한 건가요?**

A: 네.

**Q3-1: 하기 어려웠을 텐데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설명해 주세요.**

A: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일반적인 구현법이랑 다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구현을 폴리곤(3d그래픽의 기본단위 삼각형)으로 하기엔 데이터 생성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정의로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빛의 충돌판정을 할 때 폴리곤이었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빛을 조금씩 전진시켜 충돌을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최적화 측면에서 불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면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는 구면이어야 할 가상면을 평면으로 가정하고 프로그래밍했기에 시야 외곽으로 갈 수록 확대되며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Q: 중간 질문 -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A: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곡면으로 가상면을 바꾸면 좋았겠지만, 당시에 시간이 부족하여 시점과 가상면 사이의 거리를 늘리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대학교	<b>학 과</b>	정치외교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지역균형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li> <li>■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위주인 것 같아요.</li> <li>■ 그리고 꼬리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생기부 자체에 대한 질문은 적었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관심이 많죠?</b>				
A: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이것에 대해 계속 추구해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b>Q2: 학생에게 보편적 가치란 무엇인가요?</b>				
A: 저에게 보편적 가치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정권 또한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직접 해결해나가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이 권리 또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1,2번과 관련해서 꼬리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저 권리들을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가,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가”, “저 가치들을 실현하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저 가치들을 실현하는 나라들이 더 이상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닌게 아닌가?”, “그럼 저 가치를 실현하지 않은 나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북한과 같은 나라들도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잘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는 무엇인가?”)				
<b>Q3: 학생은 진로가 어떻게 되죠?</b>				
A: 저는 명확하게 아직 어떤 진로, 직업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민으로는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폭력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느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평화 상태에서는 당연히 폭력이 없어야하지만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공격에 대한 방어,구조적 폭력에 대항하여 민주정을 설립하려는 혁명 등 예외적인 예시를 생각하니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저의 답을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꼬리 질문:“과거부터 많은 학자들이 평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폭력과 전쟁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b>Q4: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도서는?</b>				
A: 저는 <두 도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있던 일을 다루고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이 저에게 끼친 영향은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폭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구조적 폭력을 깨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력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민간인의 희생 등 폭력의 비참함 또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를 위해 폭력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지 고민이 이 책으로부터 시작되어 <두 도시 이야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도서입니다. (꼬리질문:“그럼 학생은 폭력이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학과	철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구상 30분, 답변 15분	면접위원 수	2
	면접 절차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장 → 다시 신분 확인 → 대기 → 면접실 복도 앞에서 대기 후 준비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험생에게 믿기지 않을 수준의 자율성을 제공함. 전자기기를 따로 수거하지 않고, 본인 가방에 넣어 보관하라고 하는 등 정말 시험이 아닌 면접의 느낌이 강했음.</li> <li>추가 질문에 교수님의 의도가 전부 숨겨져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긴장감 등으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lt;인문학&gt;</p> <p>가) 역사학은 사실성과 허구성의 조화가 있는 학문이다. 경험주의에 기반한 사료 탐색과 연결 활동은 다른 인문학과 역사학을 구별해주지만, 결국에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p> <p>나) 2차대전 시기 유대인 학살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동참한 사람들. 한 역사학자는 이에 대해 conformity가 작동하여 사회적으로 순응한 결과로 해석한다.</p> <p>다) (나)와 상황 동일. 다른 역사학자는 이 상황에서 학살자들이 유대인 혐오에 공감하여 동참했다고 주장한다.</p> <p><b>Q1: '역사학의 허구성'이 (나)와 (다)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b></p> <p>A: 기본적으로 합리적 사고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역사학은, 사료에 기반한 합리적인 추론을 거칠 수 있는 내용만 '역사적 사실'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료가 부족하여 알 수 없는 내용이나 질적인 맥락 등의 경우 연구자가 과거로 돌아가서 알아볼 수 없으므로 사실적 검증을 거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자의 생각이나 상상 등 사료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합니다. 저는 역사적 허구성이 이처럼 사료로만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서 역사적 허구성은 '사람들이 권위에 순응하였다'라는 진술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그러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혹은 그들이 그렇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 따라서 이는 역사학자가 추측한 내용으로, 허구성에 해당합니다. (다)에서 역사적 허구성은 '유대인 혐오 감정'입니다. 이 역시 사람들이 실제로 말한 내용, 즉 사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구성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적인 맥락 등 질적인 측면의 역사적 분석을 위해 역사학자의 주관에 일정부분 의존합니다.</p> <p><b>Q2: 역사학처럼 사실성과 허구성이 나타나는 다른 학문의 예시를 들어보시오.</b></p> <p>A: 인류학에서 민족지 연구를 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최대한 배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성은 기술된 인류학적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의 나열은 학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역사학의 허구성에 대응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b>Q3: 그러면 역사학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가?</b></p> <p>A: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수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여야 하지, 단순히 본인의 주관이라 하여 사실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p> <p><b>Q4: 근거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을지?</b></p> <p>A: 만약 자연과학이라면, 자연과학은 세계를 정밀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타당성 등을 검증할 객관적 수치/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은 인문학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 합의를 통하여 도출된 일정한 이론이나 주장에 기반하여야 합니다.</p>				

**Q5: 그렇다면 철학의 경우와, 자연과학의 경우는 어떨까요?**

A: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많이 씀)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철학의 경우 사실성의 영역은 논리적 논증과 그 결과들, 허구성은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명료하고 정치한 논증구조, 예를 들면 공리계 등을 설계하더라도, 그 전제를 파고들어가다 보거나 모순되는 지점을 찾다 보면 심리적인 직관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심리적 직관의 작동 기준이나 존재 근거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 구조에 포함될 수 없는 외부적 요소라는 점에서 역사학의 허구성에 대응합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의 경우, 앞서 말했듯 허구성이 끼어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이 발전하고 연구가 이뤄지면서, 세계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할 표준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성에 해당하는 검증된 과학적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허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현대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부 최신분야가 잉태되고 초창기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과학적 상상력’ 등으로 표현되는 과학자들의 주관이나 상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허구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서 허구성은 분야의 발전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임을 다시 요약하며 답변 마칩니다.

〈사회과학〉

가)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면 타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 생각하고 스티커 여부에 따른 사고율을 조사했다. 스티커가 있는 차량은 사고율이 낮아졌지만, 이것이 부모에게 경각심을 준 결과는 아닐까?

나) 생존자 편향 (인터넷에 검색하면 있는 그 전투기 사례 그대로)

**Q1: (가)와 (나)에 나타난 문제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A: 이 두 문제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으로 데이터의 활용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의 경우 변인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요인이 개입하기 쉽고 실제로 개입하였습니다. 반면 (나)의 경우 표본 추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고 표본추출이 편파적으로 이뤄져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Q2: (가) 또는 (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들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심리학에서의 ‘학생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에서 표본으로 대학생들이 집계되기 더욱 쉬운 경향이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3: 2번 질문 다시 답변해주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심리학 실험이기에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야 더 나을 것 같아요.**

A: 일반적인 대중, 즉 전 세계 사람이나 전국민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실험이라고 해본다면, 대학생들이 표본으로 추출되는 비율이 크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비교적 소득수준이나 연령, 교육수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과대대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그러면 2번 질문에서 (가)와 관련지는 사례는 없나요?**

A: 한국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자들 중 부유층의 비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대학에 가면 돈을 벌기 쉬울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처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분석입니다.

**Q5: (나)도 인과-상관관계를 혼동한 것 같지 않나요?**

A: 총알자국의 개수가 부품의 안정성에 주는 영향에 대한 따로 판단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Q6: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인문학 제시문 답변 중에, 철학적 사실성과 역사학적 사실성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A: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 사실성은 주로 연역적 논리에 기반한 반면, 역사적 사실성은 제시문에 ‘경험주의’라는 언급이 있듯 경험적 외부 자료에 기반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학과	철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30분(준비시간), 15분(답변시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30분 동안 제시문 숙지와 답변 구성(인문 제시문1, 사회 제시문1로 총 2개), 15분 동안 답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는 꼬리질문으로 유명함. 교수님이 한 질문에 답변해 나가는 상호작용 과정이 중요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지문1: 인문지문          (가)주관적 사례를 연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역사학의 모순에 관한 내용          (나)역사적 사료를 읽고 나치당 지지 세력의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이 조직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한 자료, 이는 나치당 지지 세력이 후에 법정에서 한 말들에 기반한 것('그저 조직이 시켜서 한 것이다...')          (다) (나)와 동일한 역사적 사료를 읽고 나치당 지지 세력의 이유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신념 자체가 잔혹한 이들의 행위라고 해석한 자료, 나치당 지지 세력이 법정에서 한 말들은 그저 거짓말로 취급. 이들의 말보다는 당시 독일 사회에 평배했던 가치관(유대인 배제)과 이들의 잔혹한 행위(유대인 몰살)에 집중</p> <p><b>Q1: (가)지문의 역사학의 모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나), (다)에서 이와 관련지어 말하라?</b>          A: (가)지문에서 역사학의 모순이라고 말한 까닭은 주관적인 사례를 들어 보편적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임. (나)에서는 '나치당 지지 세력의 말'이라는 주관적 내용을 들어, (다)에서는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행위'라는 주관적 내용을 들어서 나치당 지지 세력의 내적 동기의 보편적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음.</p> <p><b>Q2: 위에서 말한 역사학의 모순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예를 하나 제시하시오?</b>          A: 철학과 유사함.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하는 과학과 달리, 철학은 인간의 사유라는 주관성이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통해 객관적 진리를 찾고자 하기 때문임.</p> <p><b>Q2-1: 철학, 역사학과 같은 학문은 객관적인 과학과 같은 학문과 달리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임?</b>          A: ...답변 제대로 못 해서 비슷한 질문만 2-3번 반복함..</p> <p>지문2: 사회지문          (가)자동차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을 때,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제시. 이 결과에 기반하여 해당 표지판이 사고율을 낮춘다는 주장 제시. 그러나 진짜 해당 표지판이 사고율을 줄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존재함을 첨언. 사고율 감소의 원인이 표지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조심성에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 전개. 표지판을 붙인 부모들이 애초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임. 결론은 표지판만으로는 사고율 감소의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임          (나)전투기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 제시. 전투기의 일부분만을 보완할 수 있는데, 그 일부분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2가지 주장 전개. 1번째 주장은 전쟁에서 돌아온 전투기들을 보았을 때, 가장 총알을 많이 맞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임. 해당 부분이 총알을 맞기 쉬운 위치이기 때문.          2번째 주장은 전쟁에서 돌아온 전투기들을 보았을 때, 가장 총알을 안 맞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임. 표본이 전쟁에서 돌아온 전투기들 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가 어느 부분을 총에 많이 맞아서 못 돌아왔는지 알 수 없음. 따라서, 전쟁에서 돌아온 전투기들이 총을 많이 맞은 부분은 애초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전쟁에서 돌아온 전투기가 총을 많이 맞지 않은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것임.</p>					



**Q1: (가), (나) 상황의 특징을 비교하시오.**

A: (가), (나)의 공통점은 둘 다 표본의 대표성 문제라는 점이다. (가)는 표지판을 붙인 부모를 표본으로 정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 표본이 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심성이 없는 사람은 표본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심성이 많은 이와 적은 이가 공존할 수 있는 전체 모집단을 해당 표본이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전투에서 돌아온 전투기만을 표본으로 함으로 인해 전투에서 돌아오지 않은 비행기는 표본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체 모집단을 표본이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다.

차이점은 (가)의 운전자의 조심성이라는 요소는 사고율과 직결된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주관성이 반영될 수 있기에 조심성이 없다고 반드시 사고가 많이 나는 결과를 낳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

(나)는 이와 달리 총에 맞아서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단언할 수 있다는 점..

**Q2: (가), (나) 상황과 유사한 예를 제시하시오.**

A: (가)는...(기억이 안 나오..)

**Q2-1: (가)에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표지판을 붙인 부모뿐만 아니라, 그저 일반 운전자들을 표본으로 데려다가 표지판을 붙이게 한 후 일정 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게 한다. 이때 주변 자동차들의 동향, 표지판을 안 붙였을 때보다 공격적으로 주행하는 차들이 주변에 적은지, 많은지 등등을 확인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학과	화학생물공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균형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가 관악산에 있어서 아침에 매우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li> <li>▪ 대기 시간에 가져간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면접장 가서 생기부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3학년 때 촉매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배경이 무엇인가요? 또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나요?</b>			
A: 저는 화학 2를 공부하면서 교과서에 촉매의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촉매의 효율인 $\Delta H$ 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실험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결과 비교를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은거울 반응을 이용해 은박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은 콜로이드를 합성하여 과산화 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정량적으로 측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은 콜로이드로 분해하였을 때 과산화수소가 더 빨리 분해되었습니다.			
<b>Q1-1: 이 실험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b>			
A: 실험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은 콜로이드를 합성하는 양에 은의 몰수를 맞추면 은박이 너무 조금 만들어져서 이를 분석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콜로이드를 만들고, 이를 조금만 덜어서 실험을 진행하면, 큰 은박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b>Q2: 반장 활동 같은 리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자신의 리더십이 잘 드러난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b>			
A: 저는 1학년 때 동아리 기장을 맡아 동아리 페스티벌에서 실험 체험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1학년이다 보니 동아리 페스티벌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동아리에서 정한 펜로켓 실험을 기간까지 다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의견을 물으니 대부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물으니 차선책으로 준비 시간이 적게 걸리는 다른 실험을 동시에 준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친구들도 몇 있었지만 동아리 페스티벌을 준비해야 하는 동아리의 상황을 설명하니 모두 납득하여 실험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첫 번째 실험은 다 준비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실험으로 정안 발열팩 만들기 실험으로 동아리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동아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리더로서 잘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b>Q3: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b>			
A: 저는 행복이 삶의 목표입니다. 저와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는 수단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저의 진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자가 되어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는 저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와 줄 것입니다.			
<b>Q4: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에는 무엇이 있나요?</b>			
A: 저는 의대 쏠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재가 모두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시간 종료)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시립대학교	<b>학 과</b>	도시사회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생부종합전형 I
<b>면접</b>	<b>면접 시간</b>	<b>면접위원 수</b>	2명
<b>형식</b>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시간 전자기기 일체 사용 금지</li> <li>▪ 생기부 내용 질문이 적었고 공동체적 역량 중시하는 질문이 많았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책상에 붙어있는 수험생 유의사항 읽어볼래요? 소리 내서</b>			
A: (읽음)			
<b>Q2: 그거 어떤 것 같아요?</b>			
A: 블라인드 면접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질문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서 당황함..)			
<b>Q3: 가장 재밌었던 과목이 뭔가요?</b>			
A: 지역이해 과목입니다. 저는 도시라는 공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리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지역이해 시간에는 다중스케일과 같은 다양한 지리적 내용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b>Q4: 도시를 왜 좋아해요?</b>			
A: 저는 2학년 초반에 도시인류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시라는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는데,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등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b>Q5: 도시인류학이라고 했나요? 누가 쓴 책이에요?</b>			
A: 아나옥 더코닝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b>Q6: 어떤 내용이에요?</b>			
A: 도시와 관련해 다양한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이 담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평소 사회학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와 사회학을 접목한 도시사회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Q7: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예요?</b>			
A: 슬럼에 관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슬럼이라고 하면 단순히 '빈민가'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슬럼도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더 탐구해보고자 터키의 게제콘두와 일본의 아이린지구를 비교한 글을 써 보기도 하였습니다.			
<b>Q8: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b>			
A: 터키의 게제콘두와 일본의 아이린지구는 모두 이촌향도로 생긴 빈민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미셸 드세르토가 말한 것처럼 정치인들은 공간을 규정하고 전략을 사용해 이용하는데, 게제콘두에서 정치인들은 거주민들을 잠재적 지지자로 인식하고 선거 기간 동안 이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등 관계를 맺었습니다. 반면 아이린지구에서는 정치권력에 투영된 가난의 문화적 관점으로 인해 남성 단신 노동자들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해 일반 빈민 가정과 주거정책을 통해 분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b>Q9: 한국에서도 슬럼 문제를 볼 수 있을까요?</b>			
A: 저는 쪽방 문제에 대해서도 탐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쪽방도 빈민주거문제와 관련되어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슬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b>Q10: 긴장이 좀 풀렸나요? 이제 생기부 내용을 좀 물어볼건데 현대세계의 변화 과목에서 최근에 한거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도시의 비인격성과 관련한 탐구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도시도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서울? 아까 쪽방 얘기도 했고 여기가 서울시립대학교니까..</b>			



A: 먼저 도시의 비인격성이란 도시에서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되고 경쟁이 강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서울도 도시가 비대화되고 파편화되면서 이러한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11: 그럼 이 주제에 대해 탐구하면서 찾아본 자료가 있을까요?**

A: 저는 도시의 비인격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에벤에서 하워드의 '전원도시'라는 사료를 선정해서 분석한 결과, 공동체성 강화와 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에릭 클라인버그의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라는 책을 접하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그 방식을 결정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비인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접목해 사회적 인프라로써 주거지 친화형 공공 커뮤니티의 구축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Q12: 주거지 친화형 공공커뮤니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저는 주거지와 밀접한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3: 혼자 한 활동이에요?**

A: 네 혼자 했습니다.

**Q14: 같은 과목에서 차별 경계에 대한 활동도 했는데 이것도 혼자 한거예요?**

A: 네 혼자 했습니다.

**Q15: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한건 없어요?**

A: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안티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Q16: 안티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줄 수 있어요?**

A: 안티젠트리피케이션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원주민 축출 등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반대하는 개념입니다.

**Q17: 팀 프로젝트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어요?**

A :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안티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을 맡아 조사했습니다.

**Q18: 정책의 한계점과 대안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거예요?**

A: 앞의 활동을 팀으로 함께 진행하고, 팀원과 이 연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정책의 한계점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탐구를 했습니다.

**Q19: 팀 프로젝트 하면서 어려운건 없었어요?**

A: 친구들과 관심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주제를 정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보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하나 정하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20: 본인은 뭘 잘해요?**

A: 저는 도시사회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Q21: 아 그런거 말고, 자료조사라던가 그런거요**

A: 아 저는 주로 자료를 종합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Q22: 아 자료 조사하는게 아니라 종합하는거요?**

A: 넓 주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Q23 탐구활동 할 때 혼자하는걸 좋아해요 같이 하는걸 좋아해요? 그냥 더 선호하는거요**

A: 아.. 저는 혼자 하는 것을 탐구 과정 전체를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어 좀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팀 활동도 여러 번 해보면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험들을 쌓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활동도 잘 할 수 있습니다!

**Q24: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준비 안 된거면 더 좋겠는데.. 앞에서 준비된거 많이 들어서**

A : 아..(당황해서 그냥 준비해간 것 말함) 저는 고등학교에서 도시나 불평등과 관련해 관심 있는 사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은 많이 했지만 이제 어떻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때에는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사회학과에 진학해서는 문제에 대한 심화 탐구와 더불어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수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I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2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기부 기반 면접이라서 생기부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생각보다 외적인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놀랐음. 기본적인 수학 교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이 필요함</li> <li>생기부에 포괄적이거나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야함 실제로 수학쪽으로 권위자이신 교수님 앞에서 수학에 대해 논하기가 쉽지 않음 그리고 서울 시립대는 특별히 칠판과 보드마카가 있어서 그림이나 수식을 물어보실 수도 있음</li> <li>수학과의 면접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 수학에 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함 실제로 생기부에 없는 내용을 질문 받았는데, 고등학교 교과 수준 이상으로 답변했더니 교수님들 표정이 좋아지셨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나 지원동기를 말해보라고 하시는 설명이 없었음) 생기부에 등비급수로 피타고라스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있던데 저도 신문에서 봤거든요, 혹시 나가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b></p> <p>A: (실제로 이 부분은 수학계에서 처음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학교 수학선생님께서 대비를 해가라고 하셨음) (실제로 그림을 외워갔고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 되었기에 바로 그림을 그리고 설명드릴 수 있었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알파각, 베타각을 임의로 놓고 대칭되어 삼각형을 그린뒤에 연장선을 긋고...(이 부분에서 그만하라고 알겠다고 교수님께서 하심)</p>				
<p><b>Q2-1: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칠판에 써 볼래요?</b></p> <p>A: (칠판에 정확하게 씀)</p>				
<p><b>Q2-2: 그럼 그 도함수의 정의로 ln을 미분해 볼래요?</b></p> <p>A: (마지막 과정까지 했지만 생기부와 전혀 관련없는 질문이 나와서 당황함 그래서 마무리를 짓지 못함) 혹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p> <p>교수님: 앞으로 질문할 거리가 많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아요.</p>				
<p><b>Q3-1: 맥글로린 급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b></p> <p>A: 맥글로린 급수는 테일러급수(일반적인 다항식을 얘기함)에서 a가 0이되는 특수한 경우를 얘기합니다</p>				
<p><b>Q3-2: 맥글로린 급수는 언제 쓰는 거죠?</b></p> <p>A: 미분이나 적분이 어려운 초월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시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math>\sin x</math>나 <math>1 - \cos x</math>같은 식들을 맥글로린 다항식으로 근사시키면, <math>\lim</math>를 적용 시켰을 때 0으로 가는 상위의 차수는 분모와 다항함수의 방식으로 약분을 해도 0으로 수렴하니, 무시를 해주고 앞의 1, 2차항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b>Q4-1: 적분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b></p> <p>A: 저는 수학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내용의 부분적분, 치환적분 뿐만 아니라 바이어슈트라스 적분(생기부에 없는 내용), <math>\sec x</math> 적분(<math>\sec x + \tan x / \sec x + \tan x</math>를 곱해서 하는 방법과 바이어슈트라스 치환을 쓰는 방법)</p>				



모두 설명함) 등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Q4-2: (교수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말을 끊으심) 허허 참 어려운 것도 배웠네요. 학교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주나요?**

A: 네 저는 수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내용도 궁금해 할 수 있겠다고 수학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Q4-3: 그럼 부분적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공식도 한번 앞에 써봐요.**

A: 부분적분 공식을 앞에 쓰고 이것은 곱미분의 역연산이고, 사실 어려운 부분적분은 여러번 부분적분을 적용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때에는 도표적분법을 사용합니다.

**Q4-4: 그럼 학생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래요?**

A: (칠판에 쓰며) 네, 실제로 저는 변하지 않는 함수인  $e^x$ 와 다항함수꼴이 곱해져 있을 때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x^3+2x)*e^x$ 를 도표적분법으로 품

**Q5: 시간이 1분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자기pr할 시간을 줄테니 한번 해볼래요?**

A: (대비가 안되어 있어 당황해 많은 말을 하지 못함) 저는 수학을 남들보다 조금은 잘한다는 자신이 있고 수학을 무엇보다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꼭 대학수학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시립대학교	<b>학 과</b>	인공지능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생부종합전형 I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2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등 학생의 인성 평가에 관한 질문보다는 생기부에 있는 전공과 관련하여 탐구한 활동 몇가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인공지능경망이란 무엇인가요?</b>				
A: 인공지능경망은 사람의 뉴런을 본따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정답값과 비교한 후 틀리면 가중치를 바꾸며 정답값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b>Q2: 인공지능경망과 사람의 뇌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b>				
A: '홍성욱의 sts 과학을 경청하다'라는 책에서 인간의 뇌파가 8차원 이상의 굉장한 고차원으로 이루어져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경망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뇌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며 과학 기술이 이를 따라잡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b>Q3: 선형 회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b>				
A: 입력값들을 나타내는 최적의 선형 직선을 최소 제곱법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내어 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b>Q4: 생기부에 나이트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영화 추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를 선형 회귀 알고리즘으로도 만들 수 있나요?</b>				
A: 제가 영화 추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영화 장르와 영화 출연 배우라는 두 변수로 나누어 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특정 영화를 좋아할 확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선형 회귀 알고리즘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며 선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확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Q5: 그림 입력값과 출력값은 무엇이 될 것 같나요?</b>				
A: 나이트 베이스 알고리즘에 쓰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 장르와 출연배우가 입력값이 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할 확률이 출력 값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b>Q6: 경사하강법 설명해보세요.(경사하강법인지, 경사하강법 활동을 물어본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남.)</b>				
A: 제가 교과서에 있는 미적분이란 개념이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 '미적분의 쓸모'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인공지능에 미분이 경사하강법이란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사하강법은 인공지능에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함수를 지정해 최적값, 즉 극소를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이퍼 파라미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학습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학습률이 너무 크면 오버슈팅이 발생해 최적값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b>Q7: 함수의 극소가 왜 최적값이죠? 그 관계가 무엇인가요?(이런 의미로 물어보셨음, 정확히 기억은 안남.)</b>				
A: 인공지능에서 최적의 파라미터, 정답에 맞는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것입니다.				



**Q8: 반 친구들에게 설문 조사할 때 영화 장르와 영화 출연 배우라는 두 변수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변수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설문 조사할 때 바뀐 것은 없었나요?**

A: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이 보통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추천 알고리즘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영화 추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를 보았을 때 애니메이션 장르, 액션 장르 등 영화 장르 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영화 장르를 변수로 삼았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 마동석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동석인 나오는 영화를 챙겨보는 것을 보고 영화 출연 배우 또한 영화를 선택하는 요인을 작용하는 점을 깨달아 영화 출연 배우를 변수로 삼았습니다.

**Q9: 영화 추천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다른 모델들이나 라이브러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A:네, 나이브베이지 알고리즘이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들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라 파이썬으로 그런 데이터들로 이 영화를 좋아할 확률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Q10: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세요?**

A: 네, 제가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환경 설계하기란 주제로 키오스크를 설계한 활동을 한 적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 시각 장애인이나 노인분들같이 발음이 어눌하신 분들 등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자연어 처리, ai음성인식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키오스크를 설계해 보았고 이를 직접 구현하고 싶었으나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 4학년 과정에 있는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수업을 들어 이를 직접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또 4학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 따로 동아리를 만들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시립대학교	<b>학 과</b>	자유전공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사회공헌통합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2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에서 대기 후 차례되면 대기실 밖으로 나와 면접장 앞에서 10분가량 대기 후 입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굉장히 압박질문</li> <li>▪ 답변이 명쾌하고 명료하신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음 (두루뭉실X)</li> <li>▪ 편하게 해주시는 역할 한 분, 압박하시는 역할 한 분인 것 같았음</li> <li>▪ 면접이 긴 편이고 생기부 내용 꼼꼼히 보는 듯</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는?</b>				
<p>A: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해보며 사회문제들이 단지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 행정, 정치, 복지 등 다양한 학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와같은 학문들에 관심이 생겼고 대학교에서도 다양한 학문들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1학년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학과들을 접해볼수 있고 폭넓고 심도있는 기초소양을 쌓으며 2학년때 과를 정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여러학문과 지식을 융합하며 여러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인재가 되고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b>Q1-1: 인권을 보호하는 법조인이 되고싶다했는데 그럼 법조인은 인권을 당연히 보호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법조인도 있나요?</b>				
<p>A: 네. 법조인의 기본적인 의무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과 더불어 법조인 생활을 하며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힘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싶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p>				
<b>Q1-2: 모든 인권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럼 학생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해한 매우 흉악한 범죄자가 자신에게 와서 변호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건가요?</b>				
<p>A: (고민 많이 함.) ....저는 아무래도 선뜻 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사람들을 변호를 해주는 것이 무조건 의무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 범죄자가 변호를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저는 이 사람을 변호해주며 이 사람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하기 꺼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진 것이 있다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많은 형량이 적용된다면 이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값에 마땅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면에서는 변호를 해줄 것 같습니다.</p>				
<b>Q1-3: 그러면 변호사가 된다면 자신이 '이정도 범죄까지는 변호해 줄 수 있다.'하는 범죄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뭐 살인이라던지, 강도라던지..</b>				
<p>A: (고민 함)...저는 그런 기준을 딱 정해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마다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 기소당한 것일 수도 있고 저마다의 상황이 있을 것인데 제가 딱 살인까지만 변호를 해줄 것이다. 강도까지만 변호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p>				
<b>Q2: 자율활동에 국토 불균형에 대해 탐구했는데, 국토불균형이란 무엇이고, 이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b>				
<p>A: 국토불균형이란 전 지역이 균등하지 못하게 발전되거나 말 그대로 지역 간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수도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대로</p>				



누릴 수 없고 인간다운 삶을 잘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곧 불평등이고 부정을의를 야기합니다.

**Q2-1: 여기서 평등하다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국토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을 평등하게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와 강원도의 그런 특수한 환경이나 전통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일절 평등하게 해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건가요?**

A: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의 특수한 문화나 가치는 존중하고 보전시키며 기본적인 의료시설, 교통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측면에서 각 지역이 평등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히려 각 지역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존하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이는 국토불균형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하회마을, 보령 갯벌축제등 각지역의 고유문화를 보존시키는 방안 만으로도 많은 인구를 유입하고 있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Q3: AI의료사고에대해 탐구한 것이 있던데, AI의료사고의 책임 주체는 누구여야한다고 생각하나요?**

A: 네. 저는 아직까지 현재 법령에 따르면 AI사고에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법에 명시되어있는 책임능력에 의하면 AI는 책임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능력이 있는 주체로는 비법인단체, 자연인 등이 있으며 AI는 이 중 누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는 제조업자에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 더 구체적인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점점 더 AI가 발전된다면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Q3-1: 당사자능력이라는 말은 소송에서나 쓰이는 말인데 어떤 측면에서 당사자 능력이란 말을 언급하신거죠?**

A: ai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관련 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면접관님 고개끄덕이심)

**Q4: 지금 1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을까요?**

A: 저는 현대사회에 걸맞는, 융합형 인재가되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사람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대에 진학할기회를 주신다면 단지 제도개편으로 설치된 자유전공학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차 서울시립대를 대표하고,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는 학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시립대학교	<b>학 과</b>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기회균형전형 I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2분	<b>면접위원 수</b>	2명(교수1, 입학사정관1)
	<b>면접 절차</b>	인사 후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을 읽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감.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꼬리질문이 많다. 전공관련 생기부 내용은 명확히 숙지할 것.</li> <li>▪ 생기부 내에 있는 용어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두고 가야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동아리 회장 경험이 있는데, 어떤 동아리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해주세요?</b>				
A: 예. 저는 뉴턴이 맞은 사과라는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뉴턴이 맞은 사과라는 동아리는 역학, 전자기와 같은 주제로 조를 나누어서 관련 실험을 진행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저의 조와 전자기 파트에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물리학 실험장치를 만드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b>Q1-1: 아두이노로 물리학 실험장치를 만들었다고요? 어떤 장치를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만드셨죠?</b>				
A: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중력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중력가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타점기록계를 이용하여 추를 떨어뜨려 띠에 찍힌 타점들의 기록을 통해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력가속도를 측정합니다. 저는 좀 더 간단하고 정확도 높게 이를 측정할 수 없을까란 생각에 아두이노를 이용해 회로를 구성하고 c언어를 통한 코딩을 통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두이노를 통해 중력가속도 실험장치를 만든 과정을 설명함.)				
<b>Q1-2: 아두이노로 중력가속도를 측정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한건가요?</b>				
A: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중력가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어떻게 측정했는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함.)				
<b>Q1-3: 가속도 센서를 가지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b>				
A: (가속도 센서를 가지고 측정한 과정에 대해 설명함.)				
<b>Q2: 과학과제연구에서 무빙코일무선마이크의 음질향상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셨나요?</b>				
A: 노래와 같은 음성을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했을 때와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했을 때의 파형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음질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빙코일 방식 뿐 아니라 리본방식의 마이크와 같은 다른방식의 마이크의 방식을 일정부분 차용하여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음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b>Q2-1: 음... 음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듣는 것에 따라 매우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음질에 대한 비교 는 어떤 방식으로 비교를 하신거죠? 활동을 보면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한 것 같은데 이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는거죠?</b>				
A: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음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펙트로그램이란 파형과 스펙트럼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시간축 당 진폭 축의 변화와 주파수축 당 진폭 축의 변화 두 개를 인쇄농도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것입니다.				
<b>Q2-2: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성을 녹음한 것과 외부 마이크를 이용하여 음성을 녹음한 것을 비교하셨다고 하는 데 결국엔 컴퓨터를 이용해서 녹음한 것도 마이크를 이용하여 녹음한 것 아닌가요? 이게 정당한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b>				



A: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성을 녹음한 것도 결국엔 마이크를 이용하여 음성을 녹음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외부 마이크를 이용하여 음성을 녹음했다고 한 것과의 비교는 원래의 무빙코일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을 인식시켰을 때와 다른 방식을 활용하여 마이크를 변형시켜 본 후의 마이크에 음성을 인식시킨 것과의 비교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비교였다고 생각합니다.

**Q2-3: 예, 뭐 좋습니다. 근데 무빙코일이란 게 뭔지 아시나요?**

A: 무빙코일이라는 전자기유도를 이용하여 음성이 인식되었을 때 코일이 움직이도록 하여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이를 입력하는 마이크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2-4: 개선시킨 마이크의 경우 이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A: 음질은 향상되었지만 무빙코일방식의 마이크의 원래 장점이었던 내구성에 있어서 리본방식 마이크의 경우 내구성이 매우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개선한 마이크의 경우에도 기존의 내구도에 비해 내구도가 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Q3: 동아리 활동에 보면 클라드니 판을 이용한 주파수 패턴 시각화를 주제로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나와있는데 클라드니 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A: 판 위에 모래를 놓고 특정 주파수를 가하여 모래의 시각적 패턴을 관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때 모래에 의해 나타나는 패턴을 클라드니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사용한 판을 클라드니 판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Q3-1: 그럼 이 클라드니 판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저희 과와 관련지어서 발전시킬 수 있을게 있을까요?**

A: 이 실험은 결국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과와 관련해서 마이크에 입력된 음성의 주파수와 같은 것의 시각화를 보여주는데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것 뿐만 아니라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전자파와 같은 파동 관련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Q3-2: 마이크에 입력된 음성의 주파수를 시각화하는 거요? 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A: 마이크에 입력된 음성의 주파수의 시각화는 마이크로부터 수집된 음성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한 주파수 분석을 통해 특정 주파수대역에서의 특이점이나 특징적인 패턴을 찾아내거나 신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전자과와 관련된 응용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2학년 수학2 시간에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 바이어슈트라스 함수를 알게 되어 탐구를 진행했다고 나와있는데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A: 제가 수학2를 배울 당시에 다항함수의 범위까지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이 함수에 대해 조사해보게되었습니다.

**Q4-1: 예. 그래서 탐구를 진행하셨군요. 그럼 저 함수의 개형이라든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A: 함수의 개형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질문하셨다고 말하시고 넘어가심.)

**Q5: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A: 제가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하게 된다면 공학수학, 선형대수와 같은 기초수학과목과 기초과학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전공 과목을 성실히 이수하여 관련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여 소통 능력 및 관련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조경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사회공헌통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약 12분 이상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가번호 확인 및 대기실 입실 → 신분 확인 → 대기실 대기 → 직전 대기(앞친구 들어가 있고 나오기 전까지 5분정도 면접실 앞에서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기록부에 없는 개념(전공관련 개념)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li> <li>대기실에서는 종이로 된 자료 공부 가능, 면접실 앞 직전대기 할 때에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습니다.</li> <li>대기실이 많이 더웠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학생이라면 냉수 물병, 온수 물병(추울 때 대비) 두 개 챙겨가시길!</li> <li>전자기기를 제출하지는 않고 전원 끄고 본인 가방에 넣어두라고 안내하셨습니다.</li> <li>홈페이지에서 교수님 얼굴 1차로 익히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교수님들 나오신 영상 많으니까 꼭 보고가시길... 면접관 두 분 다 제가 영상으로 봤던 교수님들 이셨기에 긴장 덜 났어요!</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추운데 이렇게 면접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데...ㅎㅎ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녹지 인프라' 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녹지축'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생기부에 없는 개념이라 약간 당황했음) '녹지 인프라' 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는 '파크커넥터'입니다. (교수님의 오~? 하시는 듯한 놀란 표정) 파크커넥터란 공원과 공원 사이의 간격이 250~400m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파크커넥터가 한 도시에 있는 여러 공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의 '녹지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도시에도 다양한 공원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녹지축'이라는 개념은 많은 공원들 중 중심이 되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공원이 녹지축의 역할을 잘 수행 한다면, 그 주변 공원들도 잘 연결되어 훌륭한 '녹지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오~ 순발력이 굉장히 좋네요.ㅎㅎ 방금 그 답변 내용은 3학년 진로활동에서 다뤘던 내용이네요. 싱가포르 사례 말하는거죠? 그럼 이 부분을 한국의 도시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족한 점, 좋은 점 다 괜찮으니 학생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A: 파크커넥터 탐구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함께 다뤘던 한국의 도시는 서울이었는데요,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학술자료에서 서울시의 3가지 동을 대상으로 녹지율을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동의 녹지 분포율은 약 5%에서 55.8%까지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였습니다.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만 몰려있고 아직 녹지가 부족한 곳이 많은 것이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아직 파크커넥터를 도입하기에는 녹지의 면적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는 녹지의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3: 그렇다면 파크커넥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서울에 녹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녹지확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A: 제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에 대해 찾아보는 과정에서, 조경학과와 온라인 졸업전시회를 관람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빈집을 녹지로' 라는 작품에서 제시한 녹지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작품에서는 3, 4등급의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녹지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빈집의 철거를 활용한다면, 서울시의 녹지 확충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좀 어려운 개념인데, 심화영어 과목에서 예술작품의 의도에 관해서 다뤘네요. 창작자의 의도가 작품 해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관점을 조경(공원)에 도입해본다면, 조경가의 의도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느낌의 질문이었음)**

A: 제가 해당 과목에서 다뤘던 개념은 '의도론의 오류'입니다. '의도론의 오류'라는 개념은 예술작품을 관람할 때 작가의 의도 뿐 아니라 해당 작품을 관람하는 각 개인들의 견해를 '해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떠한 의도를 항상 담듯이, 저는 조경가가 공원을 만드는 것도 예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조경가만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원이라는 장소 자체는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는 어떠한 힐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원을 방문하는 개개인만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 공원에 자신만의 추억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저는 공원에 대한 개인의 모든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국내 광산을 재생한 도시에 관해서 다른 것 같은데, 이 도시에 대해서 설명해줄래요?**

A: (광산 재생도시를 내가 탐구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떠오르지 않았음) 앗.. ㅎㅎ 제가 다른 재생도시가 조금 많아서.. 혹시 어떤 과목에서 했던 활동인지...

**Q6: 아 뭐 ㅎㅎ 매 학년 재생도시를 다뤄주셔서~ 아무 곳이나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생각하는 곳 말해주세요~**

A: 국내 재생도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되는 걸까요?

**Q7: 상관 없어요~**

A: 3학년 지역이해 수업시간에 핀란드 구항의 재생도시 칼라사타마에 관하여 다른 적이 있습니다. 칼라사타마라는 재생도시의 탄생을 글로벌 관점, 즉 글로벌, 내셔널, 로컬 스케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소련이 해체되면서 핀란드의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르나이넨이라는 항구가 쇠퇴하였습니다. 내셔널 스케일에서 살펴보자면, 핀란드로 난민, 이민자와 같은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도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가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르나이넨 항구도 해당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칼라사타마라는 재생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모든 교통 수단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운행한다는 점도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주민주도형' 도시 개발입니다. 사실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건축가와 조경가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해당 도시의 보살핌 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가, 조경가, 주민이 모두 협력한다면 더욱 높은 완성도의 도시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의 재생 도시도 이런 부분을 착안하여 주민주도형 도시 계획이 활성화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8: 재생도시에서의 조경가의 역할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주었는데, 이런 재생도시에서 조경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일 본인이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경가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나요?**

A: 조경이라고 하면 '식물, 식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약 도시 재생 사업에 조경가로 참여하게 된다면, 도시 숲과 같이 온전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필수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Q9: 환경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학교를 직접 분석하고,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학교의 장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설명해줄래요?**

A: 제가 학교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바로 녹지였습니다. 이를 분석할 때 크게 외부 녹지면적율, 실내 녹지 면적율로 나누어서 분석했는데요, 외부 녹지면적율의 경우, 저희 학교에는 운동장 외에도 정원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녹지는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학교는 실내 녹지 공간이 거의 조성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문제삼고 교내 실내 정원 조성, 스마트 가든 설치 등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Q10: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불화가 일어났던 적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줄래요?**

A: 저는 1, 2학년 동안 입학홍보부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저희 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 전문교과 등을 소개하고, 입학설명회도 진행하는 곳입니다. 해당 동아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있었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방법, 배려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동심, 배려심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노크소리가 들렸음. 시간 거의 다 되면 밖에서 문을 두드려주시는데 이 소리 듣고 12분 시간이 다 된 줄 알고 당황했음. 그렇지만 면접관님들이 그만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눈치보지 말고 하고싶은 말 다하기!)

**Q11: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인간의 자연 친화성과 인지기능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관련된 색을 볼 때,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 심적으로 안정된다는 탐구였는데요. 제가 초점을 맞춘 곳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제언했었습니다. (시간 다 돼서 끝길까봐 너무 간결하게 말함.)

**Q12: 끝인가요? 더 이야기할 것은 없나요?**

A: 앗! 시간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더 말씀드리려보면, 고등학교에서의 탐구는 이 선에서 그쳤지만, 제가 만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교수님들, 동기들과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탐구하며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시립대학교	<b>학 과</b>	행정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생부종합전형 I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2~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설문조사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니 초콜렛이나 '포도당 캔디' 챙겨가시는걸 적극 추천</li> <li>▪ 대기 시간의 경우 예를 들어 10:00~11:00 A조라면, 11시까지 대기실에 입실하여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순번대로 면접이 진행</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녹색계급과 관련된 탐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b>          A: 독서세미나 준비과정서부터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되고 정치외교 친구들과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짚고 탐구 결과를 명확히 말했습니다.</p> <p><b>Q2: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특히 국제사회 이슈나 언론에 대해 관심이 많은 듯 한데 왜 행정학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환경과 인권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탐구를 펼쳤는지 설명해주세요.</b>          A: 지원동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언론과 행정의 관련성, 행정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말하며 행정학과에 진학하여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습니다.</p> <p><b>Q3: 혹시 공무원이 되실건가요?</b>          A: 시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을 배우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들을 응용해보고 싶습니다. 나아가 ~연구소에 취업하여 직접 정책을 실험해보고 실행에 옮기는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p> <p><b>Q4: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원동기에서 언급하였는데, 직접 다룬 데이터에 대해 말해주실 수 있나요?</b>          A: 수1 시간에 탐구한 월별물가지수와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등차수열과 추세선, 상관계수의 개념을 활용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부터 떠올린 행정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p> <p><b>Q5: 파리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b>          A: 파리협정의 목적과 그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한계점에 대해 국제기구나 그 외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신뢰성을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p> <p><b>Q6: 우리나라의 경우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와 효과를 들어 설명해주세요.</b>          A: 고2 동아리 시간에 그린뉴딜 정책에 관해 탐구한 것을 엮어서 설명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서울여자대학교	학 과	경영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바름인재면접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인
	면접 절차	전체대기실 → 복도에서 1인 대기(3분) → 면접(1인)		
면접 특징 [후배조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이 추울 수 있으니 보온에 유의할 것</li> <li>▪ 압박 면접이 아닌 친절한 면접.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답할 수 있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b>				
<p>A: 안녕하세요? 지원번호 00번입니다. 저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영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고민할 때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저의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가 경영이라 생각하고, 경영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여대 경영학과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턴십 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웹디자인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웹디자인 회사를 창업한 이후 저의 최종목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인턴십 활동을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과 실무에 대해 경험하여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또한 경영자에게 있어 소통과 믿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에게 지적술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여대 경영학과의 목표가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해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b>Q2: 다양한 산업분야가 많은데 왜 웹디자인 경영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나요?</b>				
<p>A: 저는 디자인이 고객에게 있어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현대에 온라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경영활동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회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인 웹디자인이 앞으로 중요성이 더 중요해질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웹디자인은 미적 요소뿐 아니라 기능적 요소까지 디자인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디자인 산업 분야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웹디자인 회사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b>Q3: 3학년 사회문화 교과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활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지원자가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b>				
<p>A: 사회문화 시간에 연구방법론을 배우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양적연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품 구입을 결정할 때 해당제품을 만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부를 확인한다는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구매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수용되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사회문화 과목 수강자를 표본으로 하여 조사하여 정확성에 한계가 조금 느껴지기는 했지만 저의 가설이 맞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p> <p>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환경, 윤리, 사회공헌, 노동자 보호 등 윤리적인 책임을 등한시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요즘에 관심이 많은 ESG경영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p>				
<b>Q4: ESG경영에 대해 설명해주고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b>				
<p>A: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첫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기업활동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친환경 경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토명한 기업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입니다.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기업(파타고니아)에 대해 설명, 의류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에서 '우리 옷을 사지마세요'라는 캐치프레이지를 내걸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옷은 사지 말라고 광고하며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올바른 생산과정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높여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ESG경영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여자대학교	<b>학 과</b>	바이오헬스융합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바름인재면접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입실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신분 확인, 전자기기 제출 →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 시간동안 자소서, 생기부 볼 수 있으나, 전자기기는 모두 제출하므로 출력물로 챙겨 갈 것</li> <li>▪ 한 대기실에서 다른 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하다가 일정시간 이후에 두번째 대기실로 이동. 그런데 그 두번째 대기실도 두 학과가 한 대기실을 사용</li> <li>▪ 생기부에서 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함. 생기부 분석을 하고 갈 것.</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우리 학과에 왜 오고싶은가요?**

A: 어릴 때부터 우리를 구성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포에 대해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생명과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와 생명 쪽으로 탐구를 하고 활동을 하다보니 생명공학기술, 예를 들면 바이오의약이나 줄기세포응용기술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학과에서 제가 더 배우고싶은 것을 잘 알려주실 것 같아서 이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피부타입이 지성과 건성이 섞인 복합성이라서 저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와, 화장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그렇군요. 우리 학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죠?**

A: 제가 아는 언니가 이 학교를 졸업하셔서 무슨 학과가 있나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Q3: 음~그렇군요. 여기 생기부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탐구했다고 나와있어요. 그것의 정의를 말할 수 있나요?**

A: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한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집합입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의약 분야에서 활발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 장뇌축 이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장과 뇌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 연결이 되어있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르면 장과 뇌는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니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Q4: 좋습니다. 어.. 만약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장액은 적혈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입니다. 따라서 고장액에 적혈구를 넣게 되면 삼투현상에 의해 적혈구에서 용매가 빠져나가 쪼그라들 것입니다.

**Q5: 네. 다음은.. 바이오화장품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고 장점이 뭔지 말해줄 수 있나요?**

A: (황설수설..어리바리.. 뇌를 쥐어짜서 어찌저찌 대답하긴 했으나 정답과 현저히 떨어진 답..)  
 - 면접관: ㅎㅎ 사실 바이오화장품은 줄기세포를 응용해서 . . . 어찌구 (바이오화장품에 대한 설명)  
 A: 아 냐..!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네! 저는 이 학과가 정말 오고싶습니다. 그래서 제 수시원서 6장 중 두 장을 이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바름인재서류와 면접전형으로 말입니다. 그 중 서류전형은 떨어졌고 그래서 전 이 전형이 간절합니다! 흑시..!!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뽑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보석보단 원석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 학과에서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성장해서 보석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울여자대학교	<b>학 과</b>	화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바름인재면접
<b>면접</b>	<b>면접 시간</b>	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b>	<b>면접 절차</b>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설문조사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대기실에서 다른 과 수험생과 함께 대기함</li> <li>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관한 질문이 많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화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b>				
A: 코로나 시기에 화학 의약품 등 의약품의 중요성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의약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발견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에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화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서울여대 화학과에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석화학과 재료화학을 배운다는 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b>				
A: 사실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직접 시간별 계획을 짜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1학년 때 동아리를 처음 운영해 봐서 동아리활동의 뚜렷한 결과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친구들도 학기말 동아리 활동을 지루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2학년 때도 동아리를 직접 개설해서 이공계라는 비슷한 진로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결과물을 다양하게 생성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저는 이 점에서 포기하지 않는 힘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b>Q3: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b>				
A: 1학년 때에는 주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직접 선정해서 일정 시간 동안 풀어보고 서로 풀이 방법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학년 때는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이진법을 이용한 부스를 운영해보기도 하고, 동아리 신문을 직접 제작해서 약학 수학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보기도 했습니다. 3학년 때에는 각자 희망하는 진로분야의 특징을 융합해서 발표를 진행했었고 저는 학교 화학 시간에 궁금했던 원자오비탈이 아닌 응용된 분자오비탈의 내용을 준비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b>Q4: 2학년 때 직접 pH와 의약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 인가요?</b>				
A: 화학시간에 배운 pH 즉 산이 많을 때 의약품이 빨리 녹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 생명시간에 배운 가설연역법을 사용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직접 설정해서 의약품을 직접 각각 산의 정도가 다른 용액에 녹는 시간을 측정하여 가설의 결과에 맞게 pH가 작을수록 즉 산에 가까울수록 의약품이 빨리 녹는다는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이후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염기성 산성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녹는다는 점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b>				
A: 저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서울여대에 진학하게 된다면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서원대학교	<b>학 과</b>	미디어콘텐츠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창의면접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에서 대기 번호 순서 뽑고 기다리다가 면접 보는 방식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에서 작은 소리로 면접에서 말할 내용을 연습하세요.</li> <li>▪ 내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으로 가면 긴장을 덜 합니다.('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인드 안됩니다.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세요.)</li> <li>▪ 할 말을 까먹었다면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할 말을 생각해 보세요.</li> <li>▪ 들어가자마자 밝아 보이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세요.</li> <li>▪ 질문한 교수님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교수님들도 아이 컨택 하면서 미소를 보내세요.</li> <li>▪ 예상 질문만 생각해 가지 말고 돌발 질문 답변도 생각해서 가세요 (꼭!!)</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b>			
<p>A: 저의 지원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원대에서 3D기법을 배워 광고인이 되고 싶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너무 떨려서 발음이 새길래 기다려달라고 함.) 뉴욕 타임 스퀘어에 있는 삼성 z플립 3D광고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된 후, 앞으로는 3D광고가 대세가 될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멀티미디어와 영상미디어에 모두 관심이 있는데 서원대에 입학하면 1학년 때 두 전공을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점과, 3학년 때 3D 디자인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껴 지원했습니다.</p> <p>교수님: 서원대랑 뉴욕 타임 스퀘어 회사랑 연결 되어있어요. 저희 학과가 서원대에서 최우수 학과예요 교수님들이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말 잘하시는데요? 이대로 가면 될 거 같아요', '웃는 상이시네요 평소에도 좋은 일만 일어나죠?!!' 이랬어요 다들 꼭 웃으면서 면접 보세요</p>			
<b>Q2: 미디어 관련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없다면 좋아하는 영화를 말해도 좋아요</b>			
<p>A: 저는 1학년 때 광고 제작 동아리에 들어가 영상미디어 활동을 했습니다. 분리수거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를 만들었고, 저는 스토리보드 제작과 영상 편집을 맡았습니다. 분리수거는 사진자료와 저희가 직접 그린 그림을 넣어 분리수거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폭력 공익광고는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친구들이 연기해 그 당시 유행했던 '멈춰'라는 대사를 외쳐 공익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은 동아리 시간 내에 활동을 끝내길 바랐지만 그 시간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닌 열정적인 친구들을 설득해서 주말에 만나 편집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했습니다.</p>			
<b>Q3: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걸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본인을 뽑아야되는 이유(돌발 질문), 저희 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b>			
<p>A: 어..음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날 뽑아야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하얘짐) 일단 서원대에 입학해서 저에게 맞는 전공이 멀티미디어인지 영상미디어인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대에 입학한다면 영상 콘텐츠 기획, 3D, VFX 과목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익 광고제와 같은 공모전에 나가 수상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할 것입니다. 강남 kpop 스퀘어 전광판에 제 3D 광고를 송출해낼 것입니다! 음. 제가 사실 다른 대학도 쓰긴했지만 서원대는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저 꼭 뽑아주세요...(날 뽑아야 되는 이유 꼭 생각해가세요..)</p> <p>교수님: 면접에서 말고 수업 때 봤으면 좋겠네요 강남 kpop 스퀘어도 저희 학교랑 연결되어있어요. 저희 학교 들어 오셔서 그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원대학교	학과	패션의류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창의면접	
면접 형식	면접 시간	3~5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학별 기출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출 면접이지만 나올 수 있는 꼬리질문 최대한 많이 뽑고 연습하세요. 생각보다 자잘한 꼬리질문이 많이 나옵니다.</li> <li>면접 대기실 들어가면 번호표 뽑는데 좀 뒷번호 뽑으면 정말 많이 대기해야 하니까 연습할 거(태블릿 등) 챙겨오는게 좋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우리 대학 패션의류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이야기 해 주세요.</b>					
<p>A: 바느질은 저에게 있어 오랜 취미였습니다. 이후 패션에 대한 관심과 융합되어 고등학교 2학년부서는 재봉을 배우며 직접 디자인한 옷을 제작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옷 제작에 대한 수업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디자인에 대한 옷 제작을 즐기면서 저는 성취감과 희열을 느꼈으며, 이 부분을 통해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원대학교 패션의류학과는 의류봉제와 창업패션디자인융합설계 등 폭넓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패션의류학과는 제 관심사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더욱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창의력과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서원대학교 패션의류학과가 제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b>Q1-1: 재봉틀로 옷을 만들 때에 어려움은 없었나요?</b>					
A: 오버록 기계가 없고 재봉틀만 있어서 시접 끝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b>Q1-2: 그럼 그 시접처리는 어떻게 했나요?</b>					
A: 재봉틀로 할 수 있는 싹솔과 통솔 기법을 익혀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b>Q1-3: 그럼 옷을 만들면서 공동작업을 해 봤을텐데,(당황한 표정 보고)아 혹시 안해봤어요?</b>					
A: 네 공동작업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b>Q2: 그럼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 공동작업을 많이 해 볼텐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충돌에서 합의점을 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말해보세요.</b>					
<p>A: 타인과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먼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현재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일이 줄어들며 원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엔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논제에 대한 나의 생각, 그 이유, 그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모두 파악하고 이해했다면 서로의 공통된 목표와 이익을 탐색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면서 합리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봅니다. 합리적인 부분을 탐색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 판단을 도출해내기 위한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토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p>					
<b>Q3: 만약 옷을 디자인한다면 어떤 옷을 디자인하고 싶은지 말해 주세요.</b>					
A: 저는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고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복과 결합하여 문화를 융합한 독특한 형태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 해 보고 싶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미를 상징하는 순백의 서양식 웨딩드레스와 우리나라 전통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한복의 저고리를 융합한 형태의 드레스를 만들면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서양과 동양의 가치관을 조화롭게 표현해내고 문화 융합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원대학교 패션의류학과 교과과정표에서 한복구성이라는 교과과정을 보았는데 입학 후에 꼭 이수하고 싶습니다. 또한 후에 지인이나 제가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면,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이러한 형태로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싶은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Q3-1: 웨딩드레스의 의상 특성상 달린 부자재도 많고 만드는게 어려울텐데 끈기를 가지고 만들 자신 있어요?**

A: 네 자신 있습니다!

**Q3-2: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 저는 어떤 일이든 한 번 시작한 일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완성해내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아 저는 제가 끈기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A: 저는 서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패션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한의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성신여자대학교	<b>학 과</b>	문화예술경영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자기주도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가번호 배정받고 대기, 10분간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절하심, 창체(동아리, 진로, 자율) 위주의 질문</li> <li>▪ 좋은 분위기와 면접관님의 친절한 태도에 속지 말자</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b> A: 질문도 답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아서 학과 관련, 진로 관련의 예상 질문 범주였던 것 같다. 생기부의 활동 내용 질문하셨던 것 같다. 교과는 아니었다.</p> <p><b>Q2: 긴장 많이 되죠? 기록부 보니까 미술 중점 학교에 다니신 것 같은데,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말해주세요.</b> A: 네, 제가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전시기획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 스스로 여러 번 작품 창작 활동을 했고 친구들의 작품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단순히 작품 하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전시 자체를 기획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군자 지향 백자 전시회를 보았는데, 그때 백자가 블랙박스의 공간에 전시되어 있어서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 같았고 이때 전시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전시라는 예술작품을 기획하고 선보이며 기획자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뜻깊게 느껴졌고 저도 그런 저만의 전시를 기획하고 사회에 의미를 전달하는 전시기획자가 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p> <p><b>Q3: 학교에서 전시를 직접 기획해본 경험이 있나요?</b> A: 큰 전시를 기획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제 솔로전을 기획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당시 시기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원함을 의도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1, 2학년 때 교내 단체전에서 도록편집위원회로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p> <p><b>Q4: 음, 쿤스트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네요, 어떤 활동을 했고 여기서 진로에 대해 무엇을 얻었나요?</b> A: 1학년 때 공연예술 동아리와 협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연이나 무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었는데, 협업한 동아리의 무대 가벽을 제작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가벽의 배경을 직접 그리고 공연의 의도를 이해해나가면서 무대 구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당시의 저는 미술 작품에만 몰두했었는데 무대 디자인, 기획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b>Q5: 아고라라는 동아리에서도 토론, 비평, 활동을 많이 했네요. 여기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적혀있어요. 이걸 전문가도 답변하기 어려운 분야 같은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말해보세요.</b> A: 음... 저는 예술을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사회가 조금 냉담하고 여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문화 예술을 향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술은 인간이 여가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문화 예술을 여유롭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저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삶을 윤택하고 의미 있게 만들며 여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시 기획자가 되어 예술의 역할을 실현하고 여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되게 길게 말했고 황설수설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남)</p> <p>(1분 남았다는 사인)</p>				

**Q6: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저는 문화란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법을 배우며 헌법 전문에 문화국가의 원리로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여유 있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며 문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전시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Q7: 네, 수고하셨습니다.**

A: 감사합니다.

**Q8: 음~ 그러면 작가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A: 네. 그러나 작가로서의 꿈을 꺾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진로를 굳혔습니다. 작가의 꿈을 꺾을 때 했던 많은 고민과 생각을 전시기획자가 되어 전시로 선보이고 싶습니다.

(어떤 답변의 꼬리질문이었는데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남. 분위기 좋아서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이 나온 시점이 불합격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신기하게도 성신은 첫 면접이라서 그랬던 것인지 면접장 문을 닫고 나서자마자 기억이 새하얗게 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이 예상 범주 내였고 면접관 분들도 친절하셨지만 긴장한 나머지 모든 답변을 전체적으로 길게 했고 황설수설하며 답변했습니다. 전부 창체, 특히 동아리 부분에서 나온 질문이었고 생각보다 세세하게 질문하셨습니다. Q?에서 저의 의도는 '작가의 꿈은 진로적 꿈이 아니며 진로는 확실한 전시기획자이다.'였는데 면접관분은 저를 '입학하면 전과할 학생'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전공적합성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예비 4번을 받았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성신여자대학교	<b>학 과</b>	법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자기주도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1인당 10분 이내 면접 제출서류: 1.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영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포트폴리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 입실 후 다른 학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하며 대기시간 동안 생기부만 열람 가능.</li> <li>▪ 성적 관련 질문이 있으며, 수업 시간에 했던 탐구활동 내용은 기본으로 숙지해놓아야 함.</li> <li>▪ 들어가고 나올 때 인사를 자신있고 예의있게 잘하기(면접위원의 표정이 바뀜)</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오는 데 어땠어요? 힘들지는 않았어요?</b>				
A: 별로 힘들지는 않았지만, 많이 오고 싶은 학교라 떨렸습니다.				
<b>Q2: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웃으며 긴장 풀어주심) 가장 자신있는 과목과 가장 자신없는 과목은 무엇이 있나요?</b>				
A: 가장 자신있는 과목은 정치와 법 과목이었습니다. 평소 법과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목의 특성상 세부 내용까지 자세하게 공부해야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없는 과목은 통합과학 과목이었습니다. 과학에는 관심이 없고 이해도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과학 과목을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더 나은 성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b>Q3: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쏟기만 했나요?</b>				
A: 그 외에도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며 다른 친구들의 공부도 도와주고 직접 알려주며 저 스스로도 지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Q4: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촉법소년 관련 활동을 여러가지 한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하나 말해주세요.</b>				
A: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학년 동아리활동 시간에 진행했던 촉법소년 처벌수위에 관련된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는 반대했지만 그 대신 촉법소년에게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현재보다 더 강한 처벌을 부과하고, 선고유예와 같이 일정기간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 전과 기록을 소멸시켜주는 등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촉법소년의 연령인하보다는 가해자와의 화해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Q5: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b>				
A: 촉법소년은 아직 단독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각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무엇이 범죄인지 등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b>Q6: 촉법소년은 책임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선거에서도 이런 문제는 작용해요. 학생은 선거 연령도 인하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b>				
A: 선거 연령은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지식을 배우고 책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단독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b>Q7: 그럼 학생이 말한 것처럼 선거 연령 인하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인하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b>				
A: 하지만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보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대에는 범죄에 관련해 많은 지식을				



알고있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야기될 결과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덜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은 인하하지 않되 앞서 말한 제도들로 범죄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8: 법정에서 확률을 이용한 사건을 탐구했다고 나와있는데, 이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A: 네, 저는 '법정에 선 수학'이라는 책을 읽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책은 잘못 계산한 오류가 있는 확률을 범죄의 근거로 주장하며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건들을 다룬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한 집에서 영아 돌연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확률을 판결의 근거로 내린 사건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영아 돌연사 확률이 예를들어 1/7500이라고 한다면, 연달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단순히 1/7500을 두 번 곱해 잘못된 확률을 계산해 근거로 내놓았고, 법원 또한 이 잘못된 확률을 유지 판결의 근거로 채택해 피고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계산한 확률을 판결의 확정적인 근거로 보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9: 학생이 확률을 판결의 근거로 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 판결을 할 때에도 정황을 따지잖아요? 이렇게 정황을 따지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의 근거로 채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확률도 판결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정황이 판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증이 없는 한 정황은 확정적인 근거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률은 정황과는 다르게 가능성을 산수로 계산한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황이나 확률을 절대 판결의 근거로 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증과 같이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로 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Q10: 그럼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이 있었나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소수의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약자에 해당하는 철거민의 이익을 위해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변호사 자신의 이익을 저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의뢰인이 원하던 것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이때 노크 해주셨음/노크=1분 남았다는 뜻) 이 책의 변호사를 본받아 약자의 입장에 위치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11: 그럼 꿈이 약자를 도와주는 인권 변호사인가요?(웃으며 말하셔서 분위기가 좋았음)**

A: 인권 변호사는 아니지만 검사가 되어 공권력으로 약자를 돕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성신여자대학교	학과	의류산업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자기주도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신분 확인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자: 전공교수님 한 분, 입학사정관 한 분</li> <li>▪ 한 대기실에서 3개 학과가 동시에 대기함, 한 학과에 5명 씩 총 15명이 동시에 대기함.</li> <li>▪ 종이로 된 생활기록부 원본 외 타 자료(포스트잇, 면접 자료 등) 열람 불가</li> <li>▪ 생기부에 의류 관련 내용만 준비해 갔는데, 행특에서 관련 질문이 2개나 나와 순발력으로 대답했던 기억이 남.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본인의 생기부를 꼼꼼히 정독하길 바람.</li> <li>▪ 면접 분위기 굉장히 좋은 듯. 너무 긴장할 필요 없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데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바로 다음 질문드릴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b></p> <p>A: 네 알겠습니다.</p>				
<p><b>Q2: (전공교수님) 저희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창체나 세트 같은 걸 쪽 읽어보았는데, 친환경 의류 쪽에 관심이 많아 보여요, 혹시 친환경 의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b></p> <p>A: 1학년 진로 활동에 [MT 의류학] 책을 읽으며 의류 산업이 전 세계 산업 분야 중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군 2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인간의 신체에 밀접히 닿아있는 의류가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의류 중에서도 친환경 의류를 중점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p>				
<p><b>Q2-1: 채금석 교수님의 MT의류학을 읽었다고 했는데 책 선정 기준이 뭔가요?</b></p> <p>Q2-2: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의류 제품 하나만 말해주세요.</p>				
<p><b>Q3: (입학사정관) 2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가 돋보인다고 적어주셨어요. 그 외에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했다는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본인이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발휘해 성과를 이룬 경험을 말해볼까요?</b></p> <p>A: 영어 과목의 성취도 상승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항상 영어 과목은 콤플렉스였습니다. 1학년 때 4등급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으며 항상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난 안될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매몰되다 보면 결국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내야 할 모든 일에 있어 저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학습의 원동력을 스스로 제공하는 내적 동기가 되어주었고, 이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내용을 암기하기보단 이해하는 등 영어 공부를 늘 생활화하고 가까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4등급에 머물던 영어성적도 3등급, 2등급으로 점차 오르게 되었습니다.</p>				
<p><b>Q4: (전공교수님) 진로 희망이 '친환경 의류 제작가'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 플랜 같은 거 있으면 말해볼래요? 성신여대 와서 배우고 싶은 커리큘럼 같은 거 있어요?</b></p> <p>A: 네. 우선 대학생으로서 직접적인 의류 생산에 관여하는 부분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더스트백을 제작하는 마켓을 열고 싶습니다. 패션 제품을 제봉하는 법을 배우는 '드레이핑' 과목, 다양한 의류 소재에 대해 이해하는 수업인</p>				

‘패션 소재의 이해’ 과목을 들어 기본적인 패션 소품 제작법에 대해 익힌 후, 소비자가 원하는 페이류나 재활용 소재를 보내면, 이를 패션제품으로 제작해 배송해줌으로써 개성 있는 디자인과 환경보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디지털 패션, NFT 패션 등 패션계의 가상 의복에 대한 화두가 뜨거운 만큼 ‘테크니컬 웨어 설계’ 과목 또한 수강해보고 싶은데, 성신여자대학교에선 패션 CAD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디지털 패션 제도 실습 수업이 활발한 만큼 테크니컬 웨어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5: (입학사정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내성적인 성격에 변화를 가져다주어 급우들에게 신뢰를 가져다주는 학생이 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본인이 이러한 성격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점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A: 네. 저는 스스로 학생회에 지원하여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특에서 보시다시피 학년 초반에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학교생활 적응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태도는 나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보다 학교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학생회 특성상 동급생뿐만 아니라 선후배가 화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해엔 부장에도 지원하여 직접 부원들을 이끌고 동급생 및 후배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해가며 리더십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생회에서의 공동체 활동 경험으로 인해 성격 변화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Q6: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의 가능성을 제단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가 죽고, 위축되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의류 산업학과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해주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하는 태도를 지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면접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신여자대학교 의류 산업학과 진학이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세종대학교	학과	우주항공드론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세종창의인재전형(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약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입실 시간 동안 대기, 가번호 부여, 순서가 오면 한 명씩 고사실 앞에서 대기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실 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모두 건음. 대기 시간 동안 프린트물만 볼 수 있음.</li> <li>면접위원과 학생 사이의 거리가 좀 있음. 목소리가 작으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목소리를 내야 함.</li> <li>원서접수 순서대로 가번호가 주어짐.</li> <li>물을 제공하지 않기에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함.</li> <li>학교에서 연습한 자기소개, 지원동기, 동아리나 창체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 입학 후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 계획 등 일반적인 질문을 많이 물어봤기에 평소 예상 질문을 50개~100개 이상 만들어 연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한 번 해볼까요?</b>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와 하늘 로켓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우주 하늘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학문인 항공우주공학에 관심이 생겨 세종대학교 우주항공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동아리나 창체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면 말해볼까요?</b>				
A: 고체 연료 로켓 발사실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긴장해서 이후 어떻게 말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실험 동기, 과정, 실험을 통해 배운 점 등을 계속 설명했다. 답변이 좀 길었지만 중간에 끊지 않으셨다.)				
<b>Q3: 대학 입학 후의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말해보세요.</b>				
A: 발사체, 인공위성 등에 관심이 많아 우주개발 관련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종대학교가 무인항공시스템 연구에 특화 되어있고 항공우주공학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기에 대학에서 공부하며 진로를 세부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 같습니다.				
<b>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b>				
A: 하늘과 우주를 향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세종대 우주항공공학과에 입학하여 미래의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숙명여자대학교	<b>학 과</b>	경제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숙명인재(면접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설문조사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위원은 2명입니다.</li> <li>▪ 경제학부뿐만 아니라 3개의 학과가 같은 대기실을 씁니다. 대기 시간동안 자신이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전자기기 불가).</li> <li>▪ 8시 30분까지 입실인데 9시 3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뒷순위의 가번호를 부여받았을 땐 대기시간이 꽤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원동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b></p> <p>A: 제 꿈은 국제학적인 이슈를 경제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국제경제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계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다양한 세계적 이슈들을 배우고 탐생하는 과정 속에서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경제학의 부문에 대해서 탐구해본 것은 아니기에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하여 경제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p>				
<p><b>Q2: 제가 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궁금하게 있었어요. 크게 2가지인데, 차례대로 답해주세요. 3학년 진로 시간에 중력 모형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했는데 모형에 따른 GDP와 물리적 거리등의 변인을 탐구하고 이 통계 자료들을 공학 도구로 분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한류 문화의 경우에는 다른 문화와 달리 지역과 상관없이 양의 효과를 보였다고 했는데 이 중력모형은 어떻게 탐구한 건가요? 그리고 한류가 다른 지역의 문화와 달리 양의 효과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b></p> <p>A: 제가 분석해본바, 중력모형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주로 지리적 인접성이 부각되는 국가의 위주로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리라는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문화의 확산성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한류의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넘어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p>				
<p><b>Q3: 그럼 왜 한류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b></p> <p>A: 외국에 확산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등을 보면 한국인들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케이팝에서 다양한 세계관을 도입하는 등 전세계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4: 그럼 이 중력모형을 공학도구를 활용해서 분석했다고 했는데 어떤 공학도구인가요?</b></p> <p>A: 제 담임선생님께서 수학선생님이셔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엑셀을 활용하여 분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p>				
<p><b>Q5: 리쇼어링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탐구해본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b></p> <p>A: 네. 대한민국은 법으로도 리쇼어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이 존재함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만한 대기업의 리쇼어링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실질적인 리쇼어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p>				
<p><b>Q6: 그렇다면 이게 법률의 문제라는 건가요?</b></p> <p>A: 아... 아닙니다... (당황함)</p>				



**Q7: 그러면 제도의 미비가 더 크다?**

A: 네... 이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Q8: IMF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공통점을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학생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IMF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A: 물론 경제위기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시와 같은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기업들은 달러 부채가 많았고, 부채로 인하여 투자를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었기에 유동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면 이를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9: 학교 생활하면서 리더십 발휘한 부분이 있나요?**

A: 1학년 때 학급회 부장을 도맡아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캠페인과 같은 활동이 많아 리더십이 더 요구되었다고 어필)

**Q10: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말 들어보겠습니다.**

A: 아직 미흡하지만, 학교에 진학하여 모르는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학업에 정진하려 노력하며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11: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A: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숙명여자대학교	<b>학 과</b>	경제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숙명인재(면접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3~14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꼬리질문으로 유명한데 진짜 많았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지만 아는 선에서 당당하게 말하는게 중요함.</li> <li>▪ 휴대폰은 꺼서 개인보관, 대기할 때 자료 볼 수 있음.</li> <li>▪ 가번호 부여함(랜덤으로 돌림).</li> <li>▪ 수학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숙명여대 경제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주세요</b>				
A: 안녕하세요, 제 꿈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바탕으로 ... (책과 관련하여 설명함, 1~2분 내외)				
<b>Q2: 넛지라는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개념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b>				
A: 기준선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Q3: 어떤 불평등 현상이 있을까요?</b>				
A: 교육격차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사회에서 폐교되는 학교들처럼 실질적인 교육 환경 마련이 어렵다는 점과,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b>Q4: 책에서 말하는 기준선 설정이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개념인가요?</b>				
A: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이러한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충돌하여 적극적인 정책 활용의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Q5: 2학년 수학 시간에 총비용 곡선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b>				
A: 당시 수학 교과 시간에 배운 미분의 개념을 바탕으로 총비용함수와 한계비용함수의 정의를 활용하여 총비용곡선을 해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기업이 재화 1개를 생산할 때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한계비용이며 이때 해당 생산량의 한계비용은 x축을 기준으로 총비용 곡선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b>Q6: 거의 비슷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b>				
A: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재화의 생산량이 적을수록 그 기울기를 정확하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량이 무수히 많아졌을 때를 예시로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점을 뜻합니다.				
<b>Q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b>				
A: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의존성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의 원유나 가스 수출이 감소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은 국제정치적으로 많은 불안 요인을 증가시켜 금융시장에서의 불투명성도 증가해 많은 국가들의 경제상황이나 수출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Q8: 현재 기름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A: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9: 왜 다시 하락하고 있을까요?**

A: (답 몰랐음) 제가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쟁이라는 사회적 갈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타협이나 협상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타국의 기름값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Q1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A: (더 이상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입학 전에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후에 단순히 경제적으로 생각하여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하락한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짧게 설명해주심)

**Q11: 3학년 때 총수입과 탄력성의 관계라는 그래프를 해석한 활동 기억이 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A: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쓰이는 성질이며 판매 가격을 x축으로, 총수입을 y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해석해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극대가 되는 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으로 총수입의 변화량이 0이어서 판매자의 총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Q12: 왜 그 그래프가 그러한 형태를 가질까요?**

A: (잘 기억이 안나서 얼버무리) 판매가격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며 판매가격이 감소할수록 수요량이 많아지는 탄력성의 성질에 따라 총수입 또한 우하향을 그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3: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꼭 숙명여대 경제학부에 입학하고 싶은 이유를 말해보세요**

A: 저는 경제 정책 연구를 목표로 (숙대 인재상과 엮어서 진로 희망 요약, 숙대 교과과정 바탕으로 배우고 싶은 교과목과 숙대 경제학부에서 진행하는 학술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함 1분 내외)



## 2023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숙명여자대학교	학과	TESL전공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숙명인재(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2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1시간 대기, 면접 후 귀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 것.</li> <li>▪ 교수님의 얼굴을 익히고 가면 당황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가번호 00번 수험생이 맞습니까?</b>  A: 네, 맞습니다. (최대한 긴장한 기색 보이지 않기)  (지원동기, 향후 계획 등을 면접에서 묻지 않아서 장점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각 질문마다 적절하게 자신의 성격적 장점과 지원 동기 등을 넣어서 답변하면 좋을 듯.)</p> <p><b>Q2: 2학년 때 영어를 모의수업으로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 본인이 교사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싶나요?</b>  A: 저는 경청과 리액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영어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경청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라는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영미권 문화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설명)</p> <p><b>Q3: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접해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된다면 당연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b>  A: 그래서 저는 STAD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 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STAD의 정의, 집단 보상, 기회 균등 등을 설명) 따라서 이러한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일 것입니다.</p> <p><b>Q4: 남북 협상이 체결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해결될 것 같나요?</b>  A: (학과와 관련없는 내용이라 당황)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협상이 체결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b>  A: 숙명여대 테슬 전공에 진학하여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했으나 기억이 잘 안 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숙명여자대학교	<b>학 과</b>	행정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숙명인재(면접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2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자리 이동 후 대기 → 면접 → 설문조사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런년도에 후문을 열리지 않았고 무조건 정문으로만 입장을 했습니다. (후문에 주자창이 있긴한데 그곳에 차를 놔두고 수험생들이 주자창 들어가는 곳으로 나오는 걸 보면 무조건 입장은 정문인 것 같네요.) 원래 8시 정각부터 열리는데 정문에서는 8시 전부터 입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다만, 건물 안에는 8시 정각부터 입장을 시작했습니다.</li> <li>건물로 들어가면 면접 대기 장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이 스티커로 부착된 자리에 착석합니다. 이 이후에 신분확인 등을 진행하고 자신이 가져온 전자기기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방에 보관합니다. 가져온 서류 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대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의 가번호를 부르면 짐을 다 챙겨서 면접실 앞의 대기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서류를 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대기(대략 5분)하다가 면접실 안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접수번호 순으로 면접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접수번호 역순으로 가번호를 주셔서 면접을 진행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활동을 딱딱 언급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나요?</b>				
A: 저는 행정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시행정전문가를 꿈꾸며 이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1학년 때의 경우, 행정이 다방면의 공공문제에 대응한다는 사실에 알게 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 3학년 때는 행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도시행정을 관심을 가져 이를 심화적으로 탐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숙명여대에 입학하여 주택정책, 도시정부론, 도시행정론 등을 수강하며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b>Q2: 영어 시간에 386세대나 주거 빈곤에 대한 에세이 쓰기 활동을 진행했다는 걸로 아는데, 이게 뭐가 이걸 하면서 느낀점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b>				
A: 아 일단 이 386세대와 주거 빈곤은 각각 다른 활동으로 386세대부터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 386세대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386세대란 30대 때가 1980년대로, 60년대 생을 의미합니다. 즉 1980년대 민주화 학생 운동을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워라고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b>Q3: (답변을 끊으면서) 어 저희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이나 이런 거 말 좀 할 수 있을까요?</b>				
A: 저는 사실 어... 어떻게 그들이 세력을 구축했는지에 초점을 두었지,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던 점이 아쉽습니다.				
<b>Q4: 그러니깐 자료조사가 아쉬웠다는 이야기죠?</b>				
A: 네엠틀!				
<b>Q5: (생기부 보고 세종시에 대해 질문한 것 같음)</b>				
A: 사실 세종시라는 곳 자체는 처음에 행정수도로서 시작을 알렸지만 헌법의 위헌 판결로 인해 지금의 세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많은 비효율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결정하는 기관들이				

서울에 잔존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종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길게 답변함)

**Q6: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음)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방안을 무엇을 있는 것 같나요?**

A: 어 저는 LH가 이와 관련된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LH의 경우에는 e편한세상 등에게 공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지구와 같은 것들을 개발해 걸로 보기엔 이것이 전혀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를 제도적으로 도움을 줘야하는 방안으로 저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Q7: 책을 읽고 행정과 법에 관계에 대한 탐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A: 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 아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편함을 삶을 살 수 있게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조금 더 길게 말함)

**Q8: ‘동반자적 관계’라는 워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어 그냥 위에 답변을 거의 그대로 다시 말함)

**Q9: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게 뭐죠?**

A: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1964년 루고 글라스가 처음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는 낙후한 시가지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하면서 문화가 발달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료를 상승시키거나 기타 비용이 오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거주하던 이들이 이곳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Q10: 그럼 안티젠트리피케이션은 무엇인가요?**

A: 안티젠트리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데 반하는 그런 개념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 성수동에서 처음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Q11: 그럼 이거 말고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어, 저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부산의 감천마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관광수입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거나, 지역주민 등을 고용하는등을 형식을 취하는 등의 도시재생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12: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저는 숙명여대라는 학교 자체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캠퍼스 구축이나 2030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휴머니티 대학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 학과 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을 직접 피부로 저는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전문인으로써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이런 뉘앙스로 마지막 말함)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숙명여자대학교	학과	홍보광고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숙명인재(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2분	면접위원 수	2명(남교수 2명)
	면접 절차	1차 합격 후 진행 (1차 3배수 선발)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명여대는 제가 응시한 동국대에 비해 교과세특에 관한 질문이 많았어요. 동아리나 자진봉동외에 국어,영어,사회 과목질문이 많았어요.</li> <li>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답변 다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야합니다</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지원동기 알려주세요

A: 제가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변화는 모습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부딪힘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방송부 PD가 되었고 방송부 내에서 여러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광고 및 미디어가 인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 시키는 것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더 배우고 탐구하고 싶어 홍보광고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2: 메타버스가 요즘에 시대를 지났다 물건너 갔다라는 말을 듣는데 메타버스가 장기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메타버스 콘텐츠가 사실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페토 이후로 엄청난 메타버스 콘텐츠가 제작되거나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콘텐츠가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전시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이후로 메타버스 콘텐츠가 잘 사용된다면 효과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메타버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할 수 있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쉽게 제작되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을 메타버스 콘텐츠 속에서 펼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Q3: 공익광고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어떻게요?

A: 당시 저희가 탐구한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다양한 영상매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탐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드라마였던 더글로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고 주변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가 폭로되고는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공익광고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익광고의 의의가 다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해야하는지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학교폭력 예방하자 라는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는 교내 폭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Q4: 광고와 마케팅 영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읽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왜죠?

A: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경험을 늘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험 한 것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경험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내가 직접 경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에서는 다양한 주인공들이 다양한 상황을 만나는 경험들이 표현됩니다. 이러한 간접적 경험 방식으로 전반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을 쌓고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람을 향해 있고 마케팅과 광고 또한 사람을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을 통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문학이 향하는 방향과 마케팅이. 향하는 방향이 비슷하고 결국 둘다 우리 인류에게 더 나은 방식의 삶과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케팅과 광고 분야의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5: 국제광고어워드에서 수상작을 봤다고 하는게 수상작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던가요?

A: 저는 발상의 전환이 공통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롬버스의 달걀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창의성이 콜롬버스의 달걀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롬버스 신대륙을 발견한 후 본국에 돌아와 축하연 하고 있었을 때 몇몇 귀족들을 그를 시기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비아냥 거렸다.그 때 콜롬버스가 달걀을 주며 달걀을 세워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세울 수가 없었다. 이때 콜롬버스는 달걀 한쪽을 조금 깨뜨려 달걀을 세웠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람들의 도전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었으며 이는 콜롬버스의 달걀이라는 표현으로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관용구로 쓰이곤 합니다. 이와 같이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발상의 전환이 그들의 공통점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6: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는 뭐예요?**

A: 저는 당시 찾아보던 광고중 스마트 라벨 패키지 라는 한국 학생들이 매일우유에 제한한 광고가 생각납니다. 해당 광고는 매년 2억여명의 어린이들이 상한 음식을 먹고 고통을 겪는 일이 많고 이를 우유의 패키징으로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리는 광고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작은 유통기한 문구보다 큰 브랜드명과 제품명이 적혀있는 우유팩의 가운데에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MILK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온도 감지 잉크로 새겨넣어 만약 우유가 상하게 된다면 MILK를 ILL로 변하게 되는 우유 패키지를 만든 수상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7: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조사했는데 ESG라고 아나요? ESG가 최근에 걸보기로만 실행된다고 비판 받는데 어떻게 하면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사실 ESG경영은 현재 표면상으로만 ESG경영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그린 워싱이라고도 합니다. 그린워싱이란 자신들의 경영이 ESG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광고나 제품소개관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ESG경영이 활성화 된 이유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인식변화가 기업이 경영전략을 바꾸는데 가장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ESG경영의 실질적 실현은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니즈와 인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ESG경영을 운영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ESG와 그린워싱의 확실한 차이를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는 겉으로만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의 만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8: 하이재킹 마케팅을 조사했는데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A: 광고를 떠오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냥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광고 노출을 통해 얻어진 귀찮고 짜증난다는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노력하고 싶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이 광고를 접하고 어떻게 느끼느냐였습니다. 사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영상 시작 전에 광고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 건너뛰기의 5,4,3,2,1 숫자에만 집중하고 광고 영상에 대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번은 광고 뒤의 내용이 궁금하여 건너뛰기를 누르지 않은 경험이 다들 한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 집중하여 건너뛰기를 누를 수 없는 광고를 만들자가 제 모토가 되어 다양한 마케팅 기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러 마케팅 중 하이재킹 마케팅을 조사했습니다. 하이재킹 마케팅이란 빠르게 납치라는 하이재크에서 나온 마케팅 기법인데 이것이 잘 실현된 것이 오레오의 슈퍼볼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슈퍼볼 경기 도중 경기장의 조명이 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즉각적으로 이용한 광고를 정전 후 10분 만에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내용은 " 정전? 문제 없다.(Power out? No problem) ""는 글과 함께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덩크(오레오 쿠키를 우유에 찍어 먹는 것)할 수 있다 (YOU CAN STILL DUNK IN THE DARK)"는 문구가 담긴 광고로 광고 효과 40억원을기록했다고 합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우선 저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시고 저의 생각과 가치관을 면접관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홍보광고학과에서 중요한 것이 '협력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고등학교 방송부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고 누구보다 협력하는 것에 자신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홍보광고학과에서 실현하고 싶고 제가 만약에 홍보광고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교수님들께서 졸업생 특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숙명여대를 준비했던 시간이 너무 짧았어서 위에서 기록한거 보다는 더 떨면서 더듬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본인 이 준비를 많이 한다면 오히려 긴장을 안하게 되니 여러번 모의면접하고 생기부 정독해서 꼭 합격하세요!)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순천향대학교	<b>학 과</b>	임상병리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교과면접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입장 → 유의사항 설명 및 수험표, 인적사항 확인 → 대기 → 면접실 밖에서 대기 → 면접 → 귀가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관들이 편안하게 분위기를 풀어주려 함.</li> <li>▪ 긴장됐지만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웃으면서 말함.</li> <li>▪ 지원 동기, 졸업 후 진출희망 분야, 고등학교 생활 등 예측가능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면 도움이 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임상병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b>				
A: 코로나가 지속되고 pcr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병을 치료하기에 앞서 검사를 통한 진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임상병리학과를 희망함.				
<b>Q2: 고교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b>				
A: 2학년 생명과학1 시간에 혈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것.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검사 중 혈액검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사했고 이 조사를 통해 꿈에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됨.				
<b>Q3: 졸업 후 진출하고 싶은 분야는?</b>				
A: 대학 병원 병리과에서 근무를 희망함. 병리과가 자동화가 덜 되어있어 손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적성에 맞을 것 같고, 수술실에서 검체를 바로 받아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b>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b>				
A: 순천향대가 세계대학평가 의료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에 속해있는 대학도 있어서 순천향대에서 공부하여 졸업하면 좋은 기회가 많을 것임. 또 많은 지식을 쌓아서 사회에 많은 기여하는 그런 임상병리사 되고 싶음.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순천향대학교	<b>학 과</b>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SW융합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보다 자세한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li> <li>■ 생기부에 자신있다면 면접이 엄청 유리하고, 자신있고 목소리를 크게 말하는게 좋습니다.</li> <li>■ 입학사정관과 교수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입학사정관은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교수는 생기부를 보고 궁금한 걸 질문했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일단 저희 학교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b>				
A: 부모님 차 타고 와서 괜찮았습니다.				
<b>Q2: (면접관) 네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저희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저는 어릴 때 부터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저는 코딩을 하기전 영상편집, 모델링, 포토샵을 먼저 하였고 어느 날 게임을 하다가 문득 게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말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코딩을 시작했고 너무 재밌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b>Q3: (교수) 1학년때 보면 멘토-멘티 앱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b>				
A: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서 친구들에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배우기 쉬운 프론트엔드를 XML언어를 활용해 주식 앱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태그들을 알려주었고 세부적으로 margin, padding, width, height 등을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멘토-멘티 시간에만 만드는 건 부족해서 따로 온라인에서 모여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로 회원가입 부분을 만들려고 했으나 저의 역량 부족으로 아쉽게 완성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b>Q4: (교수) 백엔드 어렵죠. 지금 보니까 알려주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엄청 뽕뽕했겠네요ㅋㅋ, 그리고 지금 성적을 보면 꾸준히 상향하는데 이유가 있나요?</b>				
A: 제 꿈 때문인데요. 저의 꿈은 저만의 코딩 학원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이러한 꿈이 생긴 이유는 제가 코딩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학원 선생님은 비전공자이셨고 게임 관련만 공부하신 분이래 제가 궁금해하는 웹, 앱은 잘 모르셨습니다. 또한 저는 코딩과 관련된 실수가 궁금 했었지만 이 부분도 선생님은 알려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딩 학원을 차려서 저처럼 답답한 친구들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해 경험을 오래 쌓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일을 한 다음 학원을 차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백엔드 부분을 공부하면서 혼자 공부하는데 한계를 느꼈고, 대학을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대학교 진학 목표가 생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Q5: (면접관)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b>				
A: 제가 사실 순천향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지금 이 건물 유투피아관에 제가 정말 사용하고 싶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코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3D 모델링과 3D 프린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해보았지만 사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어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 다루는데 1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D프린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영상으로 봤을 때 출력물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했던 게임에서 감정표현을 할 때 캐릭터가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3D모션캡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쉽게 써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순천향대에 3D모션캡처 장비가 있어서 엄청 놀랐고 그 외에 VR체험, 물체를 직접 모델링하지 않아도 여러 개의 광학 카메라를 사용하여 물체의 3D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만약 진학하게 된다면 꼭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장비쪽 얘기만 하나니까 교수님이 농담으로 "진학하면 다른 과로 전과하시는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어요.)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학과	국어국문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SSU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실 입실 → 대기 → 면접 → 귀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분위기가 매우 편함</li> <li>▪ 첫 질문이 연습하면서 만들어 본 질문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혹시 면접 준비하면서 질문 만드신거 있으신가요? 무엇인가요?</b> → 그럼 그 질문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p> <p>A: 저는 국어를 좋아하게 계기와 지원 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국어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중세 국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현재 쓰고 있지 않는 단어나 의미가 변화한 단어 그리고 음의 높낮이 등을 배우게 되면서 저의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송실대학교 국문학과에 지원을 해서 고전 소설론, 고전 시가론 등 고전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고전 문학을 토대로 소설을 써보고 싶습니다.</p>				
<p><b>Q1-1: 아 그러면, 역사적인 문학을 쓰고 싶다는 군요? 고전문학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문학이 있을까요?</b></p> <p>A: 저는 고전 문학 중에서 가전체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방전을 읽었을 때, 엽전이라는 돈을 의인화하여, 세대에서 돈으로 인한 부패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웠던 점은 현재도 돈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았기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p>				
<p><b>Q2: 어휘토론캠프를 활동하셨다 했는데 어떤 활동이었나요?</b></p> <p>A: 어휘 토론 캠프에서 저는 여러 개의 단어를 한 개의 특징으로 묶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무슨 단어를 알아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단어를 한 개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b>Q2-1: 게임식으로 활동을 한건가요?</b></p> <p>A: 게임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토론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어떤 단어로 묶으면 좋을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b>Q3: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b></p> <p>A: 저의 장점은 긍정적인 모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예시 설명 저는 리더십이 많습니다. 저는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반장을 하면서, 아이들과의 회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p>				
<p><b>Q4: 마지막으로 한마디 있으실까요?</b></p> <p>A: 저는 국어국문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지원을 해서, 송실대학교 관한 국어국문학과에 관한 많은 수업을 듣고 싶을 정도로 열정이 많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송실대학교	<b>학 과</b>	물리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SSU미래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내외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분야에 대한 질문이 빈출됨.</li> <li>▪ 전공적합성을 50% 반영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 굳이 송실대에 지원한 이유, 요즘 이슈</b>				
A: 물리학1 수업시간에 배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고급 물리학' 수업시간에 배운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 자기장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에서 흥미가 높아져서 물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 송실대의 슬로건인 '창의적 융합을 선도하는 대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초학문을 공부해 나의 관심 분야인 전자, 반도체 관련 응용학문을 연계하여 공부하는데 적합한 학교인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 이공계 관련 예산 삭감 --> 장래의 나의 진로(반도체 연구 및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b>Q2: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반도체의 개념과 도체, 반도체, 부도체의 차이를 설명해라</b>				
A: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의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대부분 14족 원소인 규소와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제작하고 13족, 15족 원소들을 이용해서 도핑을 해 실사용합니다.				
A: 에너지 띠 이론으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사이의 띠틈의 크기가 거의 없으면 도체, 조금 있으면 반도체, 크면 부도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b>Q3: 교과과정의 '물리학2'의 학습을 다 한 것 같지 않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했나</b>				
A: 학교의 교육과정 상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했기에 선생님께서 트랜지스터까지의 내용까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자습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b>Q+: 자습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b>				
A: 물리학1 시간에 배웠던 '광전효과'를 다시 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금 더 개념을 심화시켜 공부한 것 같아 기억에 남습니다.				
<b>Q4: 반도체를 공부하려면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었나. 왜 물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가</b>				
A: 자기장의 크기를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통해 수학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과정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증명 과정들을 통해 현상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는 것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b>Q5: 공과대학은 수학을 사용하지 않나</b>				
A: 저는 공과대학과는 다른 자연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뒷 말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b>Q6: 마지막 할 말</b>				
A: 제가 고등학교 3년동안 물리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기초를 열심히 다졌다면, 이제는 심화된 학습과 실험을 통해 물리학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학과	물리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SSU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 면접 → 설문조사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없는 전공 관련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물리학 I의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함.</li> <li>· 대기실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도서 정도는 볼 수 있으나,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못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b></p> <p>A: 저는 천체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우선, 물리학은 물리학적 지식과 궁금증을 가지고 펜과 종이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자연현상들을 규명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는 우주 자체나 우주에 있는 천체들의 운동을 규명하는 천체물리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실대에 대해 찾아보니 같은 물리학과에 진학하게 되더라도 향후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학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체물리학자의 길을 걷고 싶은 저는 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더 깊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송실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송실대에 커리큘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니 송실대 홈페이지를 잘 숙지해온 것 같아요. 그럼 송실대 홈페이지를 보면서 송실대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b></p> <p>A: 송실대 물리학과에 천체물리학과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를 보며 송실대에 오면 물리학에 관해 깊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체물리에 관한 공부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송실대에 꼭 오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p>				
<p><b>Q3: 위쪽 방향으로 물체를 던질 때, 이 물체가 운동의 최고점에서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b></p> <p>A: 물체가 연직방향으로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운동이 시작되며 얻은 운동에너지가 최고점에서 모두 위치에너지로 바뀌며 물체는 그 순간 속도가 0이어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직운동에서 물체에게 항상 연직 아래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가속도인 중력가속도 즉, <math>9.8\text{m/s}^2</math>만큼 연직아래 방향의 가속도를 받고 있습니다.</p>				
<p><b>Q4: 천체물리학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했던 활동 중에서 천체물리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활동을 소개해보세요.</b></p> <p>A: 2학년 물리1 시간에 했던 마이컬슨-몰리의 에테르 증명 실험과 중력파 관측의 연관성에 관한 탐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실험을 공부하다보니 '두 실험의 과정을 같지만 결과는 왜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를 토대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탐구를 해보니 결국, 마이컬슨-몰리는 에테르라는 새로운 가상의 매질을 '발견'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 중력파는 시공간이 왜곡된 것을 '관측'하기 위해 간섭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실험 목적이 다르니 실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p>				
<p><b>Q5: 마이컬슨-몰리실험에서 간섭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와 실험방법을 한 번 설명해줄 수 있으세요?</b></p> <p>A: 간섭계라는 것은 광원에서부터 나온 빛이 반거울을 지나며 두 빛으로 갈라지게 되고 같은 거리에 각각 놓여있는 거울에 의해 반사되어 다시 반거울로 와서 두 빛이 합쳐지며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는 작동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에테르라는 매질이 존재하거나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하면 두 빛 중, 한 빛의 이동거리가 더 길어지며 나중에 검출기에서 다른 빛과 합쳐지게 될 때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를 관측하여 발견한 것이 중력파입니다.</p>				

**Q6: 좋습니다. 저희 송실대에서는 정말로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을 뽑고 싶습니다. 여기 학생의 생기부에 정말 많은 물리학적 활동들이 적혀있는데요, 해본 활동 중에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활동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A: 포물선운동에서 포물선운동의 초기 속도와 초기 각도 값을 알면 물체가 포물선운동을 할 때 이동 거리, 최고 높이, 각 순간에 운동량, 속도 운동 방향 등의 그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포물선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통해 저는 ‘실제로 이 운동과 관련한 모든 물리량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실험을 3학년 동아리 시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초기 각도를 정확하게 하여 물체를 운동시키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이를 정확한 각도로 물체를 포물선운동을 시키는 투석기를 고안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실제로 쇠구슬을 이용해 포물선운동을 만들어서 이를 동영상으로 찍은 뒤, 단위 길이마다 운동에 관한 모든 물리량을 관측하여 이를 다시 포물선 방정식에 대입하여 방정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A: 지원 동기 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는 시공간이 왜곡되는 현상들을 통해 시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송실대에서 물리학과 천체물리학 지식을 깊이 있게 쌓은 뒤, 송실대에 있는 우주물질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학과	사회복지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SSU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 신분 확인 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진행, 한 분은 교과활동중심, 한 분은 지원동기 및 느낀점, 생각 위주로 질문하심.</li> <li>학과에 지원한 동기뿐 아니라 이 학교에 지원한 이유 등 학교의 장점, 프로그램을 숙지하면 도움이 될 듯함.</li> <li>예상 질문이 들어온 건 기본질문(지원동기)밖에 없었음. 반복적으로 읽어 생기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현장에서 중요할 듯.</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청소년 일탈을 차별교제이론으로 설명한다면</b>				
A: 청소년이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탈집단과 접촉하여 집단에 합류하게 된다고 설명함.				
<b>Q1-2: 한국 사회를 차별교제이론으로 설명한다면</b>				
A: 한국 사회의 빠른 성장으로 개인을 사회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일탈집단과 접촉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음을 밝힘.				
<b>Q2: 이 학교에 지원한 동기</b>				
A: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동아리, 학술제 등 여러 교류활동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지원했음을 설명함.				
<b>Q3: 여성관련 책을 읽고 느낀점</b>				
A: 외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답함.				
<b>Q3-1: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b>				
A: 취미활동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배우는 등 외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활동을 위주로 걸명함.				
<b>Q3-2: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b>				
A: 취미인 그림그리기를 토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답함.				
<b>Q4: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대표적인 예시</b>				
A: 보편복지는 무상급식, 선별복지는 빈곤가정 기본지원금이라고 답함.				
<b>Q5: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역량이 있다면</b>				
A: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객관성이라고 답함.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송실대학교	<b>학 과</b>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SSU미래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입실 후 신분 확인(가번호 확인) →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대기실에서 다른 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li> <li>▪ 대기인원이 많으면 1~/21~ 동시 진행</li> <li>▪ 대기시간동안 자소서나 생기부, 책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사용 못함.</li> <li>▪ 생기부 내용 확인 질문 많지 않았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간단히 해보세요</b>				
A: 저는 적극적인 자세로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첨단 산업의 선구자가 되고싶은 가번호 28번입니다.				
<b>Q2: 미적분이 물리에 사용되는게 뭐가 있어요? (대답 못 하나까) 예를 들면 속도나 뭐 그런 거</b>				
A: (몰라서 위치, 속도, 미분 관련해서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b>Q3: 그럼 확통에서 독립시행이 뭐예요?</b>				
A: ..잘 모르겠습니다				
<b>Q4: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식으로 물어보셔서</b>				
A: 시스템반도체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싶다고 대답				
<b>Q5: 전자공학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질 뭐 그런 거</b>				
A: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다고 알고 있어서 팀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b>Q6: 학교에서 반도체 꿈 가지는데 영향 준거 하나 얘기해보세요</b>				
A: 물리학에서 배운 축전기가 반도체에 흥미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b>Q7: 동아리 3학년 때 뭐했어요?</b>				
A: 동아리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각자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euv와 플라즈마의 관계에 관해 탐구했습니다.				
<b>Q8: 1, 2학년 땀 원더맨파인드네요? 궁금하고 찾자 뭐 그런 거?ㅎㅎ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있어요?</b>				
A: 마그누스 효과 실험이 기억이 납니다. 마그누스 효과란 물체가 유체 속에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힘을 받아 경로가 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종이컵과 고무줄을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구현하였습니다.				
<b>Q9: 종이컵이랑 고무줄로?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어요?</b>				
A: 종이컵 두 개를 붙이고 고무줄을 사용하여 날림으로써 마그누스의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b>Q10: 반도체를 못 하게 되면 뭘 하고 싶어요?</b>				
A: 반도체.. 산업 쪽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과 기업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것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Q11: 아 이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웨이퍼가 원인 이유가 뭐예요?**

A: 웨이퍼는 실리콘을 녹인 후에 돌리면서 들어 올려 잉곳을 만들고 이를 잘라 웨이퍼를 만들기 때문에 원이 됩니다. 만약 사각형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다시 녹인 후에 굳혀야 해서 순도가 낮아져서 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Q12: 이걸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따로 한 거예요?**

A: 따로 탐구하였습니다.

**Q13: 여행지리에서 실리콘밸리~ 했다고 하는데 이걸 직접 갔다 온 거예요?**

A: 아니요. 계획만 구상한 겁니다.

**Q14: 그럼 우리나라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 생긴다면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망설이니까) 그냥 개인의 생각이니까~**

A: 평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두 분이 웃으셨어요)

**Q1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A: 우선 면접 볼 수 있게 기회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넘어서 최고를 향하여! 꼭 송실대학교에 입학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ㅎㅎ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생기부 기반으로 많이 나올 줄 알고 생기부 내용 숙지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 생각 묻는 질문이 많았어요. 또 꼬리질문 식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고 다른 질문 하셨어요. 첫 질문으로 미적분, 확률 질문이 나왔는데 생기부에 언급되어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과목을 수강했다는 것만으로 나온 질문인 것 같아요.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송실대학교	<b>학 과</b>	전자정보공학부 (전자정보전공)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SSU미래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대기실에서 다른 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li> <li>▪ 대기 시간 동안 자소서나 생기부, 책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사용 못 함.</li> <li>▪ 수험번호에 따라 미리 지정된 면접 번호가 있음. 가끔 번호를 잘못 알려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자리 위의 번호표 뒷면의 수험번호와 자신의 수험번호를 잘 비교해 보시길.</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우리 학교 전자공학과에 왜 지원을 하였나요?</b>  A: 항상 컴퓨터, 전자 등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2학년 RTL-SDR 활동을 자율적으로 계획함을 통해 전자과에 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p> <p><b>Q2: 3학년 말에 수학 성적 급감은 왜 그런것인가요?</b>  A: 계산이 좀 느린 편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산 연습과 수학 과제 탐구 과목에서 나타나는 원리 이해 등을 통해 수학적 통찰력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p> <p><b>Q3: 트랜지스터의 원리는 무엇인가요?</b>  A: (트랜지스터의 원리 설명)</p> <p><b>Q4: 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반장, 부반장 활동을 했다고 되었는데. 내성적이면 활동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나요?</b>  A: 저는 내성적이지만 사회성은 충분했습니다. 또한, 저의 리더십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고, 실제로도 활동 과정에서 리더십 역량이 많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p> <p><b>Q5: 지원자의 RTL-SDR 활동에서 동글을 개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개조한 건지 설명해주세요.</b>  A: RTL-SDR 에 들어가는 RTL2832U 칩의 데이터시트를 보면 ADC 입력이 2개가 있다. 이 중 하나만 튜너 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입력단에 안테나를 연결하면 HF 대역의 전파를 수신 가능합니다.</p> <p><b>Q6: 젠투 리눅스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b>  A: 젠투 리눅스는 BSD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로부터 컴파일하여 설치하는 운영체제, 설치 시 운영체제의 모든 파일부터 설정을 다 수동으로 해야합니다. 이 작업을 직접 해봄으로써 리눅스 운영체제의 구조(커널, daemon등)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학과	평생교육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SSU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전에 보시는 분은 지하철 이동을 추천합니다.</li> <li>생기부의 자세한 내용보다 본인 지원동기 관련해서 꼬리 질문을 계속하는 느낌입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저희 평생교육학과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자가 생각하는 평생교육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라 기다리느라 힘들었죠 ㅎㅎ</b></p> <p>A: 저는 교육이라는 큰 범주 안에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합니다. 평생교육은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식 혹은 배우지 못했던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2: 교육학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 관련해서 본인이 진행한 활동이 있을까요?</b></p> <p>A: 저는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많아 2학년 때 집중 탐구해 보았습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문화 교육도 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 자퇴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비투스 문화자본 개념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서로 다른 공동체가 같이 지내면서 가치체계 즉, 에토스가 달라 같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토스가 다른 사람끼리 생활할 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문화 학생 중심, 우리나라 학생 중심, 부모님 중심 총 3가지로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보았습니다.</p>				
<p><b>Q3: 다문화 관련,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많이 해 본 것 같은데, 다문화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b></p> <p>A: 세계시민 교육이 다문화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서 서로 도움을 주며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4: 생기부 대부분에 아동교육을 중심으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b></p> <p>A: 저는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여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1, 2학년 때까지는 이러한 e러닝 콘텐츠를 아동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다문화, 노인, 성인 교육 등 아동교육 뿐만 아니라 e러닝 콘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학과에 진학하면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여 좀 더 다방면의 교육 분야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평생교육학과에 지원했습니다.</p>				
<p><b>Q5: e러닝 콘텐츠 중에서 어떤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죠?</b></p> <p>A: 저는 메타버스와 생성형AI를 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p>				
<p><b>Q6: 생성형 ai 종류가 어떻게 있죠?</b></p> <p>A: 여러 가지가 있지만, chat gpt가 있습니다.</p>				



**Q7: chat gpt 말고 다른거도 있나요?**

A: 어...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Chat gpt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Q8: 지금 시행되는 평생교육 관련 이슈가 무엇이고 이에 관한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장애인 교육 관련 문제가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50퍼 센트 미만이라고 합니다. 평생교육 센터가 있지만, 센터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장벽 또한 높다고 하죠.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생교육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디지털 강의가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론만 습득할 수 있을 뿐이지 배운 것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생성형ai를 활용한다면 학습자 수준에 맞게 실천적인 부분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A: (준비했던 것 얘기하고 마무리)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학과	화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SSU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오전조(07:50~08:30입실), 약10:45분쯤 면접 진행 (가번호 34번,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 휴대폰 및 전자기기 수거 → 가번호 부여 → 면접 대기 →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관 두분 씩 두 방에 나눠서 있었음(모두 남자였음)</li> <li>▪ 가번호가 적힌 이름표(목에 걸도록 되어있음) 받는데 앞번호들은 오른쪽방에서 순서대로, 중간번호 정도부터 왼쪽방에서 순서대로 대기실에서 부르면 짐을 아예 다 싸고 면접실 앞에 두고 들어감(내가 가번호 34번이었는데 20번대 정도부터 시작이었음)</li> <li>▪ 생기부를 전체적으로 아예 안 보고 즉석으로 보면서 질문하는 거 같았음</li> <li>▪ 한 분은 거의 눈도 안 마주치고 질문도 별로 안 하심, 다른 분은 웃으면서 질문을 해주시긴 하는데 약간 귀찮아하는 느낌</li> <li>▪ 오전조 오후조로 나뉘어 있는데 오전조는 3명정도 면접 안 음</li> <li>▪ 들어갈 때 휴대폰 및 전자기기는 스티커 붙여서 제출(걸리면 즉시 부정행위 처리)</li> <li>▪ 대기실 안은 조금 덥고 가져온 자료 맘대로 볼 수 있음(물은 개인이 챙겨와야함)</li> <li>▪ 중간 정도 번호였기 때문에 내 순서 바로 전에 5분 쉬었다가 한다고 하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차례가 좀 뒷차례인데 기다리는데 힘들지는 않았는지?</b> A: 그만큼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p> <p><b>Q2: 화 I, 화II 선생님이 같은 분이신지?</b> A: 다른 분이십니다. (이 말하기 전에 화학세특이 써있는 게 교과갈지 않다면 불만족해하시는 거 같았음, 그래도 옆에 계신 교수님이 왜 학생 탓을 하냐고 해서 별로 엄청 영향 있을 거 같지는 않았음.. 하지만 화학 과목 I, II에서 질문을 안 하심..)</p> <p><b>Q3: 각각 여자 분이신지 남자 분이신지?</b> A: 화 I 은 남자 선생님이시고 화 II 는 여자 선생님이십니다.</p> <p><b>Q4: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말해보세요.</b> A: 저는 화학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송실대학교 화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론화학연구회라는 동아리를 통해 화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화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였으며 특히, 식초와 티눈약을 통해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오랫동안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학실에서 동료 친구들과 방과후나 휴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는 등 수많은 실험을 하였고 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의 그 감동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여러 노력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화학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화학을 더욱 깊게 공부하고 연구들을 진행해나가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송실대학교 화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5: [2학년 동아리] 시계반응 실험이 어려운 건데 진짜로 한 것이 맞나요(이때부터 계속 진짜 했는지 의심하면서 물어봄)</b> A: 네. 실제로 화학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화학실에서 직접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p> <p><b>Q6: [2학년 동아리] 시계반응이 뭔지 말해보세요.</b> A: 시계반응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변색, 침전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Q7: [2학년 동아리] 시계반응 실험을 했던 과정이 어땠는지 말해보세요.**

A: 저희는 녹말과 아이오딘용액을 사용하여 해당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농도를 다르게 하여 우선적으로 제작한 녹말용액을 농도가 낮은 것부터 하여 순서대로 두었고 이것에 아이오딘용액을 동시에 넣었을 때 순차적으로 색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Q8: [2학년 동아리] 반응이 잘 나타났나요?**

A: 네. 농도에 따라서 색의 진하기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Q9: [2학년 동아리] 시계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떤 색이었나요?**

A: 점점 더 진한 갈색?고동색?으로 나타났습니다.

**Q10: [2학년 동아리] 시간이 지나면 변했던 색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 같나요?**

A: 음.. 가..역반응..?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Q11: [2학년 창제]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차이가 뭔지 말해보세요.**

A: 화학의약품이란 합성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의약품입니다. 천연물에서 추출한 원료부터 시작하여 아스피린과 같이 서로다른 주성분을 합성하여 만든 의약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은 실제 세포를 이용한 면역 세포 치료제나 백신과 같은 종류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Q12: [1학년 통합과학] 나만의 주기율표 만들기에서 어떤 분류 기준으로 나눴는지 내용 말해보세요.**

A: 저는 나만의 주기율표 만들기에서 제약회사별 통증에 따른 의약품을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기에는 제약회사를, 족으로는 통증별 분류를 배치하였고 통증으로는 생리통/복통, 두통/해열, 근육통/관절통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제약과 관련된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진행하다 보니 주기율표 각각에 들어가는 약들의 성상, 제형, 성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Q13: [1학년 통합과학] 주기율표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구분하기 위해 정리를 해 둔 표의 일종입니다.

**Q14: [1학년 통합과학]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죠?**

A: 양성자 수에 따라 배열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5: 오비탈이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알고 있죠?**

A: 네.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의 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6: [2학년 진로] 미나마타병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네. 미나마타병은 한 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아세트알데이드를 대량생산하고 무단 방류하게 되며 시작된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중금속인 메틸수은이 쌓이게 되며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병입니다.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것이 페니실 아민을 통한 체외 배출입니다.

**Q17: [2학년 진로] 페니실아민이 뭔지 설명해보세요.**

A: 페니실아민은 페니실린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아미노산입니다. 대표적인 킬레이트제이기 때문에 중금속과의 결합능력을 가지고 있어 메틸수은의 체외 배출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Q18: [2학년 진로] 킬레이트제가 뭔지 설명해보세요.**

A: 킬레이트제는 전자쌍을 내주어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가 있는 시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19: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20초 정도 해보세요.**

A: 우선적으로 면접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화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수준높은 화학실험들을 많이 진행하며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화학과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아주대학교	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ACE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동기 → 생기부 기반 질문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면접 특징 [후배조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지식을 묻기보다는 사실 확인 여부를 중점적으로 탐구 과정,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본다.</li> <li>▪ 3학년 내용을 중점적으로 물어본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동기에서 꼬리 질문) 실무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하면서 부족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있으신가요?</b></p> <p>A: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친구가 저말고 주위에 없다보니 나의 목표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며 협력하는데 아쉬움이 있었고, 기획 환경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서 드론 촬영이나 이런걸 직접 해보지는 못했고, 스토리보드 형식으로만 구상해나간 것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p>					
<p><b>Q2: 3학년 자율 활동에서 'k-pop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과제'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b></p> <p>A: 현재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k-pop 앨범에 구성되어 있는 비닐, 플라스틱, CD 물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팬들의 앨범 구매 이유가 음반에 있는 것이 아닌 앨범 내에 들어 있는 포토카드, 티켓이고 그 외 환경오염의 주범이 다른 구성품들은 버려버린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팬덤은 팬더스트리 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로 활성화되어있고, 아이돌을 중점적으로 뭉치려는 단합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팬심이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b>Q3: 콘텐츠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어떤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나요?</b></p> <p>A: 제가 문화콘텐츠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였기에 문화콘텐츠 학과에 들어와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접해보고 저에게 맞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구체화 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콘텐츠에는 창의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역할을 하는 그런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p>					
<p><b>Q4: 3학년 자율 활동 중 환경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b></p> <p>A: 저희가 GV를 진행하면서 휠체어 동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교내를 먼저 탐구하고 학교 주변은 문제가 없는지 먼저 탐구하였습니다. 그 후 더 나아가 우리 지역에 실태는 어떠한지 조사해보고 싶어 우리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외부 시설 대부분은 잘 되어 있었지만, 실내 시설에는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실내 환경에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청에 건의하였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아주대학교	<b>학 과</b>	디지털미디어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ACE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 → 공통 질문 → 학생부 질문 → 마지막을 하고 싶은말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학교들과 살짝 면접 대기방식이 다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li> <li>▪ 친절하고 친절하십니다.</li> <li>▪ 모의 면접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li> <li>▪ 생기부 면접 전에 최소 6번은 정독하는게 편합니다.</li> <li>▪ 마음 편하게 가지고 면접을 가는 연습을 하면 더 편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학교에서 면접 관련해서 해준다고 하는 활동들에 모두 참여하시는게 편하고 안정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매우 많이 됩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마지막 순선에 기다리면서 느낀점 있나요.(입학사정관)</b>				
A: 마지막 순서라서 다른 학생분들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읽어볼 수 있어서 더욱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더 많이 준비했기에 더 긴장되는거 같습니다.				
<b>Q2: 지원동기 말씀해 주시죠.(입학사정관)</b>				
A: 제가 아주대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의 교육과정인 게임엔터테인먼트콘텐츠나 디지털엔터테인먼트, 비주얼컴퓨팅 등을 기반으로 게임 개발에 관한 과목과 VR/AR에 대해 배울수 있는 과목 그리고 해외 봉사와 현장실습 또한 경험할 수 있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3: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대 디지털미디어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아주대학교의 디지털미디어학과는 다른 소프트웨어학과와 다르게 게임개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고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VR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기에 지원하였습니다.				
<b>Q4: 게임개발에 관심이 많으신거 같은데 학교 생활 중에 게임개발과 관련되어 활동한 경험을 말해주세요.(교수님)</b>				
A: 3학년 자율활동의 전공 트랙활동에서 혼자서 unity3D 엔진을 기반으로 쿼터뷰 형식의 액션장르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스테이지와 스코어로 점수를 매기는 형식으로 스테이지는 일정 패턴을 가지고 무한 반복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가능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게임을 제작하는 방식과 게임 속 요소를 구현하는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b>Q5: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나요?</b>				
A: 디지털미디어와 같은 학과에서는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과의 특성상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팀장을 맡아 팀을 이끌거나 팀원들끼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에서 팀을 이뤄 진행하는 활동이나 실습 과정에서 제 능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아주대학교	학과	전자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ACE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이상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대강당) 대기(자료 읽을 수 있으나 전자기기 사용 금지, 다른 과 학생도 다수 있다) → 2층 면접실 앞 책상으로 이동(임시 대기하며 제공하는 귀마개 하고 있어야 함) → 조교분이 문을 열어 주신다 → 들어 가면 면접 시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자기소개에 창업을 위주로 설명했던 것이 이유인지는 몰라도 창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대부분 하셨음. 자신의 근본적인 꿈에 대해 고민해보고 들어가는 걸 추천한다.</li> <li>▪ 전공 관련 질문이나 교과 내용 보다는 보다 넓은 개념의 질문을 자주 했다.</li> <li>▪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모의 면접 여러 번 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꼭 하자(절대 예상 질문으로만 준비하지 말 것!).</li> <li>▪ 교수님이 매우 친절하시고 정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편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날도 추운데 먼길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b>				
<p>A: 저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나아가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번호 85번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기술의 발전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는 시스템 반도체가 뉴로모픽 반도체와 같은 맞춤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금보다 미래에 더 큰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p> <p>저는 이러한 비전을 보고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 차세대 기술과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주대학교 전자 공학과에 진학해 반도체와 제어를 전공하여 충분한 역량을 기른 뒤 궁극적으로 차세대 기술을 사람들의 삶과 이어주어 새로운 삶을 제안하는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로모픽 관련해서 질문을 유도하려고 함)</p>				
<b>Q2: 창업? 차세대 반도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하는거죠?</b>				
<p>A: 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아직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못한 차세대 기술을 우리의 삶에 녹여주는 장치를 개발하여 사람들의 삶에 편리함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장치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p>				
<b>Q3: 장치? 그럼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 아니라 제어 장치 개발 분야인가요?</b>				
<p>A: 제가 구상하는 장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 반도체 칩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에 저는 보다 저전력,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하는 동시에 기술과 삶을 이어주는 장치를 개발할 것입니다.</p>				
<b>Q4: 그래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무엇인가요?</b>				
<p>A: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기보단 정보를 통해 연산을 수행하거나 장치를 제어하는 반도체 칩을 의미합니다.</p>				
<b>Q5: 학부 졸업하고 바로 창업할 생각인가요?</b>				
<p>A: 아닙니다. 차세대 반도체를 연구하고 설계하는 일은 매우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반도체, 제어, 통신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반도체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후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박사 과정까지 수료할 계획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반도체 설계를 선도하는 기업에 입사하여 충분한 실무 경험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키운 뒤 궁극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p>				
<b>Q6: 학업 성적이 1학년 때 크게 상승하고 그 후로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b>				

**(입학 사정관)**

A: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낮은 성적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주위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찾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물어보며 공통점을 찾으려 한 것 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발견한 공통점은 이 친구들은 자신이 뭘 모르고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추후 조사를 통해 이것이 메타 인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무엇을 왜 하는지 파악하며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메타 인지를 계속해서 적용하며 공부를 한 결과 성적을 크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려움이 닦쳐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Q7: 반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다던데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해줄래요? (입학 사정관)**

A: 2학년 때 삼각 측량법과 코사인 법칙등에 대해 배우며 이를 활용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아닌 정확히 우리반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들어 삼각 측량법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 거리를 구해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궤도 운동을 고려하여 거리를 구할 방법을 떠올리지 못해 달과 지구의 공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속 기울기, 학교의 위도 등을 고려하여 거리를 구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학 2시간에 주기운동을 삼각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지구와 달의 주기운동을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Q7-1: 그럼 3학년 때 주기운동에 대해 배운 후 일반항을 구한 활동은 본인이 스스로 한건가요?**

A: 네 맞습니다. 2학년 때 활동을 본래 의도한 대로 마치지 못해 아쉬움이 늘 남았습니다. 3학년 때 주기운동을 삼각법칙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기존 활동이 떠올랐고 주도적으로 일반항을 구현하였습니다.

**Q8: 왜 창업을 통해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건가요?**

A: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시험 시간에 교무실 출입으로 인해 선생님과 학생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관찰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원들을 모아 아두이노를 통해 학생이 교무실에 출입하기 전 선생님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장치를 만들어 실제로 교무실에 비치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인 선생님과 학생에게 편리를 제공하며 공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장치를 개발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창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여 창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8-1: 교무실에 실제 비치를 하면 선생님의 반대가 있지 않았나요?**

A: 저는 다섯 분의 선생님께 실 사용을 요청드렸으나 두 분의 선생님만 응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선생님께 실사용을 부탁드리고 피드백을 받아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선생님께도 실제 만든 발명품을 보여드리며 설명하였고 이 장치가 가지는 이점을 위주로 설명하여 다른 선생님께도 협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8-2: 잘 작동하고 있나요?**

A: 아직 시험 기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하기에 다시 학교에 돌아가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Q9: 왜 하필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네, 그러세요

A: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엔지니어인 젠슨 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의 롤모델 이기도 한 젠슨 황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새롭게 개발하여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 세상에 새롭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보며 미래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혀 준비를 안 했었기 때문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사례로 들어 대답함)

**Q10: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자기 어필 한번 해보세요.**

A: 저는 문제 분석 능력을 토대로 성적을 향상 시켜본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나가며 어려움을 마주하고 나아가 창업이라는 저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업을 통해 사람들의 삶과 기술을 이어주어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저의 목표의 출발점이 아주대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관: 창업이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아주대학교	학 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첨단융합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기부에 전공 관련 심화 내용이 있으면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내용도 설명할 수 있어야함.</li> <li>휴대폰의 전원을 끈 후에 면접 순서를 알려줬음. 화장실도 한꺼번에 이용하게 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MOSFET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b> A: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말합니다. 생산비가 저렴하고 집적하기에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p> <p><b>Q2: 에칭공정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b> A: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하는 공정으로, 습식 에칭과 건식 에칭으로 나뉩니다. 습식에칭은 액체를 이용하고, 건식 에칭은 기체를 사용합니다.</p> <p><b>Q3: MOSFET은 학교에서 안가르치지 않나? PN접합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b> A: P형과 N형 반도체를 인접하여 결합시킨 구조를 말합니다.</p> <p><b>Q4: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요?</b> A: 14족 원소인 실리콘에 13족 원소인 붕소나 알루미늄을 불순물로 첨가하여 만듭니다.</p> <p><b>Q5: 모듬활동을 하면서 희생했던 경험이 있나요?</b> A: 2학년때 모듬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다툼이 있어서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부분 이외의 내용도 제가 도맡아서 해결하려 노력해 과제를 기간내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p> <p><b>Q6: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봉사활동 말해보세요.</b> A: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교구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연세대학교	학 과	기계공학부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 형 명	추천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총 13분(구상 8분+면접 5분)	면접위원 수	0명(녹화 면접)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후 대기→신분 확인→녹화 면접→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대기실에서 다른 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li> <li>대기 시간동안 준비한 자료는 볼 수 있으며,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li> <li>과탐2 과목의 비중이 커져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을 추천함.</li> <li>(면접자 본인은 물리2, 생명과학2 과목을 수강했는데, 면접에서 화학2 내용이 출제되어 답변을 잘 하지 못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lt;제시문 내용&gt;</b>				
(가): 의자에 앉은 채로 벽을 밀면 의자가 뒤로 밀린다.				
(나): 화학2 내용(배우지 않음) - 흡열/발열 반응 관련, 기체의 압력 상수 구하는 공식				
(다):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정의)				
(라): 생명체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작용				
(마): 항상성 중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				
(바): 화학2 내용(배우지 않음) -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식, $H=1660kJ$				
<b>Q1: 제시문 (가), (나), (다)에 사용된 원리 혹은 자연현상에 대해 구술하시오.</b>				
A: 제시문 (가)는 작용-반작용의 원리, (나)는 흡열/발열의 원리, (다)는 열역학 제1법칙이 사용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가)의 경우, 벽을 밀 때, 의자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고, 같은 힘만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났기에 작용-반작용의 원리가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다)의 경우, $Q=U+W$ 라는 식을 도출해낼 수 있어 열역학 제1법칙이 사용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제시문 (나)는 화학2 내용이라 답변하지 못함.)				
<b>Q2: 제시문 (가), (나)와 제시문 (마)의 차이점을 제시문 (라)를 이용해 구술하시오.</b>				
A: 제시문 (라)의 경우, 효소가 과정에 관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교해보면 제시문 (가)와 (나)의 과정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반면 제시문 (마)는 체온 조절 과정에 효소라는 외부 요소가 작용하는 항상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Q3: 제시문 (바)의 압력상수를 구하고, 수소의 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쳐야 할 조건을 구술하고, 그 조건을 고치시오.</b>				
A: (압력상수는 구하지 못함.) 고쳐야 할 조건은 효소와 같은 도우미 물질의 증가, 그리고 온도의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b>Q4: 제시문 (바)에서 외부로 일을 한 방식을 구술하고, 이때 투입된 열량이 얼마인지 구하시오.</b>				
A: 화학 반응식을 토대로 반응물이 3mol에서 생성물 5mol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l은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3mol에서 5mol이 된 만큼의 일을 외부에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입된 열량은 제시문에서 나온 1660 kJ + 외부에 한 일 $4.2 \times 2 \times x$ 라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연세대학교	<b>학 과</b>	행정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추천형
<b>면접</b>	<b>면접 시간</b>	20분	<b>면접위원 수</b>	조교 1명
<b>면접</b>	<b>면접 절차</b>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신분 확인 → 중간 대기실로 이동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은 클리어 파일에 꽂아서 책상에 테이프로 붙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필기 불가능. 연습장은 클립보드에 꽂혀있고 앞면만 사용 가능.</li> <li>녹화 직전 10초의 대기 시간도 있으니 마지막 10~20초 정도는 어떻게 답변할지 마음 속으로 그려보며 정리하는 것을 추천</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조교가 QR코드를 패드에 인식시키고 테스트 녹화가 시작됨. “인문/사회과학 계열 면접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패드 보면서 말함. 영상과 소리에 이상 없는지 확인 후 조교가 유의할 점을 짚 설명해 줌. 설명이 끝난 후 조교가 패드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패드에 8분의 타이머가 시작됨</p> <p>[8분 제시문 숙지]-[5분 녹화 전 10초 짧게 대기]-[5분 녹화 시작]</p> <p><b>[제시문 내용]</b></p> <p>(가): 공자의 관점. 인과 예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을 중시          (나): 소크라테스의 관점. 정확한 앎을 토대로 법을 준수하는 것을 중시          (다): 공감이란 법 준수의 전제 조건이 됨을 강조          (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법을 집행한 A국가와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법을 집행한 B국가의 살인율, 사생활 침해율을 비교한 막대그래프</p> <p><b>Q1: 법 준수의 전제 조건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관점 비교 분석하시오.</b></p> <p>A1: 공통점 - 법 준수의 요건 제시          차이점 - (가), (나) 인과 예, 공감이라는 인간의 본성적·감정적 측면,          (다) 정확한 앎(지식)이라는 이성적 측면</p> <p><b>Q2: (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 (다)의 법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하시오.</b></p> <p>A2: A국가가 B국가에 비해 살인율 60% 더 낮음, 사생활 침해율은 30% 더 높음. 사생활 침해는 살인과 달리 지식정보기술로부터 비롯된 범죄임. (나)는 정확한 앎(지식)이 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A국가와 유사, (다)는 시민들의 공감에 의해 형성된 여론을 중시하는 B국가와 유사함. 살인을 방지하는 데는 (나)가 효과 성 높지만 사생활 침해 방지는 (나)보다 (다)에서 효과성 높음. 최신의 지식정보기술에 대한 앎의 여부가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범죄와 연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즉 살인은 범죄라는 보편적인 도덕·윤리적 앎이 있어 A국가는 살인율이 낮았으나, 그에 반해 사생활 침해율이 높았던 것은 사생활 침해 범죄는 지식으로부터 법 준수 의무에 대한 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와 달리 (다)처럼 공감이 바탕이 되는 시민 의 여론이 중시되는 B국가는 자신이 사생활 침해의 경계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공감/감정적 반응때문에 사생활 침해율이 더 낮았을 것임.</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우송대학교	<b>학 과</b>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외식창업전공)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면접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5~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자기소개 → 질문 → 답변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자료는 우송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음.</li> <li>▪ 고등학교에서 참여한 모의면접이 도움이 많이 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를 한 후 해당 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해 보세요.</b></p> <p>A: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지원 동기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였음. 중학교 때부터 외식창업에 관심이 있었으며 요리 쪽에 재능이 있어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글로벌외식창업전공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음.</p> <p><b>Q2: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나요?</b></p> <p>A: 학교에서 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중에서 글로벌외식창업전공과 관련한 여러 활동에 대해 말하였으며, 내신 공부를 중심으로 학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답변하였음.</p> <p><b>Q3: 본인의 롤모델을 누구이며,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해 보세요.</b></p> <p>A: 롤모델은 백종원이라고 말하였음. 롤모델의 장점으로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끈기와 도전 정신이라고 말하였고, 단점으로는 그러한 도전 과정에서 당연히 실패한 창업도 있다는 점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하였음.</p> <p><b>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보충하고 싶은 답변이 있다면 말해 보세요.</b></p> <p>A: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말한 다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퇴실하였음. 합격 후 학교생활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하였음.</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학과	유아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실 들어가기 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시간 동안 종이로 된 문서는 볼 수 있으나 전자기기 사용 불가</li> <li>▪ 면접실이 두 곳이라 어느 곳으로 들어갈지 알 수 없으며 면접관이 다름</li> <li>▪ 본인 포함 3명이 면접을 동시에 봄</li> <li>▪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개인정보 말하면 안 됨</li> <li>▪ 수험 번호 따로 안 외워가도 되며 가번호가 주어져서 자기소개할 때는 가번호를 말하면 됨</li> <li>▪ 면접실 문 열자마자 평가가 시작된다고 보면 됨(특히 사소한 행동과 태도)</li> <li>▪ 교수님들 앞에 노트북 하나씩 있고 종이에 계속 필기함</li> <li>▪ 본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답변하기, 이때 유아교육 관련 경험보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나만의 경험을 말하는 게 더 좋음.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유아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다고 강조하심.</li> <li>▪ 창의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음</li> <li>▪ 올라온 기출문제 보고 어느 정도 키워드만 생각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여유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면접관: 네 들어오세요.          나: (면접실 문 열리자마자 조금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자리 옆에 서서 앉지 않고 기다림)          면접관: 네. 자리에 앉으세요.          나: 네.(자리 착석)</p> <p><b>Q1: 블라인드 면접이라 본인 이름, 학교 등 개인정보는 말하면 안 되고 본인 수험번호 먼저 확인할게요. 1-024?</b>          A: (오른쪽 손들면서) 네.</p> <p><b>Q2: 먼저 자기소개 해보세요. 지원 동기가 아니라 본인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지원 동기 아니에요.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세요.</b>          A: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0242024 가번호 1-024입니다. 저의 목소리와 말투를 비롯한 밝고!(오른손으로 파이팅 손동작 하면서) 긍정적인!(왼손으로 파이팅 손동작 하면서) 시너지가 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힘나게 해줍니다. 저 또한 제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가슴에 손 얹으며) 편안해지고 으쌰으쌰(오른손, 왼손 동시에 파이팅 손동작 하면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직은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저의 밝고!(오른손으로 파이팅 손동작 하면서) 긍정적인!(왼손으로 파이팅 손동작 하면서) 시너지가 자라는(손 모으면서) 예쁘고, 멋있고, 소중한 아이들의 중요한 성장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오른손으로 주먹 쥐며) 확신합니다!</p> <p><b>Q3: 네. 이제 수험번호 1-024부터 앞에 있는 뽑기 통에서 질문 하나씩 뽑고 답변하기 전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기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질문지 펼쳐보지 마세요. 질문지 뽑고 가만히 본인 다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자, 수험번호 1-024뽑아보세요.</b>          A: 네. (뽑고 본인 다리 위에 가만히 올려놓음.)</p> <p><b>Q4: 질문 다 뽑았으면 수험번호 1-023부터 자기 질문 읽고 답변하세요. 꼭 유아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어도 좋으니가 편하게 말하세요. (다른 학생 답변 후) 수험번호 1-024? 본인 질문 읽고 답하세요.</b></p>				

A: 네. (질문지 보여주면서) 제 질문은 '여러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본인이 했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아리에서 유아교사를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팀으로 5세~7세, 특히 7세 유아들을 중심으로 '분리수거 잘하기'라는 주제로 모의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Q5: 아니, 유아교육과 관련된 것 말고, 본인이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은 없어요? 유아교육과 관련된 것 말고 정말 본인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 말해보세요.**

A: (당황해서) 음.. 네? 제가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했던 경험이요.. 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호수 공원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 (제대로 말 못 함.)

**Q6: (고개 끄덕이시면서) 네. 그 수험번호 1-023? 추가질문할게요. 본인이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대학교가 아니라 우송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같이 면접 보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질문 하였으나 본인에게는 하지 않고 지나감)**

본인은 질문지를 다리 위에 가만히 올려놨는데 같이 면접 보는 친구들이 계속 질문지 만지작거리고 구기니까 교수님들이 주의하심. 주의하시면서 본인도 쓰으 보셨는데 가만히 올려놓은 것 확인하고 종이에 뭔가 쓰심.

**Q7: 네. 이제 광고 그림을 보여줄 건데 그림 보고 본인 생각 말해보세요. 이번엔 수험번호 1-024부터 말해보세요.(말 끝나고 바로 그림을 보여줌. 그림은 빨간색 물감이 흰 벽에 쏟아져 있는 것 같은 장면임.)**

A: (당황해서) 혹시 지금 바로 답변드리면 되는건가요? 저는 이 광고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빨간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은 ~~~ (말 잘 못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Q8: 음.. 지금 빨간색을 보고 ~~~이 떠올랐다고 했는데 빨간색이 ~~~하다는 답변은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 이 그림이 광고의 한 부분인데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거 뭐 없어요?**

A: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상처가 떠오릅니다.

**Q9: (조금 놀라신 듯 되물음) 상처요?**

A: 네. 그림만 봤을 땐 단순히 빨간색 물감이 흰 도화지에 쏟아져 있는 것 같은 그림이지만 ~~~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때문에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차례로 답변함. 이때도 유아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유아교육과 꼭 안 엮어도 돼. 어려운 말, 멋있는 말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본인 생각 말하라니까.'라고 말하고 답변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하심.

면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지는 나가면서 질문지 통에 다시 넣어주세요. 본인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본인이랑 똑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만났을 땐 우송대 유아교육과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면접 끝났으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면접실 나가기 전 조금 숙이면서) 안녕히 계세요.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학과	작업치료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사전 공개 문항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에서 미리 공개하는 예시 질문 외에 다른 질문들이 나왔다.</li> <li>▪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필요한 질문들이 있어서 평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개성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한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b></p> <p>A: 저를 표현하는 단어는 성실과 진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또한 저는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이 잘 하지 않는 봉사활동이나 역할을 맡아서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을 도왔습니다.</p>				
<p><b>Q2: 본인의 취미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b></p> <p>A: 저는 몸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여 헬스를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먹는것도 좋아하여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하는 맛집을 탐방하는 것을 즐깁니다.</p>				
<p><b>Q3: 본인이 사춘기때는 어떤 학생이였는지 알려주세요.</b></p> <p>A: 제가 사춘기 시절에는 가족에 힘든 일이 많이 닳쳤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시련을 보며 부모님에게 반항하거나 방황하는 대신 좀 더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보기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게되어 어른에게 순종하고 도와드리려 노력하는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원광대학교	<b>학 과</b>	간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생부종합	
<b>면접</b>	<b>면접 시간</b>	기본 6분(추가 2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b>	<b>면접 절차</b>	면접실 총 3실 중 1실에 입실하여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직업의 특성상 출결을 잘 챙겨야 하며 출결 소명내용 준비</li> <li>▪ 대기시간에도 학과의 교육목적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b>				
A: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 2가지로 답변함. 첫번째 키워드는 섬세한 관찰력인데, 친구의 피부가 창백해진 것을 보고 보건실로 데려다 준 일을 언급함. 두 번째 키워드는 리더십인데, 학교에서 간부생활을 해오면서 리더십을 키워나가 중요한 조별과제나 프로젝트 기획이 있을 때 조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던 일화를 제시함.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어릴적에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들에게 받았던 고마움과 친절함에 감동했고 간호사가 되기로 하였음을 발언함.				
<b>Q2: 3년간 출결에 질병결석(5일), 질병지각 및 조퇴(7일) 있는데 그 이유</b>				
A: 허리통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완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함.				
<b>Q3: 빈혈의 원인 및 증상(생기부에 관련내용 존재)</b>				
A: 혈액 중에서 적혈구 또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건강한 사람보다 감소하여 있는 상태이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진행되면 어지러움, 피로감, 쇠약감, 근무력감이 나타난다고 설명함. 전신증상으로는 조금만 운동해도 가슴이 뛰고 숨이 가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손톱 모양이 변하거나 부서지기 쉽고 수저처럼 위로 젖혀지며, 혀 점막이 위축되고 광택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함.				
<b>Q4: 혈액형 A형이 B형에게 수혈할 수 없는 이유(생기부에 관련내용 존재)</b>				
A: 우리 몸에는 적혈구에 항원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하고, 이 항원은 A항원과 B항원으로 두가지로 존재하며 A항원이 있으면 A형, B 원이 있으면 B형, 아무것도 없으면 O형,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B형이라고 설명함. 또한, 우리 몸에는 항원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항체가 존재하는데, 만약 같은 종류의 항원과 항체가 만나면 항원항체 반응으로 혈액이 굳어 사람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서로 다른 혈액형끼리 수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함.				
<b>Q5: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b>				
A: 간호교육목표 교육목표(면접 대기 중 복도에 전시된 것을 암기)인				
1. 교양과 전공지식을 통합하여 전인간호를 제공한다.				
2.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숙련된 간호술을 적용한다.				
3. 간호 및 보건의로 분야의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4. 대상자 및 보건의료인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협력한다.				
5. 법적 윤리적 기준에 근거한 간호전문직관을 수립한다.				
6. 제생의세(濟生醫世)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7. 글로벌 간호사로서 국제화 능력을 함양한다.				
8. 무아봉공(無我奉公)의 정신으로 인류공동체에 봉사한다.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의지를 피력함.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원광대학교	<b>학 과</b>	간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생부종합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6~7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에서 인원체크, 신분확인 → 복도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번이었지만 앞 번호 결시로 첫 번째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결시자 명단 전달이 늦어져 교수님들이 왜 먼저 들어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준비되지 않았던건지 학종 면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부내용은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b>				
A: 저는 정신전문간호사가 되고 싶은 지원자입니다.(정신전문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의료격차를 줄이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전국 8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격차를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대학으로 여기서 배워 목표를 이루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b>Q2: 정신전문간호사에 관심있는 것 같은데 정신전문간호사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				
A: 이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회 임원으로 갈등 상황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면서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b>Q3: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 중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b>				
A: 저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가 형성되는데 진료에 있어서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은 CCTV를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Q3-1: 수술실 CCTV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b>				
A: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될 수 있지만 이는 암호화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에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Q4: 간호사가 가져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				
A: 간호사가 가져야 할 자질은 순간대처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에게 언제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간호사는 이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반장으로 학교축제를 운영하며 전기공급 중단에도 대체공간을 마련해 축제를 마무리한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간호사가 되어 환자분들께도 신속하게 알맞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중 시간이 다 되어 밖에서 신호를 주셔서 마무리하고 퇴실하였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원광대학교	<b>학 과</b>	의예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생부종합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6분씩 2방(2방 다 생기부임. 왜 나눴는지는 모르겠음. )	<b>면접위원 수</b>	2명씩 2방(서로 다른 4명의 교수님들)
	<b>면접 절차</b>	들어가서 인사, 가번호 말하고 면접 보기X2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애초에 자세히 물어볼 생각은 별로 없음. 그러니까 건국대와 달리, 이런 건 핵심만으로 요약해야 됨(왜 했는지, 탐구 내용 등).</li> <li>▪ 말하다가 끊겨도 당황하지 않아도 됨.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니 잘못 말했나? 그런 생각 안해도 됨. + 시간이 다되면 종이 치거나, 노크소리가 들림. 이때는 하던 답변이 종지됨.</li> <li>▪ 면접 준비할 때 탐구보고서 제목들로만 머리에 넣지 말고, 탐구내용으로 기억해야 됨. 질문 형식이 제목을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 개념만 던져주기 때문에 질문을 듣자마자 했던 활동들을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함. (원광대 특징O 보편적 특징X)</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거의 대화느낌으로, 꼬리 질문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질문이 모두 기억나지X )</p> <p><b>Q1: 생기부를 보면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으신 것 같은데, 그럼 굳이 의대로 와야 하는지.. 이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b></p> <p>A: 저는 뇌를 연구하고 뇌질환을 개발하는 임상의학연구자가 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미지의 영역인 뇌를 연구함에 있어서 저는 가능한 다양한 연구도구(tool)를 마련하고자 의학, 데이터 분석, 공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뇌를 연구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의대에 지원하였습니다.</p> <p><b>(꼬리질문 예시 : 그럼 했다고 하는 다양한 분야의 탐구 사례를 말해줄 수 있나요?)</b></p> <p>답변 : 대표적으로 저는 Matlab이라는 프로그래밍 앱을 통해 EEG를 분석하는 탐구활동을 했습니다. )</p> <p><b>Q2: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시넵스와 관련된 탐구도 했을 것 같은데요. 시넵스와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세요. (질문의 의도가 헛갈렸음. 내가 했던 탐구를 보고 묻는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묻는 건지..)</b></p> <p>A: 저는 마약인 펜타닐의 작용기전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펜타닐의 경우 시넵스의 엔도르핀 수용체와 결합하고, 자주 펜타닐에 접하면 인체의 항상성에 의해 엔도르핀 수용체의 수가 감소합니다. 그로 인해 인체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처럼 특정 약물, 신경전달물질의 작용기전에 대해 자세히 안다면, 그 사이 과정과정들에 개입하여 특정 반응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후 생각해보니, 내가 했던 탐구 중에서 딱 하나 시넵스와 관련된 탐구가 있었음. 그것을 묻고자 함이 의도였던 것 같음.이처럼 제목으로 묻지 않고, 카테고리 내용으로 묻기 때문에 안 떠오르면 답하기가 어려움. 내가 답변한 것처럼 추상적으로 말하면 공격받기 딱 좋은 안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함. )</p> <p><b>(꼬리 질문 예시(약간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 혹시 아는 신경전달물질을 모두 말해보시겠어요? 답변이 훨씬 풍부해질 것 같아서요.</b></p> <p>답변 : 도파민,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엔도르핀..지금은 여기까지 기억이 납니다. )</p> <p><b>Q3: 의대증원을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의료사 관련 질문, 생기부에 이런 내용 없음. )</b></p> <p>A: 저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의대에 계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충분히 합리적 사고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특정 진료과, 지역을 기피한다면, 그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처우 개선이나 환경 변화</p>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대생의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기 않습니다.(다른 의대 준비하면서 MMI,시사를 준비해뒀서 쉽게 답변할 수 있었음. )

**Q4: 진학 후 어떻게 학업을 하고 싶은지 3가지 방식, 측면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첫째로는, 저는 대학교 진학 후 의학, 데이터분석, 공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탐구하고 싶고, 졸업 후 임상경험을 쌓으며 전문의를 탄 이후에는 대학원에서 심층적으로 뇌에 대해 연구하며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때 종이 울려서 답변 중지)

**Q5: 알츠하이머의 원인과 관련된 탐구를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말해주세요.**

A: 저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베타아밀로이드와 관련해서 탐구한 경험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츠하이머와 효소'에 대해 탐구한 것이고, 나머지는 '톡소포자충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해 탐구한 것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APP에서 기인하는데, APP를 베타시크리타제와 감마시크리타제가 분해하면, 베타아밀로이드가 생성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알파시크리타제 및 다른 효소가 분해하면, 신경세포에 대한 영양인자가 생깁니다. 이처럼 같은 단백질에 어떤 효소가 작용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기생충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기생충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후, 이를 알츠하이머에 적용하였습니다. 내용은..(시간 관계 상 그만 말해도 된다고 하고, 다음 질문을 진행하심. )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원광대학교	<b>학 과</b>	의예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생부종합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2분(방 2개 각 6분)	<b>면접위원 수</b>	각 방 2명씩
	<b>면접 절차</b>	1번 방 들어가고 그 다음 2번 방 들어감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위주 면접이므로 생기부를 암기+더 심화된 내용까지 탐구하고 가면 좋음.</li> <li>▪ 면접 시간이 끝날 때 째 문을 두들기나,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하던 말을 하면 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1번방</p> <p><b>Q1: 동아리를 공학 동아리와 화학 실험 동아리를 했는데,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동아리명과 그 이유는?</b>  A: 저는 두 동아리 모두 좋았지만, 특히 화학 실험 동아리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동아리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하기 힘든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교과서 속 화학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p> <p><b>Q2: 동아리에서 물 정화 실험을 했는데 설명해 볼래요?</b>  A: 제가 한 물 정화 실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껍질 그리고 썩임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p> <p><b>Q3: 그러한 재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b>  A: 과일 껍질이나 식물의 잎과 같은 경우 킬레이트라고 하여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착화합물을 만드는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p> <p><b>Q4: 선천성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설명해볼래요?</b>  A: 생1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 다 말함</p> <p>2번방</p> <p><b>Q1: 왜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나요? 그리고 자신이 의사가 된다면 가고 싶은 과를 말하고 그 이유도 말해주세요(1번방 공통 질문).</b>  A: 저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책을 읽고 선천성 조로증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아름다움을 보면서 삶 그리고 인생의 소중함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매력을 가지게 되었고,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의사가 된다면 감염내과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보디시피 평소 감기나 독감, 비염에 자주 걸리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왜 그리고 어떻게 병에 걸리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감염내과 의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p> <p><b>Q2: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b>  A: 저는 물 정화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과일껍질과 식물의 잎을 사용하여 중금속에 오염되어있는 물을 정화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p> <p><b>Q3: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병의 차이점을 설명해볼래요?</b>  A: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병의 발생기전 그리고 그 증상을 들어 차이점을 설명함)</p> <p><b>Q4: DNA 추출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인 에탄올, 계면활성제, 소금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b>  A: 계면활성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세포벽, 세포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탄올은...(시간 지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원광대학교	학과	의예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 시간	6분씩 2번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기출에서 나온 질문이 다시 나오기도 하니 면접 전에 수시 아카이브 꼭 들어가 보세요.</li> <li>대기시간 동안 전자기기는 사용 못 함. 자료 다 프린트해서 가세요.</li> <li>병결 지각/결석 이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li> <li>전공 관련 시사 정리해서 가세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1번째 방				
<b>Q1: 긴장 많이 되죠? 심호흡 한 번 하고, 출결 보면 병결 지각이 좀 있네요. 이유가 있나요?</b>				
A: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목과 어깨 쪽 근육통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잠을 잘못 자고 일어나면 담이 걸려서 목이 아예 안 움직일 때가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느라 늦었습니다.				
<b>Q2: 학급 임원을 2년간 맡았네요. 하려면 바빴을 텐데 성적도 좋네. 자신이 했던 활동들 있으면 말해주세요?</b>				
A: 저는 2학년 부반장 때 좋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이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뒤의 게시판에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멘토-멘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기 말에는 2학년 선생님들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학급 분위기가 가장 좋은 반이 됐습니다.				
<b>Q3: 기사 스크랩이면 친구들도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었을 텐데 친구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거나 의견을 수렴했던 경험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실제 질문과 다를 수 있음)</b>				
A: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반 친구들이 다들 내향적인 성격이라 의견을 안 내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의견을 받으려고 친구들 한 명 한 명마다 직접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b>Q4: (위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 다시 설명)</b>				
A: (질문 의도 잘 파악하지 못해 잠깐 망설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함)				
<b>Q5: 신경과 전문의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요?</b>				
A: 차세대 글로벌 바이오 캠프에 참가해서 한 교수님께서 하시는 신경과학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를 조작했을 때 섭식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연구였는데, 이때 모호한 줄로만 알았던 인간의 행동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데에 큰 흥미를 느껴 신경과 전문의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6분 다 돼서 다음 방으로 넘어감)				
2번째 방				
<b>Q1: 첫 번째 방에서는 대답 잘 했어요?</b>				
A: 생각했던 것 보다는 잘 못했습니다.				
<b>Q2: 동아리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b>				
A: 네, 저는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오징어 해부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실험에서 오징어의 거대 축삭을 찾아보려 했고, 비록 실패했지만 이와 관련한 추후 활동으로 호지킨과 혁슬리의 실험, 그리고 이에 사용된 막전압 고정법까지 심화 탐구하여 제 관심 분야인 신경과학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b>Q3: 시신경 척수염의 발병기전과 치료법을 탐구했는데,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b>				

A: 시신경 척수염은 NMO-IgG 항체가 혈뇌 장벽을 통과하여 중추신경계에 도달한 뒤, 수분 통로 단백질인 아쿠아포린-4에 결합하면 별아교세포가 활성화되어 신경이 파괴되는 식으로 발병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법은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재발 방지 치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기 치료에는 정맥 내 스테로이드 투여, 혈장 교환술이 시행되고, 만성기 방지 치료에는 약물 치료, 특히 에콜리주맙을 사용합니다.

**Q4: 신경과 전문의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번 방과 동일하게 대답.

**Q5: 과학책, 의료계 책을 주로 읽었는데, 혹시 과학 말고 인문학책 중 기억에 남는 것도 있나요? (과거 기출)**

A: 제가 고전과 윤리 수업을 수강했는데, 이때 논어를 발췌독한 적이 있습니다.

**Q6: 논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A: 수업 시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읽는 식으로 해서 괜찮았습니다.

**Q7: 그럼 논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수기안인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기안인이란 자기 자신을 닮아 백성, 즉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의 능력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저는 이런 사회일수록 높은 덕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기안인은 현대사회의 모두가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했습니다.

**Q8: 지금 필수 의료가 부족한 상황인데, 신경과도 마찬가지로 필수 과여서 나중에 고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의대 수 증원을 해결책으로 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부족한 의견이겠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대 수 증원을 논하기 전에 필수과의 수가를 높이고, 필수과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9: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자신이 맡은 환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말하려다 6분 다 돼서 퇴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을지대학교	학과	식품산업외식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E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오후1시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생기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기부 분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li> <li>모의면접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모의면접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뒤 잘못된 습관은 고쳐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li> <li>아무리 모의면접을 많이 해도 막상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관님들을 마주보게 되면 말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들어가기전에 심호흡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b> A:</p> <p><b>Q2: 계속 환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b> A: UN지속가능발전계획을 탐구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서 12번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식품분야가 온실 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먹을 수 있는 전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식품분야에서 식량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p> <p><b>Q3: 우리 학교 교과목 중에 듣고 싶은 교과목은 무엇인가요?</b> A:식품마케터가 되고 싶기 때문에 외식마케팅을 이수하고 싶습니다.</p> <p><b>Q4: 식품공학과 미생물등 마케팅 외에 식품 관련 교과목도 들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b> A: 외식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 관련 과목을 이수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품공학이나 미생물 또한 이수할 의향이 있습니다.</p> <p><b>Q5: 그럼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b> A: 장점은 일을 진행할 때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쓰면서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될 일을 미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 될 일들 리스트로 만들어 하나하나 체크하며 생활을 하고 있어요.</p> <p><b>Q6: 2학년때 성적이 너무 좋아졌네요. 선생님들의 능력이 갑자기 좋아졌나요???</b> A: 1학년때는 외식조리를 희망했지만 2학년때 외식마케터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p> <p><b>Q7: 혹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b> A: 제 경험담인데 2학년때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3학년때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을지대학교	<b>학 과</b>	간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EU자기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에서 자신의 번호가 적힌 팔지를 배부함</li> <li>▪ 이 학교는 블라인드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봉사활동이나 수상실적 등을 절대 말하면 안 됨. 그래서 자기소개도 시키지 않음</li> <li>▪ 자신이 지원한 학교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원동기나 다른 질문에 얽어 대답하기</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을지대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대해 말해주세요.</b>				
<p>A: 저는 환자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는 호스피스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고등학교 3학년 때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읽으며 죽음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임종을 앞둔 이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인 죽음의 5단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든 환자들이 마지막 단계인 수용까지 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자들이 수용의 단계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스피스 간호사로서의 저의 꿈과 을지대학교 교육이념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을지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 보건의료인 양성입니다. 호스피스간호사는 죽음이라는 극한에 몰린 환자들을 간호하는 사람이기에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헬스케어를 넘어 휴먼케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을지대학교에서 저의 꿈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b>Q2: 행동특성에 1학년 때 코로나 시기에 알맞은 반장공약을 냈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공약들이었고, 이행을 하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였나요?</b>				
<p>A: 코로나 시기였기에 개인컵을 사용해야 했어서 컵을 안가져온 친구들을 위해 종이컵을 구비해놓고, 마스크가 찢찢할 때 교체할 수 있게 일회용마스크도 구비해 놓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은 많이 구비해 놓아도 생각보다 빨리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저희반이 아닌 다른 반 친구들도 저희반 종이컵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저희반 종이컵을 쓰는 몇몇 친구들에게 저희반 종이컵을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자 반의 반장과 부반장에게 종이컵을 구비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며 극복하였습니다.</p>				
<b>Q3: 1학년때 동아리로 천체관측을 선택했는데 이유가 있나요?</b>				
<p>A: 고등학교에 올라오며 과학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크게 생겼습니다. 진로를 간호사로 결정하며 생명과 화학은 심화탐구나 진로와 관련해서 탐구하며 많이 공부할 수 있고, 간호학과에 진학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때에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생명과 화학이 아닌 다른 과학과목에 대해서도 교양을 쌓아보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p>				
<b>Q4: 과학말고 간호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b>				
<p>A: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에 진학하면 의학서적이거나, 의학용어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있기에 영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영어에 자신있고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을지대의 HUMAN인재 인증제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p>				
<b>Q5: 1학년 때 진로로 구급대원과 간호사 모두 생각한 것 같은데 간호사로 꿈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b>				
<p>A: 처음엔 구급대원과 간호사 모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직업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탐구해가며 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도와주고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간호사로 꿈을 정했습니다.</p>				



**Q6: 마지막을 하고 싶은 말은?**

A: 저는 평소에 수업 중 분위기도 밝게 만들고 호응도 잘하는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을지대학교 간호학과의 일원이 된다면 교수님들께서 들어오시는 수업의 분위기도 잘 형성하고 호응도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이화여자대학교	<b>학 과</b>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자연)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고교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5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로 진행하였는데 편안한 분위기였음</li> <li>▪ 교수님들이 미소를 많이 지어주셨지만 한 분은 계속 무표정이셨음</li> <li>▪ 생기부 집중 기반 질문이 아닌 기본적인 질문이 많았음</li> <li>▪ 꼬리질문 없었음</li> <li>▪ 마지막에 대답하던 중 시간이 다 되었지만 이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학생의 어떠한 점이 우리 과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나요?</b>          A: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등교하고 쉬는시간 등 남들이 쉬고싶어할때 자투리 시간을 아껴쓰며 공부했습니다.</p> <p><b>Q2: 동아리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b>          A: 영어동아리 "에이블"에서 하부르타 토론을 했던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과 "경쟁보다는 협력에 중점을"이라는 주제로 찬반을 나누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p> <p><b>Q3: 나중에 이 과에 들어오면 뭘 하고싶나요?</b>          A: 저는 건축공학에서 관심분야가 많기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학과공부를 열심히 해서 건축공학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싶습니다.그리고 저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p> <p><b>Q4: 미래의 건축 모습은 어떨것같나요?</b>          A: AI가 건축분야에 더 깊숙하게 들어올것 같습니다. 고령화처럼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시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빅데이터화해서 도시 설계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있을겁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이화여자대학교	학 과	경영학부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 형 명	고교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6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 시간이 되면 2명씩 불러 복도에서 대기 후 1명씩 면접실에 입실하여 면접 진행		
면접 특징 [후배조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전형 면접이기 때문에 세특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지원동기나 자기소개 부분을 잘 준비해 꼬리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li> <li>면접을 볼 때 긴장되더라도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면접 위원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b>				
A: 안녕하세요. 저는 불평등이 해소된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미래의 공인회계사입니다. 원래는 통번역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1학년 때 브라질의 경제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분석하며 복합적인 이유가 나타나고 전세계적 흐름이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경제와 경영 분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정한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회계사의 하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회계사가 단순히 회계업무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업무를 맡기도 하고 경영 자문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계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어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굳이 회계사를 선택한 이유? (꼬리질문)</b>				
A: 회계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경제적 안정' 때문입니다. 저는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직업인 회계사를 선택하여 그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b>Q3: 만약 공인회계사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꼬리질문)</b>				
A: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진로가 변경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라는 저의 진로가 대학 생활 중에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진로가 바뀐다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저의 길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b>Q4: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다면?</b>				
A: 저는 '나만의 학습지'를 만들어 암기과목에서 활용하였습니다. 나만의 학습지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학습지를 만들어 빈칸을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세세한 부분을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b>Q5: 나만의 학습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꼬리질문)</b>				
A: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나만의 학습지'를 만들어 공부해보라는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 저에게 맞는 형식으로 나만의 학습지를 만들어 공부하였습니다.				
<b>Q6: 드로잉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예술과 경영의 연결 관계가 있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짧게)</b>				
A: 드로잉과 관련해 예술은 경영 분야에서 마케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이화여자대학교	<b>학 과</b>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	
<b>전형유형</b>	실기/실적	<b>전 형 명</b>	국제학특기자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5-6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입실 → 안내 및 금속탐지기 검사 → 대기 → 순번대로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위원 3명 중 한 명은 외국인, 두 명은 한국인 면접위원임.</li> <li>▪ 뚜껑 있는 음료만 마실 수 있음</li> <li>▪ 화장실 갈 때마다 금속탐지기로 검사함</li> <li>▪ 순서가 뒷번호면 대기 시간이 엄청 길 수 있음. 입을 자료 꼭 챙겨가기</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Thank you for coming to see us today. Can you tell us why you applied for our university? (지원동기)</b></p> <p>A: I am a student who wants to become a researcher in the international studies expertise. Studying international issues in high school, I was deeply concerned of the many international disputes happening around the world, and felt that I really wanted to be a part of resolving them. I thought that the most critical thing when resolving disputes was to analyze why they had happened, so that we could diagnose a more detailed, accurate cause and prevent the same conflict from being repeated. This led me to think that insight into how people think and behave would be an important prerequisite. This is why I think humanities is important i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d I observed that Ewha had many programs such as '학문 간 담 낮추기' and a culture exchange program named HCAP that will benefit me to access divergent cultures and expertises. Through learning and experiencing at Ewha university, I hope to grow into a global leader who is ready to serve.</p>				
<p><b>Q2: I saw that you did an activity on Vegetarian day. Can you tell us more of what this activity was and what meaning it was to you? (활동보고서 질문)</b></p> <p>A: In this activity, I listened to webinars from environmental activists about how our diets could affect the climate. We also submitted a video about how to introduce vegetarian day to schools. I think that a keyword for vegetarianism is 'misunderstanding' because people tend to mistake that vegetarians only eat vegetables. But though this activity I learnt that there are many kinds of vegetarians including pescovegetarians, and lactovegetarians. The correcting of this misunderstanding will help introduce vegetarian day to schools and help to co-exist with the environment.</p>				
<p><b>Q3: You have done an activity on Australian Indigenous people. Recently, the population of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are increasing in Korea. How does Korea need to act in this situation? Do we need to assimilate these diverse cultures? (활동보고서 질문)</b></p> <p>A: From my research, I compared Australia and Canada because I the colonization history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very similar, yet the atmospher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reating indigenous people are very different. I thought that they were different because Canada recognized the indigenous people while Australia didn't. Both supported the indigenous people financially, but Canada also had policies that actively acknowledged the indigenous. For example, they have an indigenous people's day that introduces the music, food and cultures of the indigenous people. I think that this is the main reason that the two countries differ, and based on this, to prevent future conflicts, Korea must also find a way to not assimilate, but to acknowledge people of different cultures.</p>				
<p><b>Q4: What are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인성질문)</b></p> <p>A: My strengths are ~ (준비한대로). My weaknesses are ~ (준비한대로).</p>				
<p><b>Q5: You may leave.</b></p> <p>A: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ttentive listening.</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이화여자대학교	학 과	사회과교육과(역사교육전공)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 형 명	고교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6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생기부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질문이 생기부 내용 질문</li> <li>학과의 공통질문이 생기부랑 엮어서 나온 것 같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동아리 활동에서 교육 철학에 대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교사만의 확고한 교육 철학은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b></p> <p>A: 교사의 교육 철학은 자신의 수업을 구상하고 설계할 때 사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자신의 주관적인 교육 철학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않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며 노력해야 한다.</p>				
<p><b>Q2: 3학년 공동교육과정 라이벌과 논쟁으로 보는 역사에서 역사 왜곡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맞나요?</b></p> <p>A: 네</p>				
<p><b>Q3: 그러면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룬 활동에서 무엇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b></p> <p>A: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 왜곡에 대해 다루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개입설, 무장폭동설이라는 역사왜곡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토론했다. 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다. 그 책에서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는 역사가의 현재 인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이 역사왜곡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하면서 역사를 이해할 때는 끊임없는 심문과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이화여자대학교	<b>학 과</b>	수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고교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5분 30초~6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입실 → 주의사항 및 안내 사항 전달 → 소지품 제출 → 신분 확인 및 가번호 배부 → 면접실 앞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대기 장소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는 꼭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li> <li>▪ 면접 순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진행 됩니다.</li> <li>▪ 생기부 안에서의 질문 보다는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으니, 대학교에 대한 조사와 대학 진학 후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은?</b>				
A: 먼저 차이점은 미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에 대해 공부하던 중, 학교 선생님께서 대학교에서는 극한에 대해 새롭게 정의한다고 하신 말씀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에 와서 미적분학을 새롭게 배운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은 수학적 구조로 되어 있어 전 단계를 학습한 후 다음단계로 나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와서 대학 수학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Q2: 1학년에 비해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b>				
A: 저는 오답노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내신의 특성상 작은 실수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틀렸던 유형을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만의 코멘트를 달고 복습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2학년 때 처음으로 수학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b>Q3: 사람들은 수학을 대부분 응용수학과 순수 수학으로 나누는데 어느 것을 더 공부하고 싶나요?</b>				
A: 저는 고등학교에서 RSA 암호에 대해 탐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RSA암호는 정수론이란 순수 수학이 일상생활에 응용되어 적용되는 사례여서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순수 수학을 사용하지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암호론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화여대 수학과에 진학한다면 이화수리과학 연구소에 들어가 암호론 연구실에서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b>Q4: 대학에 진학한다면 자신이 수학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b>				
A: 네. 저는 수학에 있어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끈기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해보고 탐구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수학적으로 저를 성장 시켰으며 대학에 온다면 장점으로 발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수학과에서 수학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b>Q5: 지원자는 성적이 고루고루 좋은데 대학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순 없거든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 하실 건가요?</b>				
A: 먼저 선택의 어려움은 멘토/멘티 제도를 활용하여 극복할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벅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께 찾아가 조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 할 것입니다. 수학 공부에 대한 문제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댄다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유아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고교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6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포스코관 입실 → 본인확인 → 접수 번호 순으로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에서 책상에 면접자료, 물 외엔 간식도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li> <li>▪ 포스코관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기니 입실 30분 전에 미리 올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li> <li>▪ 교수님들께서 생각보다 생기부를 꼼꼼하게 읽어보십니다(자동봉진-세탁 순으로 준비하세요).</li> <li>▪ 면접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일부러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i> <li>▪ 면접 전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수님 얼굴을 미리 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li> <li>▪ 이대는 애교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니 '왜 꼭 이화여대여야 하는지', '이화여대만의 장점', 그리고 '자신이 글로벌 여성리더라는 점'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성적이 무척 많이 올랐는데, 그 비법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겠어요?</b></p> <p>A: 고등학교 초반에는 공부에 대한 열의는 있지만,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목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 방법을 모색했고, 친구와 서로 가르치는 방법이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서로 교과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첫번째로 친구에게 설명하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를 파악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잘 몰랐던 부분을 친구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성장 속도는 느려도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극적인 상승곡선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p>				
<p><b>Q2: 3학년 화법과 작문 시간에 자신의 진로, 학업계획, 진로를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발표했다고 적혀있는데, 저희에게도 말해줄 수 있나요?</b></p> <p>A: 네, 우선 지원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유치원을 세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유아부 교사를 5년동안 해오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영유아시기의 교육이 정말 중요함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의 아이들을 직접 사랑으로 가르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싶다는 소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서, 중국과 북한 등 개발도상국의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발을 내딛을 것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화의 비전이 제 꿈과 딱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가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학교라는 확신이 들어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전에는 글로벌 리더로서 꼭 필요한 영어 스피킹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오픽 시험에서 AL레벨을 취득하겠습니다. 1학년과 2학년 때는 유아교육 전공 기초를 다지는 데 매진하고, 3학년 때는 핀란드 교환학생을 떠나고 싶습니다. 교환학생을 떠나 4학년 때는 실습을 나가 예비교사로서 현장 경험을 쌓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교육봉사를 나가겠습니다.</p>				
<p><b>Q3: 이렇게 학업 계획이 구체적인 학생은 처음이네요 하하(다같이 웃음). 생기부 중에 세계시민동화책 내용이 있던데 설명해줄래요?</b></p> <p>A: 아 네... 세계시민교육 동화책은...(너무 긴장해서 분명 준비한 내용인데도 생각이 안 남.) 혹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천천히 준비 하라고 하심)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영유아시기의 아이들에게도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세계시민교육의 역량 중 공감의 측면을 강조해야한다고 생각해 동화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살고 있는 아이인 사라와, 선진국에 사는 아이인 사라를 비교함으로써 아이들이 전쟁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연대할 수 있는 내용의 동화책을 구상했습니다.</p>				

**Q4: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했는데, 주일학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A: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라 완전 당황함) 어... 아무래도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만 만나다 보니 아이들과 깊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저번 주에는 잘 놀다가도,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어색하다고 우는 모습을 보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Q5: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A: (해결방안도 물어보셔서 더 당황) 음... 주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부모님과 연락을 하는 등 가정과의 상호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머 울림>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이화여자대학교	학 과	통계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 형 명	고교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약 6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 주의사항 안내 → 신분확인 및 번호표 배부 → (안내자 인솔) 면접실 앞 대기석 이동 → (접수순으로) 면접실 이동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 시간동안 대기실에서 면접 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음. 단, 핸드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는 제출해야 함.</li> <li>▪ 면접이 비교적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음. 어떤 면접관님께서도 친절하셨지만 어떤 분께서는 노트북만 보시고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등 멘탈에 영향이 갈만한 행동을 하셨는데 이때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본인의 경우 약간 흔들렸지만 동네 아저씨가 몇 가지 물어보신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음)</li> <li>▪ 일반적인 질문(난이도가 낮은 질문)을 하신 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꼬리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됨.</li> <li>▪ 본인의 경우 대답 안에서 질문을 하는 꼬리질문을 몇 가지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면접에서 최대한 긴장을 풀고 면접관님께서 하시는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li> <li>▪ 답변 도중에 타이머가 울릴 수 있음. 저같은 경우에는 당황해서 하던 답변을 급하게 마무리지었는데 여러분은 타이머가 울려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li> </ul>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b>Q1: 자원동기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b>  A: 네. 제가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이화여대 통계학과만의 매력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화여대 통계학과는 자연과학계열에 설치되어있어 수리통계와 이론통계에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고등학교 3년동안 교육위주로 탐구를 해왔기 때문에 대학진학 후에는 통계 이론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 이화여대 통계학과와 이러한 특성이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통계학에 관심이 생긴후 관련 강의들을 찾아다니다 K-MOOK '교육데이터 분석' 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제 진로가 교육사회통계학자인 만큼 이 강의를 듣고 매우 ~했고 이 강의를 하신 교수님께서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님이시라는것을 알고 꼭 이화여대 통계학과에 진학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대충 강의(K-MOOK '교육데이터 분석')에 대한 질문을 하심.</b>  A: 저같은 경우에는 인상깊게 남았던 내용으로 어쩌구 저쩌구 강의 내용 중 회귀분석에 대한 내용을 답변함.</p> <p><b>Q3: 수학과제탐구, 심화수학 등과 같이 수학과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들었다고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배웠나요?</b>  A: 수학과제탐구 과목과 심화수학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하고 심화수학에서 지수형 개체군 성장곡선과 로지스틱형 개체군 성장곡선에 대한 활동 했던 경험을 한 가지 더 답변함.  (중간에 질문을 몇가지 더 하셨는데 이때 반쯤 하품하셨던 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음)</p> <p><b>Q4: 대학 진학 후의 진로계획?</b>  A: 우선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면 학부 중에는 통계관련 책을 많이 읽고, 각종 봉사활동을 해보는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어쩌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그린워싱 기업들의 현황과 그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ESG경영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환경 보호와 관련이 없는 제품을 허위로 광고하는 등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들이</p>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린워싱 기업들의 현황과 그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탐구경험을 쌓은 이후 학과를 졸업하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제가 관심있는 분야와 연계하여 통계학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데, 현재는 교육사회통계학 쪽으로 생각중입니다. 대학원에서는 교육사회통계학에 매진하여 연구활동을 하며 교육사회통계학자로서 실력을 쌓으려고 계획중이며, 대학원 졸업 이후에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같은 국제적인 통계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사회통계학에 한 획을 그어 세상 공헌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줄을 그어놓은 부분: 말하는 도중에 타이머가 울려서 말하지 못한 내용)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화공신소재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고교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5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기실 → 면접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적으로 온화한 분위기 (친절하게 질문하시고 대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심)</li> <li>▪ 개인 생기부 관련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진로, 학과에 대해 물어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이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b>  A: 화공신소재공학과에서는 기초 물리, 신소재 화학에 대해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유기화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화합물의 반응 메커니즘, 구조나 성질 등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워보고 싶습니다.</p> <p><b>Q2: 유기화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관련된 과목이 있을까요?</b>  A: 화학1 과목에서 처음 부분에서 탄소 화합물의 구조나 성질들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시를 배우는데, 이 과정에서 실생활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p> <p><b>Q3: 1학년 때 약사 관련된 내용이 있다가 2학년 때부터 화학이나, 제약 쪽을 희망하는 것으로 넘어왔는데, 약사와 화학 연구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  A: 약사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약을 제조하는 일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저는 신약개발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직접 신약 후보물질을 발견하고, 치료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p> <p><b>Q4: 제약 연구원이 되려면 순수 화학이나 제약학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왜 이 과에 지원하였나요?</b>  A: 약에는 다양한 제형이 존재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전자약에 대해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약은 물리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저는 순수 화학이나 제약학과 보다는 화공신소재공학과에서 다양한 학문을 융합적으로 배워나가 이를 활용하여 치료제를 만들고 싶습니다.</p> <p><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b>  A: 고등학교에서는 저의 화학적 물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좋은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이화여자대학교	<b>학 과</b>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고교추천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6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대기 → 순서가 되면 방 앞에서 대기 → 입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 약 60명을 수험번호 순서대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1팀과 2팀 동시에 면접을 진행함. (대략 60명 중에 9번은 1팀 9번, 32번은 2팀 2번)</li> <li>▪ 1팀의 경우 세특 내용보다는 미적분 교과 관련 질문 위주였음.</li> <li>▪ 2팀의 경우 세특 내용으로만 질문했다는 얘기를 들음.</li> <li>▪ 세특 내용을 간결하게 말할 수 있도록 키워드 위주로 준비하는 것 추천함.</li> <li>▪ 간단하게 미적분이나 관련 교과 내용도 복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 동기를 간단하게 말해주세요.</b></p> <p>A: 예전에 아팠던 경험을 통해 맞춤 의약품을 위한 약물 유전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 탐구 활동을 고등학교에서 함.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와 3가지 트랙 중 융합기계공학, 의생명공학, 바이오데이터공학 중 바이오데이터공학 트랙에 관심을 가져 지원함.</p>				
<p><b>Q2: 미적분에서 적분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하심)</b></p> <p>A: 적분을 통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림.</p>				
<p><b>Q3: 미적분을 통해 그래프의 극댓값과 극솟값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b></p> <p>A: 미분한 그래프의 y값이 0이 되는 x값에서 극댓값 또는 극솟값을 갖고 원그래프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극댓값을 갖는지 극솟값을 갖는지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림.</p>				
<p><b>Q4: 3학년 화학II 세특에서 르샤틀리에 원리를 산업 현장에서 이용하는 사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b></p> <p>A: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해서 아스피린 합성의 수득률을 높이는 반응 조건을 밝히고 무수물이 사용되는 이유를 발표한 활동을 했고, 반응 물질의 압력, 온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물질을 다량으로 얻는 산업 현장에서 르샤틀리에 원리가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함. 르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해서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추가로 설명함.</p>				
<p>*6분 타이머 울림</p>				
<p><b>Q5: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b></p> <p>A: 맞춤 의약품을 연구하기 위한 포부와 이화여대 인재상을 융합하여 말씀드림.</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천대학교	학과	문헌정보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복도에서 대기 후 면접실로 입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꼭 읽고 또 읽어라. 생기부를 외운 못해도 어떤 질문이든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li> <li>▪ 각 대학교에 가고자하는 이유를 꼭 준비해라</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밥은 먹고 왔어요?”의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p> <p><b>Q1: 그럼 처음이니 가볍게 공통 질문 던져볼게요. 인천대를 오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b> A: 네? 아 냐. 인천대학교의 커리큘럼에서 빅데이터의 설계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꼭 배우고 싶습니다.</p> <p><b>Q2: 근데 그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b> A: 아.....</p> <p><b>Q3: 네, 그러면 기억나는 동아리 활동이 있으신가요?</b> A: 네. 저는 1,2학년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책의 날 때 제가 기획했던 활동인 도서관 속의 보물찾기 활동이 기억납니다. 저는 학생들이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원했기에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 활동은~활동이었고요. 이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에 참여한 책을 대출해가는 것을 확인한 결과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p> <p><b>Q4: 미래에 도서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b> A: 네, 현재의 도서관은 장서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형성되어있고 이용자가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장서의 비중이 감소하고 필수적인 서적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e-book이 많이 발전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e-book은 발전될 것이므로 이를 읽기 위한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들이 비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e-book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취향을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므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맞는 책을 추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ar, vr 기기들이 발전되고 있으므로 기기를 사용하여 집에서 현실감 있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p> <p><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없나요?</b> A: 네 저는 문헌정보학과를 나와 앞으로의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인하대학교	<b>학 과</b>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인하미래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8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자기소개 → 학생부 질문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절하십니다.</li> <li>▪ 모의 면접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li> <li>▪ 생기부 면접 전에 최소 6번은 정독하는게 편합니다.</li> <li>▪ 마음 편하게 가지고 면접을 가는 연습을 하면 더 편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학교에서 면접 관련해서 해준다고 하는 활동들에 모두 참여 하시는게 편하고 안정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매우 많이 됩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해주세요. (입학사정관)</b>				
A: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게임을 좋아하여 게임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게임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개발 분야와 컴퓨터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미래 사회를 창조적으로 선도할 수 게임 개발자로서 성장하고자 저의 과학적 기초와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저의 장점인 도전정신과 끈기와 함께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b>Q2: 건축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게임개발자로 전향하게된 계기가 있나요? (입학사정관)</b>				
A: 1학년 때 정보 시간에 처음으로 코딩에 대해 배우고 코딩을 직접하며 제가 코딩을 좋아하고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개발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임개발자로 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건축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가 게임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멋진 건축물들 때문인데 게임개발자가 된다면 이런 매체들 속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Q3: 그럼 직접 게임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나요? (입학사정관)</b>				
A: 3학년 전공트래킹 활동에서 혼자서 게임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니티 3D엔진을 이용하여 쿼터뷰 액션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스테이지 형식의 게임으로 각 스테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장비를 구입하고 정비하는 거점형식도 구현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게임을 제작하는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b>Q4: 디자인적 사고를 따로 생각해본적 있나요? (교수님)</b>				
A: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5초 뒤에 교수님) 이걸 가지고 점수에 반영을 할건 아니고요. 학생이 생각해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b>Q5: 그럼 디자인적 사고를 이용해 활동해본 경험이 있을까요?(교수님)</b>				
A: 2학년 정보 과학 시간에 친구와 같이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기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내부 하드웨어와 조작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 3가지를 모두 고려해 제가 생각한 최고의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b>Q6: 시간이 다 되어서 (아마 8분 때에 벨이 울렸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b>				
A: 저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학과에서는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팀장을 맡아 팀을 이끌거나 팀원들끼리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에서 팀을 이뤄 진행하는 활동이나 실습 과정에서 제 능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하대학교		학과	식품영양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인하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 면접실 앞 대기 → 면접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심.</li> <li>▪ 전자기기는 대기실 내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면접 자료는 볼 수 있음.</li> <li>▪ 자기소개 없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친한 친구에게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따끔한 조언도 해주는 어른스러운 면도 있다고 써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면모를 보이셨나요?</b></p> <p>A: 반 친구들과 함께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한 학교 뒤뜰을 같이 꾸렸는데 이때 추운 날씨에 부반장만 일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합 활동은 모두가 함께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친구들에게 부반장만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친구들에게 따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p>					
<p><b>Q2: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았는데..</b></p> <p>A: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긍하며 같이 일을 했지만 일부 친구들이 기분 나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어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웃으며 장난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p>					
<p><b>Q3: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신가요?</b></p> <p>A: 네!</p>					
<p><b>Q4: 언제 이 학과를 오겠다고 생각했어요?</b></p> <p>A: 저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결정했습니다. (침묵 후 지원 동기 말할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2학년 때 미생물과 관련한 탐구를 많이 진행하였고, 탐구를 진행하면서 미생물과 식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식품 개발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 3학년때 발효와 미생물과 관련된 실험으로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식품에 흥미를 느껴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개발하는 식품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p>					
<p><b>Q5: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 생각해둔 거 있어요?</b></p> <p>A: 친구들과 함께 건두부를 깔고 그 위에 치즈와 파프리카와 같은 채소를 올려 건강한 피자를 만든 경험이 있는데 이를 더욱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b>Q6: 화법과 작문 시간에 제로슈가에 대해 탐구했는데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b></p> <p>A: 화법과 작문 발표를 준비하면서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서 발표 준비 하기 전 주에 WHO가 제로 슈가에 대한 권고지침을 발표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p>					
<p><b>Q7: 평소에 뉴스 기사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세요?</b></p> <p>A: 네!</p>					
<p><b>Q8: 식탁 위의 과학, 분자요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화학과 관련한 어떤 전공 지식을 배우셨나요?</b></p> <p>A: 저는 책을 통해 총 3가지의 식품과 화학의 반응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p>					

결합수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은 자유수가 있으며 결합수는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어렵지만 자유수는 미생물이 결합하기 쉬우므로 식품 개발 시 자유수와 결합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질입니다. 당질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으며 단당류는 조리에 의해 변하는 입자이므로 바로 먹으면 단맛이 나지 않지만 다당류와 이당류는 바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속에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육류나 생선을 구우면 단단해지는 현상, 우유와 요구르트를 만드는 과정 모두 단백질 구조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Q9: 화학을 적용해서 어떤 연구를 해보고싶어요?**

A: 화학을 통해서요,,? 아! 저는 발암물질 없는 식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Q10: 영양사 선생님과 식단 짜기 활동을 김치나 멸치 조림이 버려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식단을 여러 번 교체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걸로 바꾸셨나요?**

A: 학생들과 설문 조사와 대화를 통해 김치나 멸치 조림이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메밀국수로 바꾸려고 했으나 메밀이 알레르기 반응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김치는 두부리포로 멸치 조림은 파프리카를 다져 큐브 조각으로 만들어 바꾸어 대체하였습니다.

**Q11: 이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좋았나요? 이를 실제로 적용해본거죠?**

A: 네! 이후에 따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부 친구들과 대화해 본 결과 친구들이 급식이 더 맛있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Q12: 이제부터 이 학과를 4년동안 다닐건데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A: 제가 자극적인 음식을 매우 좋아해서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저는 조리학 실습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타이머 울려서 바로 퇴장)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하대학교	학과	아태물류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인하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에 순번대로 대기 → 순서가 오면 3~4분동안 면접위원들이 생기부 확인하는 동안 대기 → 들어오라고 하면 3~4분동안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위주의 질문으로 나왔음</li> <li>▪ 꽤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왔음, 학과와 관련된 세특은 더 자세하게 꼬리 질문 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확률과 통계 성적이 다른 수학 과목에 비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b>  A: 다른 수학 과목들에 비해 확률과 통계가 관심 영역이었던 마케팅과 관련이 있어 흥미를 갖게 되었고, 3학년 때 진로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여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p> <p><b>Q2: 고등학교 생활 중 기억에 남는 활동과 느낀점은 무엇인가요?</b>  A: 3학년 동아리 활동 중에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어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p> <p><b>Q3: 한국 지리 과목에서 생태 지향 국토 건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신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b>  A: 국토 개발로 인해 동물이 피해받지 않도록 동물들과 함께 살 수 있게 생태 지향적인 국토 건설을 주장했습니다.</p> <p><b>Q4: 2학년 때는 영어,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는데, 물류로 바뀌게 된 이유는?</b>  A: 확률과 통계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던 중 물류와 유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재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원활히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b>Q5: '나는 일본의 무역상이다'라는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것 하나만 말해주세요.</b>  A: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저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하기 보다 진취적인 도전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인하대학교	<b>학 과</b>	영어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인하미래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1인당 10분 이내 면접 제출서류: 1.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영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포트폴리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 입실 후 원형 테이블에서 다른 학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 테이블 순서대로 한 명씩 입장함.</li> <li>▪ 테이블이 앞 강당과 멀리 있을수록 대기 시간이 늘어나며, 대기 시간 동안 생기부 다시 확인이 필요. 전자 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li> <li>▪ 예상과 달리 압박 면접이 없었으며 생기부 확인용 질문이 많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3학년 자율활동 때 영어지기 역할을 하셨는데, 소개했던 영어문장 예시로 몇 가지만 말해주시고 학습계획실천에 대해서도 말해주세요.</b></p> <p>A: 저는 'better late than never' 이라는 문장을 소개하면서 공부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며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들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동기 부여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학습계획을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의 계획에 대해 피드백을 주며 공부를 해나갔습니다.</p>				
<p><b>Q2: 예시는 한가지만 듣거죠? (더 대답 안하나는 식으로 다시 기회 주심)</b></p> <p>A: 하나 더 있는데, 'Everyday is not happy day, but everyday has happy moments'입니다. (중간에 버벅였는데 꼬덕이시면서 긴장 풀어주심) 항상 행복한 날일 수는 없지만 모든 날들에 행복한 순간들은 있다는 말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p>				
<p><b>Q3: 그럼, 이어지는 질문인데 동기부여를 위해 1학년 동아리 시간에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는데 몇 가지 얘기해주시고 3학년이 된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한지에 대해 말해주세요</b></p> <p>A: 네. 저는 사실 친구들이 영어를 시험과목으로만 여기는 것이 되게 안타깝워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했었는데,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삶의 질이 올라가고 인간관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접하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p> <p>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영어를 배우면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도 영어로 된 자료가 많아서 어떤 분야로 나아가든간에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영어교육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어 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p>				
<p><b>Q4: 언어학습에 낮잠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도문 2가지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해주실 수 있나요?</b></p> <p>A: 낮잠이 언어학습에 도움을 주는 효과에 대해 조사했을 때, 먼저 뇌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 뇌가 활성화 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작성했고, 2번째로는, 이것도 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낮잠을 자는동안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밤에 잠을 잘 때 뇌가 장기기억을 저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낮잠을 잘 때도 장기기억으로 저장된다고 하니 그 부분이 언어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언어도 뇌를 거치고 의사소통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p>				
<p><b>Q5: 영어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거나 구조화하고 지문 문단마다 핵심문장분석했다고 하는데 지문을 공부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b></p> <p>A: 네 저는 문장마다 꼼꼼하게 보고 가는 성격인데, 어떨 때는 너무 꼼꼼하게 읽는 게 단점이지만 동시에 장점이라고</p>				



생각합니다. 지문을 읽고 문단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을 1~2문장으로 요약해서 옆에 정리해놓고 시험 기간에 정리해둔 문장을 읽고 글의 흐름을 위주로 정리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는 문장을 너무 꼼꼼히 분석하고 넘어가서 효율적이지 않았는데 글의 흐름에 따라 핵심 내용만 정리하니 올해 원점수가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Q6: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학교 공간 획일화와 재구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자료 조사했던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A: 저는 학교 공간이 교도소와 같다고 소개했었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교도소와 학교공간이 닮은 점이 항상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것을 한다는 점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네모난 책상과 네모난 의자로 된 교실을 답답해하는 것이 안타깝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지신경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추구하고 곡선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모난 책상과 네모난 의자가 아닌 곡선형의 다양한 책상과 수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에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7: 3학년 진로활동에 교수매체 개발에 관심을 보였는데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어떤 교수매체를 개발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A: 제가 디지털 활용 교수매체 개발에 대해 조사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비판적인 사고력과 다문화..그니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미래의 인재상을 위한 교수매체 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다른 지식을 결합해서 창의성을 높이고 사고력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디어 활용 교육이라고 하셔서 덧붙이자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매체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전에 수업 시간에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벽을 허무는 기술이라고 배웠습니다. 메타버스 기술로 가상의 캐릭터를 제작해서, 아이들이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고 저도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캐릭터가 아닌 수업 목적에 맞는 캐릭터를 제작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수매체를 만들어서 융복합적 학습환경을 마련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인하대학교	<b>학 과</b>	항공우주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인하미래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이내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입실(과별로 앉아서 대기)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에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가벼운 질문들이 주로 출제</li> <li>▪ 처음에 너무 긴장하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니,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황설수설하더라도 면접관 분들이 알아 들어 주시니 문장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b></p> <p>A: 질산칼륨과 솔비톨을 이용해 고체연료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설계팀, 연료팀, 3D 모델링 팀으로 나누어 진행했고요. 3D 모델링을 통해 엔진 마운팅을 하고, 연료는 처음 비율이 26:72, 총 10명으로 진행했고, 물을 넣어 진행했지만 잘 되지 않아 연료의 비율을 바꾸고 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총 3번의 발사를 진행했는데 마지막에는 노즐 마운팅 부분이 바뀌어서 아쉽게 실패했고, 나머지는 연료..(시간문제로 잘림)</p>				
<p><b>Q2: 동아리 때 추력방정식을 이용했다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한건지 말해 줄 수 있나요?</b></p> <p>A: 저희가 직접 이용했다기 보다는 추력 방정식이라는 이론에 대해 공부했고, 나머지는 SRM이라는 엑셀 시트에 값을 대입해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p>				
<p><b>Q3: 그러면 로켓이 쏘아올리면 포물선 운동을 할 텐데 왜 포물선을 그리며 운동 할까요?</b></p> <p>A: 어..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비스듬히 쏘아올린 물체니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겠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함)</p>				
<p><b>Q4: UAM에 대해 써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b></p> <p>A: 솔직히 아직까지는 파일럿 없는 자율 비행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 소음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시간 문제로 중간에 잘림)</p>				
<p><b>Q5: 음...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b></p> <p>A: 얼마전에 항공 우주 캠프 건설했다고 들었는데, 꼭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뽑아주셔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하대학교	학과	해양과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인하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1시간 단위로 대기조 나눔, 5분전에 면접실 문 앞에서 대기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도착 완료 시간부터 면접 시작시간까지 30분간 여유가 있으므로 그때 다녀오는 것을 추천(야외 화장실이 1칸뿐이라 줄이 매우 길다.)</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2학년 때 과학 성적이 낮는데 이를 위해서 뭘 노력했는지**

A: 스터디나 노트정리 위주로 협동진행했다는 식으로 대답

**Q2: AMOC 관련해서 탐구 진행한 내용 말해주세요.**

A: AMOC란 ~ AMOC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읽고~ 탐구를 진행하였다.

**Q2-1: 언제 발행된 논문인지 기억하는지**

A: 이번년도 7월에 나온 논문이라 대답

**Q3: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해양 시뮬레이션 제작에 대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A. 합성곱 신경망, 신경성 적대 신경망, 장단기 메모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Q3-1: 각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합성곱 신경망은 ~

**Q4: 수학시간에 해양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수학에 대해 탐구한 내용 말해주세요.**

A: 흐르는 유체의 속도를 전미분하면 유체의 가속도가 나오는데,~ 고교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했다고 대답

**Q5: 물리 시간에 충격파와 통가 해저 화산 폭발 탐구 진행한거 말씀해주세요.**

A: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일반적인 지진해일로 인한 쓰나미와 달리 충격파에 의해 발생~

**Q6: 탐구를 많이 진행했는데 혹시 어느 분야에 가장 흥미가 있는지**

A: 해양 미생물 관련해서 흥미가 있습니다.

**Q6-1: 관련해서 어떤 탐구 진행하셨나요?**

A: 탄소 중립 관련해서 NA1 탐구를 동아리 시간에 진행~

**Q6-2: 통계자료는 어떤 걸 인용하셨는지**

A: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한 ~(아마 정확한 수치와 달랐던 거 같은데...일단은 기억하던대로 대답함)

**Q7: 행특 내용 관련해서 인성 질문**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전남대학교	<b>학 과</b>	약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고교생활우수자전형유형 I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3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질문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기반 질문 위주이다</li> <li>▪ 3학년 내용을 가장 많이 질문받았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 Q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소개하십시오.

A: 복합부위통증은 쉽게 말해 비정상적인 신경병성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크게 교감신경계, 유전적 원인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는 혈관수축이 저해되어 최종장기에 과민성이 발생하여 a1 아드레날 수용체가 증가하여 통증을 나타냅니다. 유전적 측면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HLA항원이 증가되어있음이 연구결과로 나타나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환의 치료는 진통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NSAIDs, Opioid, 케타민등을 사용하거나 재활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Q2: 질환의 개선을 치료방법으로 제시하셨는데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없나요?

A: 진통제를 사용한 치료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진통제와 재활치료를 사용한 치료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 Q3: 가장 인상 깊었던 실험이 무엇인가요?

A: 저는 과학과제연구 시간에 물벼룩에 약물을 투여하고 난 다음 심장박동을 관찰하는 실험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약물은 에틸알코올과 아스피린입니다. 실험 전에, 알코올은 대사되기 전에 진정제로써 작용하여 심장박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아스피린은 cox-1 효소를 억제하여 혈소판 응집을 억제시켜 심장박동이 약해지지 않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물벼룩의 심장박동이 빨라질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험 후 두 약물 다 실제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왜 그런지 알아보았는데, msds에 명시된 바로는 물벼룩에 에틸알코올을 투여하면 유의미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써있었습니다. 또한, 아스피린은, 제가 추측한 바로는, 물벼룩의 크기에 비해 아스피린을 너무 과량 투여를 하여 바로 죽은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저는 화학 약품을 실험하기 전에는 msds를 꼭 찾아보고, 투여 용량등을 꼼꼼하게 계획하여 향후 더 나은 실험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Q4: 에틸알코올의 용량은 어떻게 정했는지 기억하시나요?

A: 용액 그대로 한 방울 넣었습니다.

### Q5: 멘토 활동을 하셨는데, 자신만의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먼저 인강 등으로 미리 개념을 학습한 뒤에, 저만의 방법으로 바꿔서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Q6: 모범적인 학생으로 선정되었다고 써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가끔 자습시간을 주면 탄짚을 하거나 떠드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묵묵히 혼자 자습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Q7: 3년동안 약학 진로를 희망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A: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가 코로나19 초기였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 궁금해 하며 이 진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진로분야를 통증 쪽으로 좁힌 것은 2학년때 팀원들과 NSAIDs를 같이 탐구했을 때입니다. 이를 통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진통제를 연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이를 지금까지 목표로 해오고 있습니다.

**Q8: 학생이 말한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A: 저는 입학 후 약물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먼저 쌓을 것입니다. 이후 제약 전공을 하여, 약물 제조와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졸업 후엔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용체 신호전달 강좌 수강을 통해 인체의 수용체와 신호전달 경로를 학습하며 학부 연구원이 되어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진통제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어 통증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Q9: 항우울제와 통증이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A: 항우울제는 노르아드레날린을 증가시켜 아드레날 수용체를 증가시켜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길게 해주세요**

A: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지난 3년간 제가 활동한 것들을 전공교수님들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만약 저를 전남대학교 약학과에 입학시켜주신다면, 기초적인 약학 지식부터 나아가 심화된 내용을 배우며 약학 연구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전남대학교	<b>학 과</b>	원예생명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후계농업경영인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6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대기 → 순서가 되면 면접실 앞에서 대기 → 입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li> <li>▪ 생기부에서 내가 한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li> <li>▪ 최대한 많이 실천처럼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해주세요.</b>				
A: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농부가 되고자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에 지원한 지원번호00입니다. 저의 코딩 능력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사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을 구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에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b>Q2: 농업에 접목해보고 싶은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까?</b>				
A: 네, 저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다면 가상현실에서 실제 스마트팜 속 농작물의 성장 속도나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농작물의 상태나 수확량을 예측해볼 수 있으며, 농작물들을 원격 제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Q3: 후계농업인전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b>				
A: 부모님의 농지를 이어 받아 안정적으로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비 영농인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북대학교		학과	경제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국가보훈대상자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11:00-11:30)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기실 → 면접실 이동대기 → 면접(약10분)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에서 면접 자료 열람 가능(전자기기는 불가)</li> <li>▪ 꼬리질문이 많고, 교과지식(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많이 물어봄</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노크 소리가 이렇게 경쾌한 지원자 처음이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셔서 같이 웃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이 시작됨.

#### Q1: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A: 지방 거점 국립대 중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5년 연속 전국 1위 등등 전북대학교의 입지와 장점들을 설명하며 준비한대로 대답함.

#### Q2: 본인의 강점이 뭔가요?

A: 성실함이라고 답변하고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함.

#### Q3: 1학년 때 학습도우미 역할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와 이를 통해 느낀점을 설명해주세요.

A: 친구들이 준비물이나 수행평가를 잊지 않도록 교실 게시판과 반독에 공지하는 역할이었고,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해서 챙기다 보니 자연히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어 타인을 위한 배려와 노력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대답함.

#### Q4: 3학년에 들어 급격하게 성적이 향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학년 때까지 명확한 진로를 가지지 못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는데, 3학년 때 상경계열로 진로를 정하고 나서 목표의식이 생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것 같다고 답변함.

#### Q5: 그중에서도 유독 수학 성적이 올랐는데 비결이 있나요?

A: 확률과통계 교과에 대한 흥미가 있어 상경계열로의 진로를 정하게 되었으며, 성실함이 강점인데 성실하게 복습을 꾸준히 했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풀릴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한 문제를 붙잡고 늘어질 정도로 노력했다고 설명함.

#### Q6: 1학년 때와 2학년 때 같은 동아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영어동아리를 했는데 우선 지도교사가 좋은 분이셔서 같은 동아리를 한 것도 있고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어는 어떤 전공을 가더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라고 대답함.

####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고등학교 때 경제교과를 선택하지 않아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합격이 되면 겨울방학 동안 맨큐의 경제학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다고 대답함. 면접관님들이 웃으시면서 입학하고 나서 공부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와서 열심히 하라고 해주심. 합격한 것 같다는 느낌 받았고 최초합함.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북대학교	학과	국제인문사회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큰사람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기실(24명 정도): 신분확인 및 설명,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로 수업하다 보니 영어 지원동기를 꼭 물어보니 준비해야 함</li> <li>▪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함</li> <li>▪ 면접 분위기: 교수님들께서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셨고 모두 친절하셨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주세요.</b> A: 준비한 지원 동기를 말하였음.</p> <p><b>Q2-1: 학교 활동 중에서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했던 것들을 말해주세요.</b> A: 국제 모의 토론 활동을 하였다고 말함.</p> <p><b>Q2-2: 모의 토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토론은 무엇인가요?</b> A: 러시아-우크라이나 토론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다고 말함.</p> <p><b>Q2-3: 그럼 학생은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b> A: 모의 토론 중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던 이유를 말함.</p> <p><b>Q3-1: 학교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던 적 있었나요?</b> A: 동아리 축제 부스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갈등을 얘기하였음.</p> <p><b>Q3-2: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나요?</b> A: 당시 동아리 차장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후배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축제 부스 활동을 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얘기함.</p> <p><b>Q4: 우리 학부는 외국인과 수업하는데, 만약 과제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과제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b> A: 경고를 주겠다고 하였음.</p> <p><b>Q5: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교수님께 말을 해야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둘건가요?</b> A: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음.</p> <p><b>Q6: 우리 학교는 영어로 수업하는데 혹시 영어로 지원동기 말할 수 있나요?</b> A: 준비한 영어 지원동기를 말하였음.</p> <p><b>Q7: 혹시 우리한테 뭐 궁금한 점이 있나요?</b> A: 학교 커리큘럼에 국제법에 대하여 배운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의 국제법을 배우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였음. 교수님께서 학생은 대답을 잘하였는데, 면접을 보는 교수님 중에서 국제법에 관한 수업을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대답을 못 하겠다고 하였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간이 커리큘럼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해주심.</p> <p><b>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해주세요.</b> A: 준비한 내용을 말하였음.</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북대학교	학과	사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농어촌학생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약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면접 건물의 대기실로 입실 → 전자기기 수거 및 신분 확인(신분증, 수험표) → 자리 안내 → 순서 대기 → 모든 짐을 들고 면접실로 이동 → 복도에서 대기 → 짐은 바깥에 두고 노크 후 면접실 입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고 교수님들도 친절하시니 긴장하지 않기</li> <li>▪ 학과 홈페이지 꼭 확인하고, 강좌, 동아리, 프로그램 알아가기</li> <li>▪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오는데 고생 많았다. 떨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시작</p> <p><b>Q1: 자기소개</b></p> <p>A: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영화나 책과 같이 이야기가 많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 역사를 좋아하게 되었고 사학과에 들어와 다양한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지원동기</b></p> <p>A: 제가 사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 인생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제가 나아가야 하는 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제가 역사를 배우며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학과에서 역사를 배우면서 제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3: 사피엔스 동아리는 역사 동아리인가요?</b></p> <p>A: 역사도 포함되어 있는 인문 동아리입니다.</p> <p><b>Q4: 물흐름은 무슨 동아리인가요?</b></p> <p>A: 물흐름은 사회이슈와 법을 다루는 동아리였습니다.</p> <p><b>Q5: 사피엔스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b></p> <p>A: 3학년때 했던 동아리라 개인으로 하는 활동을 주로 해서 역할은 많지 않았습니다.</p> <p><b>Q6: 그럼 남들과 함께하는 경험이 없던건가요?</b></p> <p>A: 제가 반장도 1학년과 3학년 때 했었고 2학년 때는 동아리 기장 역할도 해서 공동체 경험이 있습니다.</p> <p><b>Q7: 그럼 반장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텐데 말해주세요.</b></p> <p>A: 반장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의견충돌이 있었을 때 나서서 뭐 중재했습니다.</p> <p><b>Q8: 사피엔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읽은 책 중에 흥미로웠던거</b></p> <p>A: 문학으로 읽는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드라큘라와 관련된 역사이야기가 있는데 드라큘라는 역사랑 거리가 멀어보이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역사가 담겨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p>				

**Q9: 사학과에서 배우고 싶은거?**

A: 세계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과목이 열리지 않아서 세계사 쪽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세계사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Q10: 서양사를 배우고 싶다는거죠? 우리 사학과 수업 봤어요?**

A: 한국사를 중심으로 뭐~~ 서양사랑 동양사 한국사 수업이 있죠~ (기억안남)

**Q11: 생기부를 보니 역사를 좋아했던거 같아요. 전북대 사학과에 오고 싶어요?**

A: 네 오고 싶습니다.

**Q12: (하하하) 그럼 설득시켜봐요 왜 와야하는지**

A: 우선 전북대학교 사학과에는 답사 프로그램도 있고 역사 영화 감상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교직이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2학년때까지 꿈꿔왔던 학생을 가르치는 꿈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3: 중간에 공무원 한다고 가는 거 아니냐**

A: 아닙니다. 전 공무원보다 역사 출판의 진로가 더 커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북대학교	학과	중어중문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큰사람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시작 5분 전부터 모든 자료를 보지 못하니 미리 가서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li> <li>▪ 교수님 3분이 면접을 진행하지만 착하시고 말도 되게 잘 들어주시니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li> <li>▪ 생기부를 꼼꼼히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li> <li>▪ 면접 보기 전에 학과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 해보세요.</b> A: (저는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해갔기에 중국어로 자기소개 하였습니다.)</p> <p><b>Q2: 학교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b> A: 저는 진로 변경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 그 뒤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며 진로가 바뀐 계기를 설명하였습니다.)</p> <p><b>Q3: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나요?</b> A: 저는 중국어2 학급 도우미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2 학급 도우미를 하면서 학습지 배부, 수행평가 알리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중국어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고 중국어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여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p> <p><b>Q4: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나요?</b> A: 저는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중국어1과 중국어2 수업 이외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중국어 선생님과 중국어 방과 후를 개설하고 저희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을 중국어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으며 중국어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중국어를 공부하였습니다.</p> <p><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b> A: 저는 면접을 보러 오면서 긴장도 됐지만 중국어를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교수님을 뵈 생각 하니 정말 설렸습니다. 꼭 전북대에 입학해 교수님들의 중국어를 학문하는 열정을 본받아 열심히 중국어를 배워 중국어의 애정과 이해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통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중부대학교	<b>학 과</b>	간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학교생활우수자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15분	<b>면접위원 수</b>	4명
	<b>면접 절차</b>	공개 질문과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 후 대기했다가 면접에 응시함.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 질문은 저출산 대책과 시진료에 관한 질문이었으며, 공개 질문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준 후 작성한 답안지를 걷어갑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제출한 공개 질문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li> <li>▪ 교수님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평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면접에 응시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li> <li>▪ 학교에서 연습한 내용(지원동기, 간호사에게 중요한 자질, 어떤 분야의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등)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호학과 면접에 자주 나오는 예상질문을 뽑아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우리 학과에 지원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b>				
A: 인터넷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다크를 본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하기에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고 그 꿈을 중부대 간호학과에서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Q2: 골격근의 역할을 설명해보세요.</b>				
A: 골격근은 수축과 이완에 의해 움직임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b>Q3: 감염병 예방 수칙을 설명해보세요.</b>				
A: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통해 기관지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손소독제를 휴대하고 다니며 수시로 손소독을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의 경우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키는 것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b>Q4: 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b>				
A: 간호사로서 중요한 자질은 신속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은 1분 1초에 따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인 만큼, 작은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실수를 했을 때 숨기지 않고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Q5: 어떤 분야의 간호사가 되고 싶은가요?</b>				
A: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를 꿈꿔왔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보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이런 아이들을 완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아과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10년 후 저는 간호사 자격증을 얻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 원하는 부서인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성껏 간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친근하게 다가가 아이들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b>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b>				
A: 간호사로서 중요한 자질은 신속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은 1분 1초에 따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인 만큼, 작은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실수를 했을 때 숨기지 않고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중부대학교	학과	물리치료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학교생활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 질의서 작성 → 작성 후 면접자 대기 → (안내자 인솔) 면접장 앞 대기석 이동 → 면접장 이동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질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는 방식이었지만 2개 다 물어보았다. 그래서 하나만 준비하기보단 두 개 다 준비하는 것이 좋다.</li> <li>▪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는 순간 전자기기와 면접 준비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li> <li>▪ 질의서 내용은 학교 유튜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였고, 볼펜을 꼭 챙겨야한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소개해주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b></p> <p>A: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온 지원자입니다. 저는 환자가 불편함과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빛 비추는 등대와 같은 물리치료사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는 몸이 아프게 된다면 정신도 약해져 희망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 때 근본적인 희망을 심어주는 동화졸 같은 사람이 되어 환자 본인이 미래를 그려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저부터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마음 가짐을 가지는 물리치료사로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p>				
<p><b>Q2: 물리치료학과를 지원할 때 중부대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지원하셨을텐데 자신만의 지원 기준을 말씀해주세요.</b></p> <p>A: 저만의 지원 기준은 더욱 넓은 세상에서 저의 가치를 증명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입니다. 대한민국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을 수 있는 중부대학교의 커리큘럼과 교육 과정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으며 후에 다른 외국어와 언어를 심화 학습한 물리치료사로 성장해 실력을 쌓고 인맥을 넓혀나가 해외에서까지 뻗을 수 있는 스포츠 구단 물리치료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p>				
<p><b>Q3: 저출산 문제의 대표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세요.</b></p> <p>A: (준비하지 못해서 즉석으로 함)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의 대표적인 원인은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달리 물가의 상승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 상승하지만 개인의 소득은 변함이 없어 그에 따른 부담이 증가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결혼 자체를 꺼리는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책에서 더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b>Q4: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물리치료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세요.</b></p> <p>A: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의학쪽에서도 널리 활용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로 제약회사의 경우 의약품의 선호도 및 부작용 등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비용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인공지능,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진단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mri 또는 ct 등 검사 기구로 환자의 노화, 기능적 제한, 정신건강 그리고 일상적 건강 변화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더욱 성장한다면 환자의 일상의 변화를 빠르게 탐지 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증상의 악화가 있을 시 원인 파악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정밀치료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 별 데이터를 활용해 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밀치료에 환자 별 데이터가 활용 된다면 사람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고 보다 빨리 환자의 불편함과 고통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처지와 치료에 있어서 환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처지 방안을 찾아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p>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가상 현실이 물리치료 분야에 접목 된다면 두 기술이 함께 융합된 상태로 환자를 진단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케어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더 나은 교정과 재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하여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물리치료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 맡기기 보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의 역할로 이루어진다면 큰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사가 가져야 할 역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가져야 할 역량으로는 크게 전문적 테크닉과 환자와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전문적 테크닉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환자를 회복 시키고 치료할 때 정확한 진단으로 명확한 통증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 후 치료 방법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와 기능적 회복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면 저와 환자의 신뢰는 더욱 높아지기에 물리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환자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감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환자를 치료할 때 세밀히 진단할 수 있으며 환자의 통증과 불편함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물리치료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또한 중요한 역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진단을 잘해도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 치료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환자의 치료 방향성을 함께 이야기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환자도 자신이 정확히 어디가 아프고 그에 따른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구나 라고 상호작용 한다면 더 나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중앙대학교	학과	경영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CAU융합형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8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학별 기출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긴장할 수 있음. 처음엔 편하게 해주시지만 지속적으로 마음에 안든다는 눈빛을 보내시는 듯 했음. 그래도 주눅 들지 말고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중요함.</li> <li>면접분들의 뒷공간이 꽤나 넓어서 소리가 울릴 수 있으니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고 연습한 종이를 가져가는게 필요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누진세율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소득이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b>  A: (누진세율의 정의를 말함) 누진세는 복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되묻고)국민의 소득이 양극단으로 갔을 경우 부유층은 나태해질 위험이 존재하고 빈곤층은 생활영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수렴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2: 공정 무역 활동을 했고 어두운 면을 인지했다는데, 그 사례가 무엇인가요?</b>  A: 페어워싱이라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정무역을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실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두운 면입니다. 실제 사례로 조사했던 것은 스타벅스의 허위 광고였습니다. 그들은 공정무역을 한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p> <p><b>Q3: 해결책으로 생각한것 있나요?</b>  A: 생두가격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p> <p><b>Q4: 그게뭔가요?</b>  A: 원두의 출처,구매가격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공정무역을 허위로 하는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5: 생두가격표시제를 사용하는 곳은 없나요?</b>  A: 있습니다. 네슬레라는 기업이 현재 사용중입니다.</p> <p><b>Q6: 마지막으로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답변이 있는데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말해주세요.</b>  A: 급식실 병목현상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느끼고 원인 파악, 해결책 제시, 실무진과의 회의를 통해 관점을 전환한 새로운 해결책 마련까지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실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중앙대학교	학과	경영학부(글로벌금융)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CAU융합형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8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 신분 확인 → 대기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 번호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li> <li>면접은 10시부터인데 입실 가능 시간은 9시부터입니다.</li> <li>자유롭게 생기부나 관련 자료 봐도 됩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일단 우리 글로벌금융학과 지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기부에 적힌 내용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대답해주면 돼요.</b></p> <p>A: 네!</p>				
<p><b>Q2: 2학년 사회문화 시간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의 몫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거죠?</b></p> <p>A: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세계화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제도나 해외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점에서 비숙련 노동자의 몫이 감소한다고 보았습니다.</p> <p>(그 뒤로 위의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을 세 개 정도 하셨는데 정신없이 대답해서 기억이 잘 안 남)</p>				
<p><b>Q3: 1, 2학년 때는 방송부 동아리를 하고 3학년 때는 경영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왜 글로벌 금융을 하려고 한거죠?</b></p> <p>A: 저는 본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어 관련 활동을 하다가 경영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디어의 정보 전달의 특성만을 탐구했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미디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에서 경영에 매력을 느끼고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스 시그마 동아리에서 경영 진단과 전략 수립 과정에 있어서 재무분석, 경기 흐름 분석과 같이 경영 환경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애덤스미스의 &lt;슈퍼머니&gt;라는 책을 읽으면서 금융이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p>				
<p><b>Q4: 방금 데이터 분석 관련 얘기를 했는데 마침 확률과 통계 시간에 통계 관련 얘기를 했네요? 일자리 지속성과 연령 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파악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보세요.</b></p> <p>A: 우선 저는 주제를 선정할 때 MZ 세대가 단순히 이직을 피한다는 기사가 속설인지를 확인하고자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지속성과 연령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독립성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속성과 연령의 데이터 변수가 명목 척도였기 때문에 명목 척도일 때 활용하는 독립성 검정인 카이제곱 검정을 파이썬 관련 서적을 통해 방법을 익히며 시행하였습니다.</p>				
<p><b>Q5: 척도 관련 개념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공부한건가요?</b></p> <p>A: 독립성, 정규성과 같은 사전 조건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셨고, 독립성 검정 중에서 어떠한 검정을 시행할지 탐구하면서 명목 척도와 같은 개념을 스스로 공부하였습니다.</p>				
<p><b>Q6: 만약 명목 척도가 아니었으면, 뭘 하려고 했죠?</b></p> <p>A: 명목 척도가 아닌 서열 척도와 같은 것이었다면, 변수가 서열 척도일 경우에 사용하는 독립성 검정을 찾아 시행하였을 것입니다.</p>				



**Q7: 뭔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 검정의 종류를 설명한 적이 있던데 어떤 것들을 소개했는지 말해보세요.**

A: 저는 우선 비교 집단의 수에 따라 설명하였는데요. 비교집단이 2개인 경우에는 평균검정으로  $t$ -검정과  $z$ -검정을 소개하였고, 비교 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분석으로 반복측정분산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소개하고 각 통계 검정을 활용한 경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Q8: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재무분석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했죠?**

A: 네. 저는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수익성, 성장성,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저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경영 컨설턴트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는 특정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재무건전성 파악, 경기 흐름 분석과 같은 경영 환경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수학적 역량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언어적 역량도 요구됩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과 같은 수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공개 강의와 파이썬 관련 서적을 공부하여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혔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여 수학 성적의 상승곡선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인문, 사회, 국제 계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대학 입학 후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만약 입학하게 된다면, 이러한 자질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학과의 금융 통계, 금융 수학, debate in business와 같은 다양한 과목들을 잘 이해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중앙대학교	학과	공공인재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CAU융합형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이내	면접위원 수	2명(교수2명)
	면접 절차	대강당 대기 후 이동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3학년 활동에서만 질문함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를 말해주세요.</b>				
A: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를 만들고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번호XX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3년간 반장, 학생회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행정, 법정의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탐구활동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b>Q2: 3학년 커뮤니티 매핑 활동 자세하게 말해주세요.</b>				
A: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지리 시간에 배운 커뮤니티매핑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공유형 지도를 바탕으로 서로 자신만의 공부 장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교에 배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b>Q3: 교통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구상했는지 설명해보세요.</b>				
A: 우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지하철을 대신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합니다. 버스 환승 시간을 버스의 이동시간 및 사람이 물리는 시간을 계산하여 다시 설정하고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 공용자전거를 활성화시켜 도로가 좁은 문제를 대중교통으로 해결하였습니다.				
<b>Q4: 사회과목 성적이 아주 우수한데 자신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과목은 무엇인가요?</b>				
A: (정치와법 말하기에는 너무 뻘해서) 사회문화입니다. 물론 정치와 법 또한 있겠지만 사회 구조 전반을 이해하고 법, 행정 등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b>				
A: 저는 수학 성적이 좋은 인문계열 지원자입니다. 비록 1학년 수학 성적이 낮았지만 이를 겨울방학 때 극복하여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급상승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태도를 대학교 학업 때도 유지하여 최선을 다해 학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중앙대학교	학 과	사회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CAU융합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8분 이내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이동 후 면접실 앞 대기 →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기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기록부에 쓰여 있는 활동을 모두 외우고, 그 활동을 정리할 시간을 갖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li> <li>▪ 면접으로 인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발바닥에 핫팩을 붙이기를 권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3학년 진로활동에 있는 프리즘 영화제 기획 의도가 무엇인가요?</b>  A: '영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프리즘 영화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제주 4.3사건, 이주 노동자와 같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한 후, 나중에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영화 감독과 주인공을 초청해 GV를 진행하였습니다.</p> <p><b>Q2: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 사회적 관점으로 설명해 보시겠어요?</b>  A: 저는 현재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법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찾아보면 광역운행을 강화하고 이용시간 기준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수가 굉장히 적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교통수단의 수를 늘리고 예산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b>Q3: 2학년 문학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쓰여 있는 난쏘공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b>  A: 난쏘공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도시민층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원주민의 터전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지원금이나 거주 공간을 제공해 사회에서 배척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b>Q4: 한나 아렌트 말 인용하면서 사회적 탄생의 교육을 강조했는데 사회적 탄생의 교육이란 무슨 의미인가요?</b>  A: 한나 아렌트는 교육은 가르침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은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사회적 탄생의 교육이란 교육은 사회화를 통해서 발생하고 사회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p> <p><b>Q5: 3학년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b>  A: 저는 한 동물원에서 굶주려 갈비가 보이는 '갈비사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이 동물과의 관계에서 권력의 우위를 지니고 동물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동물원은 기존의 동물원과과는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청주동물원에 직접 방문해 수의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 <p><b>Q6: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b>  A: 마라톤은 5키로, 10키로, 하프 그리고 풀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5키로, 10키로, 하프를 끝마쳤고, 중앙대에서 풀코스를 이어나갈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면접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말하시면 됩니다. 지원자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중앙대학교	<b>학 과</b>	문예창작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CAU융합형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8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도착 → 1층 수험표 확인 → 대기실 입장 및 본인 확인 →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개, 지원동기, 학습계획에 대해 묻지 않음.</li> <li>▪ 생기부 세세한 활동까지 질문하고 꼬리 질문이 이어짐.</li> <li>▪ 시간 초과 감점은 없지만, 면접제한 시간이 8분이 임박하면 7분부터 30초 단위로 시간을 알려 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2학년 문학시간에 ‘주홍글씨’ 책을 읽고 관련해 ‘미디어가 사회적 낙인 찍는 것을 촉진한다’와 같은 내용을 썼는데, 관련 예시를 하나 설명하고 창작과정에 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십시오.</b></p> <p>A:</p>				
<p><b>Q2: 3학년 화작시간에 챗 GPT와 창작활동 관련하여 발표문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b></p> <p>A: 챗GPT와 시나리오, 최근 헐리우드에서 있던 작가시위에 대해 설명함.        챗GPT 사용 자제하고 미래를 위해 작가의 역량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p>				
<p><b>Q2-1: 챗 GPT가 만든 창작은 순수 창작물이나 하나의 도구로 인정해야 옳은가?</b></p> <p>A: 데이터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순수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움.</p>				
<p><b>Q3: 생활과 윤리 시간에 미디어 규제와 관련하여 썼던데, 창작자의 규제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b></p> <p>A: 윤리적 규제 범위는 명확하지 않고 기준과 행위 등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이나 규범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창작자의 창작 윤리에 대한 규제보다 자율성 인정해야 함.</p>				
<p><b>Q3-1: 규제가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b></p> <p>A: 대중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관련해서 답변함. (이후 꼬리 질문이 많아 어려웠음. 관련 내용에 대한 깊이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음)</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중앙대학교	학과	시스템생명공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CAU융합형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8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1시까지 입실(가슴에 면접번호 붙이고 대기) → 면접 번호 불리면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시간은 8분으로 매우 짧은편(면접종료 1분 전에 노크로 알려줌)</li> <li>▪ 생기부 활동 위주로 질문</li> <li>▪ 지원동기는 물어보지 않았음</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전기영동 실험과 실험 중 알게되었던 오류에 대해

A: 먼저 '전기영동' 자체는 전극 사이의 전기장에서 용액 속의 전하가 반대 전하의 전극을 향하여 이동하는 화학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DNA, RNA같은 큰 분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생명과학실험 시간에 이러한 전기영동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직접 실험해보기 위해 교내 과학캠프에서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한효소를 이용해 DNA를 자르고 제한효소 처리를 한 DNA와 일반 DNA를 전기영동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에는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후에 그것이 PCR과정을 생략하여 생긴 결과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실험이었지만 PCR과 같은 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3년간 했던 실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이었습니다.

#### Q2: 물리학1 이수 중 탐구했던 X선 현미경에 대해

A: 전자기파를 이용한 현미경은 파장이 감소하면 입자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물질의 이중성 파트) 더 높은 분해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X선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에 쓰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분해능을 가질 뿐 아니라 넓은 스펙트럼의 X선 중 내가 원하는 파장을 골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시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 Q3: 물리학 실험 이수중 했던 음의법칙 실험에 대해

A: 음의법칙이란 전압이 전류와 저항과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선의 길이나 도선의 종류를 변인으로 삼고 전압차를 관찰했습니다.

#### Q4: 전자기장을 이용해 성체세포를 유노만능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A: 줄기세포 기술을 만드는 데 전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탐구해보게 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자기장을 이용한 특허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괴멸시키는 장치에 대해 조사했고 줄기세포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역분화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였습니다.

#### Q4-1: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암세포를 없애나요?

A: 제거하고 싶은 암세포 주위에 기계를 빙빙돌리면서 전자기파를 발산하면 암세포에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전기 천공이 발생하고, 전기 천공이 일정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암조직은 사멸합니다.

#### Q5: 마지막으로 할 말

A: 생명과학이란 좋은 학문이지만 특권층만을 위한 학문이 된다면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저는 중앙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세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청강문화산업대학교	<b>학 과</b>	융합콘텐츠창작전공
<b>전형유형</b>		수시2차	<b>전 형 명</b>	면접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1인당 10분 이내 면접 제출서류: 1.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영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포트폴리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위원 3명 면접인원 5명으로 면접이 진행됨</li> <li>▪ 공통질문을 제외하며 개인당 2-3개의 문항이 질문됨</li> <li>▪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 안되기에 준비한 포트폴리오에도 자신의 이름 등이 들어가면 안됨</li> <li>▪ 3D 모델링 작업과정, 3D용어 설명 등에 대해 알고 가면 도움이 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공통질문) 우리학과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주세요.</b>          A: 청강대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VR기기 동작수업이나 캐릭터모델링 등에 관심이 많아 이러한 수업들에 대해 이야기 함.</p> <p><b>Q2: VR과 AR의 차이에 대해 말해주세요.</b>          A: VR은 가상현실이며 가상공간 자체이지만, AR은 가상현실이지만 포켓몬고처럼 현실세계에 가상을 덮은 것으로 차이가 납니다.</p> <p><b>Q3: AR로 포트폴리오 캐릭터들을 어떤 것으로 만들고싶나?</b>          A: 저는 제가 만든 이모티콘 포트폴리오 캐릭터들을 포켓몬고처럼 AR로 동작이 있는 움직임을 추가하여, 한층 더 귀여움이 더해진 캐릭터로 만들고 싶습니다.</p> <p><b>Q4: 언리얼 엔진으로 뭘 만들고싶나?</b>          A: 언리얼 엔진을 한번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게임과 애니메이션들을 만드는 기본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과 배틀그라운드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보니,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 캐릭터들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학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질문 + 기타질문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시각까지 늦지 말고 도착하시길 바람.</li> <li>▪ 생수가 따로 제공되지 않으니, 물을 챙겨갈 것.</li> <li>▪ 면접 대기시간 동안 준비해 온 자료를 보는 것을 허용하니 간단한 요약본이라도 들고 가시길 추천함.</li> <li>▪ 복장은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가길 바람. 따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 면접 분위기는 대체로 따뜻하게 진행되며, 가끔 농담까지 던지시기도 하니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 보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초등학생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초등학생의 배움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b></p> <p>A: 저는 초등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이론과 같은 이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특성을 익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피아노학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초등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바로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단순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들(부정적 요소)보다는 체험과 실험 위주의 학습(긍정적 요소)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개념을 학생에게 가르쳐 줄 때 그저 말로 전달하는 지식은 학생들이 수긍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이러한 학습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겠다는 염려의 마음이 들어 저의 경험을 말하거나, 직접 함께 행동해 보고 몸으로 동작을 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교육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p>				
<p><b>Q1-1: 호오~ 피아노학원이요? 피아노를 잘 쳤나 보죠?</b></p> <p>A: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중학생 때까지도 취미로 피아노학원에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학원에는 제 또래보다는 초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초등학생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 주고 저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에 초등교사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p>				
<p><b>Q2: 평소 사회적 약자나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는지?</b></p> <p>A: 네, 평소 남을 도와주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험에 닥친 상황이 온다면 먼저 발 벗고 나서는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한 할머니를 만난 일입니다. 친구와 밤늦게 길을 가던 도중 폐지를 주우시던 할머니께서 잠깐 중심을 잃으시면서 수레에 있던 폐지와 여러 물건이 모두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오히려 할머니께 실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힘겨워하시는 할머니를 보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뛰어가 도와드렸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할머니께서는 무척 고맙히하시고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도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방관하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p>				
<p><b>Q3: 생활기록부를 보니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혹시 가장 관심 있었던 과목은 무엇이었는지?</b></p> <p>A: 실제로 저는 모든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수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성적을 보시면</p>				



아시겠지만, 저는 수학을 가장 못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수학이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안겨 준 과목입니다. 비교적 순탄케 학습했던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이라는 과목을 정복하는 데는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진정한 수학의 매력과 이 과목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느꼈으며 공부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학창 시절의 수학 공부를 떠올리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답변 후 면접관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직접 보시면서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Q4: 반장 경험도 많이 있군요~ 혹시 반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있는지?**

A: 아무래도 반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3학년 스포츠리그 대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한 스포츠리그를 준비하던 도중 반 친구들의 사소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작은 비록 사소하였지만 모두 예민했던 고3 시기인지라 갈등은 불붙듯이 커져 나갔습니다. 모두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기를 꺼렸고, 큰 짐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중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였지만, 이 상황이야말로 반장이라는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선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몇몇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황이 나아질지, 어떤 면에서 상처받았던 것 같은지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들이 제 앞에서는 쉽게 말을 터주었고 결국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 열심히 스포츠리그를 연습하게 되었고 그다음 날 경기에서 1등을 하게 되는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콤했던 과정들이 있었기에 저희의 1등은 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Q4-1: 반장, 부반장은 각각 몇 번 했었나요?**

A: 1학년 2학기 부반장, 2학년 2학기 반장, 3학년 1, 2학기 모두 반장을 맡았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학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 면접 후 귀가 (재입실 불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 생각보다 더워서 옷 여러 겹 겹쳐 입는 것 추천</li> <li>▪ 대기실에서 면접준비 자료 볼 수 있음</li> <li>▪ 교수님들이 분위기 매우 편하게 해주셨음</li> <li>▪ 추가질문 거의 안하셨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신이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b>  A: (책이름 설명) 이 책은 어린아이들에게 인성적인 측면에 대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p> <p><b>Q2: 본인의 모습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모는?</b>  A: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학생들도 자신의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p> <p><b>Q3: 올해에 교사의 직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이슈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b>  A: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 그 당시에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p> <p><b>Q4: 학교생활 중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b>  A: 체육대회 때 반 단합을 위해 대표로 친구들을 이끌어 응원가를 준비한다든지. 꼭 반장, 부반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반 학급활동이 있을 때마다 주도적으로 친구들을 이끌었다는 점을 구체적 활동을 들어서 나타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청주교육대학교	<b>학 과</b>	초등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지역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에서 대기 → 진행 요원이 부르시면 복도로 나와서 대기실 앞 의자에서 대기 → 진행 요원이 부르시면 면접실 앞 의자에서 대기 → 앞사람 나오면 좀 있다가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감 → 자리 착석 → 인사, 면접 가번호 말하기 → 면접 시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기록부 기반 질문을 많이 하셨다. 자기소개, 지원동기, 시사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등은 없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질문을 하셨다.</li> <li>▪ 열심히 답변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li> <li>▪ 면접관분들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답변하되, 너무 이곳저곳 자유분방하게 눈을 굴리지는 말자.</li> <li>▪ 여담으로 나는 긴장하지 않으려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면접관분들)과 수다를 떠는 것처럼 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더라. 만약 너무 긴장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학생: (노크하고 문 열고 목만 꾸벅, 문 닫고 의자 옆으로 가서) 혹시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면접관: 네 그럼요 앉으세요.          학생: (앉음)</p>				
<p><b>Q1: 앞번호라 많이 긴장될 텐데... 뭐 그거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알아서 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럼 이제 면접 시작할게요. 가 번호 먼저 확인할게요.</b>          A: (허리 숙여 꾸벅) 안녕하십니까. 면접 가 번호 가 00번입니다.</p>				
<p><b>Q2: 우선 생기부를 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이 교과예요. 1학년 때부터 성적이 꾸준히 올랐는데, 공부 방법 같은 게 있었나요?</b>          A: 네. 1학년 때 저는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턱대고 공부한 내용을 암기하였고, 아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생겨야 정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스스로 공부를 하고 모르는 게 생기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그렇게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송곡선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b>Q3: 3학년 동아리 때 융합 수업 시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b>          A: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려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자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지도안을 작성할 때, PPT를 보면서 학습지를 채우는 아이들을 고려해 수업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조절하는 것을 주의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p>				
<p><b>Q4: 그런데 융합 수업이면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데 혹시 학생이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니면 한번 다시 설명해주세요.</b>          A: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형 수업으로 진행하되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게 발표형 수업도 융합하기로 해서 수업 모형을 융합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p>				
<p><b>Q5: 학교생활에서 갈등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해보세요.</b>          A: 네. 2학년 때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서 토의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는 A라는 주제를, 다른 친구는 B라는 주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두 친구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제가 중간에서 두 친구의 의견</p>				

모두를 절충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Q6: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시기와 미래에 초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이 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A: 네. 우선,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꿈꾼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당시 담임선생님은 소극적이었던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학급 회의나 수업 시간 중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선생님은 옆에서 차근차근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자신 있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담임선생님의 덕분이 커서 저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자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미래에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미디어 리터러시(이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음. 생략)

**Q7: 학생이 본 교육 관련된 책이나 미디어에서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A: 네. 저는 '교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작가는 아침 독서 시간에 자신은 업무를 핑계로 책을 읽지 않고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으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작가는 아이들 탓으로 돌립니다. 그 후 교사인 자신이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따라서 책을 잘 읽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에서 노크 소리 똑똑)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교실에서는 학생만 또는 교사만 참여해서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체 역량을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면접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돼요.

학생: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꾸벅) 감사합니다. (의자 밀어 넣고 문 닫기 전에 고개 꾸벅)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청주대학교	<b>학 과</b>	간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창의면접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에서 모든 물품 다 가져감, 순서대로 하나 하나씩 나감. 면접관님들 각각 질문을 하심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관님들 간격이 매우 띄엄띄엄이니 면접관1이 질문하면 1만 봐야하고 면접관 2가 질문하면 2만 보는 것을 추천.</li> <li>▪ 첫 질문이 지원동기나 자기소개가 아니여서 당황할 수 있음</li> <li>▪ 질문을 엄청 꼬아서 말하니 요점 파악이 중요함. (다른 면접자들도 질문 이해의 어려움을 겪음)</li> <li>▪ 면접 후회없이 준비하세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간호사를 하고 싶었던 계기를 만들게 해준 활동이 있을까요?</b></p> <p>A: ( 첫 질문이 이런 질문이라 당황했고 위 질문보다 더 말을 꼬아서 하여 이해를 못함, 답변 지어냄 ) 저는 고등학생 1학년 시절 이국종 선생님께서 나오는 다큐를 보며 의료인의 사명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의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이처럼 사회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국종 선생님이어서 돈급 없으셨겠지만 그런 의사분들 옆에서 가장 가까이 환자를 돕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함.)</p> <p><b>Q2: 청주대학교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경험이나 활동이 있으면 무엇일까요?</b></p> <p>A: vr-ar 장비를 활용한 최첨단 실습실에서 질 높은 간호지식과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청주대의 국제교류 시스템을 통해 여러 사람과 접하면서 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문화습득까지 키워나갈수 있습니다. 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청주대일 거 같습니다.</p> <p><b>Q3: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에서 한 활동을 말해보세요.</b></p> <p>A: 3학년 자율활동 시간에 간호사를 준비한다는 마음에 만든 간호 베이직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의 30초 손 씻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많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동수업 마저 갔다와서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등굣길에서 1인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진행 중에 무시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지만 캠페인이 있고 난 후 화장실에 가면 점차 손 씻는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작은 행동이 큰 행동으로 바뀐 순간에 보람을 느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같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청주대학교	학과	의료경영학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창의면접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대기 및 호명 → 면접장 입실 → 질문 및 답변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한 자료는 갖고 들어갈 수 없지만, 면접 보기 전까지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 있나요? 지원동기 말해주세요.</b>  A: 병원 행정사 꿈을 가지게 된 계기 → 꿈을 위해 했던 노력 → 왜 많은 학교 중에서 청주대에 지원했는지</p> <p><b>Q2: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b>  A: 수강하고 싶은 수업 2개와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자격증 취득을 연결 지어서 말했습니다.</p> <p><b>Q3: 마지막 질문할게요. 학창 시절 가장 즐거웠던 추억이 있다면 말해주세요.</b>  A: 2학년 당시, 보건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했을 때 할로윈 기념 부스 운영을 준비하며 겪었던 힘든 순간(실패, 난관)을 부원들과 함께 헤쳐 나갔던 경험을 말하며 이러한 과정이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p> <p><b>Q4: 질문은 끝났어요. 면접 많이 준비했을 텐데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이나 어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b>  A: 내가 얼마나 청주대에 적합한 인재인지(전공 적합성, 인재상과 잘 맞는 부분 연결 지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노력을 말하며 청주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고 간절함을 어필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청주대학교	<b>학 과</b>	의료경영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창의면접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5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대기 및 호명, 면접장 입실, 면접 진행 후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질문이 3개로 정해져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때문에 굳이 짧고 간결하게 준비하기 보단, 적당히 길게 본인 어필을 충분히 하며 답변을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li> <li>▪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답변도 다른 답변들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 말고도 본인이 했던 답변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당당하게 본인 어필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별로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의료경영이란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b>				
<p>A: 네, 제가 의료경영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성화고 보건과에 입학하여 2학년 때 일반고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때문에 특성화고에서 보건에 특화된 과목들을 공부하며 병원안내 라는 의료경영과 관련된 과목을 공부를 한 경험이 있었고, 때문에 이 과목을 공부하며 의료경영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특성화고를 다니며 직접 병원으로 실습을 나간 경험 또한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며 내려진 오더 정리 및 처방, 입퇴원 절차 관리, 환자 개인 정보 관리, 치료 동의서 확인 및 배부, 바이탈 측정 등등, 의료 경영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하며 저의 적성과 잘 맞는다 느끼게 되었고 조금 더 폭 넓은 의료경영 공부를 해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되어 현재 의료경영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p>				
<b>Q2: 경험 위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인과 어떤 부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나요?</b>				
<p>A: 책임감이 뛰어나며, 성실한 인재를 추구한다는 부분에서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감과 항상 일찍 일어나고 일찍 등교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있을 만큼 성실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의료경영과 제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황해서 짧게 답변했습니다.)</p>				
<b>Q3: 친구 많아요? 학생 때는 교우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학창시절 교우관계 관련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b>				
<p>A: 네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보건 동아리를 개설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보건 관련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었지만 있는 보건 동아리가 없어 직접 사람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때 같은 보건인의 꿈을 가지고 동아리 개설을 도와주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인원을 모으고 활동 계획을 짜며 친해졌고, 이렇게 이 친구와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인상깊고 의미있게 남아 친구와 함께 보건 동아리를 개설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p>				
<b>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b>				
<p>A: 우선 면접의 기회를 주신 면접관님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면접 시간 안에 저라는 사람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주대 의료경영과가 추구하는 인재 핵심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라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청주대 의료경영과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제게 주어만 진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며 저의 가치와 능력을 몸소 보여드리고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의 목표는 청주대 의료경영과에 입학하여 존경하는 교수님, 멋진 선배님들의 가르침 아래 꿈을 펼치며 학과와 학교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인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간호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1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이내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 바탕 질문은 많지 않음, 인성질문 위주</li> <li>▪ 면접 번호랑 상관없이 입장할 수 있음</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준비한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준비한 자기소개함.

**Q2: 공학 다니나요?, 여사친 많나요? 여사친들과 대화하기 위한 대화 전략을 소개해보세요**

A: 네, 여자친구들도 남자친구들처럼 편하게 대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으며 적절한 거리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친해져 생활할 것입니다.

**Q3: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말해보세요.**

A: 저희 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영어 ucc프로젝트에서 저희조에는 러시아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저와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러시아 단어와 러시아 문화를 찾아보고 질문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ucc 프로젝트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함께 사용하여 창의적인 ucc를 만들어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Q4: 학교 생활동안 생명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거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에 대해 소개해보세요.**

A: 네 저는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짧게 설명해주셨던 전기영동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학년 과학 실험 대회에서 전기영동 실험을 하였는데 전기영동실험이란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띄고 있는 dna에 플러스전하를 걸어 분해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도중 전기영동장치가 고장나 실험에 실패할 뻔 했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간이 전기영동장치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실험을 완수하였습니다.

**Q5: 전기영동장치를 통해 간호학과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당황) 전기영동장치는 PCR검사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리 예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5-1: PCR이 무엇이죠?**

A: PCR은 DNA를 복제하고 증폭시켜 바이러스의 양성과 음성을 판단하는 거(사실 이게 맞다. 다 말했다.)라고..... 죄송합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하세요.**

A: 네, 우선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는 저렴한 학비로 최고의 간호서비스,실습, 공부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만큼 명문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문간호대학을 다니면서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충남대학교	<b>학 과</b>	건축공학교육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종합 I 일반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입실 → 신분확인, 전자기기 제출 →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시간동안 자소서, 생기부 볼 수 있으나, 전자기기는 모두 제출하므로 출력물로 챙겨 갈 것</li> <li>▪ 화장실, 대기실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면접 도우미 대학생과 동행함.</li> <li>▪ 생기부 내용을 많이 질문하지는 않았음. 이미 읽고 오셔서 재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음.</li> <li>▪ 지원동기, 자기소개에서 설명한 활동을 자세히 숙지할 것. 대부분 앞서 대답한 내용의 꼬리질문으로 이어짐.</li> <li>▪ 캠프에서 이수한 교육학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보이셨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해보세요</b>				
A: 호기심이 많아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며 배려심,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인정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영어 발표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발표 멘토링, 영어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b>Q2: 지원동기?</b>				
A: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건축공학 수업을 들은 후, 학교 생활을 하면서 3D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구조화 해보며 더욱 건축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진로 부스에서 건축관련 부스를 운영하여 후배들에게 설명하며 부듯함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교육학을 이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서 건축공학교육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b>Q2-1: 교육학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학교 진로 활동이었나?</b>				
A: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수강한 것입니다.				
<b>Q2-2: 진로 부스를 진행하며 자신이 얻게 된 것이나 찾아본 것은?</b>				
A: BMI기술에 대해 알게되고,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공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b>Q2-3: BMI기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나요?</b>				
A: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모형을 미리 만들어보고 하중 등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b>Q3: 자기 자랑 해보세요.</b>				
A: 남들이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자기소개에서 자랑을 해버려서..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부연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음)				
<b>Q4: 학교 선생님을 자랑해보세요.</b>				
A: 저는 저희반 선생님이 학생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례를 더 말하면 좋았을 것 같음.)				
<b>Q5: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못했던 말 있어요?</b>				
A: 교육학을 배우며 교육학자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존 듀이 교육학자에 대해 배웠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니 내가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관심사를 파악하고 더욱 탐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존 듀이 교육학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충남대학교	학 과	경영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종합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9시까지(오전반) 대기실 착석 → 면접 순서 알려주시면 순서대로 앉아서 대기 → 감독 위원이 면접 번호 부르면 함께 면접실로 이동 → 면접실 앞 의자에 모든 짐을 두고 들어갈 준비 → 앞 순서 면접자가 나오면 잠시 대기하다가 면접실 입장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 진행</li> <li>면접실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해온 자료 볼 수 있음</li> <li>15분 다 채워서 안함</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자기소개 해주세요.

A: 저는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계속해서 변해가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대응하여 마케팅하고 하는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매년 학생들의 관심사가 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홍보와 행사를 진행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참여율 75%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낌으로써 소비자의 행동과 심리, 비즈니스의 동향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진로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해서 중간에 목소리가 많이 떨려 잠시 심호흡을 했는데 면접관님께서 '괜찮아 천천히, 하나씩하나씩 말해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해주셔서 그때부터 긴장이 풀려 잘 말함.)

#### Q2: 자기소개에서 설문조사 했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어요?

A: 친구들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재밌게 본 예능이나 드라마가 무엇인지 가장 최근에 산 물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학생들의 관심사를 파악했습니다.

#### Q3: 그래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어요?

A: 당시에 학생들이 가장 즐겨보던 TV프로그램이 댄스배틀을 하는 예능이란 것을 알게 되어 학교 축제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적용을 시켰고 귀여운 디자인의 귀도리와 목도리, 장갑을 좋아하다는 것도 알게 되어 이를 축제 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 Q4: 우리 학교에 오면 뭐하고 싶어요? 학업 계획이라던가

A: 저는 충남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제가 소비자의 행동, 심리와 트렌드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론>, <비즈니스 동향> 강의를 꼭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유일 광고동아리인 애드리에 가입하여 여러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것이고 경상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점관리를 열심히 해서 해당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 Q5: 소비자 행동론이나 비즈니스 동향은 교양과목인데 혹시 전공과목 아는 거 있어요?

A: (사실 잘 모르겠어서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함) 경영정보시스템과 재무관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Q6: 마케터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중학생 시절 직업탐구를 하다가 마케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은 유행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쯤은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트렌드에 민감한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공감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파악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이 마케터라는 직업에 적합하며 향후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 지금까지 꿈꿔오고 있습니다.

**Q7: 지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에 대해 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저의 단점은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저의 말에 상처를 받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솔직함이 단점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8: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 점**

A: 나의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말이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Q9: 마케팅 잘하는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A: 저는 애플이 마케팅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단조롭고 심플한 디자인의 아이폰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받았지만 몇몇 소비자들의 니즈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색상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마케팅을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10: 마케터가 되고 싶어서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을텐데 나 진짜 이거까지 해봤다 그런 거 있어요?**

A: (뭐라고 대답했는지 생각이 잘 안남) 생기부 관련 얘기함.

**Q11: 마지막으로 나 뽑아주세요 해보세요~ (엄청 친근하게 말씀하심..)**

A: 충남대학교 경영학부는 중부권 국립거점대학의 선도학과라는 위치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충남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하여 미래에 충남대학교를 빛낼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교육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 I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오전 9시까지 대기실에 입실한 후 30분 정도 순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전자기기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4명씩 나눠서 면접장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자료를 볼 수 있고, 면접장 앞에서는 못 봅니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분 알람 맞춰놓고 진행함.</li> <li>여러 전형의 학생이 다 같이 모여 대기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말해주세요.</b></p> <p>A: 네, 안녕하세요. 미래 혁신적인 정책을 만드는 교육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은 지원 번호 00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한 학문적 탐구는 물론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 교육과정을 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을 저의 철학과 비교하여 환경과 평생교육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고, 학습량 적정화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던 결론을 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 등 특정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등 교육학적 지식도 확장하였고 저의 교육철학도 강화 및 보완 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풍부한 교육학 지식을 갖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지식들을 교육 내실화를 위해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학문적 관심은 충남대학교의 교육 방침에 따라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p> <p><b>Q2: 교육정책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b></p> <p>A: 충남대에서 진행하는 진로 멘토링 활동 등에 참여하여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습니다.</p> <p><b>Q3: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싶나요?</b></p> <p>A: 사교육을 대신 할 수 있는 교육지원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중략)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거나, 공교육의 질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b>Q3-1: 어떤 정책이 사교육을 대신 할 수 있을까요?</b></p> <p>A: EBS의 질을 상승시키거나, 무상 컨설팅 센터를 짓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p> <p><b>Q3-2: 무상 컨설팅 센터요?</b></p> <p>A: 요즘은 학업 뿐 아니라 대입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나오)</p> <p><b>Q4: 어필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말해주세요.</b></p> <p>A: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특히 루소의 에밀을 읽으며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대해 탐구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p>				

**Q5: 한국 다문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다문화 학생의 한국화에 중점이 맞춰져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5-1: 그렇다면 다문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다문화 학생이 본인의 다문화 정체성도 유지하고, 다른 학생들이 다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6: 갈등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A: 동아리 활동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습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누구는 교육학 지식 탐구를 목적으로 하여 탐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두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교육학 지식을 먼저 탐구하고, 이를 학습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6-1: 더 심한 갈등상황은 없었나요?**

A: 네. 없던 것 같습니다.

**Q6-2: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장점과 단점을 극복한 방법을 소크라테스 산파술과 엮어 설명함.(잘 기억 안남)

**Q7: 충남대에 온 후의 학업계획을 말해주세요.**

A: 저는 좋은 교육제도란 교육의 선순환을 만드는 제도라도 생각합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진행하는 00수업은 제가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 해당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잘 기억 안남)

**Q8: 1분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A: 저는 학창시절부터 교육학 자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분명 대학에서의 심화탐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완벽한 학생일 수는 없겠지만, 교육학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항상 미래가 더 기대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국토안보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 II 국가안보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 긴장 하지 말 것</li> <li>▪ 면접 전 생기부 꼼꼼히 읽고 활동 내용 숙지할 것</li> <li>▪ 꼬리 질문이 많으므로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연습이 필요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 1분 해주세요.</b> A: 저는 누구보다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한 임시번호 00호입니다.</p> <p><b>Q2: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주세요.</b> A: 저는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가 좋은 나라일수록 국민이 그 나라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충남대 국토 안보학과에 와서 군사 훈련과 같은 것들을 배워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에 활용하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p> <p><b>Q3: 좋아하는 운동 하고 있나요?</b> A: 저는 친구들과 같이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다 같이 활동하다 보면 특유의 친밀감이 생겨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잠시 배웠던 유도를 좋아합니다. 친구와 같이 다녔던 유도관에서 다른 친구들 또는 동생 형들을 만나며 서로를 도와주며 운동하고 대련하며 성장하였습니다.</p> <p><b>Q4: 동아리 활동 중 군과 관련된 활동이 없네요?</b> A: 그 이유는 제가 동아리를 구성하려 했지만, 제 학교의 군인을 진로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동아리 개설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군인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동아리에 들어가서 군인으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p> <p><b>Q5: 낮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반복 학습과 같은 공부법을 사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대신 이해도를 높이는 공부를 해보았지만, 그 또한 노력에 비하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저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법을 더 찾아서 바꿔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p> <p><b>Q6: 부모님이 군인이신가요?</b> A: 아니요. 군 관련 영상 또는 책을 접하며 군인의 꿈을 가졌습니다.</p> <p><b>Q7: 읽은 책 중 기억나는 책 하나 말해주세요.</b> A: 이순신이라는 책입니다.</p> <p><b>Q8: 그 책에서 무엇을 배웠죠?</b> A: 이순신 장군님의 전기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생각과 이순신 장군님이 참여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전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충남대학교	<b>학 과</b>	기술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일반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4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로 진행하였는데 많은 면접 후기를 참고했지만 개인적으로 압박 면접이었음.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신감이 합격요인 중의 하나였음.</li> <li>▪ 생기부에 적혀있는 활동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음.</li> <li>▪ 꼬리 질문이 매우 많았음.</li> <li>▪ 문과라서 그런지 기술교과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범계열 교육관련 질문이 많았음.</li> <li>▪ 면접관중 한분은 교직에 있다고 대학으로 오셔서 중,고등학교 상황을 잘 알고 있음.</li> <li>▪ 학업역량 보다는 질문을 했을 때 대처 능력을 보려는 느낌이 강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저희과에 지원하게된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b>				
A: 기술이 수학, 과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구체적 계기를 말함				
<b>Q2: 반에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b>				
A: 네 저는 우선 그 왕따를 당하는 학생의 관심사, 좋아하는 핸드폰,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을 파악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반 친구를 소개시켜주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Q2-1: 그 친구들이 안친해지면 어떡하죠?</b>				
A: 네 그 친구들이 처음엔 서로 어색할 수는 있지만 서로 알아가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친구사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면접관: 그게 쉽지 않아요...				
<b>Q3: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였습니까?</b>				
A: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속 동아리였던 드론동아리 담당 선생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앞 서 동기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동아리를 통해 기술교과에 흥미가 생기게 되어 제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그 선생님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b>Q3-1: 그 선생님은 기술 교과 선생님이셨나요?</b>				
A: 아니요. 지구과학 선생님이셨습니다.				
<b>Q3-2: 그럼 지구과학 선생님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단 말인가요? 본인은 그렇게 다른교과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b>				
A: 네 지구과학 선생님이시더라도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인 드론의 비행원리 같은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기술선생님이 안계신 저희학교 특성상 그 선생님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b>Q3-3: 그럼 아까 드론 코딩도 했다고 했는데 (지원동기를 말할 때 나눔)정보 선생님이 그거 자기한테 왜 너가 가르치냐고 하면 어떻게 말하실건가요?</b>				
A: 네 코딩은 정보교과에 더 가깝긴 하지만 드론의 설계와 조종 부분은 기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드론의 설계와 비행 원리등을 학습시킨 후 그것에 연결하여 코딩 수업까지 한다면 수업이 더 원활해지고, 학습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기술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약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12시 반까지 입실 후, 12시 45분에 신원 확인함. 13시부터 면접 시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적성 면접이라고 생각해서 쉽다고 생각하고 자만하지 않고, 다양한 질문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해 준비해야 함.</li> <li>많은 선배들께서 오셔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면접장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화목함.</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학생이 우리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A: 제가 기술교육과에 지원한 동기는 기술이라는 교과의 매력 때문입니다. 그 매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작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작 활동을 통해 실생활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과 상황들을 다루고, 해결책을 직접 모색함으로써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와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에 어떤 원리가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의 이러한 매력을 느껴 기술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2: 기술교육과에서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요?

A: 기술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 활용 능력, 그리고 설계 능력과 같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 시키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 해결 능력과 설계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설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과 그 환경에 맞는 적절한 기술적 문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과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공학적 지식 또는 소양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활용 능력입니다. 활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와 일의 중간 형태인 문제 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작 활동과 학생들끼리 협력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 Q3: 기술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 배우는지 아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대해 여쭙보고 싶으셨던 것 같다. 왜냐하면 답변을 듣고 당황하셨고, 혼잣말로 과목에 대해 얘기하셨다.)

A: 기술에서는 생,수,통이라고 해서 생산, 수송, 그리고 통신이라는 3가지 영역에 대해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는 생명, 제조, 그리고 건설이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Q4: (당황하시며) 이 내용은 어떻게 아셨나요?

A: 저희 학교 기술 선생님과 상담하며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술 시간에 이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보며 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 Q5: (다른 교수님께서) 그럼 저희 학교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봤나요?

A: 물론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봤습니다.

#### Q6: 친구들이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나요?

A: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순하고, 친근하며, 리더쉽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친구들이 갈등 상황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제 일인 것처럼 친구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는 한 학기도 빠짐없이 반장을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저를 리더쉽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Q7: (질문하시는 교수님께서 바뀌심) 우리 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A: 제가 기술교육과에 지원하기 위해 한 활동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에어 로켓 만들기입니다. 에어 로켓 만들기에 관심이 생겨 기술과에서 주최한 교내 에어 로켓 날리기 대회에도 참가했는데요, 이 대회의 목표는 로켓을 정확한 목표지점에 착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여 정확한 지점에 로켓을 착륙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테이프도 감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병을 뺏아야 로켓이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할지에 대해 다양한 탐구해보았고, 정확한 목표지점에 착륙시키기 위해 어떤 각도로 로켓을 발사시켜야 할지에 대해 탐구하여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Q8: (교수님께서 웃으시며) 이 정도로는 우리 과에 지원하기 부족한데요?**

A: 그뿐만 아니라, 저는 평소에 기술 교과서를 들고 다니며 자주 펴보았는데요, 저는 다양한 과학 과목들을 수강하며 기술 시간에 배우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기술적 원리들에 대해 과학 교과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이용하여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생명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기술 시간에 배운 기술들의 원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해 이 기술들과 과학적 원리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화탐구 해보았습니다.

**Q9: 기술과 과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이론을 증명하거나 지식을 얻는 체계적인 방법인 반면에, 기술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과학 지식을 실생활 속에서 실제 적용을 하여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10: 그렇다면 기술과 공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술은 추상적인 반면에, 공학은 기술과 과학을 기계에 접목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웃으시며 가웃하신다.) 그거 아닌데요? 기술은 ~이고 공학은 ~예요. 우리 학교에 붙게 돼서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제가 이거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줄게요. 나: 냐. 감사합니다.)

**Q11: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교 안 가서 좋았죠?**

A: 아뇨. 전 오히려 아쉬웠습니다. (교수님께서 당황하심)

**Q12: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가서 자유시간이 있을텐데요, 그 시간에 뭘 했나요?**

A: 저는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외국어 공부를 좋아해서 제2외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Q13: 그 시간에는 뭐하고 놀았었나요?**

A: 평소에 잘 놀지 않아 놀지는 않았습니다.

**Q14:(웃으시며) 그럼 학생은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학생들에게 공부만 시키겠네요?**

A: 그건 절대 아닙니다.

**Q15: (웃으시며) 독서도 노는 것입니다.**

A: 냐.

**Q16: (웃으시며) 중국어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A: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전 17번(가번호)이고,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된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 씨씨~)

**Q17: 그럼 학생이 저희에게 궁금한 것을 역질문 해보세요.**

A: 저는 기술교육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글로만 접할 수 있어서 공학 역학이라는 과목이 무엇에 대해 배우는 것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공학 역학은 힘에 대해~)

**Q1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는 제가 정말 오고 싶었던 학교, 그리고 학과입니다. 저를 붙여주신다면, 정말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도시·자치융합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1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약 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본인확인 후 입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 교수님들께서 따뜻하게 해주심.</li> <li>▪ 비교적 생소한 과이다 보니 학과 관련이나 생기부 관련하여 심화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음.</li> <li>▪ 전 지역을 목표로 하여 말하기보단 충청도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혹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정책을 구상해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함.</li> <li>▪ 질문에 목적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li> <li>▪ 생소한 과이다 보니 이 과의 인재상을 정확하게 알고 면접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해보임.</li> <li>▪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키워드를 두고 중점적으로 면접을 보았음.</li> <li>▪ 학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것도 좋지만 학창시절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어필하는것도 나쁘지 않음.</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장단점, 지원동기, 인상깊었던 일 등등).

A: 안녕하세요, 저는 면접번호 N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지리학, 교육, 도시, 자치 등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학창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여러 몰랐던 과들을 알아가던 도중 이 도시자치융합학과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과에서 제가 가진 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종합적인 도시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 학과를 졸업하면 여러 지역 강연회 등을 통해 지역 인사나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관련정책을 설명하는 교육의 꿈도 이룰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2: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네, 저의 장점은 한 우물만 깊이 판다라는 것이고 단점 또한 한 우물만을 깊이 파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야에 깊게 임하는 것이 때론 장점이 될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 학과에 임하고 싶습니다.

#### Q3: 과와 관련된 활동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A: 네, 저는 충청권의 대규모 신도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신도시의 설립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충청권의 대규모 신도시 사례란 세종행정특별자치시를 말하는데요. 세종시의 설립 의의는 총 두 가지로 첫째는 수도권과 과밀 해소와 둘째는 지역균형발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전입 인구를 분석해 보면 충남에서의 전입이 11% 충북에서 11% 대전 30%로 결국 세종시민 10명중 6명이 충청도에서 전입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수도권의 과밀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자원연계협력제도의 구축을 뽑았습니다.

#### Q4: 수도권의 인구 분산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역자원연계 협력 제도의 구축을 뽑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설명해주세요.

A: 제가 왜 지역자원연계협력제도의 구축을 말했냐면요. 결론적으로 인구를 이주시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종시에 많은 아파트를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인구의 분산 효과를 낼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충청권에 많은 일자리를 양산하여 인구의 분산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연계협력을 증진할수 있는 이 제도의 구축을 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5: 읽은 도서 중에 이 학과와 관련있는 책이 있었나요?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네. 저는 “지리의 힘”을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지리의 힘중 ‘미국’부 분에서는 미국이 지금의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원래 아랍 등지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 수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랍의 봄’등 아랍권의 민주화 운동으로 정세가 불안해지고 석유의 가격이 폭등하자 에너지 자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유추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모래 형태의 석유 “셰일 오일”의 원유추출방법을 고안하게 되고 에너지적 자립에 성공하여 지금의 산유국에 이르게 될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결국 지역의 자원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충북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충북의 자원으로는 1차 산업이 우세하다라는 것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인구 증진 및 발전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인구가 절대적인 이상 거주 인구를 증진시키기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보니 거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인구란 그 지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방문객, 관광객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충북의 자연 경관을 이용한 주말농장 등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또한 복수거주지 제도 등등을 통하여 충북의 생활인구를 늘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Q6: 학교에서 인상깊었던 교과 학습 내용이 있나요? (이 학과와 관련없는 교과 내용을 물어심)**

A: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사회탐구 과목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특히 지리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지구과학을 배울 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이 지리과목과 겹치면서도 과학적 원리와 인문이라는 면에서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을 해주세요.**

A: 네 제가 이 과에 오게 된다면 충청도를 제 2의 수도권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충청도는 타 지역에 비하여 충남 2차, 대전 3차, 충북 1차 산업 등 비교적 균형적이게 발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4도와 맞닿아 있어 지리적인 이점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궁무진한 잠재성의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권역으로 성장시킬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충남대학교	학 과	동물자원과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종합 I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 신분 확인 → 면접실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를 볼 때 자기가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생기부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해 갈 것.</li> <li>▪ 특히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개념을 위주로 먼저 숙지하고 부가적으로 나머지 내용을 보는 것을 추천.</li> <li>▪ 교수님이 꼬리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기억이 나는 대로만 최선을 다해 얘기할 것.</li> <li>▪ 첫인상이 중요. 그리고 아무리 망했다고 생각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에 태도나 행동 조심.</li> <li>▪ 형식적으로 자기소개나 동기 등의 예상 질문을 만들어 연습했지만, 바로 넘어가 다른 내용을 물어보실 수도 있기에 당황하지 말 것.</li> <li>▪ 활동이 많다보니 생기부 위주로 물어보심</li> <li>▪ 학생부 내용과 응용된 질문도 하심</li> <li>▪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학과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을 추천(교환학생이나 학과 목표, 학과에서 진행하는 활동, 교수님 얼굴 등) - 미리 알아가 예상 질문 답변 만들어 대비할 수 있음. 교수님 얼굴도 몇 번 익혀 놓으면 덜 면접실에 갔을 때 덜 긴장될 수도 있음.</li> <li>▪ 어려운 활동을 많이 했어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만 익힌 후 다른 내용들도 익히는 것을 추천. 시간이 없기 때문. 또한 다 못 외움.</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차이는?</b> A: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람 양성균은 자주색을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심)</p> <p><b>Q2: 동물자원과학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나요?</b> A: 네, 이 학과에 관심이 생겨 사이트에 들어가 조사를 해보니 축산학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p> <p><b>Q3: 그럼 왜 이 학과에 지원했나요?</b> A: 비록 생명공학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어릴적부터 생명체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키우거나 관찰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로 죽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체의 생리적 현상이나 생물의 특성에 대해 궁금해졌고,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다 중간에 바로 넘어가심)</p> <p><b>Q4: 전기영동 실험 했네요?</b> A: 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가로스 겔을 넣고 DNA를 각 홈에 넣은 후 길이에 따라 측정하는 실험으로 알고 있습니다.</p>				

(꼬리질문을 계속하셨는데,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못해서 이때 답답해 하시면서 중간에 넘어가심)

**Q5: 그럼 유전자조작 기술이 뭔가요?**

A: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해 설명함.

**Q6: 그 기술의 예시를 얘기해 보세요.**

A: 당황해서 기억이 잘 안나서 인공배양육이라 말한 뒤 생기부에서 한 활동 중 유전자 재조합 BCG약물의 비근육침윤성 방광암이 기억나 이걸 예시로 설명함.

(듣다가 중간에 넘어가심)

**Q7: 그러면 이 기술을 이용한 인슐린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A: 아뇨. 처음 듣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 물으심.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텐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하심. 당황해서 배웠는지 기억이 안났음)

**Q8: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기부 중에 란돌트 반응 실험을 하셨는데, 이 실험의 다른 이름을 알고 있나요?**

A: 이미 한 교수님의 계속된 꼬리 질문과 답답해하시는 분위기에 많이 당황해서 머리가 정신이 없었음. 그래서 시계 반응 실험임을 알고서도 답하지 못하고 어떤 실험이었던지만 설명함.

**Q9: (생기부 중 친환경 관련 활동을 여러개 해서 질문 하신 듯) 탄소 중립이 뭔지 아시나요?**

A: 탄소중립 설명, 예시로 블루수소를 들어 설명함. (이때 준비한거 나와서 다행이었음)

**Q10: 좋습니다. 그러면 가축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설명, 이후 꼬리질문으로 학교에서는 주범이라고 가르쳐 줬냐는 등 물어보심)

**Q11: 생각하는 것보다 가축은 환경오염 주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15%에도 미치지 않죠.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A: (이때 많이 당황함. 잘못 말한건지 걱정됨.) 아 네 알겠습니다.

**Q12: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신가요?**

A: (준비한 질문에는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말함. 마지막 할 말을 하라고 할 때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몰려옴)

**Q13: (답변을 들으시다가 '실수했던 점'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꼬리질문하심)**

A: (긴장이 잠시 풀렸다가 당황했지만, 이것도 준비를 했기에 준비한대로만 말함. 어떤 점을 원하셨는지 잘 모르겠음. 면접 후 든 생각은 실험에서 실수했던 점을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했음)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메카트로닉스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1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 입실 → 전자기기 수거 → 대기 → 면접실 입장 → 면접 후 귀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기니 예상 질문이나 멘탈 관리법을 종이에 적거나 프린트 해가는 것이 좋다.</li> <li>▪ 압박 면접이 아니었다.</li> <li>▪ 면접관이 관심을 가지는 질문을 질문순서에 상관없이 하셨다. (A질문 → 다른 면접관이 B질문 → A질문한 면접관이 A-1 질문 → 다른 면접관이 B-1 질문..)</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질문순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b>Q1: 메카트로닉스 학과에 지원한 지원동기가 무엇이에요?</b>			
A: 네, 저는 제 관심 분야인 자율주행 분야를 전문분야로 바꾸어 깊게 탐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충남대 메카트로닉스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아두이노와 초음파 센서, 서보모터와 dc 모터, 그리고 서보모터를 이용한 조향장치를 위해... (이때 잠깐 더듬음) Fusion360을 이용한 3D 설계와 3D프린터를 이용한 출력물을 사용했습니다.			
<b>Q1-1: 메카트로닉스라는 말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b>			
A: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b>Q1-2: 지금 학생이 한 활동을 보면 다 기계공학에 관련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생기부에 메카트로닉스라는 말을 넣어도 됐을 텐데... 기계공학이 아니라 메카트로닉스에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b>			
A: 메카트로닉스 학과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공학과 달리 역학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에 관한 내용과 컴퓨터공학,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제 잠재력을 키우고 펼치기 위해서는 메카트로닉스 학과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지금 성적표를 보면 본인도 아시겠지만 수학 성적이 타 과목에 비해 높네요. 반대로 말하자면 다른 과목은 공부를 안 한 거 아닌가요? 언어 영역은 성적이 낮은데, 자기가 공부하기 싫은 과목은 버린 것 같은데요? 이 이유가 있나요?</b>			
A: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다른 과목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되고 나서 대입이 다가오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닌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하구나'를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영어를 2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b>Q3: RC카에서 RC의 뜻을 알고 있나요?</b>			
A: (뜸을 들임) 음... 아뇨 모르겠습니다.			
<b>Q4: R은 REMOTE를 의미하고 C는 CONTROLL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RC카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두 단어는 서로 맞지 않네요. (피드백 해주시는 어조로 말씀하십시오) 그럼 학생이 말한 자율주행 RC카는 잘 작동했나요?</b>			
A: 우선 초음파 센서 3개를 달았고, 이 센서의 각각의 값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에 따라 작동하는 조향장치의 서보모터 또한 제대로 작동하였습니다. 하지만 DC 모터를 전진과 후진을 위해 DC 모터 드라이버와 함께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너무 다양한 배선... (이때 잠깐 멈춤) 전선 연결방법과 다양한 프로그래밍 예제가 있었는데, 프로젝트에 적합한 전선 연결과 프로그래밍 예제를 찾기가 어려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Q5: 성적에 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본인도 아니겠지만, 성적이 상승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럼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효율적인 공부법이 구체적으로 뭐죠?**

A: 예를 들어 암기과목과 같은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닌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15분, 그다음은 30분, 다음은 1일, 3일과 같이 간격을 두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Q6: 그럼 그 공부법은 어디서 본 건가요? 아니면 혼자 찾아낸 건가요? 기억 곡선과 관련 있는 건가요?**

A: 제가 ANKI라는 앱을 찾아보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찾아내고 있었는데, 극 과정에서 망각곡선을 발견하였고 그걸 이용하였습니다.

**Q7: 아까 말한 성적에 관한 건데, 지금 물리 성적을 보면 등급이 4로 낮아요. 이는 어떤 이유가 있는거죠?**

A: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성적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알아보니 제가 2학기 때 80점대 후반이었는데, 물리 이수자가 워낙 적다 보니 3등급대까지 90점대 초반이다가 4등급 중반까지도 80점대 중후반이었다고요. 이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Q7-1: 네, 이수자가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Q8: 학생이 말한 자율주행RC카에 관한 건데, 아까 설계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설계 프로그램으로는 뭘 사용했나요?**

A: 저는 ADOBE에서 제공하는 FUSION360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Q9: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던가, 얻은 교훈 같은 건 있나요?**

A: 저는 고1 때 봉사활동으로 마스크 끈을 다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때 개인이 혼자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잘하는 분야를 도맡아서 하였더니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도 이 전문분야를 나눠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하지 않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음)

**Q10: 학생이 한 활동을 보면 푸리에 변환을 했던데, 푸리에 변환이 뭐죠?**

A: 푸리에 변환은 단순한 사인파가 여러 개 겹쳐있는 복잡한 신호를 단순한 사인파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가 조사한 건 고속 푸리에 변환인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산 푸리에 변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산 푸리에 변환은 측정된 신호 값이 이산적일 때 활용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신호를 측정하면 아무리 정확히 측정해도 신호가 점점점 형태로 값이 이산적이기 때문에 이산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측정된 점... (잠시 멈칫거림) 값이 N개라고 하면 이산 푸리에 변환을 사용할 때는 N의 N 승의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속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면 사인파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하여 홀수 부분과 짝수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계산량은  $N \log N$ 개의 계산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Q10-1: 와 많이 준비했네요.**

A: 아 네, 많이 어려워서 좀 많이 공부했습니다. (웃는 분위기였음)

**Q11: 자, 마지막으로 본인이 준비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다면 해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A: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에게 메탈카드에 그림을 새겨주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 학과에서 배우는 정밀 공학을 통해 레이저 커팅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를 사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수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1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내외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간단한 인사 → 아이스 브레이킹 → 면접 시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격 질문 많이 나눔. (왜 확통 안 했지?, 수학 과목에 비해 다른 과목의 성적이 왜 유난히 낮지? 등)</li> <li>생기부 내용을 깊게 묻는 게 아니라 경험 위주로 질문하심. 즉, 평소에 자신이 한 활동을 많이 생각해야 쉽게 답할 수 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 동기를 간단하게 말해주세요.</b>				
A: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다가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큰 매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 점점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 깊게 연구(리만가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수학과를 졸업해서 사회에 어떤 일에서 종사하고 싶나요.</b>				
A: 수학 강사와 수학 교구 CEO가 되고 싶습니다. 다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수학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학생만이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학과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b>Q3: 영어성적이 수학성적에 비해 낮은데 이유가 있나요.</b>				
A: 수학 성적이 낮았지만 성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오래 걸리더라도 후에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도 제 기준에는 열심히 하였지만 성적이 낮은 것을 볼 때 현재 변곡점에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저의 성적이 상승하는 것만큼 대학교 입학 때쯤에는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Q4: 확통을 왜 선택하지 않았나요. 이유가 있나요.</b>				
A: 공학에 쓰인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수학 학문에만 관심있어 수학에 관한 여러 내용들(수학관련 기사)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고2 여름방학 때 공학과 관련된 책을 읽었고 이 책을 통해 공학에서의 수학의 쓰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통 대신 공학(트러스 구조가 수학적으로 하중 분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b>Q5: 심화수학에서 뭘 심화적으로 배웠나요.</b>				
A: 심화수학에서는 수학 개념을 심화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닌 심화 탐구를 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문제에서 오류를 찾고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b>Q6: 평소에 자신만의 수학 공부법이 있나요.</b>				
A: 평소에 여러 친구들과 협동을 통해 공부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보다 뛰어난 학생들을 많이 만나며 협동을 통해 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예로 제가 모르는 수학 문제에서 특정한 수학적 개념이 이용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 반 친구들과 서로 생각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성적이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b>Q7: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b>				
A: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활동인 우직해(우리가직접해결하자)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소통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삼각함수를 어려워하는 이유인 0과 (파이) 부분에서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지 헷갈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Q8: 가장 기억에 남는 수학 단원**

A: '경우의 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경우의 수였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여 풀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였지만 고1때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포기할까 생각하였지만 저만의 공부 방법을 연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저는 높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는 자신감으로 다가왔고 진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9: 대학교에서 특별히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A: 흔히 '난제' 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7대 난제라고 부르는 '리만가설(소수패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 때 배운 '소수'가 사실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대상인 것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싶습니다.

**Q10: 기하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수학을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였습니다. 예로 심화하여 문제를 만들거나 수학과 관련된 동화책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평소에 수학의 확장성, 수학의 목적성, 수학의 활용 가치에 대하여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이 대학에 합격하여 이러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며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적 개념들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식품영양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III 농어촌학생	
면접 형식	면접 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님들이 친절하게 해 주셔도 긴장감 잃지 않기</li> <li>1시간 일찍 도착해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기</li> <li>내가 준비한 부분의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성실히 답변하기</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지원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면접에 임하게 된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게 식품영양을 희망하게 된 만큼, 아직 하고 싶은 활동과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학생입니다. 이 욕심을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펼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Q2: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언어계열을 좋아합니다. 영어나 국어를 좋아하는데, 영어의 경우 단어를 배우고 어원을 찾아보는 것, 문법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국어는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입장에 이입해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중세국어를 분석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 Q3: 그럼 이과보다는 문과에 가까운 과목들을 좋아하는 거네요. 과학은 무슨 수업을 들었나요?

A: 제가 원래 문과 계열을 희망했어서 과학 과목은 듣지 않았습니다.

#### Q4: 우리 학과는 문이과를 아우르는 학문이지만 이과에 더 가까워요. 1, 2학년은 더욱 화학과 생명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들을 텐데, 따라갈 수 있겠어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학기 들어서 수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생명, 화학 1과목들을 인강으로 천천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독학이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5: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아껴가며 할 자신 있어요?

A: 네, 해낼 자신 있습니다.

#### Q6: 우리 학과를 졸업한다면 어느 쪽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나요?

A: 저는 원래 진로가 유치원 교사였어서 유치원 영양사 또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영양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 Q7: 교직이수 과정은 10%밖에 안 뽑아요. 우리 학과에서 정말 인기 있는 진로거든요. 우리 학과생을 35명으로 가정한다면 2등까지 정도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A: 네! 열심히 할 것입니다!

#### Q8: 그럼 우리 학교 이미지는 어때요?

A: 제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처음 본 대학교가 충남대학교입니다. 근처에 이모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입구는 자주 봤지만 학교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이곳 생활과학관을 찾아오며 본 학교의 풍경과 잔디광장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을 고려한 커리큘럼 미래설계 상담제도상담제도를 통해 제 앞의 좋은 교수님들의 조언을 들으며 진로를 결정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대학교를 좋게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충남대학교	<b>학 과</b>	신소재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종합II(농어촌학생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주차 시 주차권을 줍니다.</li> <li>▪ 대기 시간에 가져간 자료를 볼 수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li> <li>▪ 분위기 무겁습니다. 압박 면접 느낌이 강하고 대답에 호응해주기 보다는 반박이나 고개를 가로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하세요.</li> <li>▪ 질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하고 전일 논문을 찾아 읽으며 최신 동향 연구하고 갔습니다.</li> <li>▪ 교수님 사진도 보고 갔으나 얼굴 아는 교수님은 안 계셨습니다.</li> <li>▪ 최신 인터뷰와 같은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갑니다.</li> <li>▪ 충남대는 공대 찾아가는 길이 복잡해서 길을 미리 숙지하고 가세요.</li> <li>▪ 캠퍼스가 넓으니 잘 찾아가세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지원동기가 무엇인가요?</b>  A: 그린수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싶어 이에 중요한 것이 촉매 개발이기에 관련 연구를 해 보고 싶어 충남대 지원함.</p> <p><b>Q2: 이 과를 희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준비해 간 지원동기와 엮어서 대답함.</p> <p><b>Q3: 미인정 지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늦게 일어남.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 말씀드림.</p> <p><b>Q4: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성적이 낮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b>  A: 기본적인 개념은 풀었으나 응용 문제에서 막힘. 그래서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함. 대학 과정의 미적분의 중요성을 알고 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함.</p> <p><b>Q5: 자신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미친 영향은?</b>  A: 체육대회를 리그전으로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께 학생의 능력을 인정받고, 코로나 이후의 행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p> <p><b>Q6: 화학 실험을 많이 했는데, 기구를 잘 다룬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b>  A: 예시로 뷰렛과 피펫의 차이 설명하고 기구 사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함.</p> <p><b>Q7: 실험의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b>  A: 반복 실험하고 통제 변인을 최대한 노력하고 전문적으로 실험하려고 노력함.</p> <p><b>Q8: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은?</b>  A: 본인 장점과 엮어서 앞으로의 연구활동 말하며 여기에 꼭 오고 싶다고 말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심리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1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로 진행하였는데 생기부 기반으로 편안하게 물어봐주심.</li> <li>생각보다 생기부 질문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으며, 나의 최종답변이 잘 준비되지 않아서 나의 매력등을 잘 어필하지 못 한 부분이 아쉬움.. 그리고 남들이 잘 안 볼만한 충남대 교수님의 성함과 논문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를 끌게 된 점이 신기해함.</li> <li>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로 절대 떨어질라고 당당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며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것이 좋을 것 같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웃음) 네, 먼저 우리 학과와 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b></p> <p>A: 먼저, 충남대학교에 있는 민윤기 교수님과 같은 분 밑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었으며, 저희 학교의 자랑인 훌륭한 커리큘럼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p>				
<p><b>Q2: 그렇다면 들어오고 나서의 학업계획이 어떻게 되나요?</b></p> <p>A: 저는 우선 대학 4년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더 이수받은 뒤 충남대 심리성장과 자기조절센터에서 일할 생각입니다.</p>				
<p><b>Q3: 그럼 대학원에서는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신건가요?</b></p> <p>A: 지금은 상담 및 임상 분야를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고 있지만 향후 공부를 하면서 바뀔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4: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 것 같나요?</b></p> <p>A: 뇌과학도 굉장히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인지나 지각 심리학쪽으로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p>				
<p><b>Q5: 아... 그래서 민윤기 교수님을 언급하신건가요? 어떤 논문을 보셨죠?</b></p> <p>A: 기억 억제와 기억 제거에 대한 효과...와 편인증을 우리의 인지부분의 습관등으로 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논문이 흥미로웠습니다.</p>				
<p><b>Q6: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논문을 보는 학생은 거의 없어서 궁금하네요.</b></p> <p>A: 제가 원래부터 논문을 읽는 것을 즐기기도 했고, 교수님 소개글에 있는 것을 보고 흥미로워서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p>				
<p><b>Q7: 아, 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b></p> <p>A: 영어의 본질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내신성적에 급급해서 문제풀이에 집중한 것이 성적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p>				
<p><b>Q8: 아, 그럼 읽은 논문이 영어로 된 논문이었나요?</b></p> <p>A: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읽은 논문은 다 한국어 논문이었습니다.</p>				
<p><b>Q9: 컴퓨터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b></p> <p>A: 잘 하는 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정말 잘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밑에서 엑셀이나 프로그래밍을 더 배우고 있습니다.</p>				

**Q1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문 할 것은 없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어, 네???(당황함)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Q11: 하하, 평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A: 어릴때 부터 정말 간절히 바란 꿈인만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 I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약 8분(끝순서여서 예정보다 짧게 끝남)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대기실(10명 정도): 신분확인 및 설명, 대기 → 면접 → 대기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분증 챙기기 (신분증 없으면 수험표도 가능)</li> <li>핸드폰은 전원 끄고 자기 자리 옆에 두게 함 (패드 가능, 자료 지참 가능)</li> <li>오전반이어서 면접 끝나고 오후반 면접 선생님께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림</li> <li>면접 분위기: 아이컨택, 끄덕끄덕해주시심. 부동부동해주시심.</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들어오자마자) 앉으면서 간단하게 30초 정도 자기소개 해주세요.</b> A: 자기소개 말함.</p> <p><b>Q2: 신소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하필 유기재료공학과에 지원했나요?</b> A: 저는 생물학을 바탕으로 환경을 위한 신소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 재료를 이용해 신소재를 만드는 유기재료공학과와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3: 여기 상평형에 대해 실험한 것 같은데 상평형이 뭐예요?</b> A: 기억이 안 납니다.</p> <p><b>Q4: 산과 염기가 무엇이에요?</b> A: pH 농도가 7.0보다 낮으면 산이고, pH 농도가 높으면 염기입니다.</p> <p><b>Q4-1: 그러면 pH 농도가 왜 그렇게 나타날까요?</b> A: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함)</p> <p><b>Q5: 구체적이진 않겠지만, 대학교 졸업 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b> A: 졸업 후 계획을 말함.</p> <p><b>Q6: 수학 성적이 낮는데 우리 학과에 오면 모든 것이 수학과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건가요?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요?</b> A: (수학 성적이 가장 높았는데 이 질문을 듣고 당황함) 수학 시험의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뿐이라서, 대학에 오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대답함.</p> <p><b>Q7: 미세 플라스틱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신소재를 이용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요?</b> A: 바이오 플라스틱을 해결 방안으로 이야기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충남대학교	<b>학 과</b>	유기재료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종합 1 일반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본인 면접 번호 확인후 면접 바로 시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위기가 편안함</li> <li>▪ 꼭 왜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되게 세세하게 물어봄(타 지원 학과도 물어봄)</li> <li>▪ 단어의 정의를 물어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해주세요</b>			
A: 저는 예전부터 화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을 이어 가던 도중 우연히 액정 탄성체라는 물질에 대해 알고 고분자 신소재가 새로운 물질로서 기존의 단점들은 보완해주고 장점들로 가득한 물질이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폴리케톤과 같은 다른 고분자 물질들을 조사하며 이 분야에 관심이 깊어져 이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1-1: 액정 탄성체란 무엇이죠?</b>			
A: 액정 탄성체란 액정 소재와 고무 소재가 결합한물질로 긴 사슬 모양의 분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공 근육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b>Q1-2: 인공근육에 왜 쓰이나요?</b>			
A: 액정 탄성체는 전기 신호나 자외선등의 자극을 주면 수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정탄성체를 인공근육 물질로 사용하고 근육처럼 수축이완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b>Q1-3: 액정탄성체의 어떠한 화학적 물성때문에 그런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질문한 의도 였는데, 이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간 대학수준의 내용이니 답 안하셔도 됩니다.</b>			
<b>Q2: 왜 꼭 우리학교에 지원 하셨나요? 분명 다른 학교도 지원했을텐데</b>			
A: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조사하던 과정 중에 저는 충남대가 환경 소재 혁신 인력 양성 사업 선정이 되었다는 사실과 에너지환경기술 부분을 연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남대와 자의 최종 목표가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학교에 지원 했습니다.			
<b>Q2-1: 최종 목표가 정확히 무엇이죠?</b>			
A: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액정 탄성체로 시작해 폴리케톤과 같은 친환경 고분자로 관심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친환경 고분자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b>Q2-2: 다른 학교들의 학과는 어떤 것으로 지원 했나요?</b>			
A: 고분자 공학과로 지원했습니다.			
<b>Q2-3: 고분자 공학이라면 특정 학교들이 다 추리가 되는데 그학교 되면 거기 갈꺼 아니에요? 우리학교 안올거 잖아요?</b>			
A: 현재로서는 다른 학교들은 힘들어서 충남대가 가장 간절합니다...(면접관님들의 웃음)			
<b>Q3: 학과랑은 관련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크놀프라는 책을 읽었네요. 저도 이 크놀프런 책 되게 좋아하는데 크놀프 줄거리가 무엇이죠?</b>			



A: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4: 수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 잘했었는데 미분이 무엇이죠?**

A: 미분이란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이나 변화량 값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Q5: 그럼 고분자의 정의는 무엇이죠?**

A: 고분자란 분자량이 대략 1만 이상이고 사슬처럼 계속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Q6: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A: 전 저에게 한번 시작하면 끊임 없이 노력하는 끈기 어떠한 과제 집착력이 좋습니다.(말을 끊고 아까 크놀프 책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믿죠? (웃으며 농담이에요 계속 해보세요.)) 네 저는 이러한 저의 장점을 제가 고분자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수 있겠습니다. 고분자가 계속된 끊이지 않는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저의 끈기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목표를 끝내 해내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충남대학교	<b>학 과</b>	인공지능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종합II 소프트웨어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분은 압박 질문 위주, 다른 한 분은 편하게 해주는 면접 스타일</li> <li>▪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면 자신이 했던 활동이나 제작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가는 것이 필수</li> <li>▪ 꼬리 질문 잘 준비하기</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말씀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 AI 연구원을 꿈꾸는 지원자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과학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컴퓨터 과학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자료구조, 정보과학,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초 등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학과에서 다양한 실습과 지식을 쌓아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국방 AI 연구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2: 인공지능의 많은 분야 중 왜 국방 인공지능에 관심 갖게 되었나요.

A: 인공지능의 실생활 활용에 대해 뉴스,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의 활용도와 이점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살상이 아닌 보안 부분에서 국방 분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방 분야 연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도 함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Q3: 인공지능 관련해서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 설명해주세요.

A: 딥러닝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 제작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활동에서 저는 문장과 문단과 같은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텍스트 분석을 위한 예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FOKENIZER 클래스를 사용하여 시퀀스 데이터로 변환한 후 sequential 모델을 사용하여 임베딩 레이어, lstm 레이어, 밀집 레이어가 순차적으로 쌓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model.fit 매서드를 호출하여 학습 시키고 epochs 매개변수를 통해 훈련 반복 횟수를 지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훈련된 모델은 새로운 텍스트에 대한 감정 분류를 예측하였습니다.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는 순환 신경망을 구현하면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과 에포크 수 튜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학습시킬 텍스트 데이터 양이 너무 적어서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도구를 사용하였고, 더 많은 데이터와 앙상블 모델 이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딥러닝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딥러닝에 대한 흥미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Q4: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을 해주세요

A: 먼저, 본 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학과에 입학하여 이산수학,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지식을 탐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국가의 안보를 혁신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국방 ai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1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생기부 기반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복은 착용 불가(블라인드), 단정하게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음.</li> <li>▪ 전자기기 소지 불가</li> <li>▪ 대기실에서 자료 열람 가능</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 해주세요.</b> A: 전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경험 밝힘. 특히 물리 동아리 시간때 빗면에서 물체를 떨어트려 가속도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공식값과 비슷한지에 관한 실험과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본 활동 설명함. 이후 동아리 후배들에게 실험방법과 함께 실험을 도와준 경험 제시함. 전기.전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힘.</p>				
<p><b>Q2: (생기부관련) 스마트그리드가 무엇인가요?</b> A: 효율적으로 전력을 분배해주는 시스템임을 밝힘.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적절히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임을 제시함.</p>				
<p><b>Q3: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요?</b> A: 특별히 나서지는 않지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p>				
<p><b>Q4: 출결 관련 질문?</b> A: '간'이 안좋아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상황을 설명함.</p>				
<p><b>Q5: 자신이 학교생활 중 했던 리더십 일화를 설명해주세요.</b> A: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 때 친구들을 이끌었던 경험 제시 및 동아리 시간에 후배들에게 실험하는 상황을 보조하고 가르쳐줬던 경험을 제시함.</p>				
<p><b>Q6: (생기부 관련) 3학년 시기에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b> A: 수강하는 과목의 인원이 더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꼬리질문 다수)</p>				
<p><b>Q7: 이곳에 진학한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b> A: 대학교 전공 수업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여러 실습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p>				
<p><b>Q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b> A: 현장에서 다소 부족한 면을 보인 것 같지만 입학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충남대학교	<b>학 과</b>	중어중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 종합	<b>전 형 명</b>	종합 I 일반
<b>면접</b>	<b>면접 시간</b>	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b>	<b>면접 절차</b>	면접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차례로 한 명씩 들어가는 방식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에 기재되어있는 중국 문학 작품이나 역사, 사건, 시사들이 있다면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좋음</li> <li>▪ 다양한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심화활동에서 꼬리질문 하심</li> <li>▪ 자기소개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꼭 준비해서 갈 것 + 자신이 후에 학과와 연관지어 뭘 하고 싶은지, 학과에 왜 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구해 준비해서 가야 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한 번 해볼까요?</b>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흐름을 읽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 간의 공통된 여러 화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하는 국제적 리더가 되고싶은 면접번호 001번 입니다!				
<b>Q2: 그럼 국제적 리더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국가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싶어서 이 학과에 온 거예요 아니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 학과에 온 거예요?</b>				
A: 제가 생각하는 국제적 리더라 함은 국가나 지역을 넘어 글로벌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학과에 온 이유는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이유 모두 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깊은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 고질적인 국가의 문제 등등 중어중문학과에서 배우는 중국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을 알아야 더욱 그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토대로 문제를 수월하게 연구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b>Q3: 그럼 중어중문학과에 와서 특별히 배우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어요? 우리 학과 교육과정을 봤나요?</b>				
A: 네! 저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시와 고전소설 부분을 깊이 배우고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어중문학과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다양한 한시와 고전소설을 보았지만 스스로 읽고 해석해나가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와 다양한 한시와 고전소설에 대해 배워 나중에는 제 스스로 한시나 고전소설 혹은 더 나아가 다른 중국의 문학작품을 보며 운율이나 시의 숨겨져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배우고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b>Q4: 다양한 고전소설과 한시를 읽었다고 했죠? 그 중 생각나는 작품 말해볼래요?</b>				
A: 저는 요재지이라는 고전소설이 인상깊었습니다. 요재지이 중에서도 신묘한 비둘기라는 일화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내용은(~~)// 말하는 도중에 중간에 끊으심				
<b>Q5: 일화는 알겠고 요재지이를 읽고 그래서 뭘 느꼈는데요?</b>				
A: 요재지이는 당대의 다른 지괴소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괴소설이라 함은 허구적이고 환상적인 소재를 이용해 이야기를 풀어내감이 대부분입니다. 요재지이 또한 동물과 인간의 사랑, 신선과 인간의 사랑 등 여러 허구적인 소재를 마찬가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재지이에는 눈에 띄는 차별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실의 부정적인 내용을 겨냥하여 허구적 소재와 엮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탐관오리의 부정부패, 과거제도의 폐단 등을 허구적인 소재와 엮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별성에서 요재지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b>Q6: 이거 어디서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직접 빌려 읽었어요? 요재지이 중 몇 권이요?</b>				
A: (실제로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어서 당황했고 면접관분이 너무 꼬리질문으로 물어보셔서 떨렸지만 최대한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려고 노력함) 제가 특정한 일화만 찾아보았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 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재지이는 인터넷에 있는 도서책에서 구입해서 읽기도 했었고, 도서관에 있는 요재지이도 찾아보았었습니다.				
<b>Q7: 이걸 다 요재지이를 보면서 혼자 느낀 거예요? 공부할 때 다른 거 뭐 읽었죠? 다른 참고한 설명이나 그런 거 있죠?</b>				
A: 제가 요재지이를 처음 접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 해석이나 일화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존재하여 다른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요재지이 원전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해 검색하고 책을 찾아보면서 최대한 모르는 부분이 없게끔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심층적으로 조사하다보니 제가 해석면에서 어려워했던 부분을 조금 더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요재지이가 다른 작품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b>Q8: 여기 한문시간에 한시에 관해 탐구했다고 나와있는데 무슨 한시 읽었는지 기억나요?</b>				
A: 네 절구와 강촌, 추야우중 등등 다양한 한시가 기억납니다. 또 그중에서 등관작루라는 작품을 한문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었는데				

집에 가서 등관자루에 대해 깊게 탐구해보았어서 그런지 이 작품이 가장 깊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Q9: 그래요. 여기 중국 경제성장을 변화를 중국의 다양한 사건들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고 나와있는데 저희한테도 한 번 이에 대해 설명해볼래요?**

A: 앞서 중국은 다양한 경제 변화를 맞았습니다. 저는 문화대혁명, 대약진운동, 천안문항쟁, 코로나팬데믹 등의 사건들을 엮어 설명하였었는데요. 먼저 문화대혁명이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약진운동은 더 많이, 더 싸게 등등의 슬로건을 내비치며 경공업과 농업을 희소시 하지 않으며 제조업적인 측면에서 성장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천안문항쟁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유혈탄압이었고, 마지막으로 코로나팬데믹은 전 세계를 강타한 질병 문제였습니다.

**Q10: 그래서 그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에 어떤 변화를 미쳤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중국 경제를 나아지게 했고 어떤 사건이 중국 경제를 퇴화시켰다고 생각하나요?**

A: 저는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제조업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불러왔다고 생각하여 두 사건이 중국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대혁명과 코로나팬데믹은 사람들간의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과 질병적 문제로 여러 위기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 측면에서 퇴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Q11: 중국과 한국의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적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된 문제가 있었는지 말해 볼 수 있나요?**

A: 저는 중국과 한국의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각국의 문제에서 공통적인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본국의 고용감소입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려면 그만큼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모두 인원을 감축하거나 기업에 투자를 축소하는 등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두 나라의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더욱 힘들어져 저임금의 비정규직인 직업을 억지로 찾아나서거나 일자리를 얻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Q12: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A: 현재 줄어든 투자율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렇듯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일자리와 임금을 내어주는 기업 또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장하고 또한 청년들이 자신과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어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3: 2학년 때 무단 지각이 많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줄 수 있어요? 무단지각도 있고 인정지각도 있을텐데 다 무단지각 처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학생은 지각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이를 2학년 때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시험기간만 되면 무리해서 밤을 썼고 다음 날 아침에 계속해서 지각을 하는 등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안일한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늦게나마 깨달아 2학년 2학기 이후부터는 무리해서 밤을 새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2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면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새 지각을 하였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각을 학교와 나의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잦은 지각 후에 선생님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를 깨달았고 그 이후로 지각을 줄여나가려 노력했습니다.

**Q14: 중국에 대해 탐구한 또 다른 기억에 남는 활동 있어요?**

A: 저는 중국의 환경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덴초강의 사례를 보며 중국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중국 환경 문제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제조업적인 측면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나라이니만큼 공장이나 폐수 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공장 폐수들이 식수원 상류에서 유출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원인을 탐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 그리고 그 대책의 한계점과 보완책까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Q15: 나중에 중어중문학과에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운 후에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어요? 직업적으로나 하고싶은 일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는 적 있어요?**

A: 저는 제가 한시를 읽고 중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중국의 문학 작품이나 역사를 배우며 흥미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어중문학과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중국 문화와 역사, 시사에 대해 배우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면 "문화마케터"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은 중국어가 많이 미흡하지만 중어중문학과에 다니며 중국어에도 능통해진다면 중국과 한국의 매끄러운 소통을 돕는 통역사 직업에도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16: 대답을 잘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제가 읽은 공자의 논어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처럼 중어중문학과에 와 여러 것을 배우며 배움의 내용을 제 스스로의 것으로 소화시키며 진로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나를 발전시키는 능동적인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후에 덧붙인 말은 기억이 안 남.. 대략 30초 정도 더 말하고 말 끝마침)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충남대학교	학 과	천문우주과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 형 명	종합 I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입장 후 → 질의응답 → 인사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기부를 꼼꼼하게 보아야 함.</li> <li>▪ 선택과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심(만약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걸 추천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학생이 우주과학자 또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학과에 지원했을 텐데 지원동기가 무엇인지?</b></p> <p><b>Q2: 학생이 생각하기에 천문학에서 우주 연구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인공위성을 날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b> A: 우주쓰레기 때문이라고 함.</p> <p><b>Q3: 과거에 우주쓰레기가 많지 않을 때도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과거에는 왜 그랬나요?</b></p> <p><b>Q4: 물리2 지구2 기하를 선택하였는데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천문학에서는 수학을 많이 사용하고 지구적인 부분에서 배워야하고 물리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물2 지2 기하를 선택하였다 함.</p> <p><b>Q5: 지구과학실험도 수강했네요. 근데 왜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는 선택하지 않았나요?</b> A: 확률과 통계 대신해서 심화 수학을 들었다고 함.</p> <p><b>Q6: 심화 수학과 확통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기에 심화수학을 선택하였는 지, 심화수학에서는 무엇을 했는지?</b> A: 내가 생각하기에는 확통은 완전 다른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심화수학에 수학에서 더 심화적인 것을 공부하기에 선택했다고 함. 그리고 심화수학에서 한 것을 설명해 드림.</p> <p><b>Q7: 물리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b> A: 캐플러 법칙에 대해서 말함</p> <p><b>Q8: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서 과학사를 수강하였는데 과학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b> A: 과거에 걸음과 그림자의 길이를 비례를 이용하여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한 과학자에 대해서 배운 것이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이유를 설명함</p> <p><b>Q9: 그 과학자 이름은 무엇인지?</b> A: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함.</p> <p><b>Q10: 동아리가 과학실험동아리 같은데 동아리에서 실험한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b> A: 켈빈워터드롭퍼 실험을 7~8번 정도 지속적으로 도전해서 성공한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을 하게 되면서 실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킨 실험이라고 설명함. 그래서 이 실험에 이어서 3학년 때 발전기 실험도 해보았다함.</p> <p><b>Q11: 동아리에서도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반장 및 부반장을 하였는데 평소에도 리더십이 있고 이끄는 성격인지?</b> A: 그렇다고 함. 성격이 누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것 보다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끄는 것을 좋아한다함.</p> <p><b>Q12: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싶은 말 하세요</b> A: 아까 과학자 이름 알아서 다시 오겠다 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철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1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1층 안내 → 대기실 입실 → 신분확인 → 면접안내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장소가 작은 편 (교수님 연구실로 예상됨)</li> <li>▪ 입실 시간 이후에는 준비자료나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과 화장실 이용도 매우 어려움(9번기준 1시간 20분 대기. 초콜릿 같은 간식 준비해 가는것도 좋을듯 함).</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자.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얘기해볼게요.

A: 안녕하세요. 철학을 통해 세상에 질문하고 싶은 가번호 ~~~입니다. 저는 인간행동의 본질에 대해 관심이 있어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리와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업 등으로 인한 자신존재의 회의감을 실존주의로 부터 답을 찾아냈고, 응보주의와 회복주의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저는 세상에 지문을 던지는 기자가 되고싶어했습니다. 영국의 기자 위컴 스티드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철학을 세상에 시험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을 언론에서 찾았다는 말입니다. 충남대는 동서양 사상의 흐름과 문제 중심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저와 잘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충남대 철학과에서 저만의 철학을 만들어 세상에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Q2: 그렇다면 언론에 철학을 이용하겠단 말인가요?

A: 아닙니다, 저는 저의 철학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언론을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 철학을 사회에 접목시켜 보고 싶습니다.

#### Q3: 그러면 ~~~~~(철학 종류)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겠네요 뭐 읽은것중 기억남는것 있나요?

A: 저는 철학사에 대한 책을 읽었던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기억이 남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이 가장 아테네에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마주하였을때 자신만이 무지함을 인지하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이야기를읽으며 왜 소크라테스의 너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성립되었는지 더 직접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었습니다.

#### Q4: 그렇다면 본인에게 소크라테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건가요?

A: 저는 제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으로 실존주의를 꼽고 싶습니다.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라는 말을 통해 현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자기자신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도한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타인이 정한 기준에 맞춘 채 살아가기에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이 부족하였고 그로인해 현대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찾던 저에게 실존주의는 답이 되었기에 실존주의를 꼽고 싶습니다.

#### Q5: 심리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 심리학과 철학의 탐구과정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볼래요?

A: 네 먼저 심리학 같은경우 사회과학 계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심리학은 과학의 탐구 과정을 따르고 특정한 고정불변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철학은 답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그시대에 맞지만 이시대엔 맞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철학은 좀더 열린 방향으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6: 봉사활동이 학교에서 한 것 밖에는 없는거 같은데 뭐 한거 있나요?**

A: (당황) 저는 지역축제 보조와 유기견 봉사일을 했습니다(안함. 땀임). 유기견 사육장 청소등을 통해 유기견의 현재 상태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Q7: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뭔가요?**

A: 저는 철학 책 쓰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저는 다원주의와 그 한계에 대한 책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사회는 많은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기에 다원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다원주의에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인간의지평이라는 점이 원인 입니다. 인간의 지평이란 전쟁과 같은 폭력적 행위를 인저하지 않는것 입니다. 이 버칙에 따르면 보편타당한 법칙이 없다는 다원주의의 기본에 위배되기에 다원주의의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저는 상대주의에 대한 관점으로써 앞으로의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8: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차이가 뭐죠?**

A: (꺾 망했다 뭐지) 다원...주의와 ... 다... 문화주의의.....차....이.....(“편하게 말씀하세요”) 다원주의 안에 다문화 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다원주의는 모든것의 다름을 존중하는것이고 다문화주의는 그것이 문화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철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종합1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대기실에서 다른 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li> <li>대기시간 동안 자소서나 생기부, 책 볼 수 없고 전자기기도 사용 못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b>  A: 저는 고등학생 때 다양한 철학적 주제들로 토론하고 탐구하며 철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왔습니다. 저의 꿈은 철학적 주제들을 전달하는 교양프로그램 작가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저의 철학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철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은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b>  A: 저는 사람들이 철학을 그저 어려운 학문으로만 여기는 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철학의 필요성과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철학적인 사회 이슈들에 대한 가벼운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도 철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훈을 담은 짧은 애니메이션도 제작해보고 싶습니다.</p> <p><b>Q3: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급 부반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이야기해주세요.</b>  A: 저는 주로 학급의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구들이 학업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영어 어휘를 익히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 매일 아침 필수 영단어를 칠판에 적어서 친구들이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전해주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입니다.</p> <p><b>Q4: 동아리 시간에 보고서를 많이 작성했는데 기억에 남는 보고서가 있나요?</b>  A: 지금까지도 큰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19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칸트의 의무론, 벤담의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p> <p><b>Q5: 동양철학에 대해 관심있거나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b>  A: 세계사 시간에 짧게 배웠던 제자백가 사상에 흥미를 느낀 적이 있어서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춘추전국이라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해결해나가는 철학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p> <p><b>Q6: 공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b>  A: 공자가 원하는 이상사회인 대동 사회를 바탕으로 설명해보자면 공자는 도덕적인 세상을 원하는 학자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군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나라의 백성들 또한 가족, 친구가 아니라도 선한 본성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자의 목표입니다.</p> <p><b>Q7: 준비해왔는데 못한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b>  A: 저는 누구보다도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철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색다른 것들을 경험하며 세계적인 인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충남대학교	<b>학 과</b>	토목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 종합	<b>전 형 명</b>	종합 I 일반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15분 내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함.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유사한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잘 살펴서 준비했던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음.</li> <li>▪ 생활기록부의 내용 및 물리, 미적분, 확률과 통계 교과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으므로, 교과 지식이 잘 쌓여 있다면 충분히 답변을 잘할 수 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b>          A: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번호 3번입니다. 전 고등학교 3년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렀고 열심히 공부하며 학습능력의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충남대의 교육목표인 창의융합인재에 맞다는 생각을 하여 충남대에 면접을 보러오게 되었습니다.</p> <p><b>Q2: 토목공학과에 필요한 과목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b>          A: 수학과 물리, 수학에서는 특히 미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b>Q3: 물리를 수강하지 않으셨는데 우리학과는 공학과인만큼 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를 수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b>          A: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하여 문과 과목과 이과 과목을 섞어서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2학년때 세계사, 생명과학, 화학을 선택하였는데, 이때 넓어진 시야로 토목공학과가 제 적성에 맞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리 공부는 스스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서 학과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p> <p><b>Q4: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b>          A: 방향성의 유무입니다</p> <p><b>Q5: 뉴턴의 물리3법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b>          A: 1법칙은 관성의법칙으로 물체가 제 성질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으로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합니다. 3법칙은 작용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두 물체가 서로 상호 작용할 때 그 물체가 받는 힘은 서로 같습니다.</p> <p><b>Q6: 미적분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예시를 들어보세요.</b>          A: 미적분은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p> <p><b>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b>          A: 면접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대에 입학하는 것이 제 학습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충남대에 들어와서 항구와 항만설계의 전문가가 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학과	화학공학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전형명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면접실에 들어가서 간단히 자기 소개 후 면접관 질문 진행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관들이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므로 크게 걱정하거나 떨지말고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화학공학교육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말해보세요</b> A: 어린 시절부터 사소한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화학을 통해 해답을 찾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꼈다.</p> <p><b>Q2: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b> A: 학생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공감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p> <p><b>Q3: 수능이 끝나고 무엇을 하였는가?</b> A: 일본어에 흥미를 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부족한 영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p> <p><b>Q4: 고등학교 시절 학업 외의 시간에는 무엇을 하였는가?</b> A: 7080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해 트러먼쇼, 델마와루이스 등의 영화를 보고 여가 시간을 보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충남대학교	<b>학 과</b>	화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종합 I 일반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5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 → 설문조사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대기실에서 화학과, 물리학과 친구들과 같이 대기함.</li> <li>▪ 대기시간 동안 자소서나 생기부, 책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사용 못함.가서 볼 종이, 생기부만 가져가고 되도록 짐은 가볍게 가져가기.</li> <li>▪ 한 분은 듣기만 하시고 거의 한 분만 질문하고 대답하셨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말해주세요</b>				
A: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와 분자 같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눈으로 보이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해 화학을 좋아하게 된 학생입니다. 충남대학교 주변에 좋은 연구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졸업 후에 제가 여기서 얻는 이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충남대학교 화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Q2: 수학 성적이 1학년 1학기 땐 좋았다가 2학기 땐 많이 떨어졌네요, 이유가 있나요?</b>				
A: 1학기 때 수학 성적이 너무 자만하여 2학기 수학 공부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에 이룬 것에 자만하지 말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2학년 때와 3학년 때는 성적이 잘 나온다 해서 그것에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여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게 되었습니다.				
<b>Q3: 나일론 합성 실험했었네요. 설명해보실 수 있으세요?</b>				
A: 나일론 합성 실험은 염화 아디프산과 어떤 물질(헥사메틸렌디아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축합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나일론은 대표적인 고분자 화합물의 예시로 수소결합이 가능한 아미드결합을 합니다. 여기서 아미드결합은 한 아미노산 분자가 다른 아미노산 분자와 반응하여 물 분자를 방출하면서 합성되는 반응입니다.				
<b>Q4: 르 샤틀리에의 원리가 질소 비료(생기부에 질소 비료로 적혀있었음.), 아니 암모니아 합성에 이용이 되죠?</b>				
A: 네 그렇습니다.				
<b>Q5: 또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b>				
A: 르 샤틀리에의 원리는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가역반응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거 듣고 면접관 분이 끄덕끄덕 하셨음.) 르 샤틀리에의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면 정반응이 촉발되어 더 많은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b>				
A: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꾸준히 화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지속하여 충남대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한 후 한국의 화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화학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학과	간호학과
전형유형		수시2차	전형명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20분	면접위원 수	1명
	면접 절차	문답 형식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분 동안 영어 시험을 본 후 면접을 진행</li> <li>수험생 4명이 동시 입장</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나요?</b>  A: 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이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던 중 진로활동 시간에 직업 탐구를 하게 되었고, 간호학과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간호학과에 대해 알아보면서, 간호사가 제 성격과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p> <p><b>Q2: 학교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한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b>  A.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심리학 개론에 대해 알게 탐구했습니다.</p> <p><b>Q2-1: 프로이트에 대해 알고 있나요?</b>  A. 심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p> <p><b>Q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b></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한국침례신학대학교	<b>학 과</b>	인문사회과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기독교인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4~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대기실에서 면접 차례를 기다림. 면접이 끝나면 바로 귀가하거나 캠퍼스 투어를 하는 것도 가능함.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는 되도록 단정하게 묶고 캐주얼한 정장을 입는 것이 좋을 것 같다.</li> <li>▪ 선배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입시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li> <li>▪ 긴장이 되더라도 원하는 바만 잘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면접에 참여하면 긴장감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b>          A: 평소에도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추천과 조사해 본 결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심리학과가 여러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음을 답변하였음.</p> <p><b>Q2: 주변에서는 우리 학교의 어떤 점을 장점으로 얘기하였나요?</b>          A: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장점들에 대해 답변하였음.</p> <p><b>Q2: 인상 깊은 성경 구절이 있나요?</b>          A: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늘 마음속에 두고 있던 말씀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성경 구절을 늘 숙지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였음.</p> <p><b>Q3: 우리 학교에 와서 신앙심 있게 활동할 자신이 있습니까?</b>          A: 입학한 후 신앙심 있게 활동할 자신이 있음을 표현하였으며, 입학 후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며 답변하였음.</p> <p><b>Q4: 나가는 방향을 가리키며 '나가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함.</b>          A: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퇴실하였음.</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포항공과대학교		학과	단일계열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
면접 형식	면접 시간	30분(제시문 열람 28분 추가)	면접위원 수	4명(각 면접실당 2명)
	면접 절차	28분간 열람실에서 사고력, 잠재력 제시문을 열람한 후 각 지문의 문제에 대해 15분동안 면접으로 대답(+ 잠재력 면접은 일부 생기부 질문도 있었음)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기부 질문은 사실상 매우 적은편. 문제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거에 집중해야 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1. 사고력 면접</b></p> <p><b>Q1: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지문(이진법) &amp; DNA 컴퓨팅 지문 - 위키피디아 700만개 단어가 있음. 이를 종이책으로 만들면 무게가 얼마일까?(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남)</b></p> <p>A: 단어를 무게로 바꾸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한 페이지당 단어가 몇 개 있는지 알아 봐야 함. 열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글이 제시문밖에 없기에 제시문의 한 페이지당 단어 개수를 셈. 가로 세로 단어 수를 세서 돌을 곱하여 한 페이지당 단어수를 세고 이를 총 단어 수로 나누어 필요한 페이지 수를 구함. 종이 한 장당 무게는 구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임의로 5g으로 가정하여 구함.</p> <p><b>Q2: DNA컴퓨팅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직접 생각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P를 아스키코드로 변환해라.</b></p> <p>A: DNA의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보고 AT와 GC쌍을 하나의 데이터 단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쌍은 분자량의 차이가 거의 없기에 인식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중가닥을 단일가닥으로 분리하고 A또는 T일 때 0, G또는 C일 때 1로 배정하여 P를 표현하면 됩니다.</p> <p><b>Q2-1: 그러면 A,T를 구분할 수 없는데, 좀 더 개별적인 염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b></p> <p>A: 각 염기에 대해 2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면 될 듯합니다. 임의로 A - 00, T - 01, G - 10, C - 11 이런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p> <p><b>Q3: DNA로 인류의 모든 정보를 환산하면 무게가 얼마나 될까?</b></p> <p>A: 위 방식대로면 염기 1개당 2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인류의 모든 정보 크기를 2로 나누면 필요한 염기의 개수가 나오고 당, 인산, 염기의 분자량을 통해 총 질량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b>Q3-1: 그러면 A,T를 구분할 수 없는데, 좀 더 개별적인 염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b></p> <p>A: 각 염기에 대해 2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면 될 듯합니다. 임의로 A - 00, T - 01, G - 10, C - 11 이런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p> <p><b>Q4: DNA 컴퓨팅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라.</b></p> <p>A: DNA컴퓨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어 잘못된 답변일 수도 있지만 대답해보면, 장점으로는, 앞 문제에서처럼 대량의 정보를 작은 규모로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이를 읽는 과정이 기존 전기기반 컴퓨팅 기법보다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p> <p><b>2. 잠재력 면접 - 나이팅게일 그래프 지문 &amp; 관련 여러 그래프들</b></p>				

**Q1: 나이팅게일은 왜 사상자 그래프를 원형으로 만들었을까?(막대그래프와 원형그래프를 비교하라 했음.)**

A: 사람은 기본적으로 길이보다는 넓이를 더 직관적으로 인식합니다. 막대는 위아래의 길이당 면적비가 동일하지만, 부채꼴은 원의 외곽일 수록 같은 길이여도 넓이가 커집니다. 따라서, 나이팅게일은 강조하고자 한 발효병 사망자를 원의 최외곽에 배치하여 같은 길이여도 그 넓이를 과장되게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Q2: 그래프를 보고 위생위원회의 효과를 설명해 보라.**

A: 위생위원회 이전의 그래프를 보면 전투 사망자의 수가 급증하고 1~2달 후 발효병 사망자가 급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격렬한 전투로 인한 위생상태의 악화나 전염병 등이 시간간격을 두고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위원회 이후에는 전투 사망자가 증가한 후에도 발효병 사망자의 급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생위원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Q3: 나이팅게일의 사례를 통해 사회에서의 과학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라.**

A: 과학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바꾸고 필요하다면 대중을 설득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과학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3. 생기부 관련 질문**

**Q1: 생기부를 보니 레이트레이싱, 람베르트 법칙 등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활동을 직접 했나요?**

A: 네.

**Q1-1: 그림 람베르트 법칙이 뭔가요?**

A: 컴퓨터 그래픽에서 빛의 완벽한 전반사를 가정한 법칙이다.

**Q1-2: 레이트레이싱을 구현했다면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했을텐데 어떤 것을 사용했나요?**

A: 과정을 직접 구현한거라 math 등 기본적인 연산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했습니다.

**Q1-3: 그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A: 3D 좌표계 설정에서 폴리곤 방식이 아니라 수학적 개념으로 구현했다는 것을 설명함. 이로 인해 충돌 알고리즘도 빛을 직진시키며 판단함을 설명했음.

**Q2: 생기부 전반적으로 반장 등의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아 리더쉽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해달라.**

A: 대표적으로 2학년 동아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동아리원들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다같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역할분담을 하니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리더는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우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교원대학교	학과	불어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학생부종합우수자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대기: 개인차, 면접: 10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자기 순서 대기 → 제시문 답안 작성 → 답안 바탕으로 질문 응답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전 준비시간이 있으니 준비한 예상 답안 보고 들어가세요.</li> <li>▪ 분위기를 풀어주는 면접관이 계시테니 그분을 응시하며 대답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제시문〉 Q1.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Q2.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p> <p>〈개방형 질문〉 Q1: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가 집필한 에밀이라는 책을 읽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루소는 에밀의 교육과정을 보여주며 자연과 인간, 사물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교육한다고 보았습니다. 루소는 소극적 교육을 지지해 인간의 자연적인 발전에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는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간섭을 자제하고 운동을 자유롭게 시키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교육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루소의 교육관과 제가 공부해 온 방식이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시간과 학습량을 관리하며 공부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 성적을 올릴 수 없어 좌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 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의 커리큘럼을 잘 따르면서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학생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교사로서의 목표입니다.</p> <p>Q2: 그 책에서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은? A: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오로지 자유를 잘 규제하기만 하면 된다.' 저는 교사가 되었을 때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교사의 잦은 학생을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특기를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돕고 싶습니다.</p> <p>Q3: 프랑스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A: 평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친구들과 활동 중 저의 가르침을 통해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육 가치관인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학생의 발전과, 프랑스의 공교육 우선 제도가 연관이 깊은 점에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언어를 포함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가치관까지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교육철학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심이 담긴 프랑스어 교육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A: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불어교사라는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불어교사에 대한 주변의 낮은 시선이 저를 좌절시킬 때도 있었지만 불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도자기와 같은 학생들을 잘 빚어서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한국교원대학교	<b>학 과</b>	생물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생부종합우수자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발표 자료 작성(10분)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실: 학과별로 대기실 분리(건물도 계열별로 다르니까 확인하기)</li> <li>▪ 대기시간동안 자소서나 생기부, 책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사용 못함.</li> <li>▪ 면접 대기시간에 대기실 감독관 허락 하에 화장실 갈 수 있음</li> <li>▪ 발표작성실: 발표작성실에 타이머가 있으나 면접실에는 시계만 있음. 제시문은 발표자료작성실에서만 볼 수 있고 작성은 별도 A4용지에 할 수 있음. 발표자료를 작성한 용지는 수거하고 이전 면접자의 면접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받을 수 있음</li> <li>▪ 면접실: 답변 시간이 3분(전체 10분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와 관련된 주장을 주로 말씀드렸고, 꼬리질문을 통해 근거를 보충함</li> <li>▪ 면접 분위기는 모의면접과 거의 비슷</li> <li>▪ -개방형 질문은 기출 참고해서 준비해갈 것(기출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제한시간 3분 동안 제시문 1번, 2번 문제에 대한 답변 하시면 됩니다.</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제시문 1번 - 학생 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감소)를 보고 이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교육적 대응은?          •제시문 2번 - 다문화 학생 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증가)를 보고 이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 이에 대해 필요한 교사의 역량은?</p> </div> <p>A: 1번에서 학생 수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학급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면 학교수업의 질이 높아져 공교육 강화의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p> <p>2번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가 적을 때는 다문화 학생 수라는 단순한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이유로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때 존중은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문화 학생 역시 한국 학생과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p> <p><b>Q2: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b></p> <p>A: 학생들이 선호하는 사교육의 유형 중 하나가 1대1 과외입니다. 이 방식은 강사가 단 1명의 학생에게 집중함으로써 학생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강사는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한지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 배우는 사람의 수가 적을수록 학습자가 더 질 좋은 수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b>Q3: 교사가 다문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b></p> <p>A: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런 문화를 알아야 학생이 부정적인 의도를</p>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우리와 다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우리나라의 기준만으로 학생을 잘못 판단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학생은 한국교원대에 들어와서 키우고 싶은 역량이 무엇입니까?**

A: 저는 소통하는 능력과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함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지원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교사로서 학생들과 정서적 교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과 교사는 하루의 거의 1/3을 함께 지내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학생들에게 교사는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의 정서적 교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을 교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5: 학생이 교과 외에 했던 활동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시험 공부 외)**

A: 3학년 동아리활동 때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가위의 작용기작을 조사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C언어로 코딩하였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기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용어가 낯설고 어려워서 세부 기작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던 덕분에 가이드 RNA가 목표 서열을 찾고, 도메인이라는 것이 목표 서열을 절단하는 방식이라고 단순화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 어려운 용어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물러서기보다는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코딩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람)

**Q: 계속하세요.**

A: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크리스퍼의 작용기작을 간단하게 단순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활동을 할 때 C언어에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형식을 많이 사용해야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오히려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한국교원대	<b>학 과</b>	영어교육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학생부종합우수자 일반전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신분확인 →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복도 대기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대기실에서 같은 과 사람들과 대기 번호 기준으로 절반씩 2개의 조로 나뉘어서 들어감.</li> <li>▪ 대기 시간 동안 자소서나 생기부, 책 볼 수 있고 전자기기는 사용 못 함.</li> <li>▪ 실전에서 질문을 길게 하시면 헛갈릴 수 있으니, 질문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음.</li> <li>▪ 교원대는 영어 문답이 하나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닌데, 모르고 보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음.</li> <li>▪ 교원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교수님들이 감정적 반응은 별로 없으신데 고개는 잘 끄덕여주셔서, 다른 대학에 비해 긴장이 덜 되는 편임.</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 제시문 〉</p> <p>권력에 의한 통제에 대한 특정 학자의 주장 제시</p> <p>(A)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p> <p>(B) 일정 수준 통제해야 한다. 교권 추락과 학생 이탈 위험을 막아야 한다.</p> <p><b>Q1: A, B 중 찬성하는 쪽을 말하고 근거를 2개 이상 대시오.</b></p> <p>A: 1번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학생 통제와 관련된 두 입장 중 (A) 입장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학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을 배우는 곳이고, 사회에서는 사회 및 국가 유지를 위해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도 규칙을 잘 지키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을 일정 수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제가 없는 경우 타 학생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개인의 이탈 뿐만 아니라 타 학생들의 이탈과 타 학생들이 겪을 피해를 고려해서 학생들을 일정 수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2: 찬성하는 쪽의 단점과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이야기하시오.</b></p> <p>A: 다음으로 2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지문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학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통제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상벌점 제도와 같은 경우, 상 벌점을 매기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불공정하게 상벌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개성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규격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연색 금지와 같은 교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타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허용하여 학생들의 개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개별 질문 〉</p> <p><b>Q1: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영어 수업 중에서 좋았던 수업방식과 안 좋았던 수업방식을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현재 평가 방식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말해보세요. 생각할 시간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b></p> <p>A: (10초 정도 생각 후) 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영어 수업방식 중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각 모둠에서 멘티를 한 명씩 뽑아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 한 지문을 해석하는</p>				



모둠활동을 했었는데요, 멘토는 멘티 학생들에게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멘티는 멘토에게서 자신이 몰랐던 것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학생들이 함께 지문을 해석하며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단순히 지문을 해석하기만 하는 수업방식은 조금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문을 해석하는 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도, 학생들 간에 소통이 전혀 일어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았던 수업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Q2: (질문 잊어버려서 5초 정도 가만히 있었더니 뒷부분 질문을 다시 말씀해주셨습니다.)**

A: 저는 현재의 시험과 같은 평가 방식이 학생의 지문 해석과 관련된 평가는 가능하지만, 듣기나 말하기 등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상 AI와 소통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영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기 좋았던 장소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영어로 대답해주세요.**

A: (한국어) 영어로 답해야 하나요? (고개 끄덕이심) (영어) 저는 제 집에 있는 제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게 집은 편하고 친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한국교통대학교	<b>학 과</b>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나비인재전형 I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비대면면접
	<b>면접 절차</b>	비대면 면접(면접일 1일간 공개된 면접 문항에 대해 10분간 녹화된 영상 업로드)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면접이라 해서 대본을 보고 읽으면 티가 많이 남. 가급적 외워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보기에 좋음.</li> <li>▪ 비대면 면접일 전에 연습 녹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서 그 기간동안에 영상 촬영 및 업로드 요령을 꼭 익혀놓는 것이 중요함.</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전공적합성]지원학과(학부)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진학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둔 교내 활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A: 첫 번째 문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철도가 있어 매일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지나가는 기차를 보며 기차라는 기계와 그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라는 직업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차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과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강하였으며, 특히 물리 수업을 들으며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하여 기차의 제동거리를 계산해본 경험은 물리학을 통해 기차의 운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동거리는 기차 운행에 꼭 필요한 요소로 등가속도 운동 중 음의 가속도를 이용해 열차의 기종과 속력에 따라 제동거리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3학년 전공 트랙킹 활동과 진로 시간 진로 탐구 활동을 통해 기관사의 직무와 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등 기관사로서의 삶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로 탐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기관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의한 직무스트레스가 기차 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문을 읽고 회복탄력성이 기관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부정적인 상황에서 안정된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차를 운행하며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대처하여 직무스트레스가 기차 운행에 지장이 없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기관사가 되기위해 철도차량시스템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전공적합성\_학업성취도] 지원학과(학부)를 진학하기 위해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한 교과목과 그 교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A: 두 번째 문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철도차량시스템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한 교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철도의 운행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차의 운행은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 철로구간에 따라 적절한 속력을 내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석에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주어진 문제를 수학의 개념과 논리를 이용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하여 제 생각을 점검해보므로써 문제를 끝까지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문제를 옳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문제를 만들어 해결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Q3: [인성]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A: 세 번째 문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에 가장 어울리는 가치관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업시간에 제가 나서서 돋보이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 친구들이 돋보이게 배려하고 양보하였습니다. 체육 경기에서 친구들이 즐겁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미술 시간에는 미술 도우미를 맡아 친구들의 미술수업 준비와 뒷정리를 도와 선생님과 친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또한 영어 시간에는 조장을 맡아 친구들이 모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시간에 그렇게 헌신한 이유는 저의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좋은 결과와 성적을 얻어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따라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의 장래희망인 철도 기관사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기관사의 헌신과 노력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을 통해 길러진 헌신하는 자세는 나중에 제가 기관사를 맡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교통대학교	학과	자유전공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나비인재전형 I
면접 형식	면접 시간	6-8분	면접위원 수
	면접 절차	질문이 사전에 제시되고, 면접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함.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면접이자 업로드 형식이라 여러번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i> <li>비대면이라 시선처리가 익숙치 않아 카메라를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진학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둔 교내활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A: 제가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1학년때부터 진로특강, 신문 사설 읽기 프로그램, 진로 탐구활동을 참여하면서 공학계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학계열 중에서도 전기, 전자 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 공학과, 로봇 공학과 등 다양한 계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경험하며 제 진로에 대해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중 한국 교통대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공학계열에 관심이 있는데 다른 대학교 보다 관련학과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책임교수제와 1학년때 다양한 교양 교과목, 융복합 교과목, 전공 교과목의 강의를 들으며 저의 학문에 대한 다양성과 재능의 방향성을 깨닫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2학년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는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진학을 위해 중점을 둔 교내활동은 신문사설읽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3학년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신문사설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 주마다 새로운 주제의 신문을 스크랩하였습니다. 또 매 주 하다보니 글의 주요정점을 파악하고 저의 생각을 정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야하는 목표가 생겨서 할때마다 성취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오는 신문사설을 분석하다가 흥미로운게 생기면 바로 찾아보며 해당 분야를 더 깊게 알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신문사설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건 공학계열 신문중에서도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것을 다룬 뉴스여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공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아닌 성공과정을 알려준 뉴스여서 공학계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유전공학부 진학을 위해 중점을 둔 교내활동을 신문사설읽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2: 자유전공학부를 진학하기 위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교과목과 그 교과목의 성적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자세히 서술하시오.**

A: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교과목은 수학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와서 수학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따기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등급 향상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멘토링과 방과후, 교과상담인데요. 우선 저는 학급에서 진행하는 멘토링을 신청하였습니다. 멘토링에서는 주로 멘티가 되어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공식을 위주로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가질수있었습니다. 또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저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것이 등급향상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과후입니다. 저는 방학중에 수학 방과후를 신청하여서 남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기초를 다지며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상담입니다. 저는 2학년때 선생님과의 교과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교과상담을 통해 제가 함수와 함수 그래프 관련 문제를 힘들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위해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풀며 다양한 그래프를 접해보았고 모르는 문제들은 선생님께 수시로 질문하여서 문제해석능력을 기르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적도 많았지만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많은 문제를 풀며 수학에 자신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낄수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한 교과목을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Q3: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을 이야기하십시오.**

A: 저는 타인에게 배려를 실천한 경험으로 2학년때 1인1역으로 하였던 발열체크와 자가진단 도우미, 학급자치활동을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1인1역이지만 코로나가 활발했을 시기 였어서 발열체크를 해주고 자가진단을 하라고 독려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고 발열체크와 자가진단 알리미를 하며 1차 피해를 줄이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1인1역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급자치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급자치활동을 할때에는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 보다는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들으며 의견 조율 하는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인1역과 학급자치활동을 하며 일일이 신경쓰고 배려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배려해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대단 하다고 생각이 들며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타인에게 배려를 실천 했던 경험으로는 1인1역과 학급 자치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과	방송영상과	
전형유형	실기/실적위주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20분		면접위원 수	5명
	면접 절차	대기실에서 대기 → 자기소개 → 질문답변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고, 답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함.</li> <li>압박 면접은 아니며 오히려 잘 들어주려는 분위기였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자기소개 해보세요</b>					
A: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더 화질 높은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한예종에 지원하게 된 수험번호 000번 000입니다. (면접관: 더 길게 말해주셔도 됩니다.) 네, 앞에서 말한 화질 좋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제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렇게 소외되어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b>Q1-1: 소수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요즘엔 유튜브에서 귀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남이 대변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b>					
A: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남이 소수자를 관찰하여 하는 이야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 - 답변 못함)					
<b>Q2: 자소서에서 시골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썼는데 어떤 초등학교였나요?</b>					
A: 저는 대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주위에 논밭이 있고 전교생이 백명도 안되는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제 학년은 열한명이 한 반이었고, 6년동안 같은 반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 세종으로 이사를 가면서 더 큰 학교와 많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에 적응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는 등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Q3: 만약에 지금 카메라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찍고 싶나요?</b>					
A: 저는 제 모교 초등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초등학교가 시골에 있기도 하고 그 옆에 호수도 있어서 주변 자연이 아름다운데, 그 풍경을 담고 싶습니다...					
<b>Q4. 드라마를 하고 싶은 건가요?</b>					
A: 네.					
<b>Q4-1: 인생드라마가 뭐예요?</b>					
A: 음, 제 인생드라마는 '시그널'입니다. 이 드라마로 미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도 좋았습니다. 또, 과거와 현재가 무전으로 이어져 함께 수사한다는 설정도 흥미로웠습니다.					
<b>Q4-2: 만들고 싶은 드라마의 내용?</b>					
A: 예전에 한 할머니께서 초등학교에 들어오셔서 함께 학교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아있어서 할머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Q5: 한예종에 왜 오고 싶어요?**

A: 저도 처음에는 꼭 한예종에 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 1차 시험을 보러 왔을 때, 학교 안에 붙어있는 수많은 포스터들과 심지어 대자보까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예술로 가득 차 있는 학교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배운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한예종에 반해서 더욱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Q6: 오늘 면접 본 감상은 어떤지 말해줄래요?**

A: 제가 세종에 살아서 오늘 아침 여섯시 반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요,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너무 떨리더라고요. 짧은 시간 내에 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 부담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옆에서 대기하면서는 설레는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예종에 다시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A: 옛날에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거나 하면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찍으시며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빨리 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사진만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 감정을 떠올리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도 사람들에게 감상과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한예종에서 이러한 영상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학과	디지털콘텐츠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신분 확인 → 대기실 입실 → 면접 → 퇴실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학과라 다른 신설학과와 함께 대기함(면접도 같은 면접관들이 진행한 것처럼 보임).</li> <li>▪ 동아리 질문이 많았어서 공통적이면서 공동체 역량을 물어보고 싶어하셨음</li> <li>▪ 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네. 없으시면 됩니다. 한국외대 디지털콘텐츠학부 지원하였죠? (면접 시 유의 사항 안내) 지원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b>  A: 안녕하세요.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문화와 국제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송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외대 디지털콘텐츠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동안 꾸준히 언어와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탐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합격하게 된다면 언어와 융합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과목뿐만 아니라 고학년에 수강하는 문화콘텐츠 창업과 현장연구와 같은 과목을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p> <p><b>Q2: 1, 2, 3학년 동안 동아리를 하였네요?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b>  A: 우선 1학년에는 역사 동아리에서 '철인왕후'라는 역사 드라마를 분석해보고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대사 속에서 역사왜곡과 고종오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설명) 2학년에는 스페인 대표언론인 '엘바이스'라는 동아리에서 스페인 현지의 다양한 보도를 통해 스페인의 지역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었으며 스페인 드라마에 대한 심화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설명)3학년에는 존 밀턴의 고전인 '아레오파지티카'라는 동아리에서 사회고발 단편영화 기획안을 제작해보았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스토리를 직접 구성하였습니다.</p> <p><b>Q3: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나요?</b>  A: 네, 저는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가지는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내러티브 설득효과 와 같은 이론을 적용하여 심화적인 탐구를 진행해보았습니다.</p> <p><b>Q4: 그러면 직접 제작해본 경험은 있나요?</b>  A: 네, 1~2학년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며 솜뿔 등 같은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중국영화인 흥등과 책상 서랍 속의 동화 (교수 소개에서 중국영화 연구를 하셔서 해당 부분을 어필.)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분석하고 제작 의도와 사용 기법 등을 직접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저만의 콘텐츠를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p> <p><b>Q5: 제2외국어랑 영어 단위 수가 많고, 사회 과목도 월등히 많네요? 선택과목인가요?</b>  A: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로 선택할 수 있었고, 사회 선택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2학년 세계문명과 미래사회, 국제정치, 3학년 현대세계의변화, 국제법, 지역이해 등의 국제계열 과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p> <p><b>Q6: 1학년부터 3학년을 걸쳐 성적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 본인만의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b>  A: 1학년에 낮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장 흥미 있던 과목인 제2외국어인 스페인어와 사회과목을 공부하여 가지게 된 열정과 동기가 좋은 영향이 되어 나머지 과목도 성적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p> <p><b>Q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b>  A: 끊임없이 진화하는 글로벌 문화 환경 속에서 국제·언어·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외대의 목표에 걸맞은 노력으로, 디지털 콘텐츠학과와 함께 성장하는 꼭! 필요한 학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b>학 과</b>	철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면접형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7분 이내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신원확인 후 수험번호 부착 → 대기 →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서론이 긴 답변의 형태보단 핵심이 단단한 화법의 답변이 좋을 듯 하다.</li> <li>▪ 면접이 끝나면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스스로 면접이란것에 부여하는 의미를 더는 것이 오히려 면접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전입 전과 후로 성적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를 비롯해 전학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떠하였는가</b></p> <p>A: 고등학교 시기동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작곡이라는 진로를 가지기도 했었는데, 전학을 오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작곡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는 작곡을 배우기에 환경이 적합하지 않았기에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성적 차이의 이유는 당시 현재와 미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여정의 의미에 대해 회의감을 가졌고 이러한 사고는 눈앞에 놓인 현재를 대하는 것에 미숙함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향후 목적지 없이 시작한 일들이 모여 하나의 도착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진로를 명확히 정하고 시작한다는 생각보다 내 앞에 놓인 현재에 충실하자는 태도로 학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후 성적이 점차 향상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p>				
<p><b>Q2: 자율활동 관련 질문(인간본성의 선과 악)</b></p> <p>A: 저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러한 악한 본성만을 드러낸다면 사회는 구성되지 않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의 악한본성을 숨긴채 사회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p>				
<p><b>Q3: 동아리 활동 관련 질문(진행했던 부스 활동 관련 질문)</b></p> <p>A: 동아리 부스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해외원조에 대한 생각을 탐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설문문항은 어떠한 상황에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한다와, 전지구적 관점에서 해외원조는 유의미한 일이다로 두가지의 문항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여 의견을 물어보고 자신의 의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학생들은 다른 나라를 돕는 일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원조에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비쳤습니다.(시간상의 이유로 답변중 중단됨.)</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과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입실 → 지정된 면접 대기실 입실 → 면접 대기실 퇴실 이후, 복도에서 최종 대기 → 7분 면접 → 퇴실 및 귀가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의 모든 과의 면접이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li> <li>서울캠퍼스 교내 및 주변이 좁아서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미리 가세요.</li> <li>당일 주차는 서울캠퍼스 내의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li> <li>인문과학관 앞에 입실을 위한 줄과 수험생들을 기다리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그러나 입실 시작 10분 전에 가서 미리 줄 서세요.</li> <li>본관 1층 화장실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li> <li>면접 대기실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으나 감독관 안내에 따라 퇴실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li> <li>긴장을 풀어줄 것을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순서는 2/3쯤이어서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때 긴장과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가져갔던 물과 박하 맛 사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li> <li>면접 대기실에서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은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만약 가지고 들어가실 경우, 전원을 끄시고 가방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합니다.</li> <li>제가 면접 볼 당시에는 면접관 2분이 모두 교수님이셨습니다. 학부 홈페이지에서 교수님들의 정보를 미리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li> <li>면접관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바로 본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준비는 해가시되, 물어보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li> <li>외국어 특성화 대학이지만 면접고사에서의 외국어 사용이 제한됩니다.</li> <li>면접 고사는 또 하나의 시험입니다.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합니다.</li> <li>저는 면접에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학생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실수하더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해지셔야 합니다.</li> <li>또한 말을 실제로 뱉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와 대면으로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li> <li>대면으로 연습하는 것이 힘들다면,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연습하세요.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세요.</li> <li>면접은 1차 서류 심사에서 검증된 지원자가 보는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단점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점에 대해서 후회 없이 다 말하고 오세요!</li> <li>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면접 고사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을 응원합니다!</li> </ul>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입실해서 착석 후에 면접관 한 분께서 면접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해 주신 이후에 바로 시작했어요.

**Q1: OTT 산업과 스포츠산업의 관계가 경쟁재가 아닌 보완재로 작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활동인가요?**

A: 최근 OTT 산업이 커짐에 따라 스포츠 팬들이 OTT 산업으로 유출되어 유입되는 현상을 보고서 진행하게 된 활동입니다. 이에 저는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유지 하거나 새로운 팬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에 OTT 요소를 적용하여 경쟁재가 아닌 보완재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1-1: 실제로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한 통신사의 광고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VR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에서 야구장에 입장하여 온라인을 통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크다는 스포츠의 한계점을 OTT 산업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Q2: 글로벌 제품 개발과 마케팅믹스 전략에 대해서 각각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A: 글로벌 제품 개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스타 선수를 모델로 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선수의 인지도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케팅믹스 전략으로 선수와 계약하여 관리 및 후원하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언더아머를 들 수 있습니다. 언더아머는 Stephen Curry 선수와 계약하여 제품 착용을 통한 광고를 하거나 비시즌 기간에는 선수의 캠프를 주관하고 후원하는 형식으로 하여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좋은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Q3: ESG 경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 ESG 경영은 친환경적이고 사회 공헌적 접근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이며,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 창출을 하는 경영을 뜻합니다.

**Q4: 그럼, 스포츠에 ESG를 접목한 사례가 있나요?**

A: SSG 랜더스 프로야구단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SSG 랜더스에서는 리사이클링한 원료로 만든 유니폼을 제작하여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구단은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면서 구단의 이미지마저 챙기는 마케팅의 사례가 있습니다.

**Q5: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마케팅은 무엇인가요?**

A: 앞서 말씀드렸던 언더아머 기업의 다른 사례로 브랜드의 이미지와 스포츠 가치를 동시에 높였던 광고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언더아머는 운동 잘하는 사람만 입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언더아머는 운동에 입문하는 사람을 광고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고 누구나 잘할 수 있음을 홍보했습니다. 이로써 언더아머는 브랜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접근성까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기업의 이미지만을 높이는 마케터가 아닌 스포츠의 가치도 동시에 높이는 마케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면접 시간이 다 되었음을 말씀해주시면서 퇴실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대의 끝 무렵에 본 면접이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을 칼같이 지키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마지막 말의 발언 기회를 여쭙어보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항공대학교	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고른기회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10분에 맞춰 설정된 타이머를 누르며 면접 시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외로 친절한 분위기에서, 공격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면접이라 떨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li> <li>▪ 대부분의 질문이 교내 생활에 대한 소감 위주의 질문이어서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가면 좋을 것 같다.</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과 소감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b></p> <p>A: 주로 체육관련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다. 운동을 좋아하고 나름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었고, 특히 축구나 플라잉 디스크같은 팀 스포츠를 즐겨했었다. 팀 스포츠 활동에서 팀원들의특성에 맞는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이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 한층 더 예의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나 자신 역시 한사람 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p> <p><b>Q2: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답변해보세요</b></p> <p>A: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식생분포 하한선이 점점 상승되는 것을 사례로 이를 막기 위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p> <p><b>Q3: 매해 결석/지각/조퇴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b></p> <p>A: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런 고민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학교 출석이 제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이 때문에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3학년때 대입을 준비하면서 학교의 중요성과 학업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이후로는 학교 출결/수업 등에 열심히 참여하며 대학 입학에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한남대학교	<b>학 과</b>	건축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지역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생기부 기반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모의 면접을 통해 여러 질문을 접하는게 중요함.</li> <li>▪ 생기부 관련 질문 보다는 그 외의 질문들이 많았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b>          A: 일단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좋은 건축가로서의 꿈을 가져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학과에 입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실력을 가져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b>Q2: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를 해주세요.</b>          A: 저는 어렸을때부터 집안을 꾸미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방이어도 가구를 배치하는 방법등에 따라서 다른 공간처럼 보이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공간을 꾸미는에서 공간을 만드는 건축에 관심이 생겼고, 건축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건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3: 우리학교에 왜 지원하였나요?</b>          A: 한남대는 예전부터 건축학과가 유명한 학교라고 알고있습니다. 좋은학교에서 실력을 기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동대학교	학과	자율전공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일반학생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4:00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예비소집 - 조별 대기실 이동 - 면접 대기 -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부 내용을 집중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이 대학을 왜 가야하는지, 내가 어떤 동기를 통해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느낌 (기독교 대학이므로 답변에 기독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 Q1: 한동대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가 한동대에 지원한 이유는 한동대에서의 배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로고민 중의 하나가 내가 배운 것으로 어떤 통로로 베풀 수 있을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슬로건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라면 선한 영향력의 방법과 도구를 배워나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 Q2: 입학하게 되서 전공하고 싶은 학과는 무엇인가요? (2학년)

A: 저는 제1전공으로 심리상담학부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상담이라는 학문은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준과 편견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지만 상담 안에서 만큼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런 점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이며 이 세상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2전공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1학년 때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Q3: 학생부에 음식과 심리학의 연관성에 대해 탐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밀키트, 혼밥 등이 유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보며 음식과 우리의 감정이 A: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탐구해본 결과 밀키트나 혼밥과 코로나는 식사과정에서 이뤄지는 소통이 저하되어있기 때문에 소통으로 인한 행복 호르몬의 발생횟수가 적어져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탐구 이후에 제 주변 친구들에게 밥은 잘 먹었니? 라며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단순하네요(호탕하게 웃으심).

### Q4: 많은 학생들이 상담심리를 전공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2학년이 되면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A: 제 생각에는 상담사는 다른 누군가를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자신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다루며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게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신의 결핍된 모습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 어려움을 느껴 다른 학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 Q5: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이 있을까요?

A: 한동대의 슬로건 중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편으로 처음부터 거대한 목표를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내 옆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 그 사람의 세상을 변화시켜나가고 빛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세상을 채워나가는 한동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한서대학교	<b>학 과</b>	항공관광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지역인재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15분	<b>면접위원 수</b>	3명
	<b>면접 절차</b>	대기실 → 신분확인 → 면접실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다운 이미지를 선호하여 다른 학교 면접에 비해 면접복보다 교복의 비율이 높은 편</li> <li>▪ 대기실에서 전자기기 사용불가→대기하면서 준비한 답변 외우고싶으면 프린트해가기</li> <li>▪ 면접고사 1~2주일 전에 나오는 예상문제가 있지만, 예상질문외의 질문도 나옴.</li> <li>▪ 면접관님들이 나의 생기부를 보시면서 면접이 진행됨.</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이 학과 들어오기위하여 노력한 것</b></p> <p>A: 저는 학창시절 토래교사 동아리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며 행복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여 승무원의 꿈을 키우고 확신한 뒤에 이 동아리에서 저와 다른사람을 이해하는법과 다양한 연령층을 대우하는법을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후에 승무원이 되어 승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비행을 선물해드리기위해서는 친절하고 공손한 말투와 행동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했기에 만나는 모든사람에게 밝은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항상 어떤 일이든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저로서 이 곳 한서대학교에 입학하여서도 다양한 현장실습과 학과행사에 성실이 참여하여 학문과 덕행을 갈고닦아 꿈을 이루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p> <p><b>Q2: 생기부에 좋은 내용이 많은데 비결이 뭔지</b></p> <p>A: 저는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뛰어난 지원자입니다. 수업시간 중 피곤해도 졸지않고 집중하려고 노력했으며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질문을 하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반장의 역할을 맡아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오시기 전 미리 컴퓨터 켜놓기,칠판 닦아놓기 등의 선행을 나서서 하여 모범실천상을 수상하기도 한 저는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와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주신 빛을 습득하여 보다 더 넓은 곳을 환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이 성장하겠습니다.</p> <p><b>Q3: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b></p> <p>A: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은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렷한 제 의사를 표현하지못해 항상 마음한 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거절과 같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따져 신중하게 고민하고 동글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후에 승객들의 어려운 요청에도 무조건 수용이 아닌 조심스런 거절과 함께 다른 최선의 대안을 드리는 승무원이 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호서대학교	학과	동물보건복지학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호서인재	
면접 형식	면접 시간	7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수험생 대기실 입실 후 대기 → 면접실로 이동 후 면접 진행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에 미리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공통 질문(안)이 올라옴.</li> <li>공통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실시될 수 있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Q1: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b>  A: 저는 어릴 적부터 아픈 동물을 보면 치료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생활 중 실시한 관련 활동 언급)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 프로그램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고 21세기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b>Q2: 1학년 때보다 성적이 올랐는데,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b>  A: 2학년 때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엮어서 답변함.</p> <p><b>Q3: 저희 학과는 생명과학은 물론 화학도 중요한데, 화학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b>  A: 학과에 합격한다면 입학 전까지 화학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해서 오겠다고 답변함.</p> <p><b>Q4: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b>  A: 저는 동아리에서 동물실험의 옳고 그름, 윤리적 문제에 고찰하며 동물실험의 철학적 옹호 가능성에 대해 개인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동물이 인간을 위해 실험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생명체로서의 존재 의미와 인간 문화 발전의 실험 대상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한다고 느낀 경험이었습니다.</p> <p><b>Q5: 조별 과제를 하면서 생긴 갈등이 어떻게 해결하는 편인가요?</b>  A: 우선 팀원의 의견을 우선시로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통해 팀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느낀 점 얘기함)</p> <p><b>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b>  A: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능이라면 전 그 재능이 많다 못해 흘러넘치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배워 차세대를 대표하는 동물보건사가 될 자신도 있습니다. 뽑아주신다면 뽑으신 만큼 후회하지 않도록 저의 꿈을 호서 대학교에서 키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호원대학교	<b>학 과</b>	간호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교과	<b>전 형 명</b>	일반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1층 안내 → 대기실 입실 → 신분 확인 → 면접 안내 → 면접 → 퇴실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5명과 면접위원 2명</li> <li>▪ 전자기기와 뽑아간 자료들은 내고 면접실 들어가기 10분 전에 뽑기통에서 면접질문을 뽑아요. 뽑은 질문은 외워서 저는 ~한 질문을 뽑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해야 해요.</li> <li>▪ 잔머리 최대한 없이 머리 묶는게 좋아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호원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주세요.</b>				
<p>A: 제가 호원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사이트에서 호원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서 제게 말씀해주는 부분과 잘 맞았습니다. 바로 참된 인간이 되어 스스로 자립해서 보람있는 인생을 사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호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원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러한 부분은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계셔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원대학교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학생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더 호원대를 다니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b>Q2: 뽑기질문 말해주세요.</b>				
<p>A: 제가 뽑은 질문은 간호사가 전문적인 이유와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 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의료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해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고 약품을 투여하거나 외상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관찰, 기록하여 의사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에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약품 투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나이대, 상태, 질병마다 약품을 정확히 투여해야하고 정확한 양을 투여해야하기 때문입니다.</p>				
<b>Q3: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과 호원대학교 건학이념과 비슷한 점이 많네요. 집 가훈이 뭔가요?</b>				
<p>A: 저희 집 가훈은 정의입니다.(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라 그냥 이렇게만 말했더니 교수님께서 정의롭게 살자라는 뜻이죠? 좋네요. 이려고 끝났습니다.)</p>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홍익대학교	학과	금속조형디자인과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전형명	미술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절차	22분 문제풀이 후 10분간 면접		
면접 특징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질문은 외운다기보다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말해야 함.</li> <li>▪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함.</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 Q1: 1번 문제 해 볼 수 있으실까요?

A: 네. 저는 세 작품 모두 작가의 감정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얼굴의 옆부분을 어둡게 앞부분을 밝게 하여 대비를 뚜렷히 준 구상적 그림입니다. 제목과 함께 봤을 때 저는 이 그림이 마치 작가가 자신의 절친 시절을 떠올리며 그려낸 자화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엔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어서 얼굴 옆부분을 어둡게 처리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런 과거의 고통마저도 아름답게 보여 앞부분에서 빛이 와 비추는 것처럼 처리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재해석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사람의 얼굴 형태를 왜곡시켜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둡고 흐릿하게 표현한 것에서 작가의 우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현대인의 모습을 그린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를 잘 안믿고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왜곡된 표현이 마치 자신의 감정을 속인 것이 안에서 꿈이 터져나와 얼굴에 드러난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윤곽선이 강조된 그림인데 이 그림에 있는 남성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경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파리와 함께 슬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배경에 있는 파리가 인상깊었는데 작가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것 같았고 낙엽처럼 보이기도 해서 분위기를 한 층 심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림에서 가을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는데 제가 만약 작가라면 각 계절을 상징할 수 있는 식물을 배경으로 해서 시리즈 자화상 작품을 낼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 자화상 모두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작품들입니다

#### Q2: 이 세 그림 중 어떤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1번 문제풀이)

A: 두번째 작품이 가장 인상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이 작품은 현대의 모순과 현대인의 문제점을 꼬집는 듯한 작품이라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 Q3: 왜 표정을 그렇게 그렸나요?(2번 문제 풀이)

A: 반성을 할 때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다시 돌아보기 때문에 자괴감이 느껴질 수 있어 눈은 슬픈 모습으로 그렸고 반성으로 인해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입은 웃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 Q4: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A: 제 꿈은 전통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악세서리를 만드는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금속조형디자인학과에서 심도 깊은 금속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소모임 등에 참여하여 여러 경험을 쌓아 저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발전시켜 저의 예술적 가치관을 담은 저만의 주얼리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홍익대학교	<b>학 과</b>	예술학과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미술우수자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22분 동안 제시된 문항 풀고 잠시 대기 후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님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다.</li> <li>▪ 면접 대기시간동안 가져온 준비물, 교과서 등 <b>아무것도 못본다.</b></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지원동기 먼저 말씀해주세요</b>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시회를 많이 봤었는데요, 코로나가 유행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못보게 되어서 상실감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전시회를 광고하는 영상을 보고 온라인 전시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온라인 전시회를 만들어 발표를 했던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부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 입학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는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b>Q2: 1번문제 해설해주세요</b>				
A: [작품 설명]				
<b>Q3: 2번문제 해설해주세요</b>				
A: [작품 설명]				
<b>Q4: 온라인 전시회가 더 좋은점이 뭐가 있어요?</b>				
A: 온라인 전시회는 질감이 잘 안느껴지지만, 이는 디지털 화면상 어쩔수 없는 한계인거 같고.. 오프라인 전시회에 비해 발이 안아픕니다. (면접관들께서 크게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b>Q5: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b>				
A: 오, 저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생애를 알고 이해할수록 그의 작품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가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b>Q6: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는?</b>				
A: 살바도르 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기행으로 유명한데요 우주복 입고 연설하다 질식사 할 뻔 했던적도 있고, 개미핥기를 데리고 산책도 했었고,, 근데 저는 1,2년 전 쯤 그의 전시회를 보고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일찍 죽은 형을 따라하기도 했었고 그의 말년에는 그의 연인인 갈라가 그를 만나주지 않아서 불쌍하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그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b>Q7: 그 전시회가 왜 인상깊었어요?</b>				
A: 일단 서울에 처음 상경했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조금 기억에 남은것도 있고 달리의 안유명한 작품들, 그의 여동생들 그런 작품을 보면서 그의 초현실주의적인 모양? 시각적 표현들을 더 잘 이해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가 뭐가 좋았냐면,, 음 구성이 되게 좋았던거 같습니다. 전시회 딱 들어가면 먼저 달리의 인생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데요, 거기서 달리가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 형을 따라했다고 이래서 그 전시회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Q8: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A: 검정색을 좋아합니다. 깔끔하고 무거워서 좋아합니다.

**Q9: 검정색보다 더 어두운 색이 있을까요?**

A: 음.. 제가 아는 작가 중에 적갈색으로 그림자를 그리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한테는 적갈색이 검정색보다 더 어두울 것 같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홍익대학교	<b>학 과</b>	판화과	
<b>전형유형</b>	실기/실적위주	<b>전 형 명</b>	미술우수자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무작위로 호명, 22분 문제풀이 후 10분간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번 문제에 대한 꼬리질문이 많으니 근거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함.</li> <li>▪ 문제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생각지도 못한 유형이 나왔음.</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p><b>1. (가), (나), (다)의 표현 방식을 설명하고 작가의 의도를 추측하여 설명하시오.</b>          (가): 칼레의 시민, (나): 스퀘어-M, 커뮤니케이션, (다): 녹아내리는 사람들</p> <p><b>2. 아래 문장은 어떤 작품을 표현한 문장이다. 문장이 표현한 작품을 상상하여 그리시오.</b>          '이 작품은 병약하고 추한 인간의 모습의 미묘한 감정을 강한 명암 대비로 표현한 작품이다.'(기억안남)</p> <p><b>Q1: 1번 문제 답변해주세요.</b>          A: 우선 저는 세 작품의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보았습니다. 공통점은 사회와 사람들, 입체작품입니다. (가) 작품을 저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조각상을 청동 같은 소재로 만들었고 (나), (다) 작품과 비교했을 때 다소 옛적인 모습을 보아, 보는 이에게 웅장함을 주며 역사적 아픔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작품에선 저는 두 가지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제목을 보아, 두 사람이 스퀘어, 즉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현대적 기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상황으로 두 사람이 같은 색,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걸 봐선 자신을 미디어 속에서 마주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 작품을 보았을 때 사람 한 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럿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람들, 사회 집단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소재가 얼음인 만큼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를 전하는 작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p> <p><b>Q1-1: 이 세 작품은 시간에 대한 의미를 담은 작품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설명해보세요.</b>          A: 음, (가) 작품은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역사, 즉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이 칼레 광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역사를 생각할 것입니다. (나) 작품은 미디어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현재를 말하는 작품 같습니다. 하늘색같은 색상 또한 (가)보다 현대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녹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이어주며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p> <p><b>Q2: 2번 문제 답변해주세요.</b>          A: 네, 이 그림의 제목은 '그레고르'입니다. 저는 '이 작품은 병약하고 추한 인간의 모습의 미묘한 감정을 강한 명암 대비로 표현한 작품이다.'라는 문장을 보고 최근 읽고 있는 책인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으로 떠올렸는데요, 이 문장이 설명하는 것이 변신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변신은 그레고르 짐자라는 주인공이 어느날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해버렸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저는 그레고르라는 인물과 그가 겪는 것들이 병약하고 추한 인간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으며 그레고르를 중심으로 그의 가족과의 갈등을 미묘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레고르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늘 자신의 방문에 붙어서 가족들의 대화를 엿듣곤 했는데요, 그레고르는 자신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재론 바퀴벌레가 되었기 때문에 문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르가 방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p>				

**Q2-1: 그럼 저 팔에 붙어있는 것들이 모두 바퀴벌레인가요? (당황하신 것 같았음)**

A: (나도 당황함) 네, 그렇습니다.

**Q2-2: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뭘 더 어떻게 하고 싶나요?**

A: 강한 대비를 위해 위에서부터 그라데이션을 더 넣고 바퀴벌레를 문 주위로 더 그려넣어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습니다.

**Q2-2-1: 그러면 손이 매몰되는데요?**

A: (당황함) 어, 네. 그레고르는 자신을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재론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감정을 바퀴벌레로 둘러싸인 것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당황해서 횡설수설)

**Q2-3: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앞에 까먹으신 듯)**

A: 그레고르라고 짓고 싶습니다.

**Q2-4: 그림에 한 가지 컬러를 넣는다면 어떤 색으로 넣고 싶나요?**

A: 음, 검정색으로 넣고 싶습니다.(소묘인거 깜빡함. 완전 블랙으로 더 진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었는데 실수함)

**Q2-4-1: 그러면 지금 한 거랑 다를 게 없는데?**

A: (이때 알아차림) 아! 어, 그러면 갈색으로 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더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남), (1분 남았다는 사인)

**Q3: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 지원한 이유가 뭔지 말해주세요.**

A: 저는 판화 작가가 되고 싶어서 홍익대학교 판화과에 지원하였습니다. 2학년 때 서양화를 배우던 중 실크스크린으로 판화를 처음 접했고 그 때 목판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후가쿠 36경이 목판화인 것을 보고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다고 생각했고 정교한 작업을 좋아하는 저와 잘 맞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판화를 찍을 때 나타나는 우연하고 다양한 질감, 표현을 작업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판화를 전공하고자 결심하고 판화에 다양한 것을 담기 위해 동양화 또한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현대 판화를 이끌어나가는 판화 작가가 되기 위해 홍익대학교 판화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4: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이는 옆에 바구니에 두고 나가시면 됩니다.**

A: 감사합니다.

저희과는 14시 36분에 1번 수험생이 문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분 정도 간격으로 랜덤하게 수험생을 호명합니다. 연필 세 자루와 지우개 하나를 받고 문제 풀이 합니다. 면접장엔 여자, 남자 한 분씩 계셨습니다. 압박면접은 아니었고 남자분께서 그림 꼬리질문을 계속 하셨는데 '왜 이렇게 그렸는가?'를 계속 물으셨습니다. 면접 문제 1번에선 작가의 의도 추측이 나와서 당황했고 2번에선 지금까지 준비했던 유형과 완전히 벗어나서 쓸 수 있는 소재가 없어 당황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문제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홍익대학교(세종)	<b>학 과</b>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미술우수자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22분 문제풀이 후 10분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준비한 것을 차분히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li> </ul>		
<b>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b>				
<b>Q1: 1번 (가) 문제 설명해 주세요.</b>				
A: 저는 장애인 표시 픽토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본래 있던 휠체어를 탄 장애인 픽토그램 속 모습은 딱딱하고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듯 수동적이어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래 픽토그램을 수정하여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를 끌고 나아가는 역동적 자세로 바꾸어 능동적 모습으로 바뀌었고, 저 역시도 한국의 주차장에서 이렇게 수정된 장애인 픽토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b>Q2: 1번 (나) 문제 설명해 주세요.</b>				
A: 픽토그램은 성별,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적인 픽토그램을 만들기위해서는 먼저 한눈에 빠르고 명시적이게 알아볼수있어야 하므로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Q3: 픽토그램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본 편리한 기능을 주었던 픽토그램 중에 어떤 픽토그램이 기억나나요?</b>				
A: 픽토그램은 언어를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그림으로 쉽게알아볼수있다는점이 좋은것같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봤던 픽토그램 중 화장실 픽토그램이 생각나는데요, 간단히 여성과 남성을 명시적으로 잘 표현하여 어린아이들도 글자 읽지 않고도 스스로 잘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가장 많이 접하고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픽토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Q4: 문제2 설명해주세요.</b>				
A: '아이들이 카페에서 마구 뛰어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를 주제로 표현함.				
<b>Q5: 학교에서 한 활동 중에 학과와 관련해서 어필할 수 있는 점은?</b>				
A: 저는 동아리 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유저블 컵에 들어갈 그림을 직접 디자인해본 경험과 동물 실험문제를 주제로도 실험을 당하는 동물의 시점에서 스토리를 전개하며 동화책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해보면서 저의 진로인 게임그래픽 디자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b>Q6: 좋아하는 게임이 있나요?</b>				
A: 저는 닌텐도 스위치에서 나온 동물의 숲을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동물캐릭터들의 모습이 단순하게 보일수있지만, 사실 플레이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홀로 돌아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게임제작가가 공간의 퀄리티에 힘을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물의 숲에서는 박물관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플레이어가 현실에서 직접 본 적이 있는 동식물과 화석 등의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습니다. 이것들을 확대해보았을 때 텍스처가 섬세히 구현되어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직접본적이 있을법한 요소들은 실제처럼 구현시킴으로써 게임을				



하며 몰입감을 깨지 않는다는 점이 좋은 점 이었던 것 같습니다.

**Q7: 잘하는게 무엇인가요?**

A: 저는 디지털기구나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캐릭터를 그리고 만드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Q8: 마지막 15초 동안 하고 싶은 말 해 보세요.**

A: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게임을 소장하기로 결정하여 예술의 범주로써 인정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처럼 저도 예술로써 향유할 수 있는 게임을 이곳 홍익대학교 게임그래픽학과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 2024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b>대 학 명</b>		홍익대학교(세종)	<b>학 과</b>	디자인컨버전스학부
<b>전형유형</b>		학생부종합	<b>전 형 명</b>	미술우수자
<b>면접 형식</b>	<b>면접 시간</b>	10분	<b>면접위원 수</b>	2명
	<b>면접 절차</b>	22분 문제풀이 후 10분 면접		
<b>면접 특징</b> [후배조언,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분위기가 좋다.</li> <li>▪ 대답에 대해 반응을 잘 해주신다.</li> </ul>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1: 1번문제 설명해 주세요.**

A: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마티스의 작품 중 크게 인상 깊은 작품은 없지만 마티스만의 추상적이고 단순한 화풍을 좋아합니다. 간결하고 눈에 띄는 색감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으며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적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영국의 날씨 프로젝트와 wave라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해와 바다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좋은 디자인이란 기존의 것에서 장점은 최대화 시키고 단점은 최소화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구하는 좋은 디자인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실적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2: 2번 문제 설명해 주세요.**

A: 저는 우선 자화상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싶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가장 솔직한 나의 모습이고 본인에 대한 본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해서 일을 수행하는 저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몰입했던 경험이 코딩을 독학하여 직접 웹화면을 구현해봤던 일이라 생각해 그 때 당시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신체부위 중 눈을 과장하여 눈동자 속에 상황이 비치도록 해 그 때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눈동자 속에 눈동자가 연속적으로 비치는 연출을 통해 몰입을 표현하려 했고, 다른 쪽 눈동자에는 컴퓨터 화면이 비치는 연출을 통해 코딩을 했던 경험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배경에 햇빛이 번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 밤을 새워 가며 코딩을 했던 그 때의 상황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Q3: 2번문제 작품에 제목을 짓는다면 뭐로 하고 싶어요?**

A: '몰입' 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몰입의 순간 그 자체를 그린 것 이기 때문입니다.

**Q4: 사실적 표현을 사용하는 작가 중에 기억나는 작가가 있어요?**

A: 어...인상 깊은 작가는 없지만 로코코 시대 그림을 좋아합니다. 로코코 시대 특유의 색감과 화려한 묘사가 매우 인상 깊습니다.

**Q5: 음~인상 깊은 작가는 없어요?**

A: ...네... ㅎㅎ;;

**Q6: 아까 1번문제에서 사실적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추상적 표현이 별로인 이유는 뭐예요?**

A: 추상적 표현은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잘 나타나지 않고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작품을 관람할 때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 만으로도 작품을 이해하는데에 큰 무리가 없는 사실적 표현 작품과 달리, 추상적인 그림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시 되고, 이러한 점은 일반인들이 그림을 가볍게 즐기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미술비평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추상적인 그림은 다소 난해하여 그림을 관람하는 동안 이게 무슨 그림일까 하는 의문만 생긴 채 미술관을 나왔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추상적 표현이 사실적 표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